

蔚山大學校博物館 學術研究叢書 第11輯

# 蔚山大安里遺蹟

2002

蔚山大學校博物館  
蔚山廣域市江南教育廳

## \* 일 러 두 기

1. 遺構實測圖의 방향표시는 磁北이다.
2. 遺構의 平面과 斷面に 표시된 수치는 標高를 나타낸다.
3. 遺構의 축소비는 1/30을 기준으로 했으며, 甕棺墓는 1/20, 遺物은 土器 1/2, 鐵器 1/2, 그리고 일부 대형유물은 별도의 축소비를 적용하였고 그 내용은 하단에 명기해 두었다.
4. 일부 대형유구의 평면도는 遺構配置圖로 대치하며, 斷面圖만 기재하였다.

## 간행사

울산 대안리유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250-1번지 일대에 자리잡고 있다. 이 곳은 울산의 남쪽 경계로 부산의 기장군과 접하고 있다. 이 유적은 용곡산(해발 207m)의 북서쪽 사면에 있는데, 용곡산의 동쪽 해안면에는 신암리유적과 같은 신석기시대의 유적이 있다. 이 유적의 맞은 편에는 대운산과 화장산이 펼쳐져 있고, 이 사이 계곡으로 남창천이 흐르고 있다. 대운산에는 삼국시대의 대규모 분묘군인 운화리고분군이 있고, 남창천을 끼고 삼국시대의 유적인 삼광리고분군이 있다.

본 박물관은 대안리유적 지역이 초등학교 부지로 선정되면서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조사들을 기초로 2000년 7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구로는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7동과 삼한전기의 목관묘 65기, 옹관묘 9기가 확인되었고, 삼국시대의 석곽묘 1기와 조선시대의 민묘 2기, 묘막지 2개소가 확인되었다.

특히 삼한전기의 대표적인 묘제인 목관묘가 65기나 확인된 것은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다운동유적에서 단편적인 목관묘 자료가 확인되었을 뿐 대규모의 본격적인 목관묘 유적 조사가 없었는데, 이번 대안리유적 발굴에서 다수의 독립적인 목관묘유적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삼한시기 울산 지역사 연구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유구의 숫자에 비해서 출토 유물이 빈약한 것은 앞으로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경주 월산리Ⅱ유적은 경주시 내남면 월산리 866-1번지 일대에 자리잡고 있다. 이 곳은 경주를 관통하여 흐르는 형산강의 상류 지역으로 울산광역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 유적의 주변에는 봉계리유적을 비롯하여 많은 수의 청동기시대 및 삼국시대 유적이 분포하고 있고, 본 박물관의 조사에서도 청동기시대의 소규모 취락 유구와 삼국시대 후기의 생활 유구가 확인되었다.

대안리유적의 조사에는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청의 담당자와 울산광역시청 학예연구사 유병일의 적극적인 협조와 현장지원이 있었다. 월산리Ⅱ유적의 조사에는 (주)덕성과 경주시청 학예연구사 이채경의 많은 도움과 지원이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이들 유적의 조사단을 조직하고 지도한 전 울산대학교 박물관장 전호태 교수와 현장 작업뿐만 아니라 보고서 발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박물관 연구원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02년 10월

울산대학교 박물관장 양상현

# 目 次

I. 머리말 .....	1
II. 遺蹟의 位置와 環境 .....	5
III. 調査內容 .....	11
1. 靑銅器時代 住居址와 溝 .....	11
2. 三韓時代의 墳墓 .....	31
3. 三國時代의 墳墓 .....	120
4. 朝鮮時代 遺構 및 기타 遺構 .....	123
IV. 考察 .....	131
V. 맺음말 .....	139

“부록” 경주 월산리Ⅱ유적



# 圖 面 目 次

圖面 1. 遺蹟 位置와 周邊遺蹟 分布圖(1/50,000) .....	3
圖面 2. 遺蹟周邊 地形圖(1/50,000) 『1918년 조선총독부 제작』 .....	4
圖面 3. 遺蹟 地形圖(1/5,000) .....	6
圖面 4. 遺構 配置圖(1/800) .....	8
圖面 5. 青銅器時代遺構 配置圖(1/500) .....	9
圖面 6. 1號 住居址<1/60> 出土遺物<1/2> .....	12
圖面 7. 2號 住居址<1/60> .....	14
圖面 8. 2號 住居址 出土遺物<1, 2 : 1/3, 3~7 : 1/2> .....	15
圖面 9. 3號 住居址<1/60> 및 出土遺物<1/3> .....	17
圖面 10. 3號 住居址 出土遺物<1/2> .....	18
圖面 11. 4號 住居址<1/60> 및 出土遺物<1/2> .....	20
圖面 12. 5號 住居址<1/60> .....	21
圖面 13. 5號 住居址 出土遺物<1 : 1/3, 2~4 : 1/2> .....	22
圖面 14. 6號 住居址<1/60> .....	34
圖面 15. 7號 住居址<1/60> .....	24
圖面 16. 1號 溝 土層<1/60>과 出土遺物<1~6 : 1/3, 7 : 1/2> .....	25
圖面 17. 2號 溝 土層<1/60>과 出土遺物<1~4 : 1/3, 5 : 1/2> .....	27
圖面 18. 三韓時代 遺構 配置圖(1/500) .....	29
圖面 19. 1號 木棺墓<1/30> .....	31
圖面 20. 2號 木棺墓<1/30>와 出土遺物<1 : 1/4, 2, 3 : 1/3> .....	32
圖面 21. 2號 木棺墓 出土遺物<1/2> .....	33
圖面 22. 3號 木棺墓<1/30>와 出土遺物<1/3> .....	35
圖面 23. 4號 木棺墓<1/30>와 出土遺物<1/2> .....	37
圖面 24. 5號 木棺墓<1/30>와 出土遺物<1/3> .....	38
圖面 25. 6號 木棺墓<1/30> .....	39
圖面 26. 7號 木棺墓<1/30> .....	40
圖面 27. 8號 土壇墓<1/30> .....	40
圖面 28. 9號 木棺墓<1/30>와 出土遺物<1/2> .....	42

圖面 29. 9號 木棺墓 出土遺物<1/4> .....	43
圖面 30. 10號 木棺墓<1/30>斗 出土遺物<1/2> .....	44
圖面 31. 11號 木棺墓<1/30> .....	45
圖面 32. 12號 木棺墓<1/30> .....	45
圖面 33. 13號 木棺墓<1/30> .....	46
圖面 34. 14號 木棺墓<1/30> .....	47
圖面 35. 15號 木棺墓<1/30>斗 出土遺物<1/2> .....	48
圖面 36. 16號 木棺墓<1/30> .....	49
圖面 37. 16號 木棺墓 出土遺物<1/2> .....	50
圖面 38. 17號 土壙墓<1/30> .....	51
圖面 39. 18號 木棺墓<1/30> .....	52
圖面 40. 18號 木棺墓斗 出土遺物<1 : 1/3, 2, 3 : 1/2> .....	53
圖面 41. 19號 木棺墓<1/30>斗 出土遺物<1/2> .....	54
圖面 42. 20號 木棺墓<1/30> .....	55
圖面 43. 21號 木棺墓<1/30> .....	56
圖面 44. 22號 木棺墓<1/30>斗 出土遺物<1/2> .....	57
圖面 45. 23號 土壙墓<1/30> .....	58
圖面 46. 24號 木棺墓<1/30>斗 出土遺物<1/3> .....	59
圖面 47. 25號 木棺墓<1/30>斗 出土遺物<1/2> .....	61
圖面 48. 26號 木棺墓<1/30> .....	62
圖面 49. 27號 木棺墓<1/30>斗 出土遺物<1/2> .....	63
圖面 50. 28號 木棺墓<1/30>斗 出土遺物<1 : 1/3, 2 : 1/2> .....	65
圖面 51. 29號 木棺墓<1/30> .....	66
圖面 52. 30號 木棺墓<1/30>斗 出土遺物<1/2> .....	67
圖面 53. 31號 木棺墓<1/30> .....	68
圖面 54. 32號 土壙墓<1/30>斗 出土遺物<1/3> .....	69
圖面 55. 33號 土壙墓<1/30> .....	69
圖面 56. 34號 木棺墓<1/30> .....	71
圖面 57. 34號 木棺墓 出土遺物<1, 3 : 1/5, 2, 4 : 1/3, 5, 6 : 1/2> .....	72
圖面 58. 35號 木棺墓<1/30> .....	74
圖面 59. 36號 木棺墓<1/30> .....	75

圖面 60. 37號 木棺墓<1/30> .....	75
圖面 61. 38號 木棺墓<1/30> .....	76
圖面 62. 39號 木棺墓<1/30> .....	77
圖面 63. 40號 木棺墓<1/30> .....	77
圖面 64. 41號 土壙墓<1/30> .....	78
圖面 65. 42號 木棺墓<1/30> .....	79
圖面 66. 43號 木棺墓<1/30>斗 出土遺物<1 : 1/3, 2 : 1/2, 3 : 1/1> .....	80
圖面 67. 44號 木棺墓<1/30>斗 出土遺物<1 : 1/1> .....	81
圖面 68. 45號 土壙墓<1/30> .....	82
圖面 69. 46號 木棺墓<1/30> .....	83
圖面 70. 47號 土壙墓<1/30> .....	84
圖面 71. 48號 木棺墓<1/30>斗 出土遺物<1/2> .....	85
圖面 72. 49號 土壙墓<1/30> .....	86
圖面 73. 50號 木棺墓<1/30> .....	87
圖面 74. 51號 木棺墓<1/30> .....	88
圖面 75. 51號 木棺墓 出土遺物<1/2> .....	89
圖面 76. 52號 木棺墓<1/30> .....	90
圖面 77. 53號 木棺墓<1/30>斗 出土遺物<1/3> .....	91
圖面 78. 54號 木棺墓<1/30>斗 出土遺物<1/2> .....	92
圖面 79. 54號 木棺墓 出土遺物<1/2> .....	93
圖面 80. 55號 木棺墓<1/30> .....	94
圖面 81. 56號 木棺墓<1/30> .....	95
圖面 82. 57號 木棺墓<1/30>斗 出土遺物<1/3> .....	96
圖面 83. 58號 木棺墓<1/30> .....	97
圖面 84. 59號 木棺墓<1/30>斗 出土遺物<1/2> .....	98
圖面 85. 59號 木棺墓 出土遺物<1/3> .....	99
圖面 86. 60號 木棺墓<1/30> .....	100
圖面 87. 61號 木棺墓<1/30>斗 出土遺物<1/2> .....	101
圖面 88. 62號 木棺墓<1/30> .....	102
圖面 89. 62號 木棺墓 出土遺物<1 : 1/3, 2~4 : 1/2> .....	103
圖面 90. 63號 木棺墓<1/30> .....	105

圖面 91. 63號 木棺墓 出土遺物<1/2> .....	106
圖面 92. 64號 土壙墓<1/30> .....	107
圖面 93. 65號 土壙墓<1/30> .....	108
圖面 94. 1號 甕棺墓<1/20>와 出土遺物<1/5> .....	109
圖面 95. 2號 甕棺墓<1/20>와 出土遺物<1/5> .....	110
圖面 96. 3號 甕棺墓<1/20>와 出土遺物< 1, 2 : 1/5, 3 : 1/1> .....	112
圖面 97. 4號 甕棺墓<1/20>와 出土遺物<1/5> .....	113
圖面 98. 5號 甕棺墓<1/20>와 出土遺物<1/5> .....	114
圖面 99. 6號 甕棺墓<1/20>와 出土遺物<1/5> .....	115
圖面 100. 7號 甕棺墓<1/20>와 出土遺物<1/5> .....	116
圖面 101. 8號 甕棺墓<1/20> .....	117
圖面 102. 8號 甕棺墓 出土遺物<1/6> .....	118
圖面 103. 9號 甕棺墓<1/20>와 出土遺物<1, 2 : 1/5, 3 : 1/1> .....	119
圖面 104. 1號 石槨墓<1/30>와 出土遺物<1/3> .....	121
圖面 105. 3號 溝 平面圖<1/300>, 土層圖<1/60> 및 出土遺物<1/3> .....	122
圖面 106. 1號 民墓<1/30>와 出土遺物<1/2> .....	124
圖面 107. 2號 民墓<1/30> .....	125
圖面 108. 1號 豎穴遺構<1/60>와 出土遺物<1/3> .....	126
圖面 109. 2號 豎穴遺構<1/60>와 出土遺物<1/3> .....	127
圖面 110. 4號 溝 平面圖<1/300>, 土層圖<1/60> .....	128
圖面 111. 4號 溝 出土遺物<1/2> .....	129
圖面 112. 삼가마 平 · 斷面圖<1/60> .....	129

## 圖版目次

圖版 1. 遺蹟 遠景(1)  및 全景(2) .....	143
圖版 2. 60號 木棺墓 周邊 全景(1)  및 2號 住居址 周邊 全景(2) .....	144
圖版 3. 1號 全景(1), 住居址 柱穴(2), 壁溝內 柱穴(3), 調查前 狀態(4), 壁溝內 柱穴狀態(5) .....	145
圖版 4. 1號 住居址 短軸 土層(1), 壁溝  및 壁溝內 柱穴 狀態(2, 3), 出土遺物(4~7) .....	146
圖版 5. 2號 住居址 全景, 貯藏孔(2), 격벽시설(3), 出土遺物(4~10) .....	147
圖版 6. 3號 住居址 全景(1), 壁溝(2), 壁溝內 土層(3), 出土遺物(4~8) .....	148
圖版 7. 4, 5號 住居址 全景(2), 5號 住居址 柱穴  및 土層(3, 4), 4號(5), 5號(6~9) 住居址 遺物 ...	149
圖版 8. 6號 住居址 全景(1)  및 柱穴(2), 7號 住居址 全景(4)  및 壁溝土層(3) .....	150
圖版 9. 1號 溝 全景(1), 出土遺物(2~8) .....	151
圖版 10. 2號 溝 全景(2), 土層(2, 3), 出土遺物(4~8) .....	152
圖版 11. 1號 木棺墓 全景(1), 土層(2), 2號 木棺墓 全景(4), 土層(3) .....	153
圖版 12. 2號 木棺墓 全景(1), 遺物 出土狀態(2, 3), 出土遺物(4~9) .....	154
圖版 13. 3號 木棺墓 遺構  및 遺物(1~4), 4號 木棺墓 遺構  및 遺物(5~8) .....	155
圖版 14. 5號 木棺墓 遺構  및 遺物(1, 2), 6號 木棺墓(5, 6), 7號 木棺墓(3, 4) .....	156
圖版 15. 8號 木棺墓 全景(1), 9號 木棺墓 全景(2, 3)  및 出土遺物(4~8) .....	157
圖版 16. 10號 木棺墓 遺構  및 遺物(1~6), 11號 木棺墓 全景(8), 12號 木棺墓 全景(7) .....	158
圖版 17. 13號 木棺墓 全景(1), 14號 木棺墓(2, 3), 15號 木棺墓(4~6) .....	159
圖版 18. 16號 木棺墓 全景(1), 遺物出土狀態  및 土層(2, 3), 出土遺物(4~6) .....	160
圖版 19. 17號 土壙墓 全景(1), 18號 木棺墓 全景(2), 掘地具痕(3) 遺物出土狀態(4) 遺物(5~7) ....	161
圖版 20. 18號 木棺墓 全景(1), 19號 木棺墓遺構  및 遺物(2~4), 20號 木棺墓 全景(5) .....	162
圖版 21. 21號 木棺墓 全景(1), 22號 木棺墓 全景  및 出土遺物(2~5), 23號 土壙墓 全景(6) .....	163
圖版 22. 24號 木棺墓 全景(1), 土層(2), 出土遺物(3, 4) .....	164
圖版 23. 25號 木棺墓 全景(1), 遺物出土狀態 (2) 出土遺物(3), 26號 木棺墓 全景(4) .....	165
圖版 24. 27號 木棺墓 全景  및 出土遺物(1~3), 28號 木棺墓 全景  및 出土遺物(4~6) .....	166
圖版 25. 29號 木棺墓(1, 2), 30號 木棺墓 全景(4)  및 出土遺物(3) .....	167
圖版 26. 31號 木棺墓(1), 32號(2, 3), 33號 土壙墓(4)  및 34號 木棺墓 土層斗 遺物狀態(5, 6) .....	168
圖版 27. 34號 木棺墓 全景(1, 2), 出土遺物(3, 4) .....	169
圖版 28. 34號 木棺墓 出土遺物(1~4), 35號 木棺墓 全景(5, 6) .....	170

圖版 29. 36號(1), 37號(2), 38號(3) 木棺墓 全景 .....	171
圖版 30. 39號(1), 40號(2), 41號(3), 42號(4) 木棺墓 全景 .....	172
圖版 31. 43號 木棺墓 全景(1), 土層 및 遺物出土狀態(2, 3), 出土遺物(4~6) .....	173
圖版 32. 44號 木棺墓(1~3), 45號 土壙墓 全景(4), 46號 木棺墓 全景(5) .....	174
圖版 33. 47號 土壙墓 全景(1), 48號 木棺墓 全景(3, 4), 土層(2), 出土遺物(5~7) .....	175
圖版 34. 49號 土壙墓 全景(1), 50號 木棺墓 全景(2), 51號 木棺墓 全景(3), 土層(4, 5) .....	176
圖版 35. 51號 木棺墓 全景 및 出土遺物(1~4), 52號 木棺墓 全景 및 土層(5, 6) .....	177
圖版 36. 53號 木棺墓 全景 및 出土遺物(1~3), 54號 木棺墓 全景 및 出土遺物(4~7) .....	178
圖版 37. 55號(1), 56號(2) 木棺墓 全景 및 57號 木棺墓 全景과 出土遺物(3~5) .....	179
圖版 38. 58號 木棺墓 全景 및 土層(1, 2)과 59號 木棺墓 全景 및 出土遺物(3~8) .....	180
圖版 39. 60號 木棺墓 全景 및 土層(1, 2)과 61號 木棺墓 全景 및 出土遺物(3~5) .....	181
圖版 40. 62號 木棺墓 全景(1, 2), 遺物出土狀態(3), 出土遺物(4~7) .....	182
圖版 41. 63號 木棺墓 全景 및 土層(1, 2), 出土遺物(3~5), 64號(6), 65號(7) 土壙墓 全景 ..	183
圖版 42. 1號 甕棺墓(1~4)와 2號 甕棺墓 全景 및 出土遺物(5, 6) .....	184
圖版 43. 3號 甕棺墓(1~5)와 4號 甕棺墓(6, 7) .....	185
圖版 44. 5號 甕棺墓(1~3)와 6號 甕棺墓(4~6) .....	186
圖版 45. 7號 甕棺墓(1~4)와 8號 甕棺墓 全景(5) .....	187
圖版 46. 8號 甕棺墓 出土遺物(1)과 9號 甕棺墓 全景(2) 및 出土遺物(3~5) .....	188
圖版 47. 1號 石槨墓 全景(1, 2) 長·短壁築造狀態(3, 4), 出土遺物(5~7) .....	189
圖版 48. 3號 溝 全景(1) 및 土層(2), 出土遺物(3)과 1號 民墓 全景(4) 및 出土遺物(5~7) ..	190
圖版 49. 2號 民墓 全景(1)과 1號 竪穴遺構(2~4) 및 2號 竪穴遺構(5~7) .....	191
圖版 50. 4號 溝 全景(1) 및 土層(2, 3), 出土遺物(4, 5)과 삼가마 全景(6, 7) 및 土層(8) .....	192

## I. 머리말

大安里遺蹟은 蔚山廣域市 蔚州郡 溫陽邑 大安里 250-1番地 일대에 위치한다. 유적이 조사된 지역은 감나무 과수원으로 경작되던 곳이며, 주변지역은 이미 주택단지가 조성되어져 있다. 이 지역이 초등학교 학교부지로 선정되면서 埋藏文化財 地表調査를 실시하였는데 적은 양의 無文土器片과 陶質土器片이 채집되었다. 과수원 경작으로 대단히 훼손이 심한 상태에서 채집유물의 양이 너무 빈약하여 유적의 입지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조사대상지의 지형이 얇은 구릉상으로 청동기시대 생활유적이 입지하기에 대단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박물관에서는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유존여부를 명확히 하기로 하였다.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지의 全面에 걸쳐서 三韓前期의 木棺墓로 추정되는 遺構들이 확인되었다. 대단히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었다.

試掘調査를 기초로 우리 박물관에서는 2000년 7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삼한전기의 木棺墓가 유적의 전면적에서 걸쳐서 조사되었으며, 기대했던 청동기시대의 주거지도 다수가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의 주거지는 모두 7동이 조사되어 소규모의 취락지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三韓前期의 木棺墓는 모두 65기, 옹관묘가 9기 조사되었다. 울산지역에서 三韓時代의 木棺墓遺蹟이 독립적으로 확인된 예가 전무한 점을 생각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木棺墓는 삼한전기의 대표적인 묘제이지만 울산지역에서 지금까지 목관묘유적으로 알려진 곳은 茶雲洞遺蹟<sup>1)</sup>이 유일한 것이었다. 하지만 다운동유적에서도 목관묘자료가 그다지 많이 조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울산지역의 목관묘자료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울산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조영된 목관묘유적으로서 대안리유적이 조사되어 삼한시기 울산지역의 동향을 究明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65기의 분묘가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토유물의 양이 극히 빈약하여 당시의 사회상을 복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同時期의 遺蹟이라고 할 수 있는 慶山의 林堂遺蹟, 昌原의 다호리유적 등과 비교해 볼 때 출토유물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격차가 심하여 타지역과의 비교가 어렵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울산지역에서 양호한 목관묘유적이 조사된다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조사된 대안리유적의 빈약한 출토유물의 양상도 어떤 면에서는 당시의 정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 볼 수 있다. 즉 삼한 전기의 울산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집단의 세력화가 늦었던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앞으로의 연구대상이라고 할 것이

1) 兪炳一, 1996, 「蔚山茶雲洞遺蹟」, 『第39回 全國歷史學大會發表要旨』.

다.

비록 과수원 경작으로 인해 다소 훼손이 심하긴 하지만 울산지역에서 확인된 최초의 목관묘 유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본 대안리유적의 조사는 대단히 의미 깊은 조사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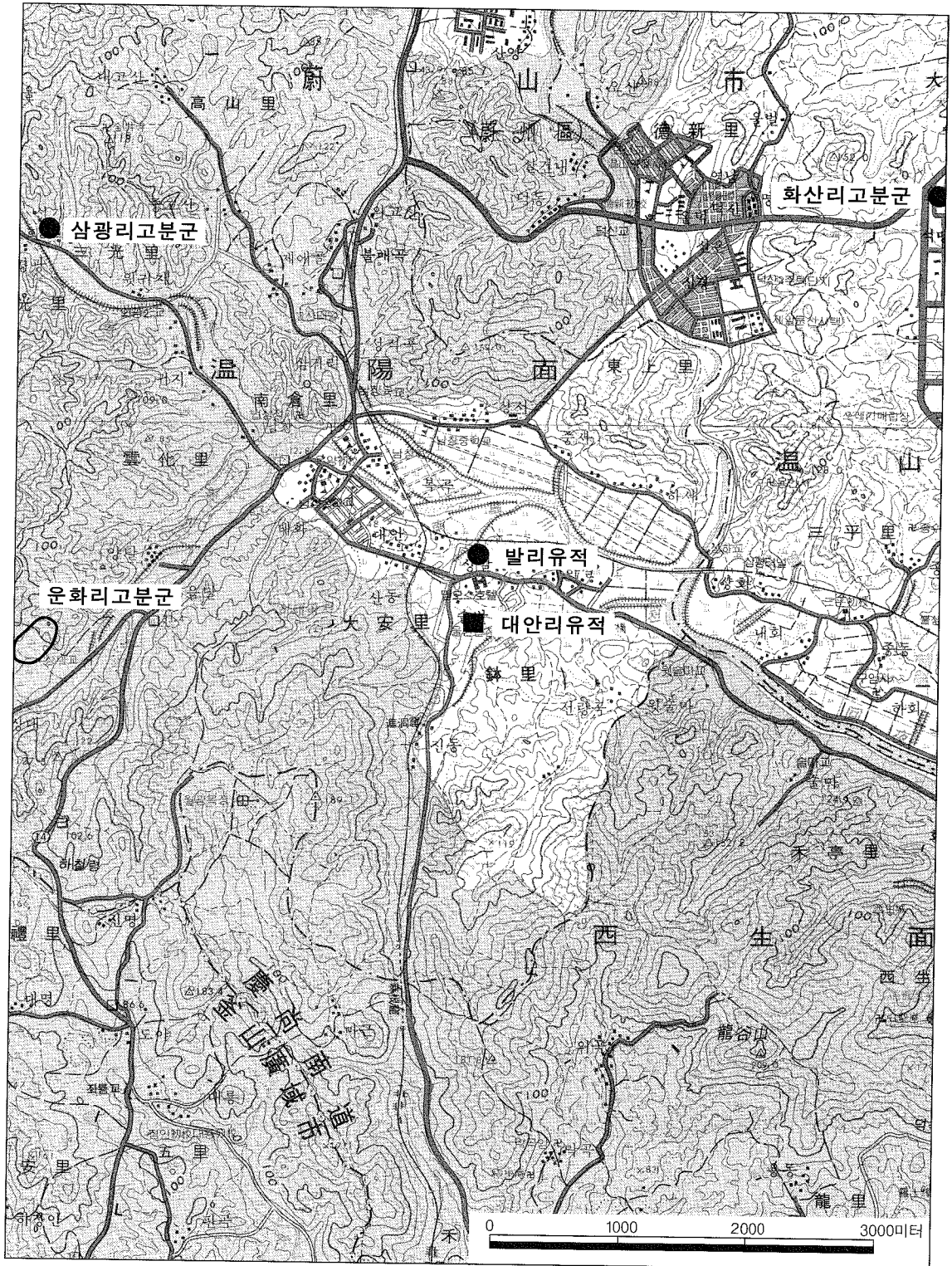
이번 조사의 조사단 구성은 아래와 같다.

발굴단장 : 전 호 태 (전 울산대학교 박물관장)  
연구원 : 김 영 민 (울산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연구보조원 : 김 현 철 (울산대학교 박물관 특별연구원)  
          남 연 의 (울산대학교 박물관 조교)  
          성 민 호 (당시 울산대학교 박물관 조교)  
          권 지 영 (현 울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최 승 희 (현 울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보조원 : 김 광 수 (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연구원)  
          신 준 섭 (울산대학교 박물관 조교)  
          김 영 록 (울산대학교 박물관 조교) 외 울산대학교 사학과 학생

이 외에도 본 조사를 위해서 시굴조사과정에 김도현(현 울산문화재연구원)이, 그리고 발굴조사과정에는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학생 다수가 참가하여 조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청의 담당자와 유병일(당시 울산광역시청 학예연구사, 현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이 현장지원을 통하여 조사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었다. 지면을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유물의 정리에는 조사단 전원과 강정미, 김나영, 이보경, 이민경(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학생)이 수고하였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진촬영은 김영록의 책임하에 진행되었고, 도면의 제도는 남연의 책임하에 조사원 전원이 분담하였다. 유구배치도의 작성은 김현철과 신준섭이 주로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일차적으로 김현철과 조사원들이 분담하여 작성하였으며, 이를 김영민이 전체적으로 수정·가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양상현이 교열하였다.





圖面 1. 遺蹟 位置와 周邊遺蹟 分布圖(1/50,000)



圖面 2. 遺蹟周邊地形圖(1/50,000)『1918년 조선총독부 제작』

## II. 遺蹟의 位置와 環境

大安里遺蹟이 위치한 溫陽地域은 蔚山의 남쪽경계로 釜山의 機張郡과 접한다. 지금은 14번 국도를 통해서 부산과의 교통로가 확보되어 있으나 옛지도를 보면 蔚山과 釜山은 大雲山과 龍谷山에 의해서 단절된 상태였다. 朝鮮時代까지의 주요교통로는 지금도 활용되고 있는 大雲山과 華壯山 사이의 통로가 주로 활용되었던 것 같다. 이 통로가 언제부터 활성화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도로망 주변으로 三國時代의 遺蹟들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은 이른 시기부터 이용되어졌을 가능성을 암시한다<sup>2)</sup>. 즉 熊村의 下垈遺蹟과 溫陽의 雲化里古墳群, 그리고 양지역을 잇는 도로망을 따라서 三光里遺蹟과 지표조사결과 확인된 몇몇 유적 등은 비록 자연지형에 의해 양분되어 있지만 이른 시기부터 양지역간에 상호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3)</sup>.

대안리유적은 용곡산의 북서쪽 사면에 형성되어져 있다. 해발 207m의 용곡산은 동쪽으로는 동해안과 접하는데 해안면에는 신암리패총<sup>4)</sup>을 비롯하여 新石器時代 이래의 유적들이 광범위하게 확인되어 있다. 그리고 대안리유적의 맞은 편에는 대운산과 화장산이 펼쳐져 있는데 이 사이 계곡으로 南倉川이 발원하여 東海岸으로 연결된다. 남창천을 끼고 삼국시대의 유적으로 알려진 삼광리고분군이 조사된 바 있으며, 대운산에는 삼국시대의 대규모 분묘군인 운화리고분군이 위치한다. 뿐만 아니라 지표조사에서 많은 유적들이 확인된 바 있어 온양읍지역은 산간 곳곳에 삼국시대이래 일정한 규모의 취락이 형성되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5)</sup>.

대안리유적이 조사된 지역은 온양읍의 중심지로 이미 택지로 조성되어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주변으로 울산산천의 개발로 생활근린시설들이 자리잡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원지형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예외없이 청동기시대 이래의 유적들이 조사되고 있다. 최근 (財)울산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鉢里遺蹟에서는 靑銅器時代 이후의 農耕遺蹟이 확인되었다<sup>6)</sup>.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주변지역에 광범위하게 유적이 형성되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 일대에 대한 매장문화재 조사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온양읍과 온산읍지역은 울산지역의 대표적인 산업단지로 대규모의 개발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문화재의 보호와 보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곳이다. 대규모의 개발뿐 아니라 소규모의 개발과정에서 산발적으로 매장문화재가 조사되면서 단위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

2) 蔚山市·昌原大學校 博物館, 1995, 『蔚山郡 文化財遺蹟原簿』.

3) 蔚山市·昌原大學校 博物館, 1995, 앞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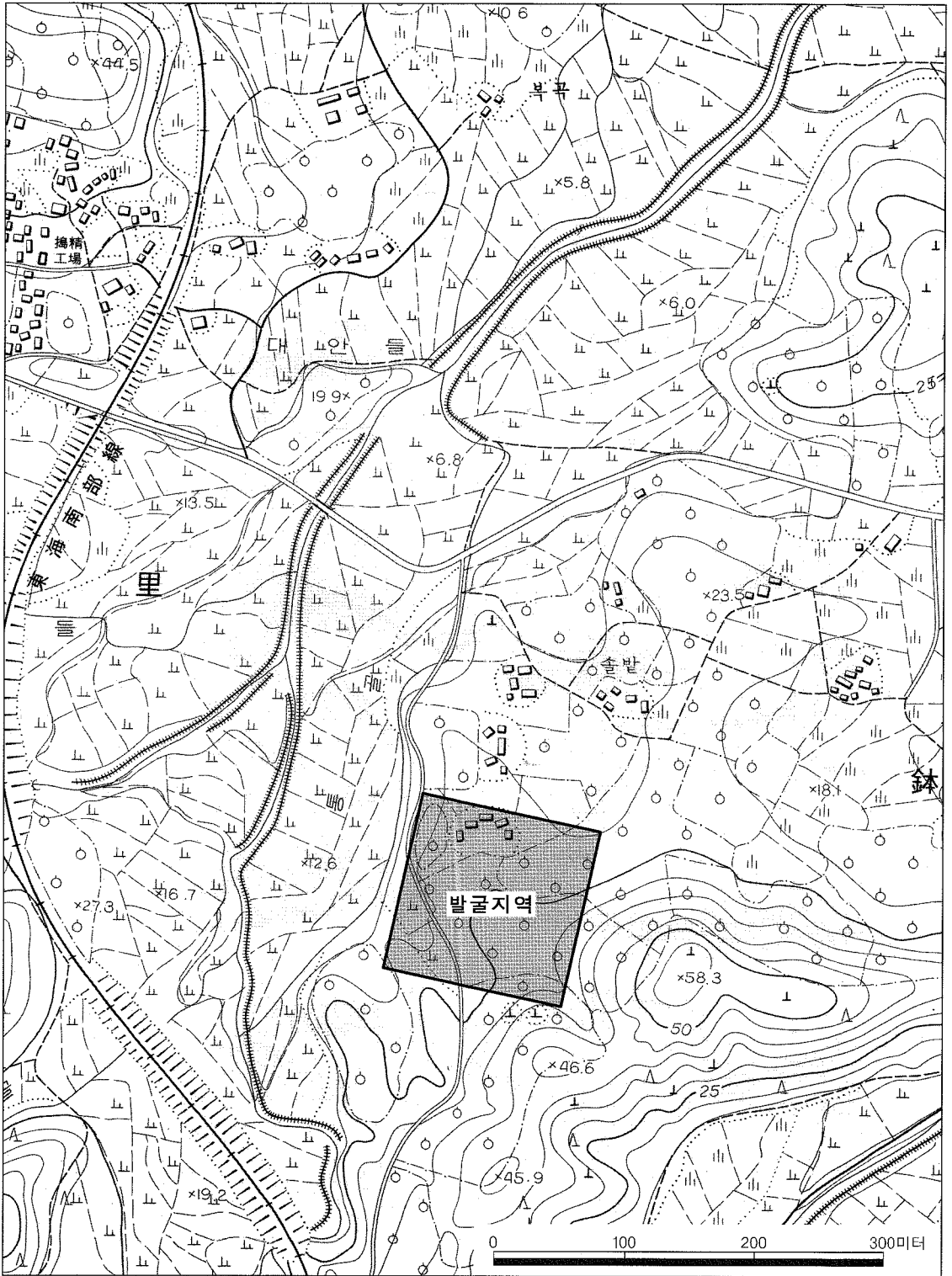
全虎兌, 金榮珉, 宣石悅, 1998, 『文化遺蹟地表調查報告(雲化里古墳群)』.

4) 국립중앙박물관, 1988, 『新岩里 I』,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0책.

국립중앙박물관, 1989, 『新岩里 II』,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1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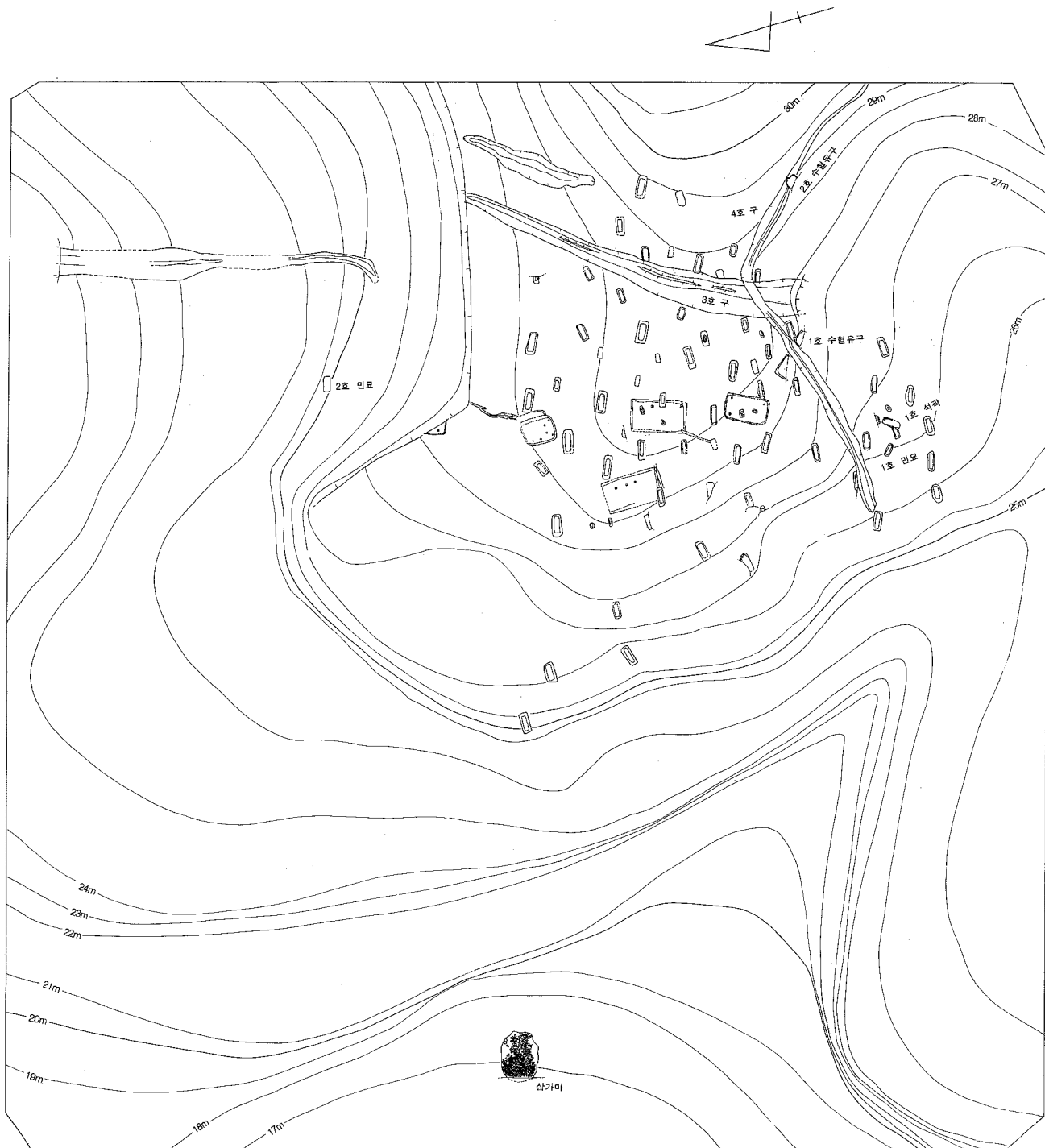
5) 蔚山市·昌原大學校 博物館, 1995, 앞의 책.

6) 蔚山文化財研究院, 『蔚山 鉢里遺蹟』, 現場說明會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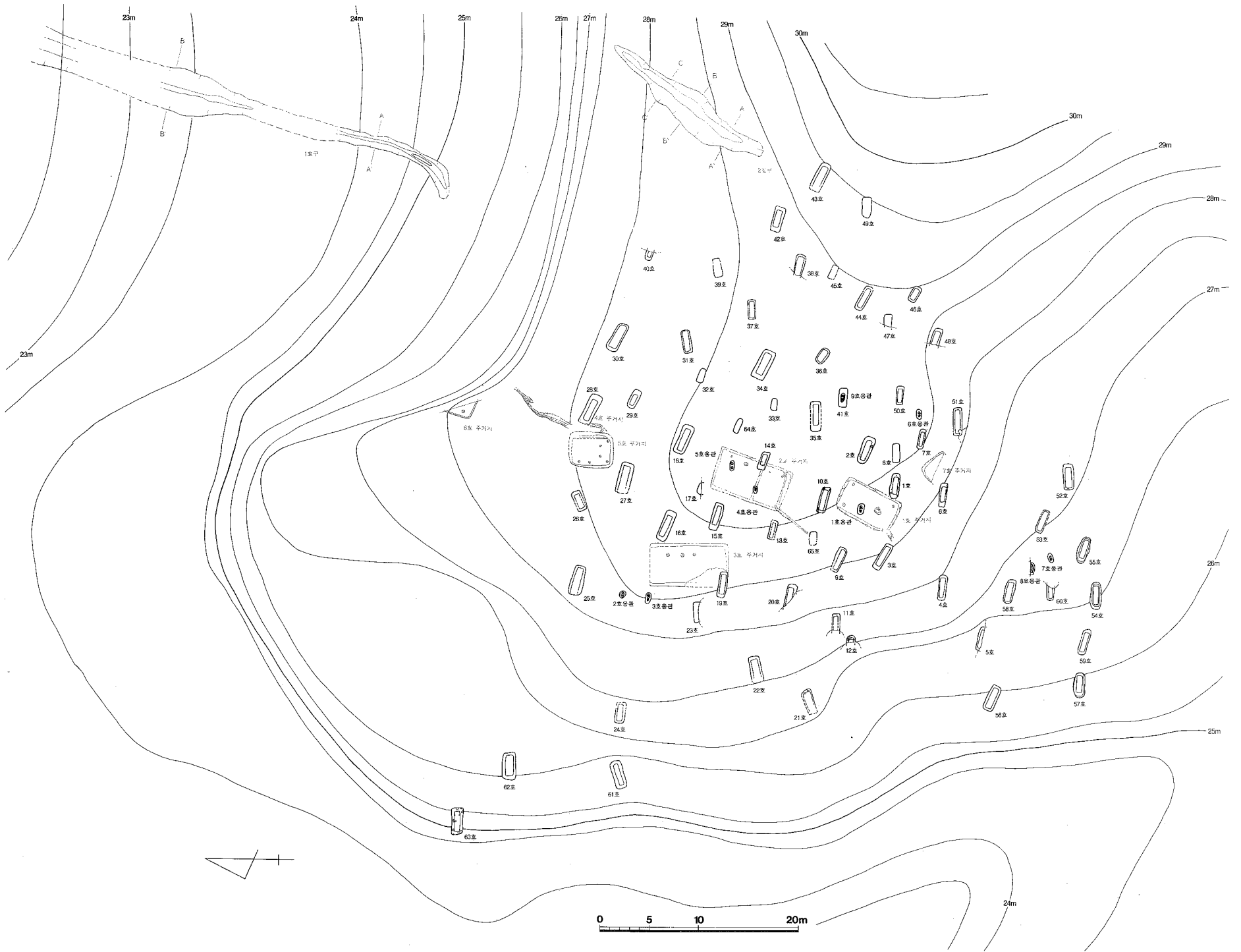


圖面 3. 遺蹟 地形圖(1/5,000)

행되지 못하고 유적의 극히 일부만이 조사되는 등 유적의 성격규명이나 학술적 자료의 집적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최근 울주군 지역에 대한 매장문화재를 포함한 문화재 지표조사가 계획중이므로 이 일대에 대한 문화재 분포상황이 상당부분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 보다 정확한 지표조사결과를 통하여 開發과 保存이 조화를 이루어 온양읍과 주변지역이 쾌적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圖面 4. 遺構 配置圖(1/800)



圖面 5. 青銅器時代遺構 配置圖(1/500)

### III. 調査内容

#### 1. 青銅器時代 住居址와 溝

##### 1) 1號 住居址

###### 가. 遺構(圖面 6, 圖版 3, 4-1~3)

해발 28.4m선상에 조성된 장방형주거지로 장축방향은 N28°E이며, 규모는 길이 610cm, 너비 365cm, 깊이 50cm, 面積 22.4m<sup>2</sup>이다. 동서로 흐르는 배수로와 나무구덩이로 인해 넓은 면적이 파손되었으며, 三韓時代의 1號 甕棺墓와 1號 木棺墓와도 중복되어 있다.

遺構 내부토는 암갈색을 띠는데 모두 4개층으로 세분되며, 소토나 목탄이 거의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폐기 후 자연스럽게 매몰된 것으로 보인다.

유구 내부에서는 柱穴과 壁溝, 爐址 등이 확인되었다. 主柱穴은 3개가 확인되었는데 주혈간 간격은 220cm이다. 주혈의 간격이 비교적 일정한 것으로 보아 확인되지 않은 주혈은 주거지의 상면을 가로 지르는 과수원 배수로에 의해 파손된 것이 분명하다.

壁溝는 주거지 가장자리 4벽을 따라 돌려져 있으며, 주거지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溝는 나무구덩이에 의해 훼손되어 70cm정도만 남아 있다. 경사면을 따라 만들어졌으며 단면 'U'자상이고, 너비는 35cm, 깊이는 20cm이다. 그리고 주거지 벽면을 따라 70~100cm의 등간격으로 주혈이 설치되어 있다. 주목되는 것은 벽구내에 있는 주혈이 벽면에도 홈을 내어 기둥흔적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주혈의 상태로 보아 기둥이 수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10~15° 가량 비스듬하게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爐址는 지름 60cm, 깊이 40cm의 규모로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은 타원형의 수혈구조이며 내부에는 목탄 및 소토가 채워져 있었다. 爐址의 동쪽으로 지름 15cm의 小竪穴이 있는데 노지와 의 관계는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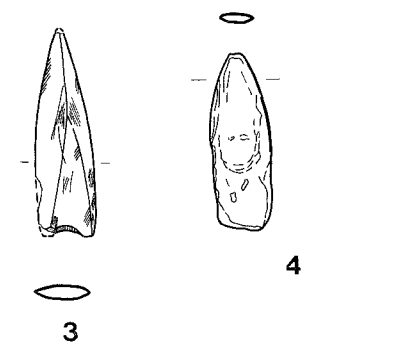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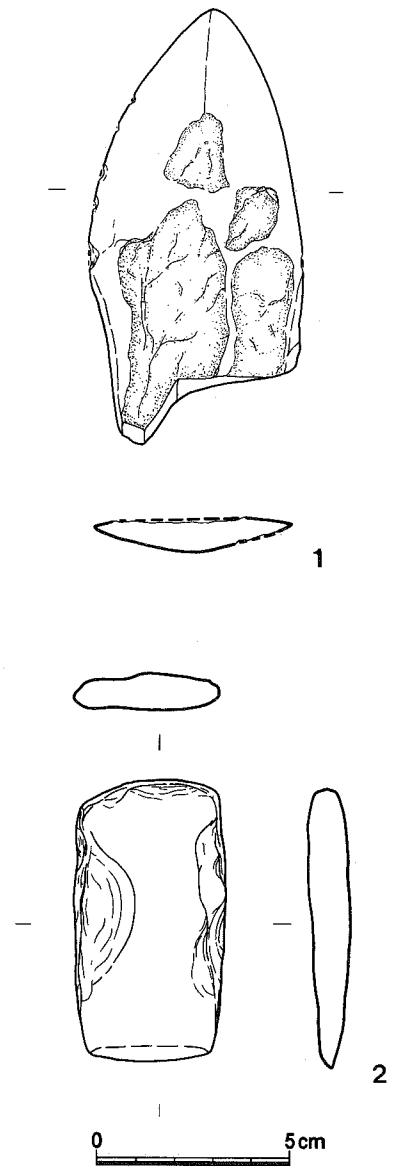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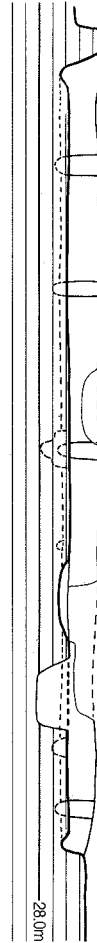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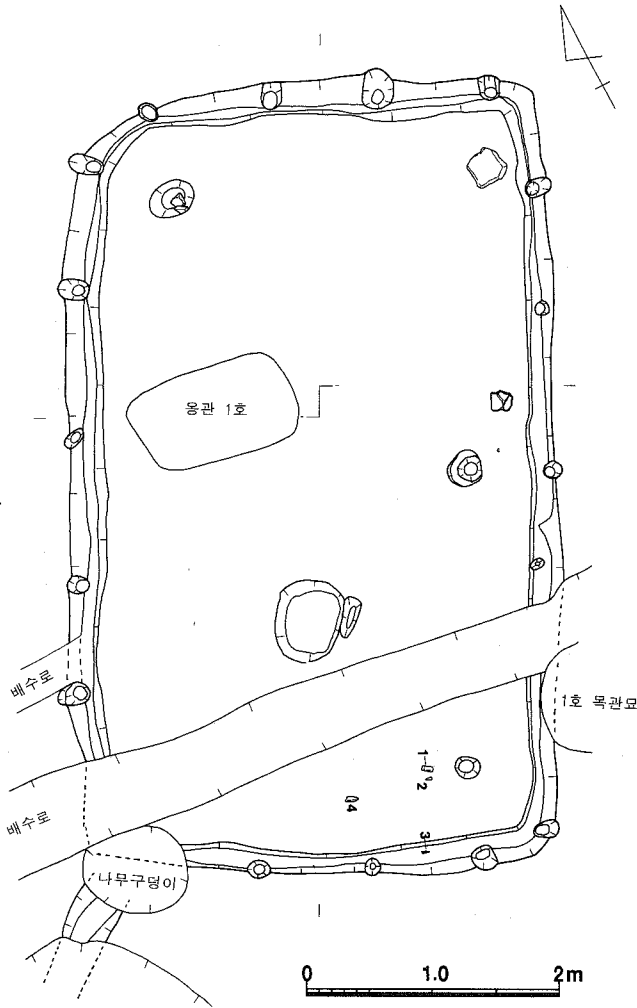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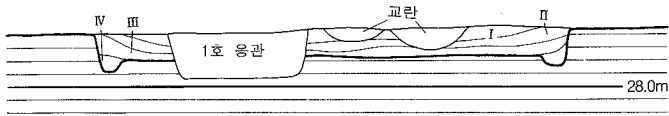
出土遺物은 遺構의 잔존상태에 비해 빈약한 편이다. 石鏃 2점과 石劍片, 石斧 1점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無文土器片 등이 출토되었으나 형태를 알 수 없어 도면화하지 않았다.

###### 나. 遺物

圖面 6-1(圖版 4-4)은 泥岩製의 石劍片이며 사선방향으로 마연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身部의 대부분이 결실되었고 선단부 일부만 남아 있다. 잔존길이 11.7cm, 너비 5.7cm이며, 출토 위치는 4이다.

圖面 6-2(圖版 4-5)는 泥岩製의 扁平片刃石斧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측면 일부가 박리





圖面 6. 1號 住居址<1/60> 出土遺物<1/2>

되었다. 길이 7.6cm, 너비 3.9cm이며, 출토위치는 1이다.

圖面 6-3, 4(圖版 4-6, 7)는 泥岩혼펠스製의 無莖式 石鏃이다. 3(圖版 4-6)은 비교적 형태를 갖춘 것으로 刺가 약하게 보인다. 길이 5.4cm, 너비 1.5cm이며, 출토위치는 3이다. 4(圖版 4-7)는 表面剝離가 심하여 전체적인 형태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이다. 길이 4.7cm, 너비 0.6cm이며, 출토위치는 2이다.

## (2) 2號 住居址

### 가. 遺構(圖面 7, 圖版 5-1~3)

해발 28.6m선상에 축조된 장방형의 주거지로 장축방향은 N10°E이며, 주거지의 규모는 길이 750cm, 너비 445cm, 최대깊이 30cm, 면적 33.3m<sup>2</sup>이다. 주거지의 규모는 비교적 대형이지만 전체적으로 훼손이 극심한 편이다. 동-서로 이어지는 배수로나 3개, 남-북으로 이어지는 배수로 1개, 나무구덩이 2개 등이 遺構 내부를 파괴하고 있으며, 14호 木棺墓, 65호 土壙墓, 4호 甕棺墓, 5호 甕棺墓 등도 주거지와 중복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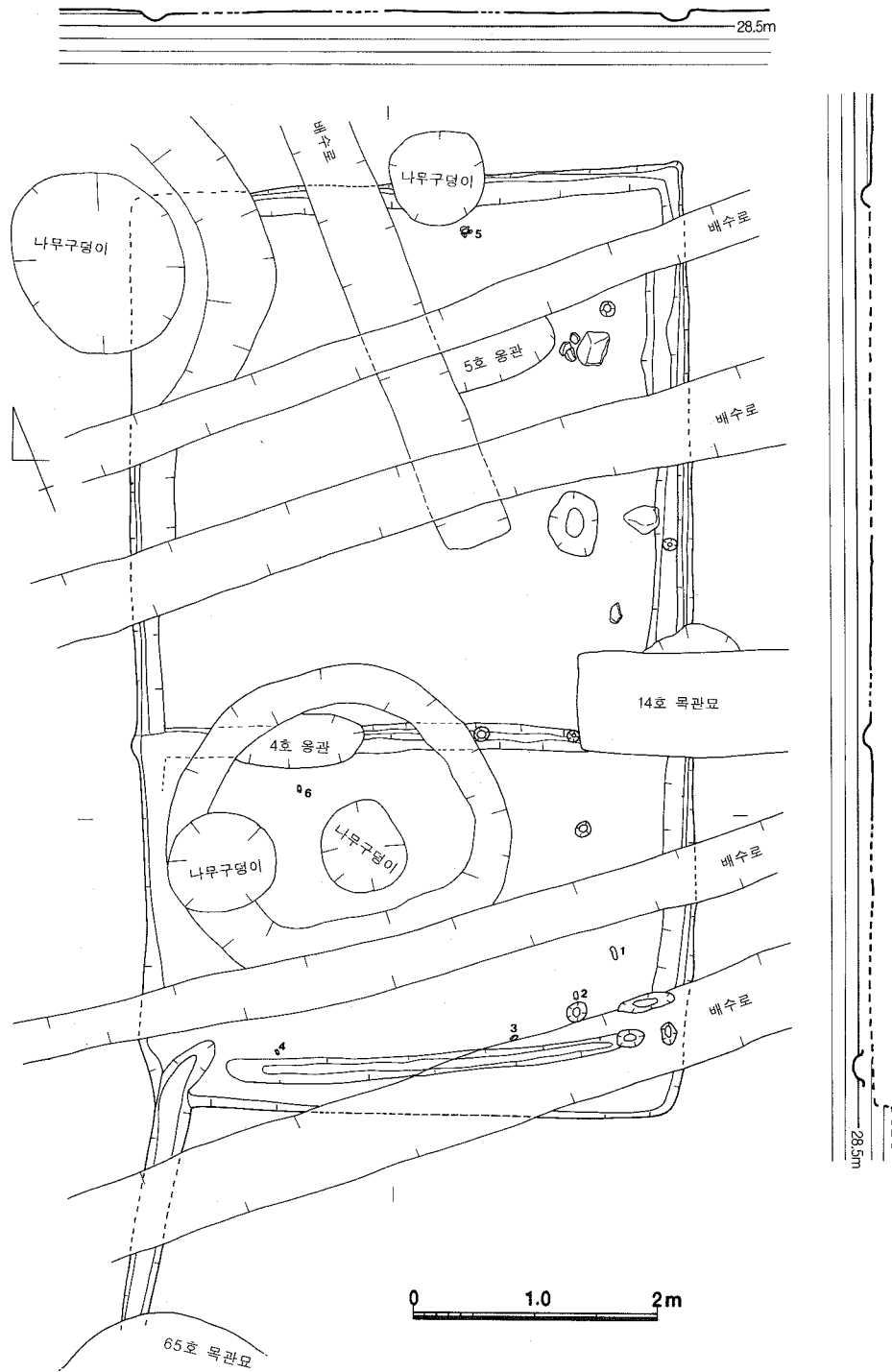
주거지의 내부에는 전체공간을 양분하는 溝가 가로질러 구획되어 있다. 주거지를 양분하는 溝의 내부에는 柱穴 2개가 60cm 간격을 두고 확인되었는데 교란된 부분에도 주혈이 등간격으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溝는 주거지의 공간을 적절하게 분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 공간의 기능 차이는 출토유물이 빈약하여 추론하기 어렵다. 좁은 쪽의 규모는 장단벽 285cm×445cm, 면적 12.6m<sup>2</sup>이다. 넓은 쪽은 장단벽 465×445cm, 면적 20.6m<sup>2</sup>로 전자의 거의 2배이다.

유구 내부토는 크게 2개층으로 구분되는데 I층은 후대의 경작으로 대부분 교란된 층이며, 점성이 강한 II층의 암갈색토가 주거지의 폐기와 관련된 층으로 판단된다. II층에는 목탄 및 소토가 소량 혼입되어 있지만 남쪽의 좁은 공간에서 주로 분포하고 넓은 공간에서는 북동쪽 모서리 부분의 벽주변에서 燒土가 집중적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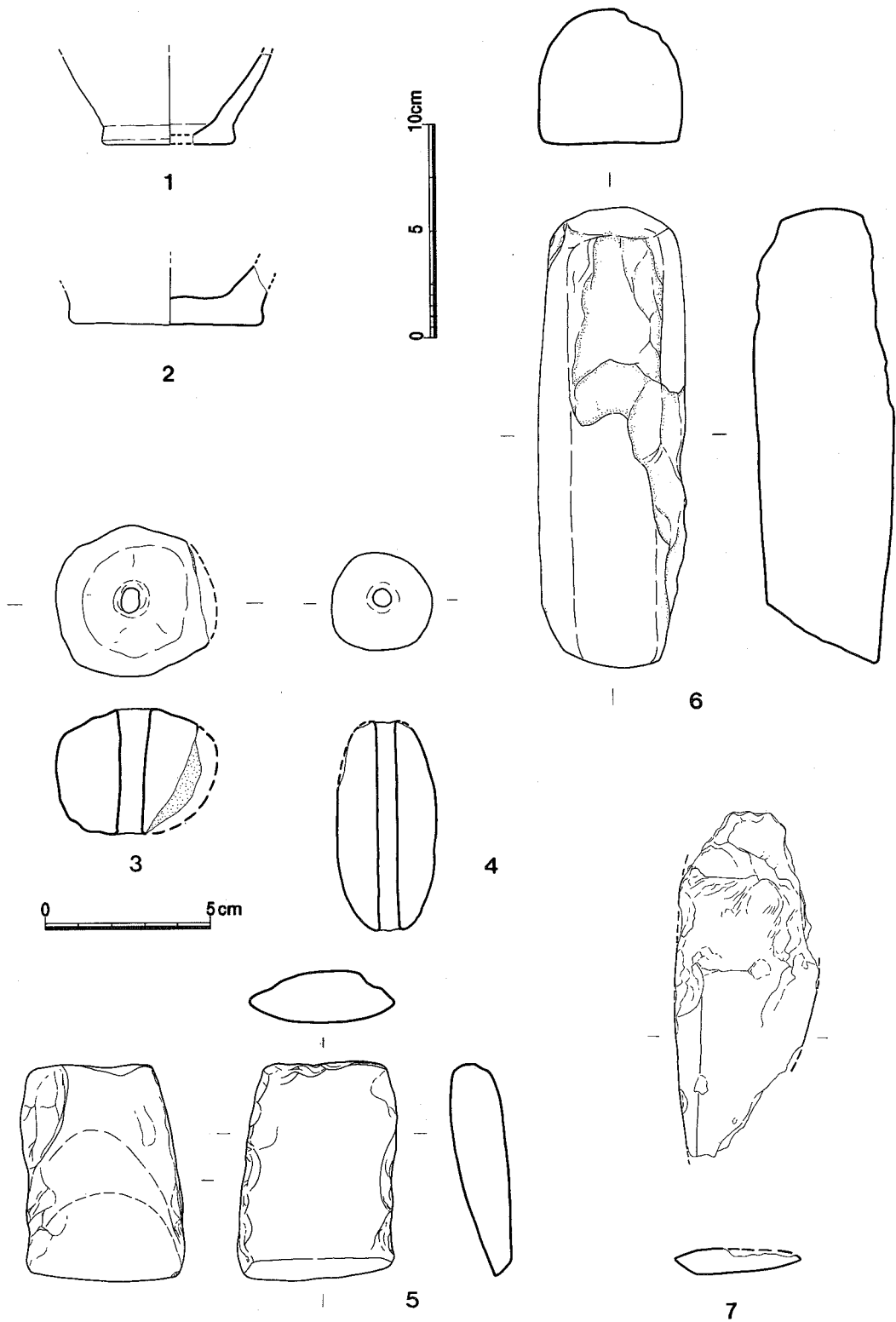
바닥면은 생토면을 정지한 후 이용하였으며 불다짐이나 그 외 뚜렷한 바닥강화의 흔적은 남겨져 있지 않았다. 主柱穴은 3개 뿐인데 이는 후대의 중복된 遺構들 때문인 것으로 장벽을 따라 양쪽으로 100~140cm 간격으로 주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爐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내부토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4號 甕棺墓 주변에서 燒土와 木炭이 다량 검출되었다. 아마도 노지의 흔적이 아닌가 생각된다.

壁쪽에는 모두 壁溝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부에는 암갈색토가 채워져 있었다. 벽구내에서 柱穴 2개가 확인되었다. 壁溝에서 주거지 외부로 빠져 나가는 단면 'U'자상 溝의 너비는 30cm, 깊이 20cm로 경사면을 따라 400cm가량 이어지는데, 65호 土壙墓에 의해 끝부분은 훼손되어 정확한 길이는 알 수 없다.



圖面 7. 2號 住居址<1/60>



圖面 8. 2號 住居址 出土遺物<1, 2 : 1/3, 3~7 : 1/2>

이 밖에도 지름 50cm의 타원형 수혈이 북동쪽으로 치우쳐 설치되어 있는데 정확한 기능은 알 수 없으나 貯藏穴이 아닌가 추정된다.

유물은 漁網錘 2점과 石器 2점이 모두 남쪽 공간에서 출토되었으며, 북쪽 공간에서는 기형을 알 수 없는 無文土器片과 無文土器 底部 등이 출토되었다.

## 나. 遺物

圖面 8-1(圖版 5-4)은 無文土器 底部이다. 燒成은 양호한 편이며,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외면에는 丹塗磨研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전체적으로 剝離가 심한 편이지만 내면에 목리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4.0cm, 推定底徑 5.5cm이며, 출토위치는 5이다.

圖面 8-2(圖版 5-5)도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전체적으로 황등색을 띤다. 태토에는 石英, 長石 등이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해 정면기법은 알 수 없다. 잔존높이 2.5cm, 底徑 9.0cm이다.

圖面 8-3, 4(圖版 5-6, 7)는 어망추이다. 3(圖版 5-6)은 황갈색으로 평·단면 모두 원형이다. 燒成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석영, 장석, 운모 등이 혼입되어 있다. 외면에 지두흔이 관찰된다. 길이 3.9cm, 너비 4.5cm, 구멍지름 0.9cm이며, 출토위치는 6이다. 4(圖版 5-7)는 적갈색의 장타원형이다. 燒成은 양호하며 태토에는 석영 및 장석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길이 6.5cm, 너비 3.0cm, 구멍지름 0.6cm이며, 출토위치는 4이다.

圖面 8-5(圖版 5-8)는 泥岩製로 扁平片刃石斧에 가까우나 양면을 마연한 蛤刃石斧이다. 소형으로 길이 6.9cm, 너비 4.7cm, 두께 1.6cm이며, 출토위치는 2이다.

圖面 8-6(圖版 5-9)은 泥岩製의 柱狀片刃石斧이다. 刃部는 결실되었다. 잔존길이 14.5cm, 너비 4.5cm이며, 출토위치는 1이다.

圖面 8-7(圖版 5-10)은 泥岩製의 석기편이다. 박리가 심해 전체적인 기형은 알 수 없다. 아마도 石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잔존길이 11.0cm, 너비 4.2cm이며, 출토위치는 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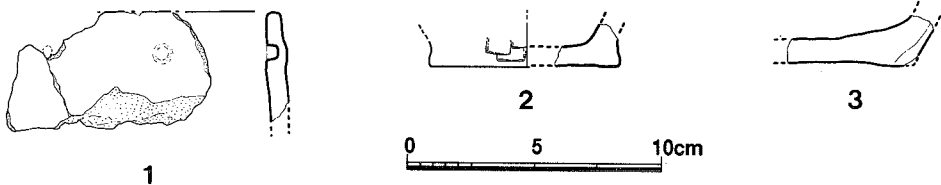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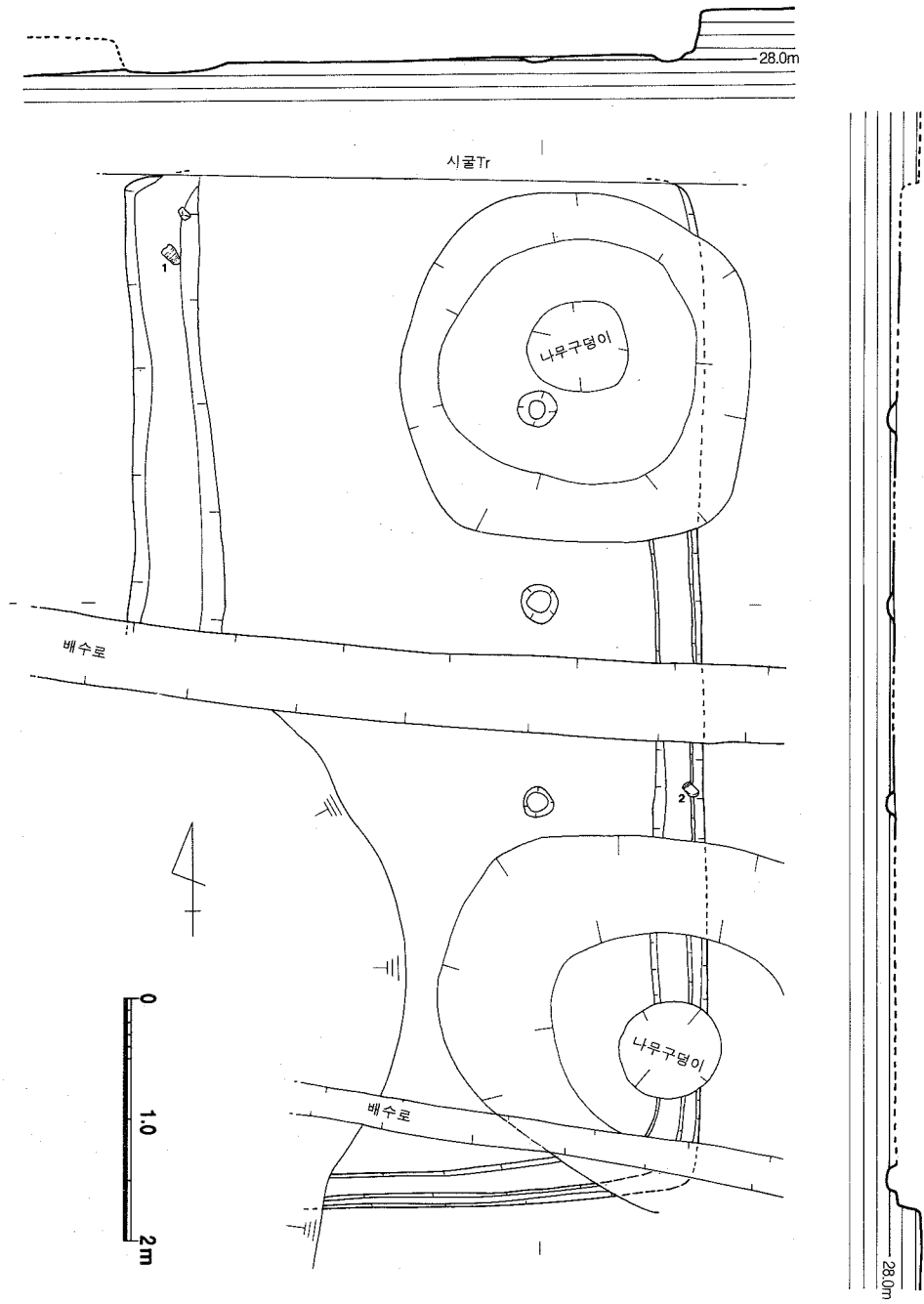
## (3) 3號 住居址

### 가. 遺構(圖面 9, 圖版 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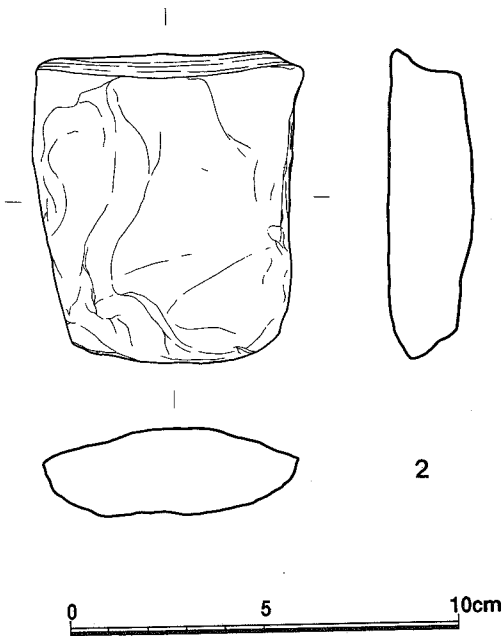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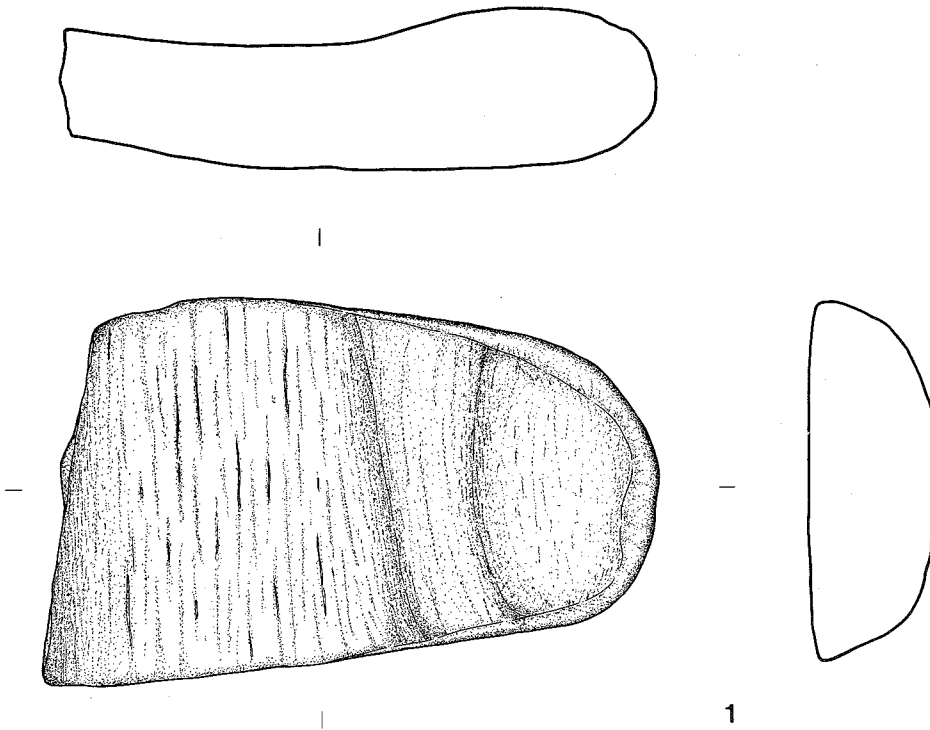
해발 28.4m선상에 위치하는 長方形의 주거지로 장축방향은 磁北方向과 거의 일치한다. 규모는 길이 830cm, 너비 450cm, 최대깊이 50cm, 면적 37.3m<sup>2</sup>이다.

지름 320cm의 나무구멍이 2개 그리고 배수로, 목관묘 등에 의해 주거지의 대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어 잔존상태가 대단히 불량한 편이다. 주거지의 구조상 壁溝에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溝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19호 목관묘와 경작으로 인해 알 수 없게 되었다.

유구 내부토는 목탄 및 소토가 혼입된 암갈색토로 채워져 있다. 동벽쪽의 일부만 남아 있으



圖面 9. 3號 住居址<1/60> 및 出土遺物<1/3>



며 대부분의 내부토는 교란되었다. 바닥 부분적으로 불다짐한 것이 확인되나 전체적으로는 별다른 처리 없이 황갈색 생토면을 정지하여 사용하였다. 지름 25cm내외의 柱穴이 동쪽에서 3개가 확인되었는데 遺構의 바닥이 훼손이 심하여 나머지 柱穴들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 평면 형태로 보아 4개가 2열로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맞은 편에도 4개 정도가 더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爐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구의 북서쪽 모서리에서 소토가 확인되었고 갈판 등

圖面 10. 3號 住居址 出土遺物<1/2>

이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 특별한 시설이 없는 조리공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壁溝는 네 벽면 모두에서 확인되는데 동쪽과 남쪽의 벽구는 벽쪽에서 10cm가량 내측으로 들어온 상태로 설치되어 있다. 반면 서쪽의 벽구는 遺構의 훼손으로 인해 이러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 壁溝내부에 柱穴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북서쪽 모서리에서 갈판 1점이 출토되었으며 孔列土器片, 無文土器 底部 등이 내부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출토되었다.

## 나. 遺物

圖面 9-1(圖版 6-4)은 孔列土器 구연부편으로 燒成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내외면 황회색으로 정선된 태토에 석영, 장석이 혼입되어 있다. 구연단에서 1.0cm 아래에 지름 0.4cm의 공열문이 3.7cm 간격으로 시문되어 있다. 잔존높이 4.2cm이다.

圖面 9-2(圖版 6-5)는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전체적으로 황등색이며, 태토에 석영, 장석 등의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동체부와 저부 접합부의 외면에 목판 굽기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1.7cm, 底徑 7.3cm이다.

圖面 9-3(圖版 6-6)도 역시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외면 회황색, 내면 등색이며, 태토에는 다량의 굵은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해서 정면기법은 남아 있지 않다. 잔존높이 1.8cm이다.

圖面 10-1(圖版 6-7)은 사암제의 갈판이다. 부분적으로 결실되었으며, 研磨面은 오목하게 패인 상태이다. 길이 16.0cm, 너비 10.5cm이며, 출토위치는 1이다.

圖面 10-2(圖版 6-8)는 泥岩혼펠스製의 扁平片刃石斧를 닮은 미완성 石器片이다. 표면에 타격흔이나 마연흔 등은 제대로 남아 있지 않다. 길이 8.3cm, 너비 6.8cm, 두께 2.4cm이며, 출토위치는 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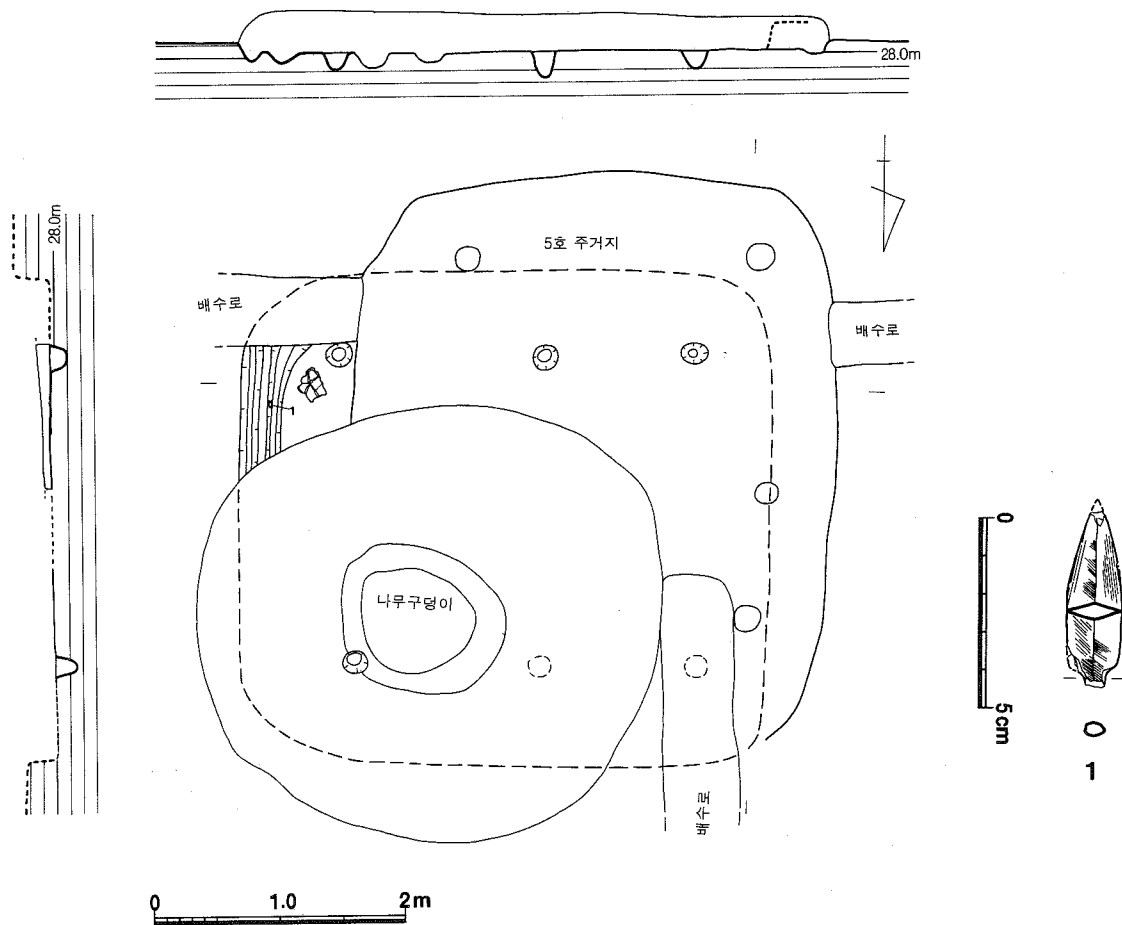
## (4) 4號 住居址

### 가. 遺構(圖面 11, 圖版 7-1, 2)

해발 28.5m선상에 위치하는 주거지이며, 배수로와 나무구덩이가 그리고 5號 住居址에 의해서 완전히 파손되었다. 장축방향은 N88°W로 추정되며, 遺構의 규모는 추정길이 415cm, 너비 395cm로 거의 방형에 가깝다. 남아 있는 유구의 흔적은 유구 바닥 일부와 벽구 일부가 전부인 상태이다.

遺構의 잔존상태가 대단히 불량한 편으로 5號 住居址 조사과정에서 본 유구의 시설물로 보이는 주혈이 규칙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유구의 규격은 이들 주혈의 형태로서 복원해 본





圖面 11. 4號 住居址<1/60> 및 出土遺物<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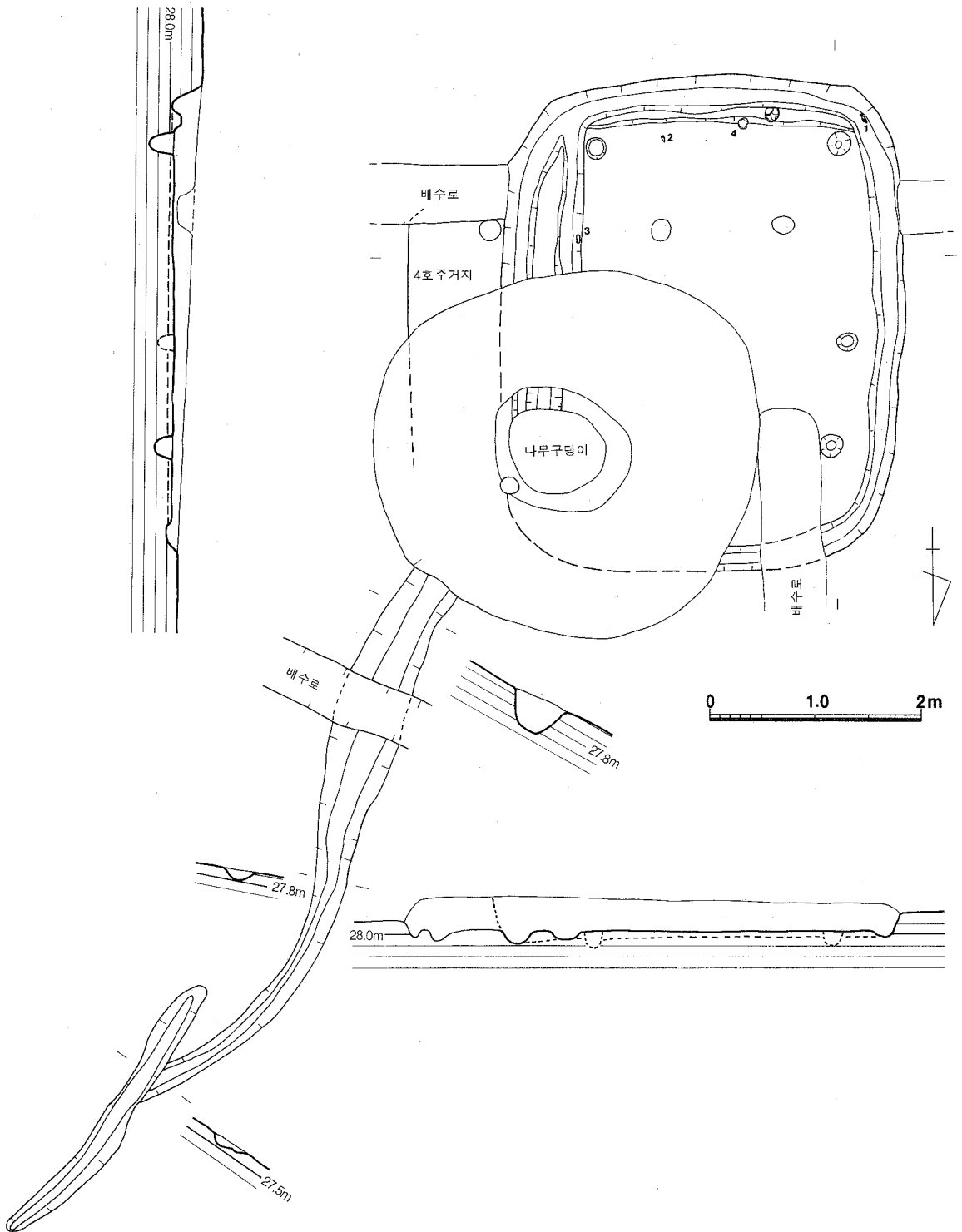
것이다. 유구의 바닥은 5호 주거지와 거의 같은 면이다. 벽구는 이중으로 설치된 상태이며, 벽구의 내부에서 石鏃 1점과 유구의 바닥에서 기형을 알 수 없는 無文土器片들이 검출되었다.

#### 나. 遺物

圖面 11-1(圖版 7-5)은 泥岩製의 有莖式 石鏃이다. 선단부와 경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단면은 菱形이며, 莖部の 형태는 타원형에 가깝다. 전체적으로 마연흔이 남아 있다. 잔존길이 4.7cm, 너비 1.5cm, 두께 0.5cm이며, 출토위치는 1이다.

#### (4) 5號 住居址

가. 遺構(圖面 12, 圖版 7-1~4)



圖面 12. 5號 住居址<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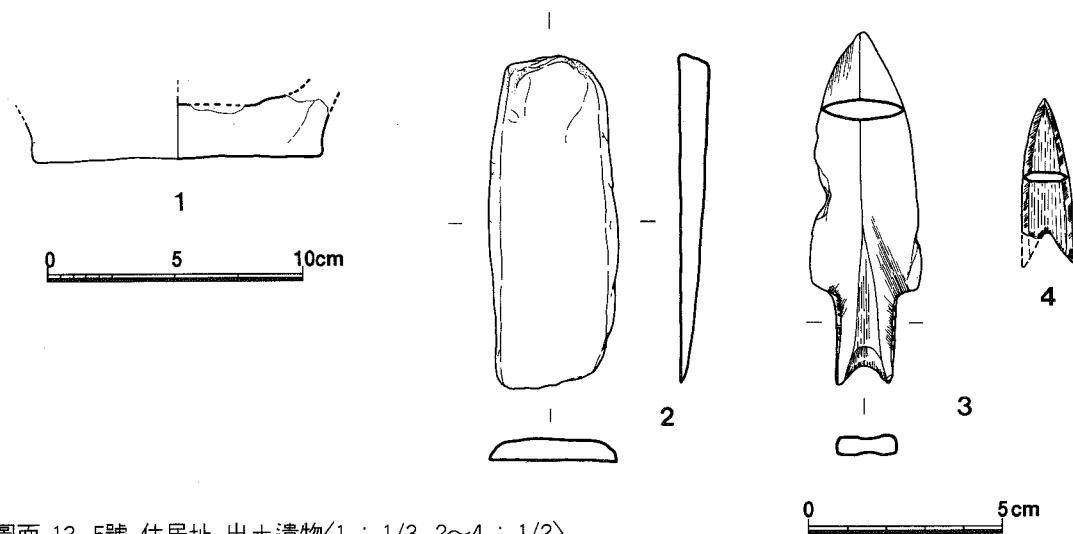
해발 28.5m선상에 위치하는 주거지이며, 배수로와 나무구덩이로 인해 훼손이 심한 遺構이다. 4號 住居址를 파손하면서 중복되어 있다. 장축방향은 4호 주거지와 같은 N88°W이며, 遺構의 규모는 길이 480cm, 너비 380cm, 최대깊이 40cm, 면적 20.9m<sup>2</sup>인 方形住居址이다.

유구의 동쪽으로 거의 같은 높이에서 壁溝를 포함하는 遺構가 확인되는데 유구 내부토의 오염이 심하여 토층조사에서 중복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 아마도 5호 주거지 이전의 유구와 바닥높이를 거의 같이한 채 중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주거지 내부의 주혈 배치에서 서쪽축으로 배치된 3개의 柱穴이 내부의 주혈과 구조상으로 자연스럽게 않으며, 또한 遺構 외곽으로 돌출하는 외곽구로 볼 때 모서리 부분이 나무구덩이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4號 住居址와 연결되는 것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5호 주거지가 선행한 주거지를 파괴하면서 축조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5호 주거지는 거의 같은 상면 높이의 주거지를 파괴하고 중복된 상태로 조성된 것이다.

그리고 주거지 외곽으로 돌출한 외곽구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5호 주거지의 것으로 보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외부로 빠져 나가는 외곽구는 폭이 5~20cm로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며 길이 550cm 지점에서 또하나의 溝와 중복되어 있다. 중복된 부분과 합친 전체길이는 750cm이다.

爐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壁溝는 네 벽면에서 확인되는데 동쪽에는 이중으로 벽구가 설치되어 있다.

유물은 石鏃 2점과 石器剝片 1점, 無文土器 底部 1점 등이 남쪽 壁溝와 그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이 밖에 기형을 알 수 없는 無文土器片이 출토되었다.



圖面 13. 5號 住居址 出土遺物<1 ; 1/3, 2~4 : 1/2>

## 나. 遺物

圖面 13-1(圖版 7-9)은 無文土器 底部이다. 내외면 모두 황갈색을 띠며, 태토에는 석영 및 장석이 혼입되어 있다. 표면 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알 수 없다. 잔존높이 2.2cm, 底徑 10.9cm이며, 출토위치는 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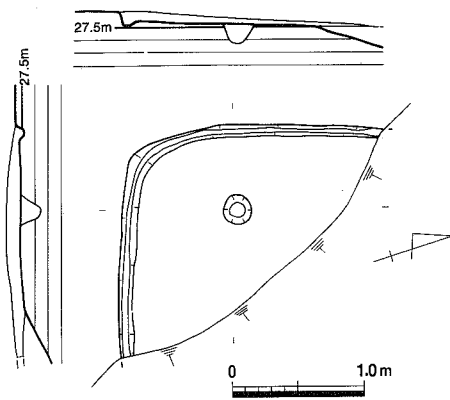
圖面 13-2(圖版 7-8)는 泥岩製의 석기편이다. 일부에 마연한 흔적이 남아 있으나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길이 9.0cm, 너비 3.5cm이며, 출토위치는 3이다.

圖面 13-3(圖版 7-7)은 泥岩製의 有莖式 石鏃이다. 莖部末端部가 만입하였으며, 身部 斷面은 菱形이다. 크기로 볼 때 화살촉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작살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길이 9.6cm, 身部너비 2.9cm이며, 출토위치는 1이다.

圖面 13-4(圖版 7-6)는 泥岩製의 無莖式 石鏃이다. 단면은 편육각형이며 身部에 마연흔이 잔존하고 있다. 逆刺로 결입부는 삼각형으로 만입되어 있다. 길이 4.5cm, 너비 1.4cm, 두께 0.2cm이며, 출토위치는 2이다.

## (6) 6號 住居址

### 가. 遺構(圖面 14, 圖版 8-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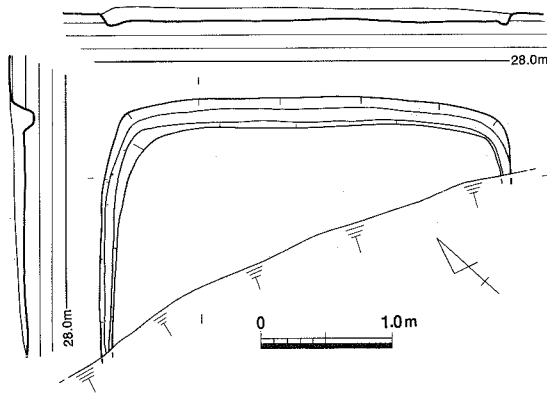
圖面 14. 6號 住居址<1/60>

구릉 정선부의 북쪽 끝부분에 위치하며, 4호 溝와 후대의 경작으로 遺構의 대부분이 유실되었고, 남쪽 일부만 남아 있다. 장축방향은 N71°W이며, 규모는 잔존길이 190cm, 잔존너비 175cm, 깊이 10cm이다.

주거지의 바닥까지 후대의 경작으로 교란되었으나 주거지 상면보다 깊게 굴착한 壁溝에 의해 유구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壁溝는 폭 10cm 내외, 깊이 5~10cm의 溝로 벽면을 따라 둘러져 있다. 遺構의 남서쪽 모서리에 지름 20cm의 주혈이 확인된 것을 제외하고 내부시설이 확인된 것은 없다. 無文土器片이 壁溝 내부에서 검출되었으나 기형을 알 수 있는 유물은 없다.

## (7) 7號 住居址

### 가. 遺構(圖面 15, 圖版 8-3, 4)



圖面 15. 7號 住居址<1/60>

구릉의 남쪽사면 해발 28.4m선상에 위치하며, 장축방향은 N42°W이다. 규모는 길이 301cm, 너비 185cm, 깊이 12cm이다.

평면형태는 남쪽 장벽이 4호 溝에 의해 유실되어 불명확하지만 잔존하는 형태로 보아 방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柱穴과 爐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벽에는 폭 15~25cm의 溝가 돌아가고 있다. 출토유물은 내부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형을 알 수 없는 무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 (8) 1號 溝

### 가. 遺構(圖面 16, 圖面 5 참조, 圖版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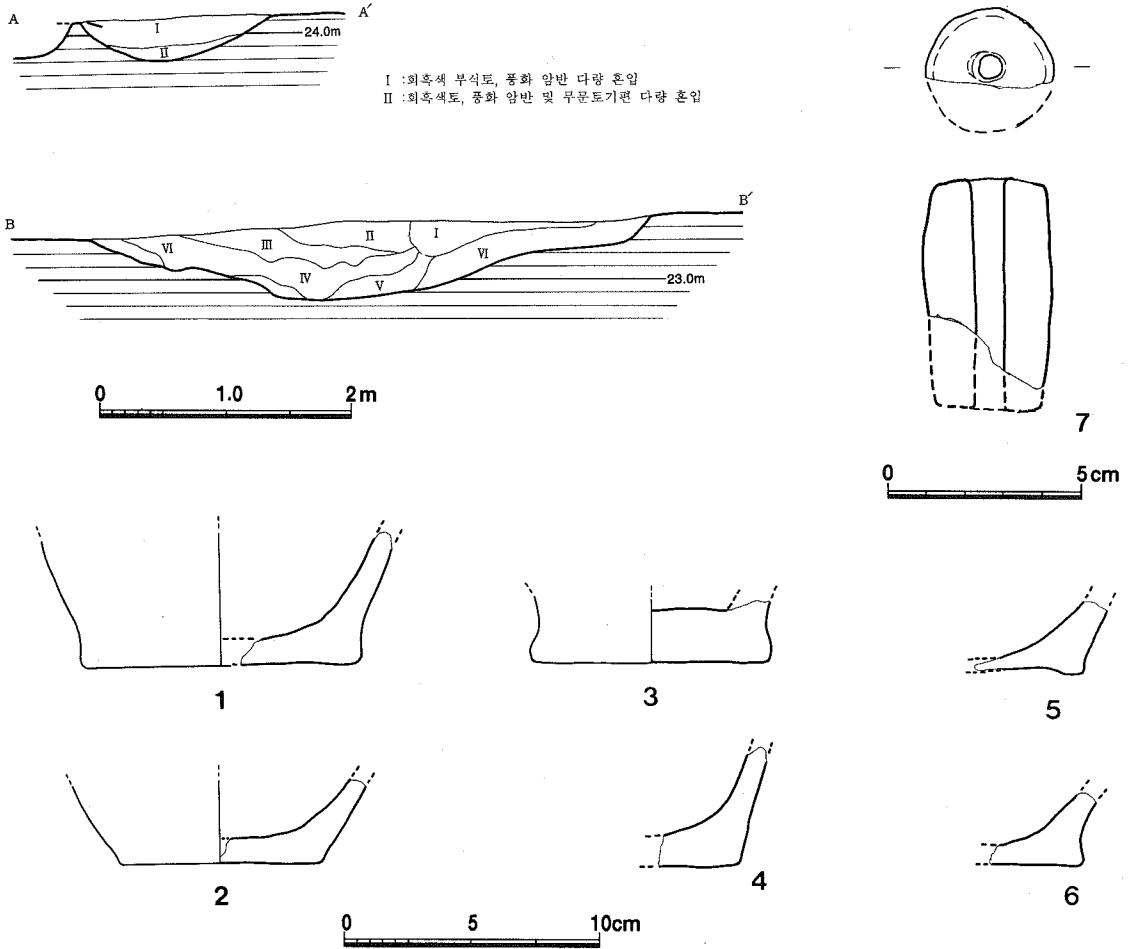
구릉의 북쪽 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구릉의 정상부에서 사면을 따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가는 溝이며, 조사범위 밖으로도 계속 이어져 있다. 조사된 규모는 잔존길이 45m, 최대폭 4.2m, 최대깊이 60cm이다. 후대에 계단상으로 경작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溝의 중간부분이 일부 유실되었다.

내부토는 암갈색 부식토층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7개층으로 세분된다. 내부에는 무문토기편과 목탄 및 소토 등이 혼입되어 있다. 조사된 양상만으로 인위적인 것인지, 자연적인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지만 溝가 위치하고 있는 지형적 조건과 별다른 인위적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자연적인 지형에 의해 형성된 溝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것이 인위적이었던, 자연적인 것이든 구릉 정상부에 있는 주거지와 동시기에 존재했던 것임은 내부에서 확인되는 토기유물로서 확인할 수 있다.

유물은 無文土器 底部와 漁網錘 등이 출토되었으며, 기형을 알 수 없는 無文土器片이 다량으로 검출되었다.

### 나. 遺物

圖面 16-1(圖版 9-2)은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내외면 황갈색이며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표면박리가 심하다. 잔존높이 5.1cm, 推定底徑 11.2cm이다.



圖面 16. 1號 溝 土層<1/60>과 出土遺物<1~6 : 1/3, 7 : 1/2>

圖面 16-2(圖版 9-3)는 溝 內部에서 出土된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색조는 황갈색이며 태토에는 석영 및 장석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3.1cm, 추정저경은 7.9cm이다.

圖面 16-3(圖版 9-4)은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색조는 황갈색이다. 표면박리가 심하며 태토에는 세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2.3cm, 底徑 9.2cm이다.

圖面 16-4(圖版 9-7)는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황갈색을 띠며 표면박리가 심하다.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잔존높이 2.4cm이다.

圖面 16-5(圖版 9-5)는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내외면 명적갈색이며 표면박리가 심하다.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4.5cm이다.

圖面 16-6(圖版 9-6)은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내외면 적갈색을 띠고 있다. 표면박리가 심하다.

석영 및 장식 등 세석립이 혼입된 태토이다. 잔존높이는 2.5cm이다.

圖面 16-7(圖版 9-8)은 원통형의 土製 漁網錘로 1/3가량 결실되었다. 등색을 띠며 燒成은 양호하다. 태토에는 석영, 장식 등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길이 5.7cm 너비 3.1cm, 구멍지름 0.6cm이다.

## (9) 2號 溝

### 가. 遺構(圖面 17, 圖面 5 참조, 圖版 10-1~3)

해발 29~27.4m선상에 구릉의 경사면을 따라 남에서 북으로 흘러가는 溝이다. 규모는 잔존길이 18.5m, 최대폭 3.5m, 최대깊이 65cm이다.

평면형태는 '一'자형이며, 단면은 완만한 'U'자형이다. 지형적 조건이나 유구 바닥의 양상으로 보아 인위적으로 굴착한 溝일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토는 溝의 단면형태와 비슷하게 퇴적되어 있는데 II층에서 무문토기편이 다량으로 수습되었으며 I층은 후대의 영향으로 심하게 오염된 상태이다.

주거지가 분포하고 있는 아래쪽의 공간과 2호 溝 사이에 관련 유구가 없고, 넓은 空地로 남아 있다. 유물은 바닥에서 扁平片刃石斧 1점이 출토되었으며, 無文土器 底部 및 胴體部片 등이 내부퇴적토와 바닥에서 혼재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 나. 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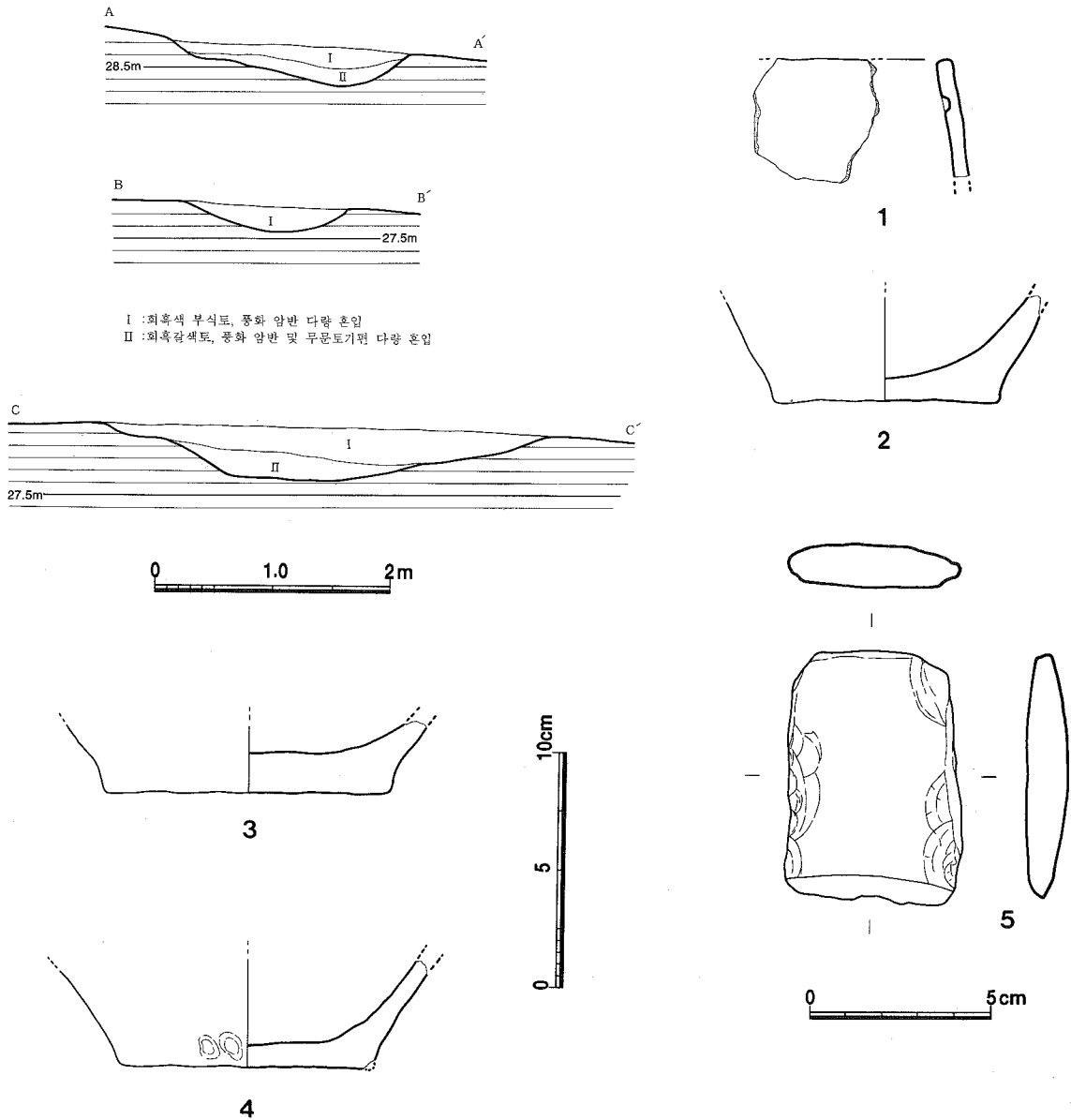
圖面 17-1(圖版 10-4)은 無文土器 口緣部片이다. 암황갈색을 띠며 태토는 정선되었다. 구연단에서 1.5cm아래에 내면에서 외면으로 반투공으로 구멍이 뚫어져 있다. 잔존높이 4.8cm, 구멍지름 0.5cm이다.

圖面 17-2(圖版 10-5)는 無文土器 底部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명황갈색이다.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외면에 물손질 정면흔이 일부 잔존하고 있다. 잔존높이 4.7cm, 底徑 9.7cm이다.

圖面 17-3(圖版 10-6)은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색조는 외면 등색, 속심 담황등색을 띤다. 표면박리가 심해 정면기법은 알 수 없다. 태토에는 석영 및 장식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3.0cm, 底徑 11.9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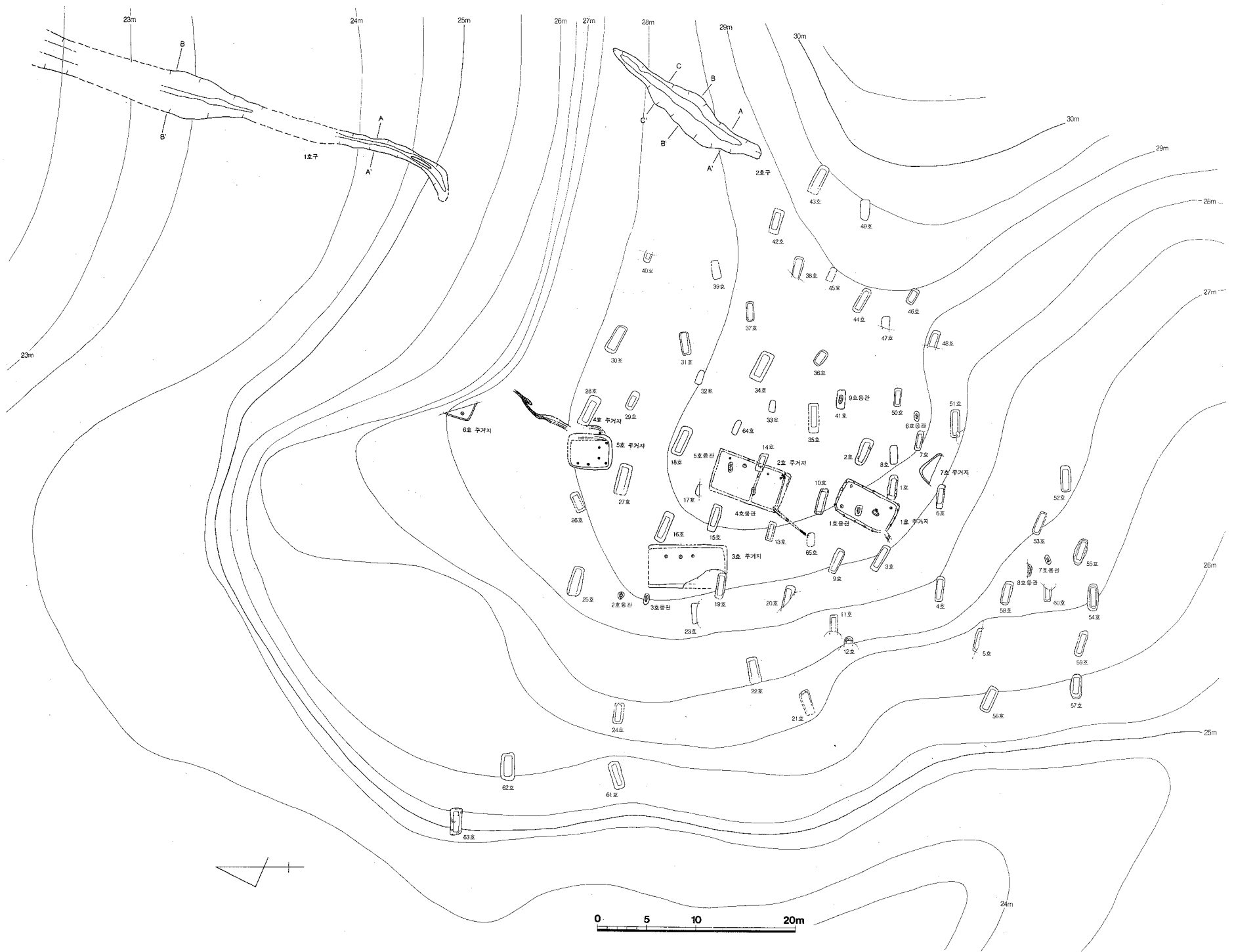
圖面 17-4(圖版 10-7)는 無文土器 底部이다. 색조는 내외면 명적갈색을 띤다. 표면박리가 심해 정면기법은 알 수 없다. 저부와 동체부의 접합 부위에 지두흔이 남아 있다. 태토에는 석영 및 장식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4.4cm, 底徑 10.3cm이다.

圖面 17-5(圖版 10-8)는 泥岩製의 扁平蛤刃石斧이다. 身部에 타격흔이 남아 있다. 길이 7.0cm, 너비 4.8cm이다.



圖面 17. 2號 溝 土層<1/60>과 出土遺物<1~4 : 1/3, 5 : 1/2>





圖面 18. 三韓時代 遺構 配置圖(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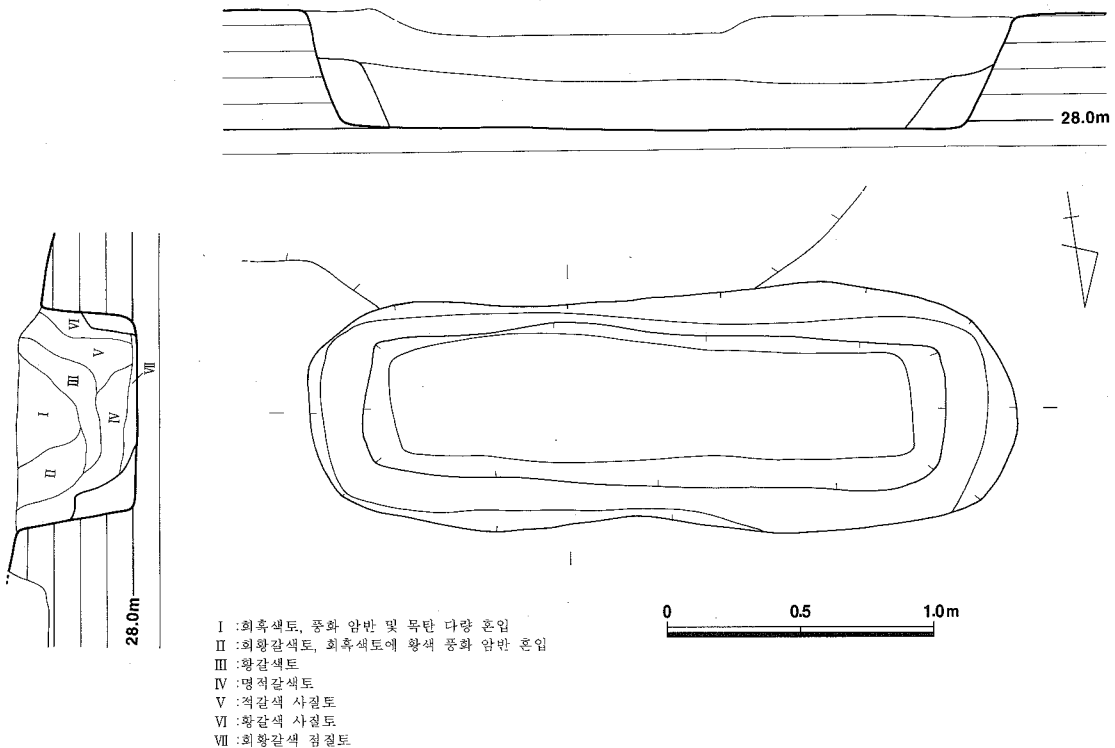
## 2. 三韓時期的 墳墓

### (1) 1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19, 圖版 11-1, 2)

구릉의 정선부에 위치하는데 청동기시대의 遺構인 1호 住居址와 중복되어 있다. 주축방향은 N83°W이며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무덤의 규모는 길이 268cm, 너비 95cm, 깊이 42cm이며, 평면형태는 장단축비가 2.8 : 1 인 장방형이다. 유구내의 충전토로 보아 목관의 규모는 길이 196cm, 너비 40cm, 높이 25cm 정도로 추정된다.

충전토는 묘광 굴착시에 나온 흙을 그대로 되메운 것으로 보이는데 10cm가량의 풍화암반이 혼입되어 있다. 유구의 내부토는 완만한 'U'자상을 보이는데 크게 7개층으로 나누어진다. 하지만 그다지 뚜렷하게 구별되지는 않는다. 무덤의 바닥은 생토면을 정지한 후 그대로 이용하였다. 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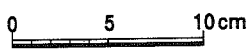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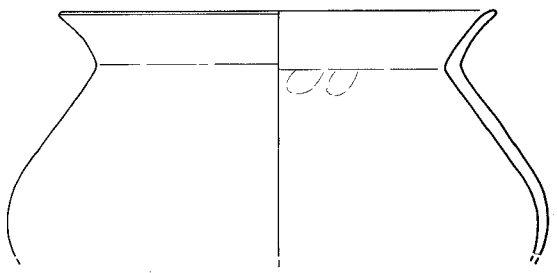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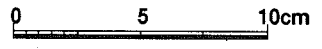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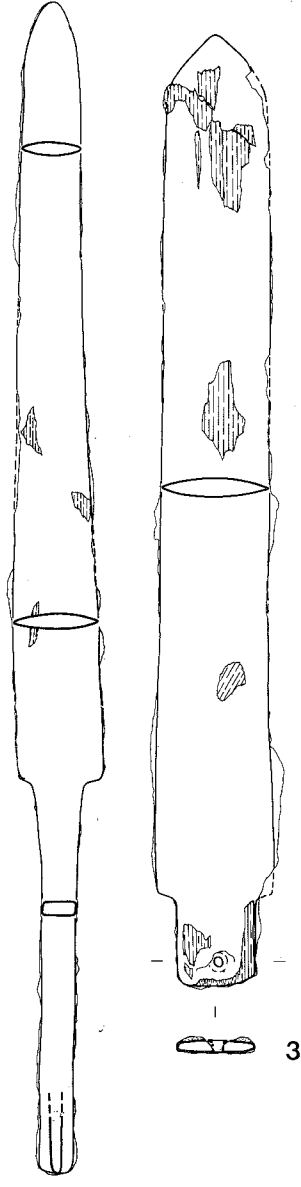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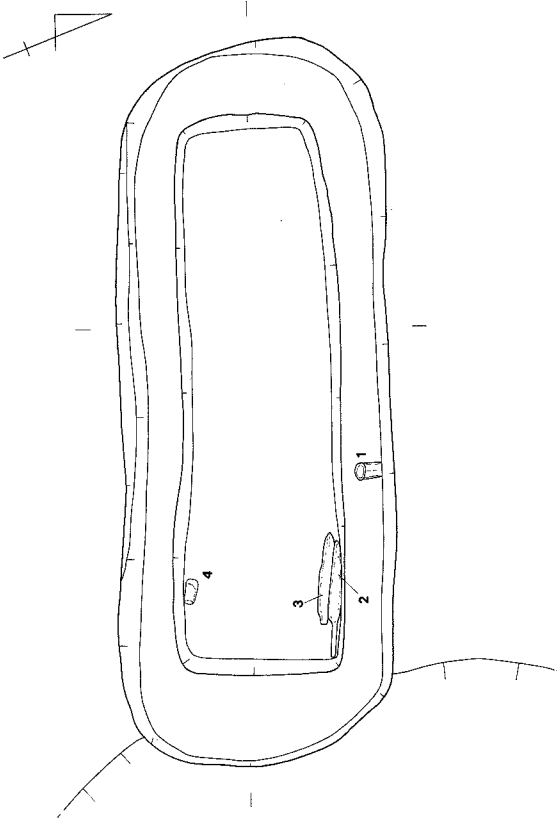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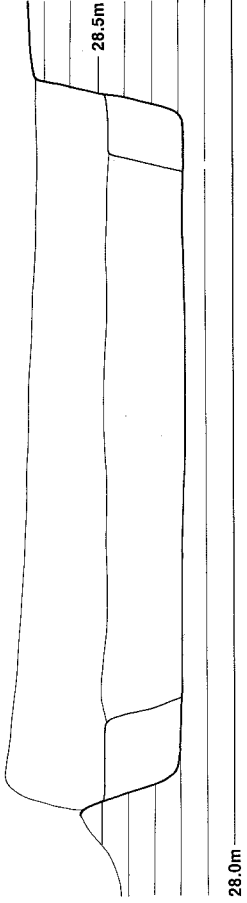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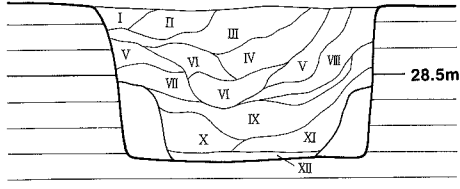
圖面 19. 1號 木棺墓<1/30>

### (2) 2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20, 圖版 11-3, 4; 12-1~3)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하며 동단벽은 나무구덩이로 의해 일부가 훼손되었다. 주축방향은 N6°8'W이다. 무덤의 규모는 길이 280cm, 너비 101cm, 깊이 62cm이다. 목관의 규모는 충전토의 잔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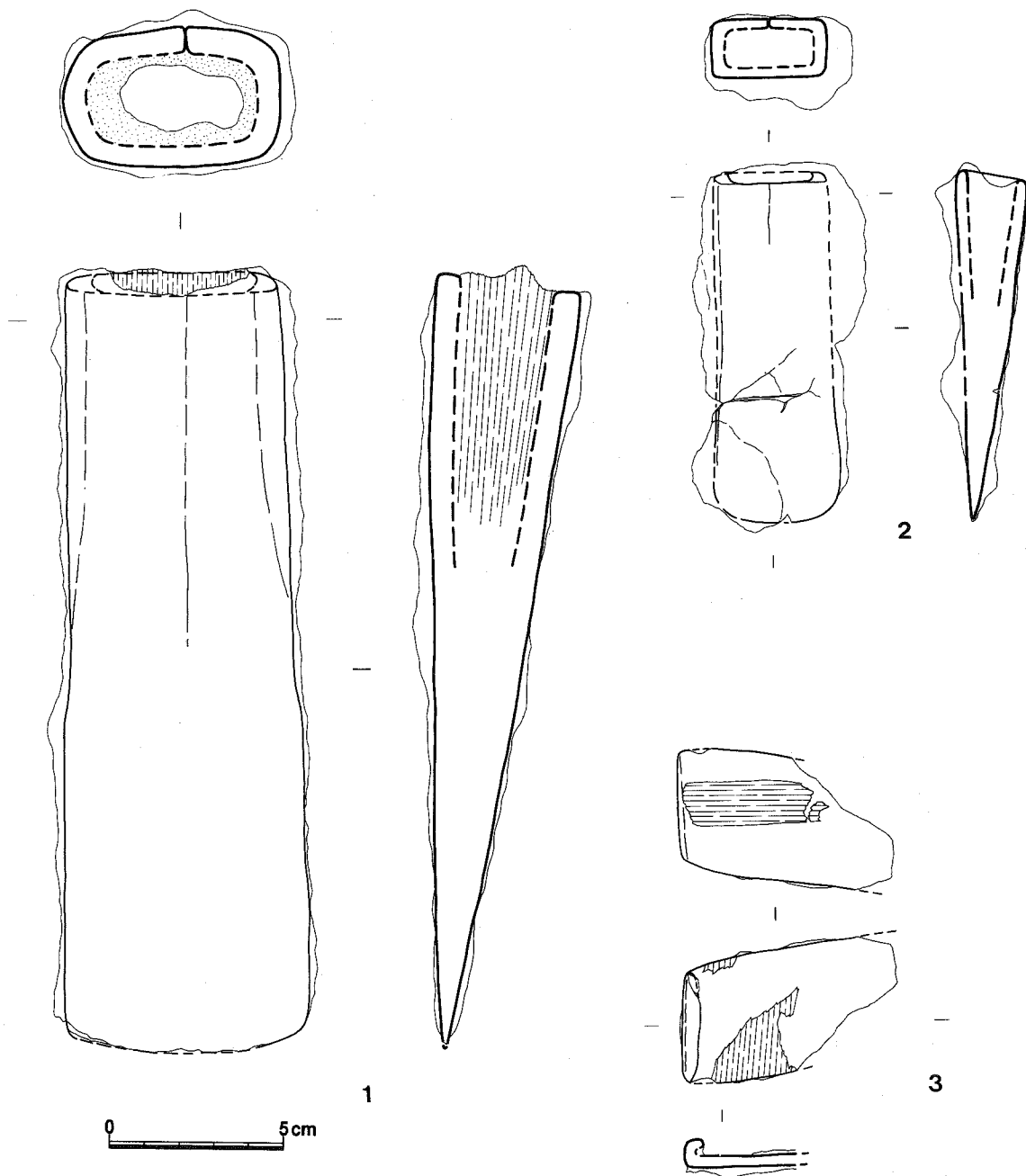
- I : 암갈색 부식토
- II : 회색토
- III : 회갈색 사질토
- IV : 암갈색토
- V : 암황갈색 점질토, 풍화암반 혼입
- VI : 황갈색토, 풍화암반 다량 혼입
- VII : 적갈색토
- VIII : 황갈색토
- IX : 명황갈색 사질토
- X : 회갈색토, 풍화암반 소량 혼입
- XI : 회갈색토, 점성 강함
- XII : 회백색 점질토



圖面 20. 2號 木棺墓(1/30)와 出土遺物(1 : 1/4, 2, 3 : 1/3)

상태로 보아 길이 203cm, 너비 54cm, 깊이 30cm로 추정된다.

유구 내부토의 층위는 크게 11개층이 확인되는데 遺構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구의 중앙부



圖面 21. 2號 木棺墓 出土遺物<1/2>

에서 회흑색의 토양이 확인되었다. 아마도 봉토축조과정에 행하여진 의례행위와 관련된 층위로 생각되는데 봉토의 최상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부식이 심한 것으로 보아 유기물(음식물?)이 매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구 내부토는 중앙으로 치우친 함몰상을 보여 준다. 서쪽에 치우친 남북장벽의 충전토 위에서 목탄편을 포함한 암회색계열의 부식기 강한 토양이 확인되는데 전체적인 현상은 아니다. 아마도 목관과 목관 주위로 충전토를 채운후 덮은 흙으로 판단되지만 정확한 의미는 알 수가 없다.

유물은 遺構의 어깨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鐵斧 1점이 북쪽 장벽에서 출토되었는데 출토위치로 보아 봉토에 매납되었던 유물로 판단된다. 床面에서는 철검 2점이 동단벽에서 출토되었으며, 鐵斧 1점도 맞은 편에서 출토되었다. 충전토에서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 나. 遺物

圖面 20-1(圖版 12-9)은 瓦質 短頸壺의 口緣部片이다. 燒成은 보통이며, 태토에는 장식, 운모가 혼입되어 있다. 내외면 회황색이며, 외면에 격자타날하였다. 내면의 동체부와 경부의 접합부분에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잔존높이 12.5cm, 복원구경 21.8cm이다.

圖面 20-2(圖版 12-4)는 鐵劍으로 身部の 단면은 볼록렌즈형이다. 圖面 20-3에 비하여 柄部の 길이가 길다. 전체적으로 가느다란 느낌인데 柄部도 가늘면서 긴 편이다. 身部 표면에 검집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목질흔이 남아 있다. 길이 46.6cm, 너비 3.2cm이며, 출토위치는 2이다.

圖面 20-3(圖版 12-5)은 鐵劍으로 身部の 단면은 볼록렌즈형이다. 표면에 검집의 흔적으로 보이는 목질흔이 남아 있다. 柄部는 身部の 양쪽을 축약하여 만들었으며 短柄으로 중앙에 고정구멍이 있다. 길이 37.7cm, 너비 4.5cm이며, 출토위치는 1이다.

圖面 21-1(圖版 12-6)은 완형의 鍛造鐵斧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銚部에는 목질흔이 남아 있다. 길이 23.4cm, 너비 7.1cm, 공부의경 6.4×4.4cm이며, 출토위치는 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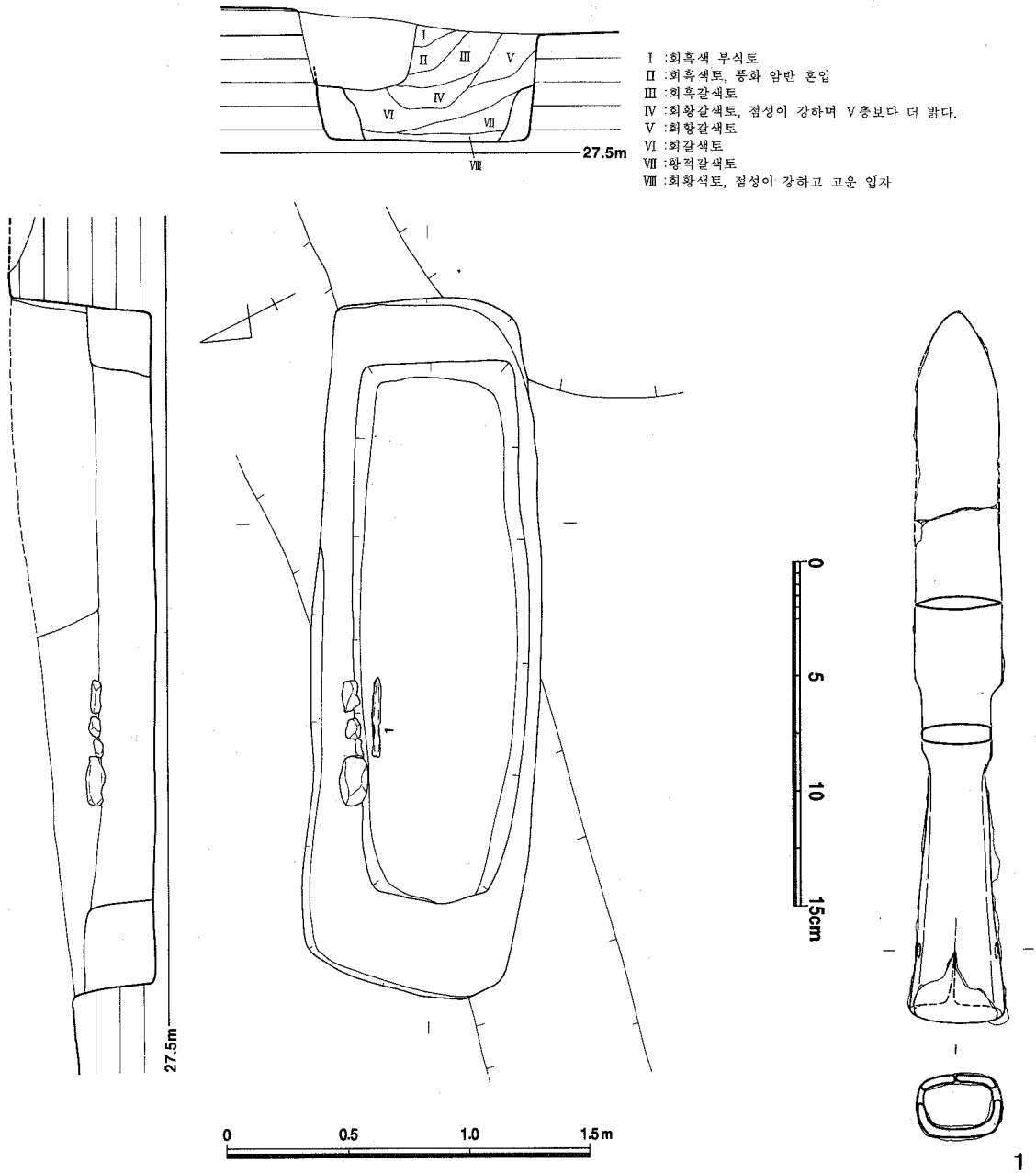
圖面 21-2(圖版 12-7)는 鍛造鐵斧로 刃部는 身部에 비해 약간 넓게 벌어졌으며 銚部の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길이 10.5cm, 너비 3.2cm이고, 銚部外徑 3.5×1.8cm이며, 출토위치는 4이다.

圖面 21-3(圖版 12-8)은 대부분이 결실되고 基部의 일부만 잔존하는 鐵鎌片이다. 基部에는 목질이 남아 있다. 잔존길이는 6.4cm이다.

### (3) 3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22, 圖版 13-1~3)

구릉의 남쪽 사면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61°W이다. 유구의 상부는 동-서로 관통한 과수원



圖面 22. 3號 木棺墓<1/30>와 出土遺物<1/3>

배수로와 남단벽쪽의 나무구덩이로 인해 원형이 크게 훼손되었다. 무덤의 규모는 길이 294cm, 너비 95cm, 깊이 57cm이며, 평면형태는 장단축비가 3.1 : 1로 세장한 말각장방형이다. 목관의 규모는 잔존길이 218cm, 너비 64cm, 깊이 25cm로 추정된다.

유구의 내부트는 크게 3개층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대안리유적 목관묘에서 특징적으로 나타

나고 있는 회흑색토와 그 아래의 회갈색토, 황갈색토 등으로 구분된다. 회흑색토는 봉토작업과정의 의례행위와 관련된 층위로 보인다. 충전토는 비교적 점성이 강하며 밝은 빛을 띠는 황갈색토로 구성되어 있다.

유물은 북장벽에 沿한 곳에서 鐵銼 1점이 출토되었는데 공교롭게도 鐵銼가 확인된 곳의 充填土 上部에 할석들이 모여있다. 따라서 할석과 같이 매납된 鐵銼가 목관 함몰시에 바닥으로 떨어진 것일 가능성도 있다.

#### 나. 遺物

圖面 22-1(圖版 13-4)은 二段柄式鐵銼로 身部의 단면은 볼록렌즈형이며, 關部의 단면은 장방형이다. 銼部에는 고정구멍이 양쪽으로 뚫어져 있다. 길이 37.0cm, 너비 3.7cm, 공부외경 2.8×3.5cm이다.

### (4) 4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23, 圖版 13-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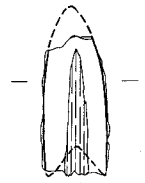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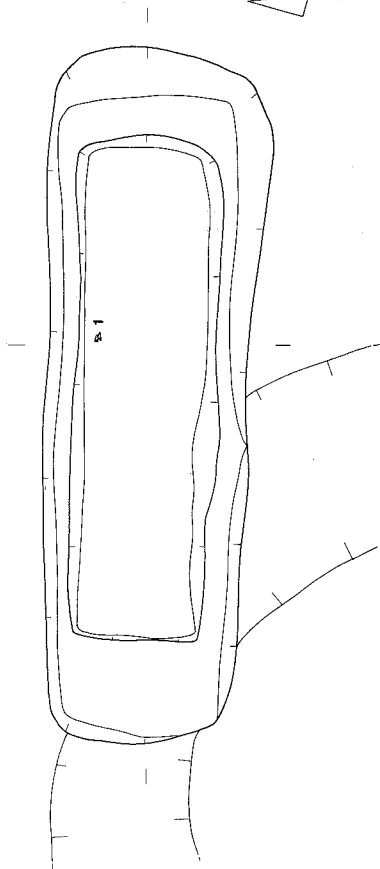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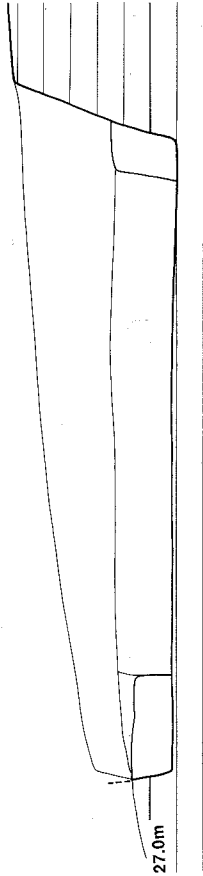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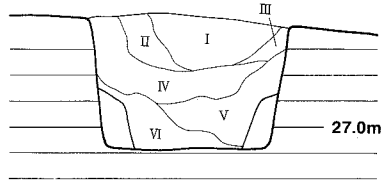
구릉의 서쪽 사면에 위치하며 유구의 서단벽쪽은 나무구덩이에 의해 일부가 파괴되었다. 주축방향은 N85°W으로 등고선방향과 직교한다. 무덤의 규모는 길이 267cm, 너비 74cm, 깊이 57cm이다. 충전토의 상태로 볼 때 목관의 규모는 길이 190cm, 너비 48cm, 깊이 24cm정도로 추정된다.

서단벽의 충전토는 동단벽에 비해서 다소 넓은 편이며, 양장벽의 충전토는 10cm 내외이다. 유구 내부토는 황갈색토와 회흑색토로 구분되며, 중앙으로 함몰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바닥은 별도의 시설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단벽쪽은 약간 경사지게 굴착하였으며, 장벽은 수직으로 파여져 있다. 내부 토층에 목관의 부식 후 함몰되는 양상이 잘 나타나고 있다. 무경식 鐵鏃 2점이 바닥에서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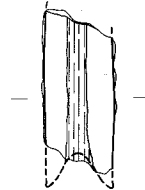
#### 나. 遺物

圖面 23-1, 2(圖版 13-7, 8)는 無莖式 鐵鏃인데 1(圖版 13-7)은 基部가 삼각형으로 결입되어 있으며, 矢柄 흔적이 남아 있다. 고정구멍의 흔적은 잘 보이지 않는다. 길이 3.6cm, 너비 1.7cm이다. 2(圖版 13-8)도 基部에 矢柄 흔적이 잔존하고 있으며 선단부는 결실되었다. 基部 일부만 잔존하고 있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잔존길이 4.4cm, 너비 1.7cm이다.

- I : 회색색토
- II : 회색색토, I 층보다 어둡다
- III : 암회황색토
- IV : 암적갈색토
- V : 황갈색토, 풍화암반 혼입
- VI : 회황색 점질토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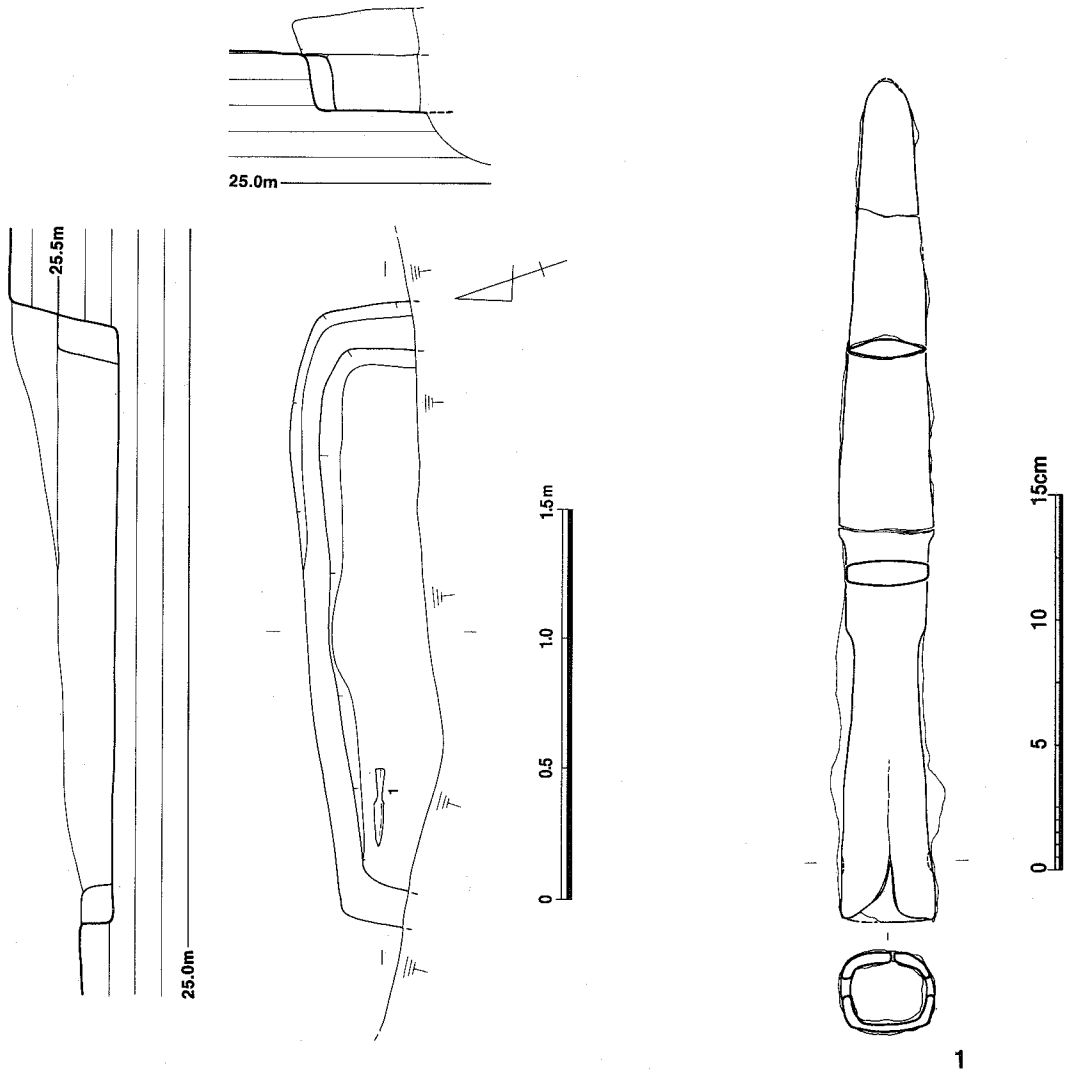
圖面 23. 4號 木棺墓<1/30>와 出土遺物<1/2>

### (5) 5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24, 圖版 14-1)

시굴조사 시에 확인된 遺構로 구릉의 남쪽사면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72° W이다. 유구의 남장벽쪽은 과수원 배수로에 의해 완전히 훼손되었다. 무덤의 규모는 길이 240cm, 잔존너비 45cm





圖面 24. 5號 木棺墓<1/30>와 出土遺物<1/3>

깊이 40cm이며, 목관의 규모는 길이 200cm, 잔존너비 30cm, 높이 23cm로 추정된다.

유물은 상면에서 二段柄式鐵銚 1점이 선단부를 서쪽으로 한 채 출토되었다. 단경호로 추정되는 토기편이 내부토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출토되었으나 片의 양이 적어 기형파악이 불가능하였다.

나. 遺物

圖面 24-1(圖版 14-2)은 柄部가 2단으로 단이 진 二段柄式鐵銚이다. 身部의 단면은 볼록렌즈형이고, 柄部의 단면은 장방형이다. 銚部에는 고정구멍이 2개 있다. 길이 33.5cm, 너비 3.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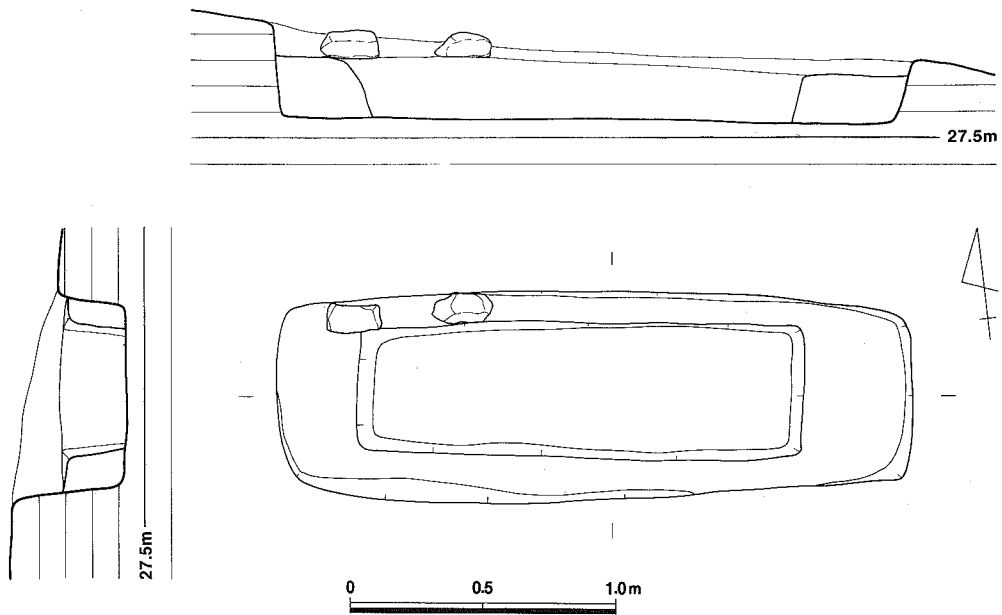
## (6) 6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25, 圖版 14-5, 6)

구릉의 서쪽 사면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83°W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되게 설치되어 있다. 무덤의 규모는 길이 240cm, 너비 80cm, 깊이 42cm이며, 충전토로 추정되는 목관의 규모는 길이 160cm, 너비 45cm, 깊이 24cm이다. 목관의 크기에 비해 장벽의 길이가 상당히 긴 편이다.

유구 내부토는 목탄이 혼입된 회흑색토와 풍화암반이 혼입된 암갈색토로 구성되어 있다.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목관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북장벽의 충전토 상부에 할석 2매가 얹힌 상태로 확인되었다. 유구의 잔존상태는 양호한 편이지만 출토유물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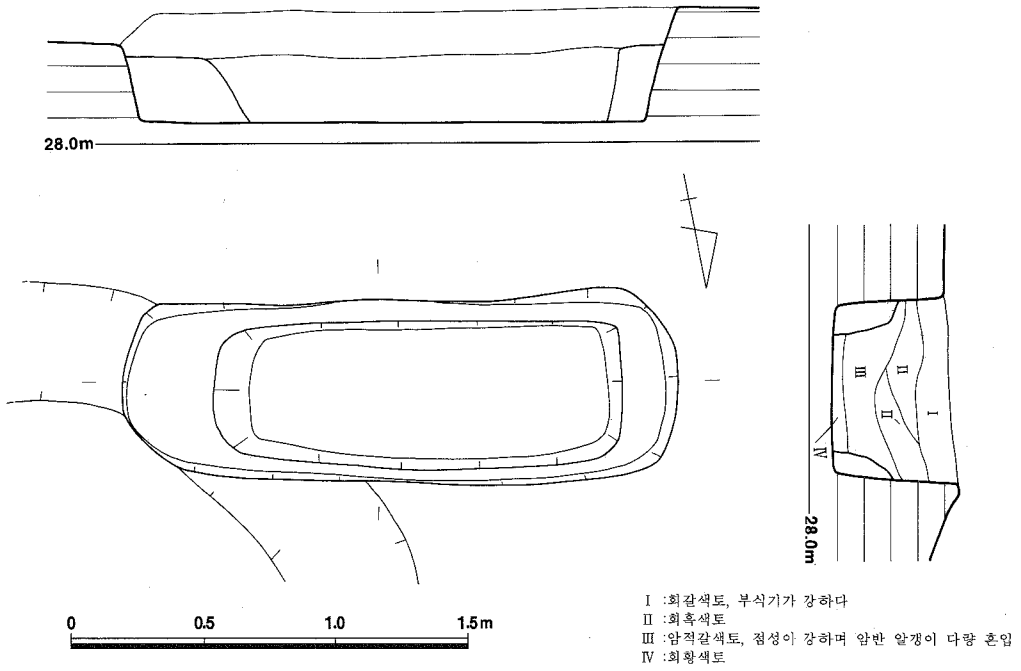
圖面 25. 6號 木棺墓<1/30>

## (7) 7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26, 圖版 14-3, 4)

구릉의 서쪽 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축방향은 N79°W으로 등고선방향과 직교되게 설치되어 있다. 유구의 서단벽은 나무구덩이에 의해 일부 파괴되었다. 무덤의 규모는 길이 210cm, 너비 70cm, 깊이 42cm이다. 조사된 충전토로 보아 목관의 규모는 길이 134cm, 너비 47cm, 깊이 25cm정도로 추정된다.

충전토는 양단벽쪽이 폭이 넓은 반면 장벽쪽은 10cm내외로 좁다. 유구의 바닥에서 0.5cm내외 두께로 회백색토가 확인되었는데 목관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출토된 유물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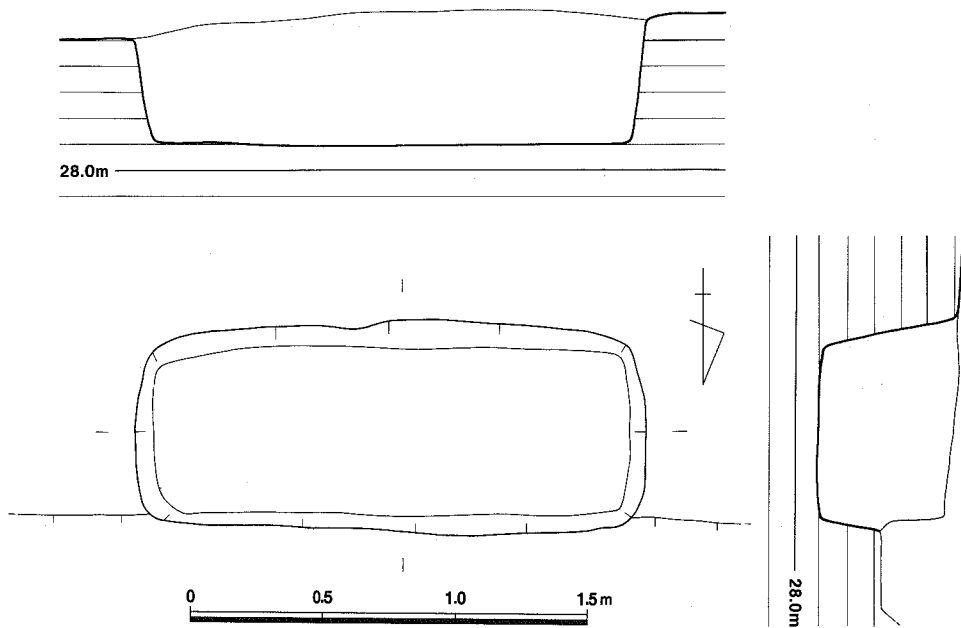


圖面 26. 7號 木棺墓<1/30>

(8) 8號 木棺墓

가. 遺構(圖面 27, 圖版 15-1)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 장벽은 후대의 경작과 관련된 배수로에 의해 파괴되



圖面 27. 8號 土壤墓<1/30>

었다. 주축방향은 N89° W이고, 무덤의 규모는 길이 193cm, 너비 82cm, 깊이 52cm이다.

유구 내부의 훼손이 심하여 유구의 토층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유구 내부에 합몰된 토층에서 다른 遺構에서도 보이던 회흑색토가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교란이 심한 편이라 층전토를 제대로 조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유구의 바닥에서 목관의 흔적으로 생각되는 회백색토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목관이 놓여져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출토유물은 없다.

## (9) 9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28, 圖版 15-2, 3)

해발 28m선상에 위치하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북서쪽 장벽과 단벽 일부가 동-서로 관통하는 배수로에 의해 일부 파괴되었다. 주축방향은 N63° W이고, 무덤의 규모는 길이 252cm, 너비 85cm, 깊이 60cm이다. 목관의 규모는 길이 235cm, 너비 60cm, 깊이 28cm로 추정된다.

유물의 배치상태와 회백색토의 관혼적으로 보아 목관은 남쪽장벽에 치우쳐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층전토는 남단벽쪽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유물은 유구의 바닥에서 無莖式 鐵鏃 2점과 鐵斧 1점이 확인되었으며, 短頸壺 1점과 鐵斧 1점은 동-서로 지나가는 배수로에 의해 교란된 상태로 수습되어 정확한 출토위치를 알 수 없다.

### 나. 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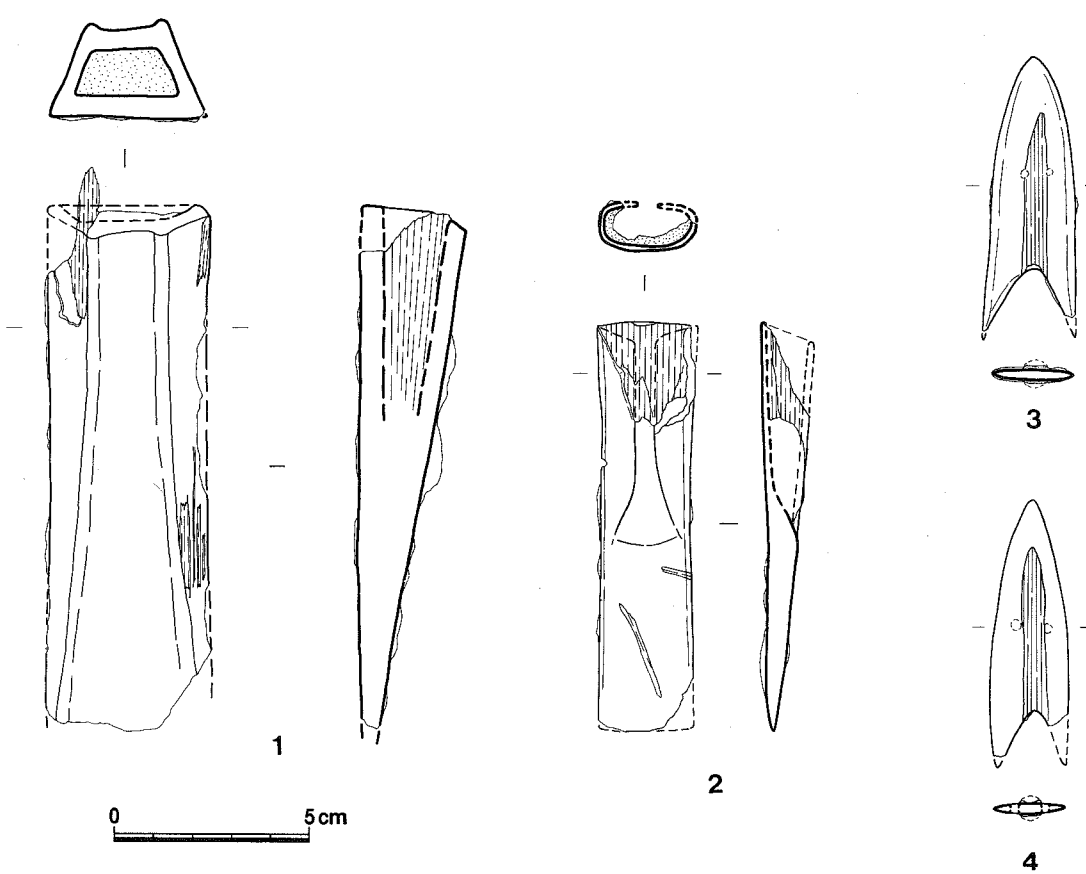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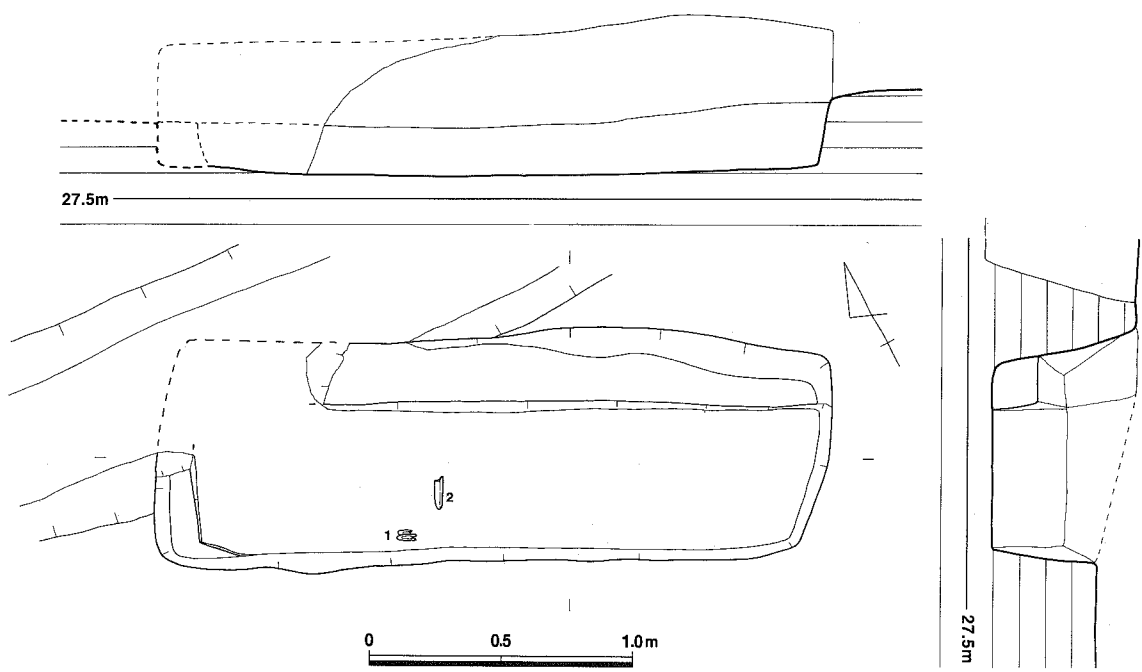
圖面 28-1(圖版 15-7)은 梯形 鑄造鐵斧로 銚部와 刃部가 일부 결실되었다. 등에는 2조의 돌대가 만들어져 있으며, 身部 측면에 목질이 부착되어 있다. 銚部 단면은 사다리꼴이며, 銚部 내부에 목질이 남아 있다. 잔존길이 14.0cm, 너비 4.3cm, 공부외경 4.0×2.5cm이며, 교란토 수습유물이다.

圖面 28-2(圖版 15-8)는 鍛造鐵斧로 銚部 및 刃部가 일부 결실되었다. 銚部 내면에는 목질흔이 남아 있다. 폭이 좁고 날렵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목공구로 추정된다. 길이 11.0cm, 너비 2.5cm, 銚部外徑 2.6cm×1.4cm이며, 출토위치는 2이다.

圖面 28-3, 4(圖版 15-5, 6)는 無莖式 鐵鏃으로 3(圖版 15-5)은 刺의 끝부분이 일부 결실되었다. 2개의 고정구멍이 뚫어져 있으며, 결입부에서 身部까지 목질이 부착되어 있다. 신부단면은 편육각형이며, 잔존길이 7.5cm, 너비 2.5cm이다. 4(圖版 15-6)도 刺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2개의 고정구멍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입부에서 身部까지 목질이 부착되어 있다. 신부단면은 볼록렌즈형이며, 잔존길이 7cm, 너비 2.0cm이며, 출토위치는 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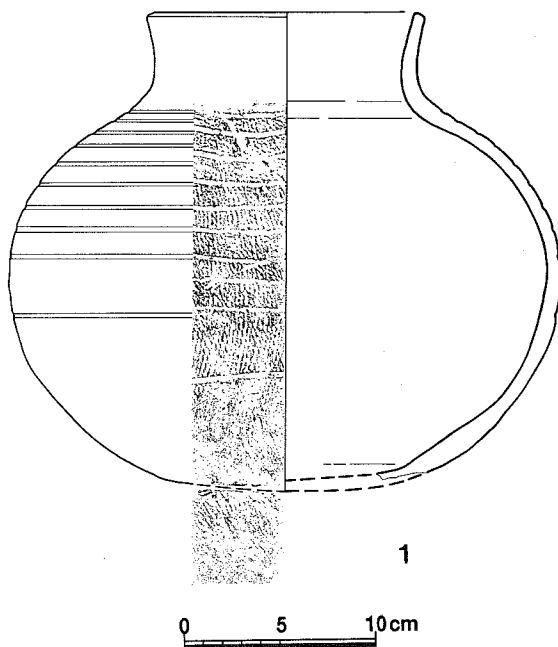
圖面 29-1(圖版 15-4)은 瓦質 短頸壺로 燒成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전체적으로 1/2정도가 결실되었다.

내외면 회청색이다. 태토에는 장식, 운모 등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회전물손질과 물손질이



圖面 28. 9號 木棺墓<1/30>와 出土遺物<1/2>

이루어졌으나, 전체적으로 박리가 심하여 확인하기 어렵다. 표면의 胴上部에는 繩蓆打捺을 규칙적으로, 그리고 하부에는 불규칙적으로 시행하였다. 繩蓆打捺文 위로 10조의 횡침선을 돌렸다. 높이 24.5cm, 口徑 13.2cm, 胴最大徑 27.8cm이다.



圖面 29. 9號 木棺墓 出土遺物<1/4>

## (10) 10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30, 圖版 16-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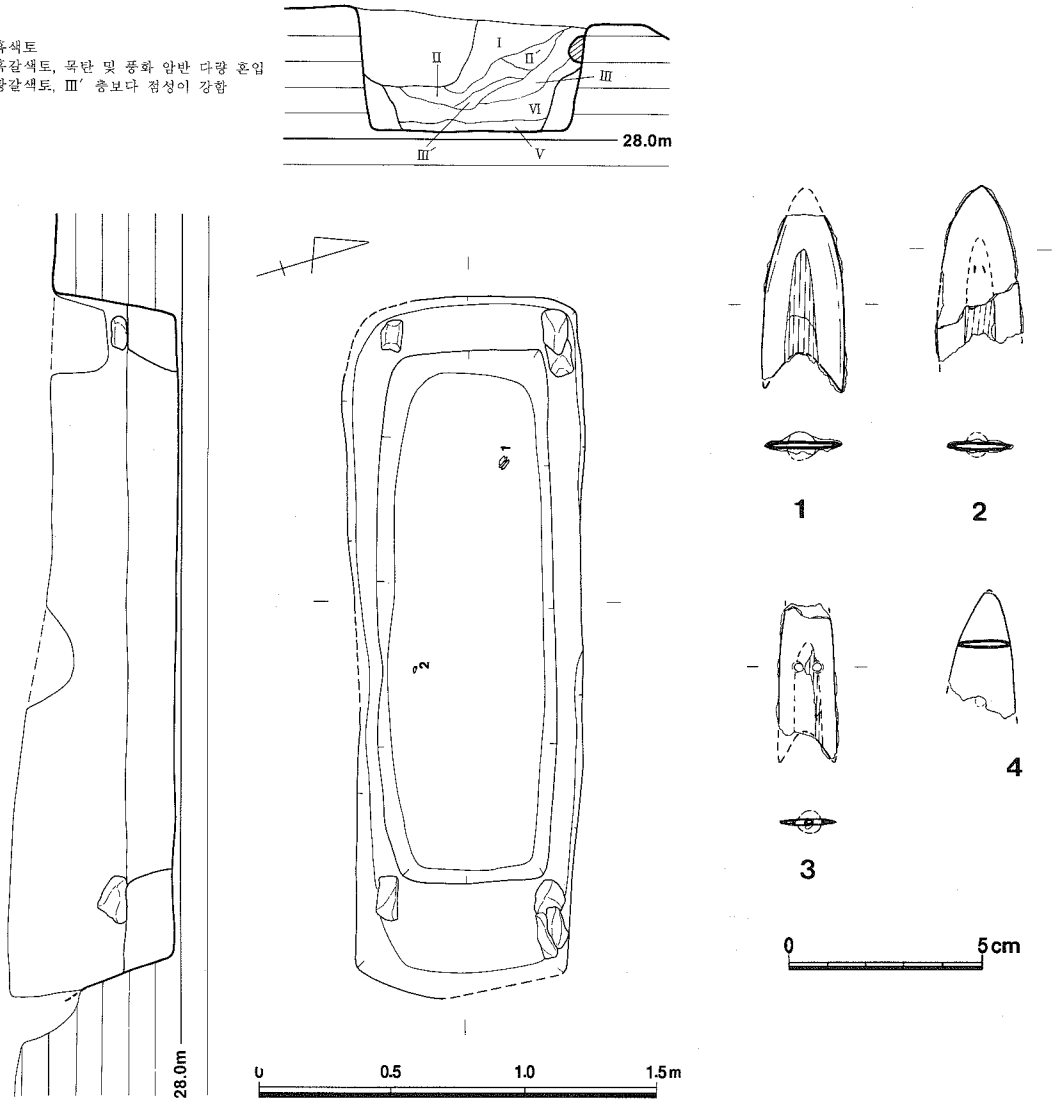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71°W이다. 遺構의 상부는 과수원 배수로에 의해서 상당부분 훼손되었다. 무덤의 규모는 길이 304cm, 너비 113cm, 깊이 40cm이고, 목관의 규모는 길이 275cm, 너비 82cm, 깊이 40cm로 추정된다.

유구의 바닥에서는 목관의 흔적으로 보이는 회백색 점토가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층전토의 네 모퉁이 상단에 15~20cm 크기의 할석이 놓여져 있는데 아마도 목개의 상단에 얹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구 내부에서는 鐵鏃 4점이 검출되었다.

### 나. 遺物

圖面 30-1~4(圖版 16-3~6)는 無莖式 鐵鏃이다. 1(圖版 16-3)은 선단부 일부가 결실되었으며, 결입부에 화살대 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길이 4.7cm, 너비 2.0cm, 두께 0.2cm이다. 2(圖版 16-4)는 자부분이 일부 결실되었으며, 결입부에 화살대 흔적 남아 있다. 잔존길이 4.2cm, 너비 2.0cm, 두께 0.2cm이다. 3(圖版 16-5)은 선단부와 刺부분이 일부 결실되었다. 결입부에 화살대 흔적 남아 있으며, 身部에 고정구멍 2개가 있다. 잔존길이 4.1cm, 너비 1.5cm이다. 4(圖版 16-6)는 선단부 일부만이 잔존한다. 身部 중앙에 고정구멍 한 개가 보인다. 잔존길이 3.3cm, 너비 2.6cm이다.

I : 회흑색토  
 II : 회흑갈색토, 목관 및 풍화 암반 다량 혼입  
 III : 회황갈색토, III' 층보다 점성이 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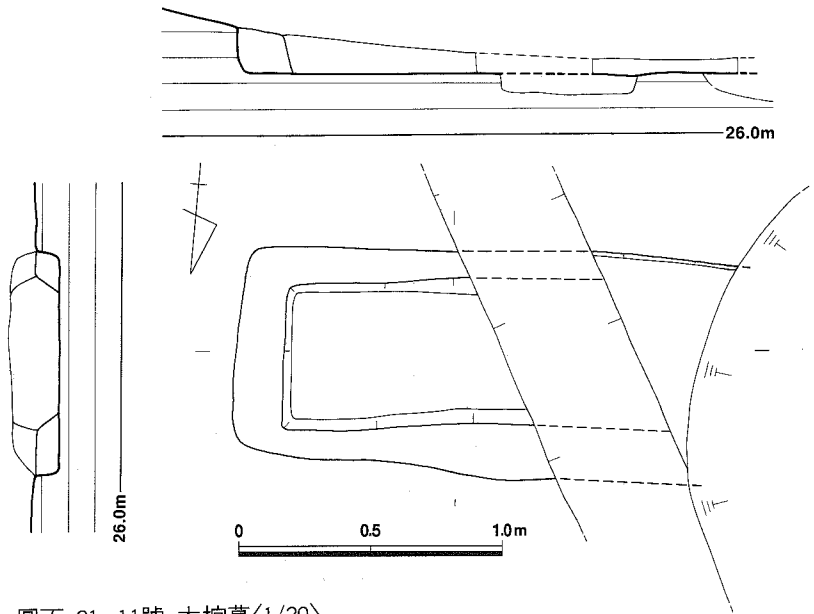
圖面 30. 10號 木棺墓<1/30>와 出土遺物<1/2>

### (11) 11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31, 圖版 16-8)

해발 27.4m선상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85° E이다. 서쪽 단벽은 나무구덩이에 의해 파손되어 遺構의 길이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무덤의 규모는 잔존길이 189cm, 너비 84cm, 잔존깊이 20cm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잔존하는 충전토로 보아 목관의 규모는 잔존길이 152cm, 너비 46cm, 높이 20cm로 추정된다.

배수로와 나무구덩이에 의해 전체적으로 파손이 심한 편이다. 유구의 바닥은 생토면을 정지하여 사용하였으며, 바닥에서 회백색토가 부분적으로 확인되기도 한다. 출토된 유물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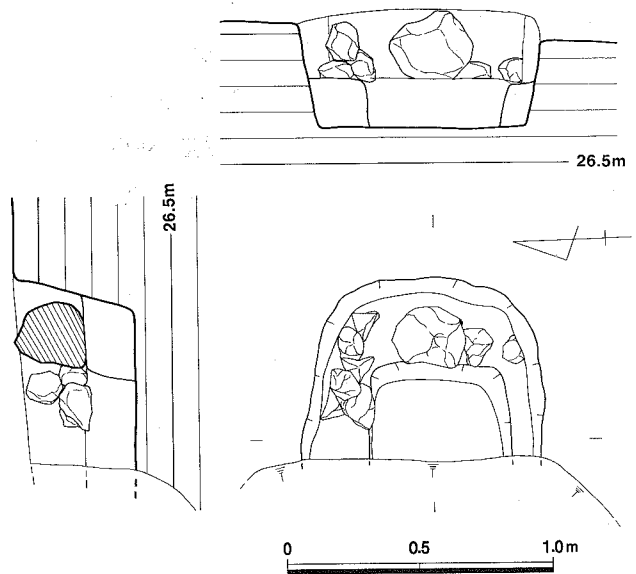
圖面 31. 11號 木棺墓<1/30>

## (12) 12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32, 圖版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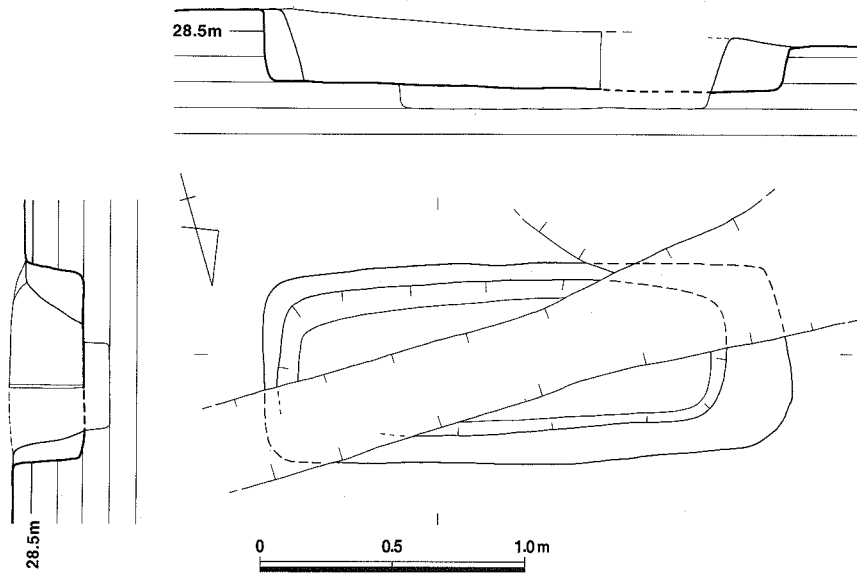
구릉의 서쪽 사면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88°W이다. 동단벽 일부를 제외한 유구의 대부분이 나무구덩이에 의해 파괴되었다. 잔존하는 무덤의 규모는 잔존길이 72cm, 너비 88cm, 깊이 46cm이며, 목관의 규모는 잔존길이 32cm, 너비 47cm, 깊이 19cm이다.

충전토 상부에 지름 10~30cm의 할석들이 놓여져 있는데 유구의 일부분에 국한된 현상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현상인지는 유구의 훼손이 심하여 단언하기 어렵다. 할석은 충전토의 상부에서만 확인되고 있어 하관 이후 의례시에 木蓋 위에 얹혀진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된 유물은 없다.



圖面 32. 12號 木棺墓<1/30>





圖面 33. 13號 木棺墓<1/30>

### (13) 13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33, 圖版 17-1)

해발 28.6m선상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74°W이다. 배수로와 나무구덩이에 의해 유구의 중심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었다. 무덤의 규모는 길이 198cm, 너비 79cm, 깊이 30cm이며,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다. 목관의 규모는 길이 155cm, 너비 40cm, 높이 30cm정도로 추정된다.

유구 내부토는 회흑색토로 채워져 있으며 충전토는 풍화암반이 일부 혼입된 암갈색토이다. 충전토는 묘광굴착 후 그 흙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구의 바닥은 파괴가 심하여 알 수 없지만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출토된 유물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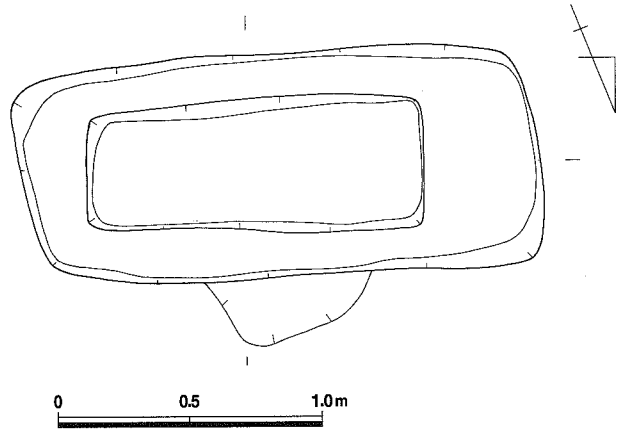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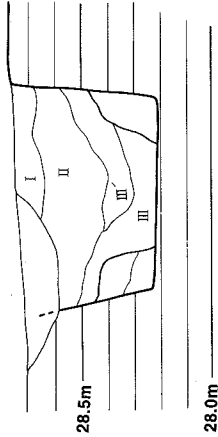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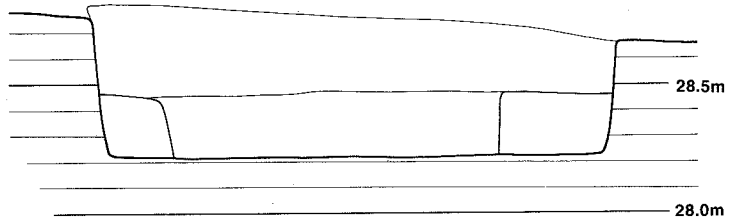
### (14) 14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34, 圖版 17-2, 3)

2호 주거지의 동장벽쪽에 위치하며 주거지를 파괴하면서 축조되었다. 북장벽쪽에 나무구덩이로 인해 묘광이 일부 파괴된 것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다. 주축방향은 N68°W이며, 묘광의 규모는 길이 197cm, 폭 87cm, 깊이 58cm이다. 목관의 규모는 길이 125cm, 폭 42cm, 깊이 25cm이다.

내부의 토층은 회황색의 충전토와 회흑색토 황갈색토 등으로 구성되는데 II, III층에서 함몰양상이 관찰된다. 床面에는 별다른 시설을 하지 않고 생토면을 정지해서 그대로 이용하였다. 출토된 유물은 없다.

I : 회흑색토  
 II : 회갈색토, 목탄 및 풍화 암반 다량 혼입  
 III : 회갈색토, III 층보다 점성이 강함



圖面 34. 14號 木棺墓<1/30>

## (15) 15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35, 圖版 17-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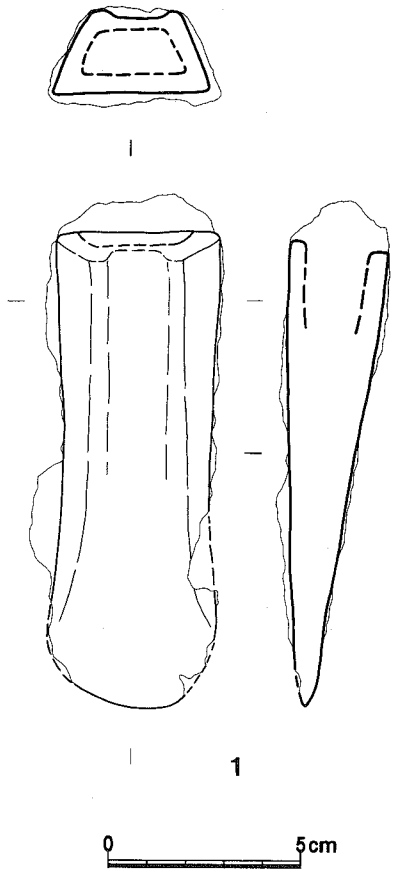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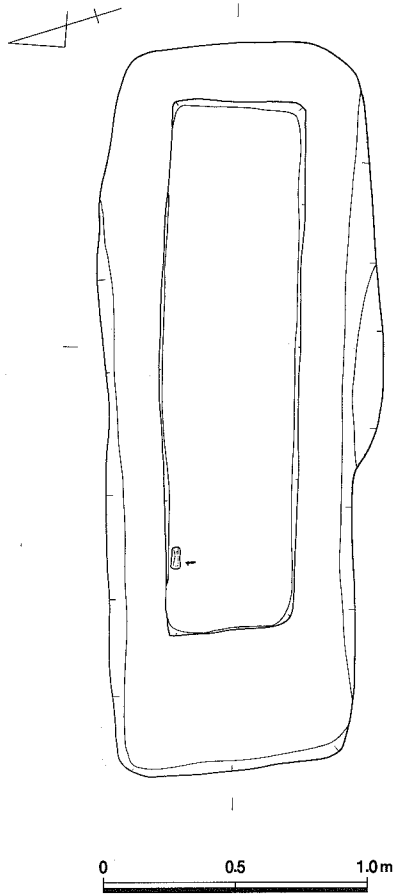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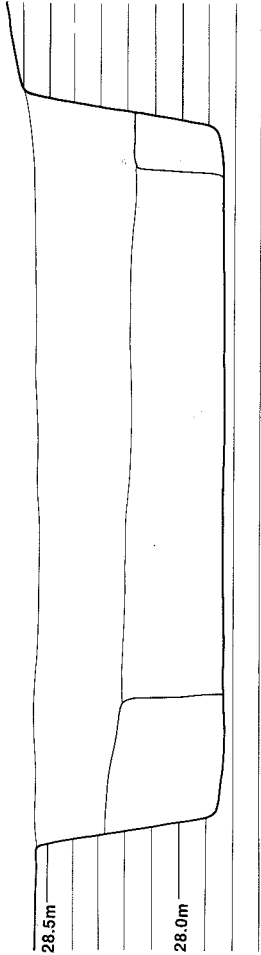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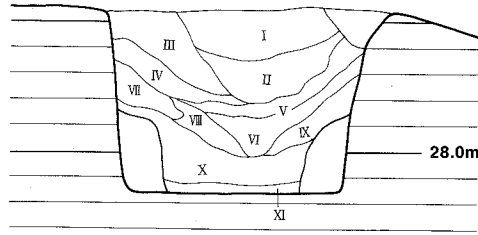
해발 27.8m선상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서쪽으로 16호, 동쪽으로 13호 목관묘가 위치하고 있다. 무덤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80cm, 폭 93cm, 깊이 65cm이다. 주축방향은 N73°W이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층전토로 본 목관의 규모는 길이 205cm, 폭 50cm, 깊이 40cm이다.

토층은 황갈색과 회흑색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구의 중심으로 함몰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유구의 바닥에는 목관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회백색 점토가 띠모양으로 남겨져 있다. 잔존하는 층전토의 양상으로 보아 棺材는 판재로 생각되지만 結構方法은 알 수 없다. 목관은 묘광의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설치되었다.

### 나. 遺物

圖面 35-1(圖版 17-6)은 鑄造鐵斧로 刃部는 身部에 비해 약간 넓게 벌어졌으며 身部の 단면은 사다리꼴이다. 선단부의 상태로 보아 사용되었던 것을 副葬한 것으로 보인다. 銚部는 수화가 심하여 막힌 상태이다. 길이 12.4cm, 너비 4.3cm, 銚部外徑 4.5×2.5×2.7cm이다.

- I : 회흑색토
- II : 회흑갈색토, 점성이 강함
- III : 암갈색토
- IV : 황갈색토
- V : 암갈색토
- VI : 회황갈색토
- VII : 회갈색토
- VIII : 황갈색토
- ※ 받기 차이 VI층 < VII층 < VIII층
- IX : 명황갈색토
- X : 회황색토
- XI : 회백색 점질토



圖面 35. 15號 木棺墓<1/30>와 出土遺物<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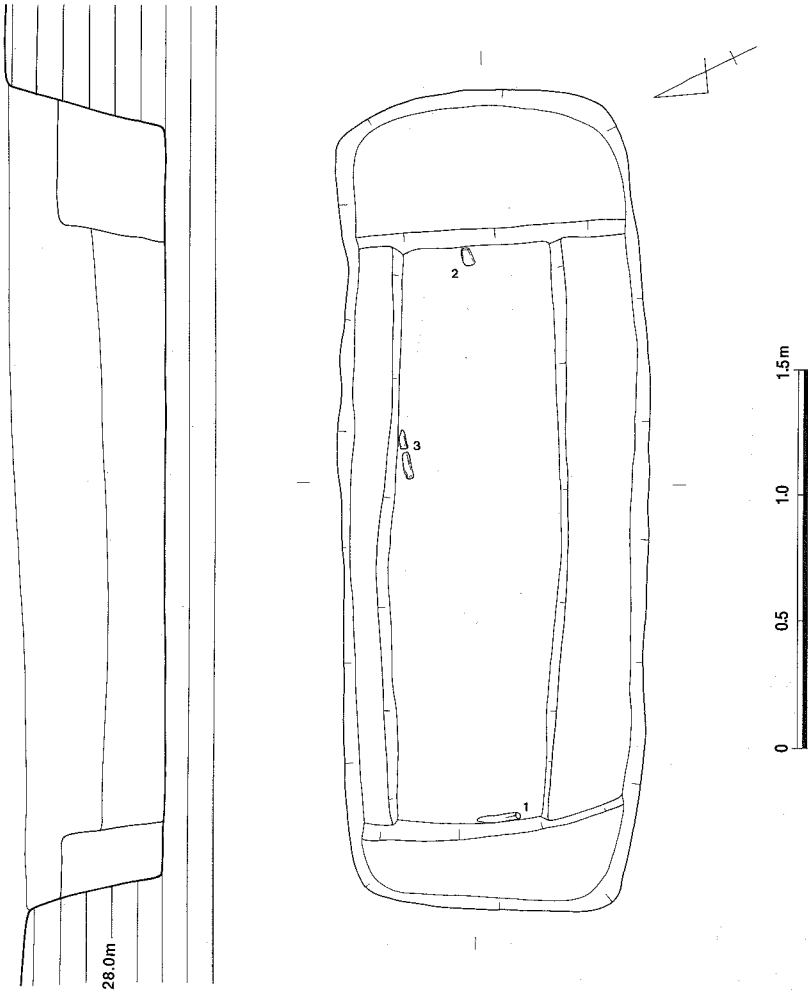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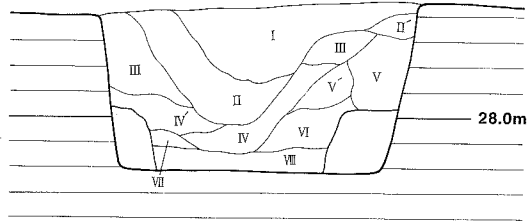
### (16) 16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36, 圖版 18-1~3)

구릉의 정선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65°W이다. 무덤의 규모는 길이 324cm, 너비 120cm, 깊이 56cm이다. 충진토의 상태로 본 목관의 규모는 길이 240cm, 폭 70cm, 깊이 43cm이다.

유구 내부토는 회흑색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아래쪽에는 주로 암갈색토층으로 채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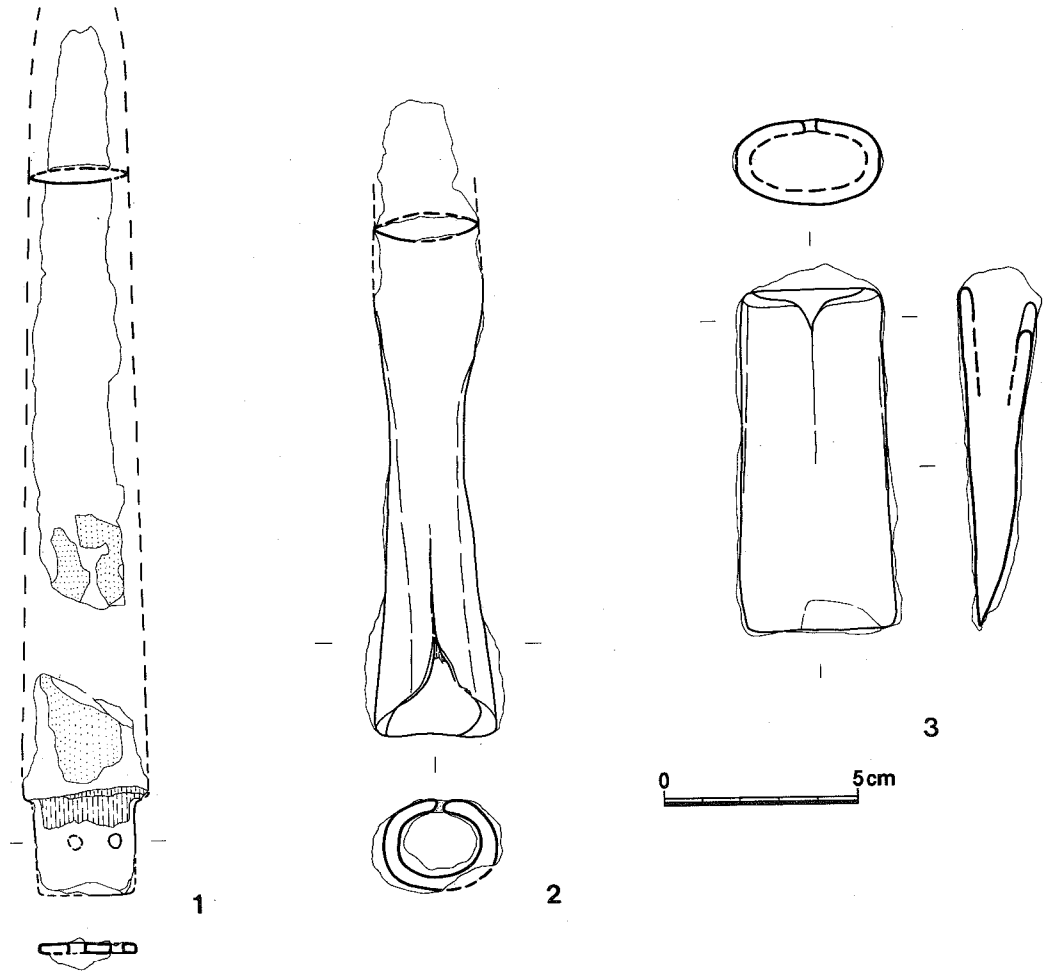
- I : 회색색토
- II : 회색색토
- III : 회색색토, 풍화암반 소량 혼입
- IV : 암갈색 사질토
- V : 암갈색토, VI층, V'층과 비슷하나 점성이 강함
- VI : 회갈색토, 풍화암반 다량 혼입
- VII : 회백색토, 점성 강함
- VIII : 회백색토



圖面 36. 16號 木棺墓<1/30>

遺構의 바닥에는 목관의 흔적으로 생각되는 회백색토층이 남아 있다. 특이한 점은 장벽과 단벽 쪽 충전토의 깊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점이다. 단벽의 충전토가 장벽의 충전토에 비해 약 15cm 가량 더 높은 상태로 조사되었다. 목관의 실제 높이는 아마도 낮은 쪽인 장벽의 높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유물은 바닥에서 鍛造鐵斧 1점과 鐵銼 1점이 각각 동단벽, 서단벽쪽에서 출토되었다.



圖面 37. 16號 木棺墓 出土遺物<1/2>

#### 나. 遺物

圖面 37-1(圖版 18-4)은 鐵短劍으로 身部의 단면은 볼록렌즈형이며 柄部에는 고정구멍이 2개 있으며 木柄의 흔적이 남아 있다. 부식이 심해서 柄部와 身部 사이의 정확한 모양은 알 수 없다. 잔존길이 15.5cm, 출토위치는 3이다.

圖面 37-2(圖版 18-5)는 鐵鉞로 身部는 대부분 결실되었다. 身部 단면은 볼록렌즈형이고, 銚部 단면은 원형이다. 잔존길이 17.0cm, 너비 2.6cm이며, 출토위치는 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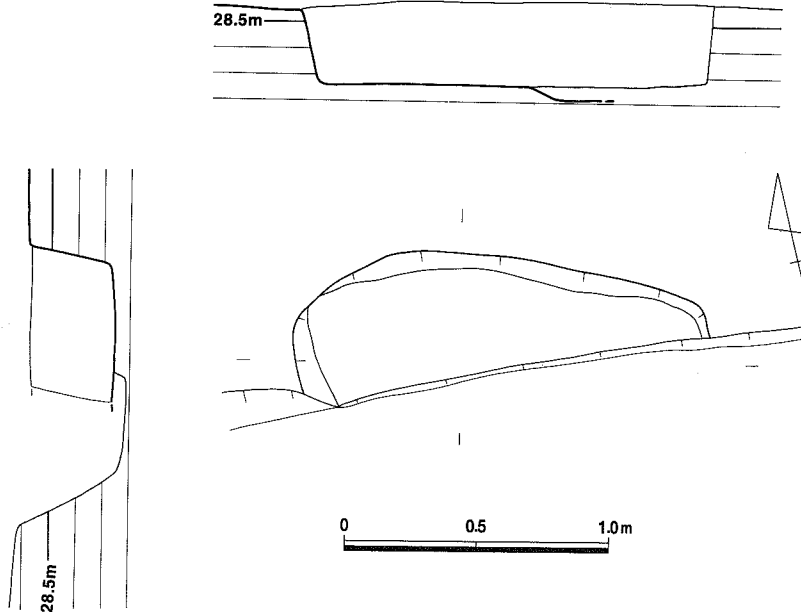
圖面 37-3(圖版 18-6)은 小形의 鍛造鐵斧이다. 銚部에서 身部로 이어지는 선이 직선적이다. 공부내면에 목질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공부단면은 타원형이다. 길이 9.3cm, 너비 4.0cm이며, 출토위치는 2이다.

### (17) 17號 土壙墓

#### 가. 遺構(圖面 38, 圖版 19-1)

해발 28.5m선상에 위치한 土壙墓이다. 동-서로 가로지르는 배수로에 의해 1/2가량이 파괴되어 서단벽 일부와 북장벽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유구의 남쪽에는 2호 주거지와 남서쪽으로 15호 목관묘가 인접해 있고, 북동쪽에는 18호 목관묘가 위치하고 있다. 주축방향은 N78°W이고 묘광의 규모는 길이 158cm, 잔존너비 50cm, 깊이 31cm이다.

잔존상태로 볼 때 목관을 사용하지 않은 土壙墓로 판단된다. 바닥에도 별다른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 출토된 유물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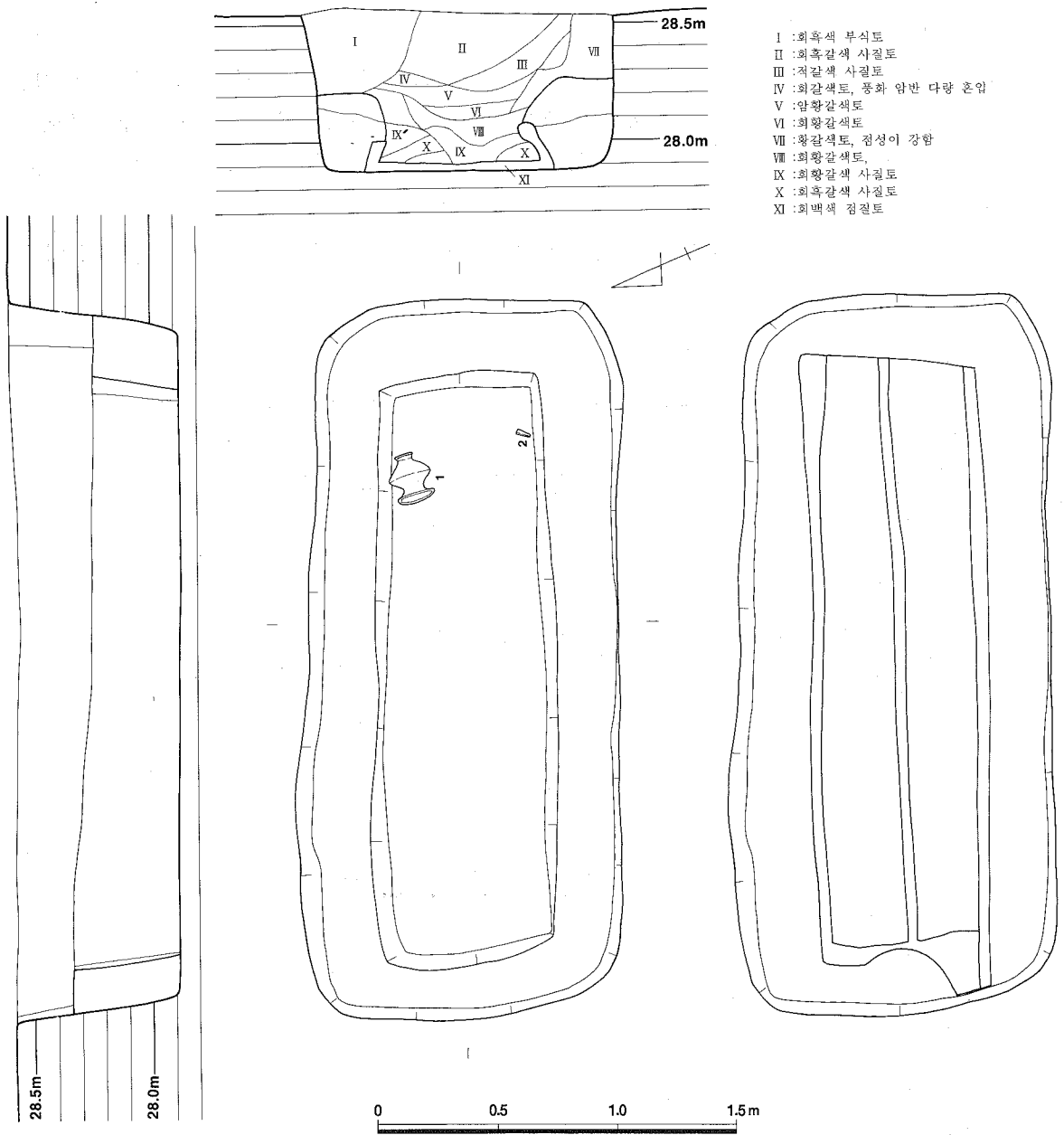
圖面 38. 17號 土壙墓<1/30>

### (18) 18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39, 圖版 19-2~4 ; 20-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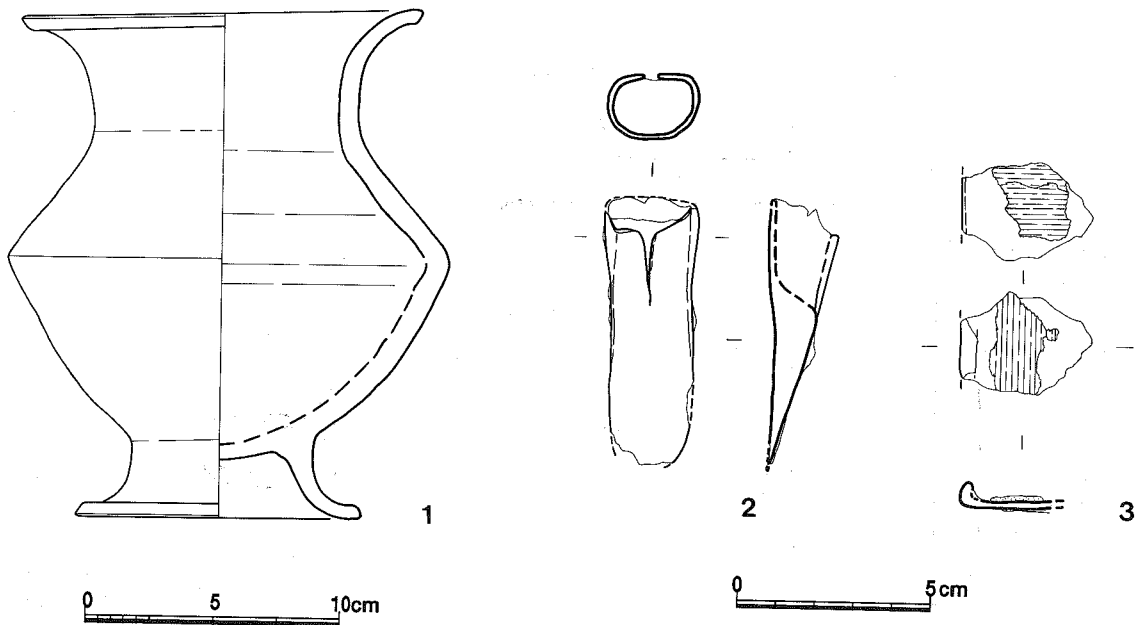
구릉의 정선부 해발 28.6m선상에 위치하는 목관묘이다. 遺構의 주축방향은 N66°W이고, 무덤의 규모는 길이 302cm, 너비 130cm, 깊이 63cm이다. 목관의 규모는 길이 250cm, 너비 67cm, 깊이 39cm 정도로 추정된다.

유구 내부토는 크게 적갈색토계와 회흑색토계, 회황색토계로 구분된다. 전체적으로 유구 중앙으로 함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0.5cm 두께의 목관흔도 안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확인되었다. 목관내부에 함몰된 XII층은 목탄이 혼입된 회흑색토로 이 부분에서만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圖面 39. 18號 木棺墓<1/30>

묘광은 'U'자상으로 굴착하였으며 남서쪽 장단벽 모서리에 굴지흔이 남아 있다. 동쪽 단벽 가까이에 북장벽에 접하여 대부주머니호 1점과 鐵斧 1점이 부장되었다. 대부주머니호는 목관 위쪽, 또는 보강토 위에 있던 것이 내부로 떨어져 들어온 것으로 판단된다.



圖面 40. 18號 木棺墓와 出土遺物<1 : 1/3, 2, 3 : 1/2>

#### 나. 遺物

圖面 40-1(圖版 19-5)은 瓦質 臺附주머니壺이다. 태토는 장식과 운모를 혼입한 泥質 점토이다. 외면과 내면은 회황색을 띠고, 속심은 회청색이다. 전체적으로 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일부분에 희미한 회전물손질흔이 보인다. 표면박리가 매우 심하고, 기형이 약간 기울었으며, 대각 내부에 접합흔이 있다. 높이 19.3cm, 口徑 15.2cm, 底徑 10.8cm이며, 출토위치는 1이다.

圖面 40-2(圖版 19-6)는 鍛造鐵斧로 釜部의 단면은 장방형이며 身部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벌어지는 형태이다. 釜部와 身部의 연결은 단이 없이 완만하게 연결된다. 잔존길이 7.2cm, 너비 2.2cm, 공부외경 2.3×1.6cm이며, 출토위치는 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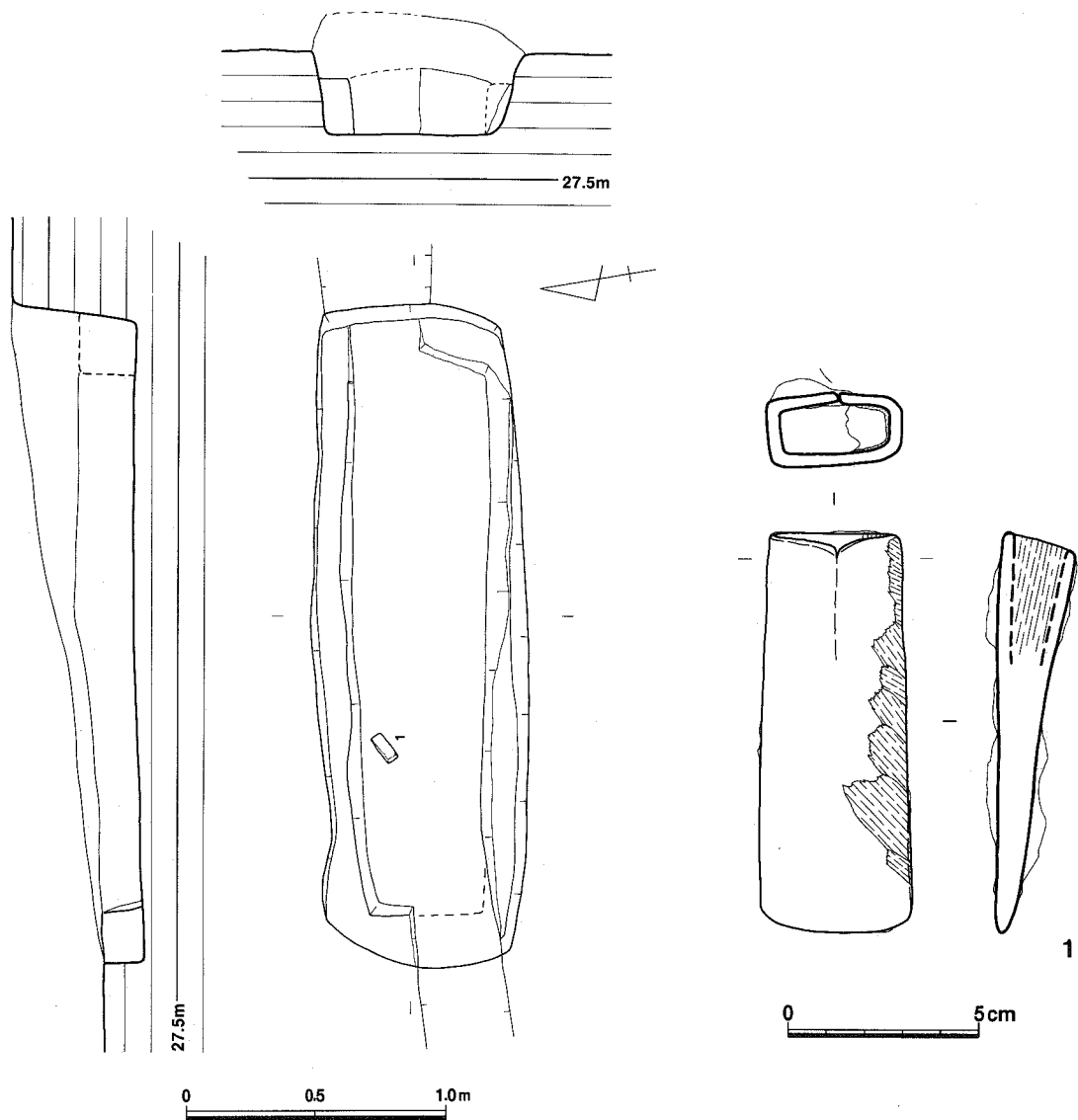
圖面 40-3(圖版 19-7)은 基部 일부만 잔존하는 鐵鎌片이다. 基部는 꺾어서 접었으며 목질이 붙어 있다. 잔존길이 3.5cm이다.

### (19) 19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41, 圖版 20-3)

해발 28.0m선상에 위치하며 남쪽 가장자리부분이 3號 住居址와 중복되었다. 북서쪽으로는 23호 목관묘와 인접해 있는데 동-서로 관통하는 배수로 때문에 遺構의 중심부는 모두 파괴되었다.





圖面 41. 19號 木棺墓<1/30>와 出土遺物<1/2>

주축방향은 81°W이고, 묘광의 규모는 256cm, 너비 80cm, 깊이 48cm이다. 목관의 규모는 길이 209cm, 너비 52cm, 잔존높이 22cm로 추정된다.

묘광바닥에는 동쪽과 남쪽 단벽과 장벽에 목관의 흔적으로 생각되는 회백색 점토 흔적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바닥은 별다른 시설없이 생토면을 정지하여 사용하였다. 북쪽 장벽에 접하여 鐵斧 1점이 출토되었다.

## 나. 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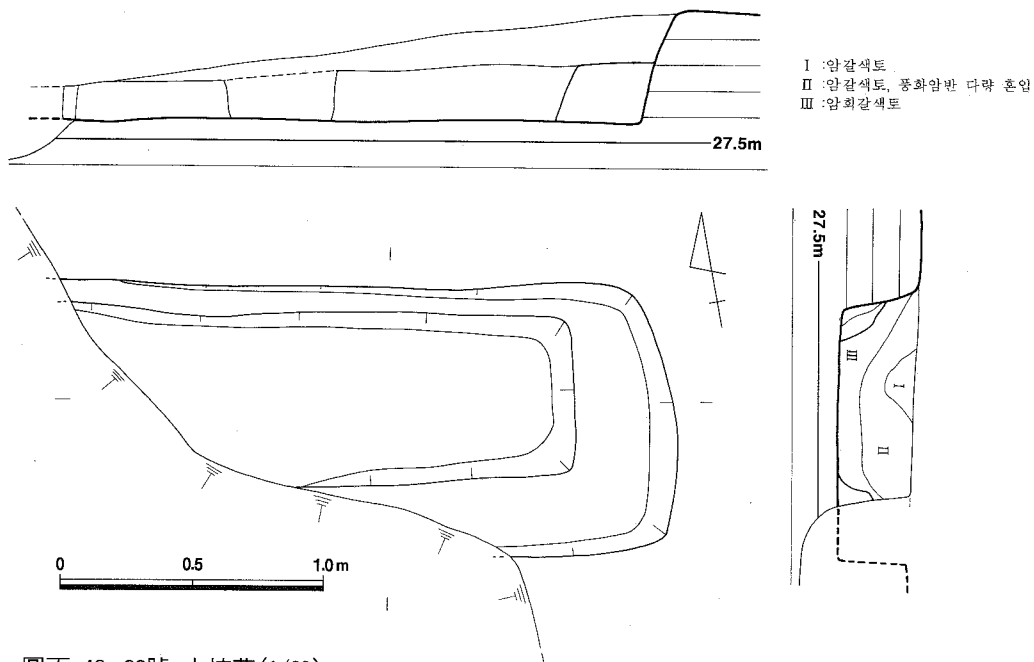
圖面 41-1(圖版 20-4)은 완형의 鍛造鐵斧이다. 身部和 鋤部가 일직선으로 연결된 평면장방형의 형태이다. 표면에 목질히 부착되어 있는데 목관의 잔흔일 것으로 생각된다. 鋤部の 단면은 장방형이며, 길이 11cm, 너비 4.2cm, 鋤部外徑 3.7×2.1cm이다.

## (20) 20號 木棺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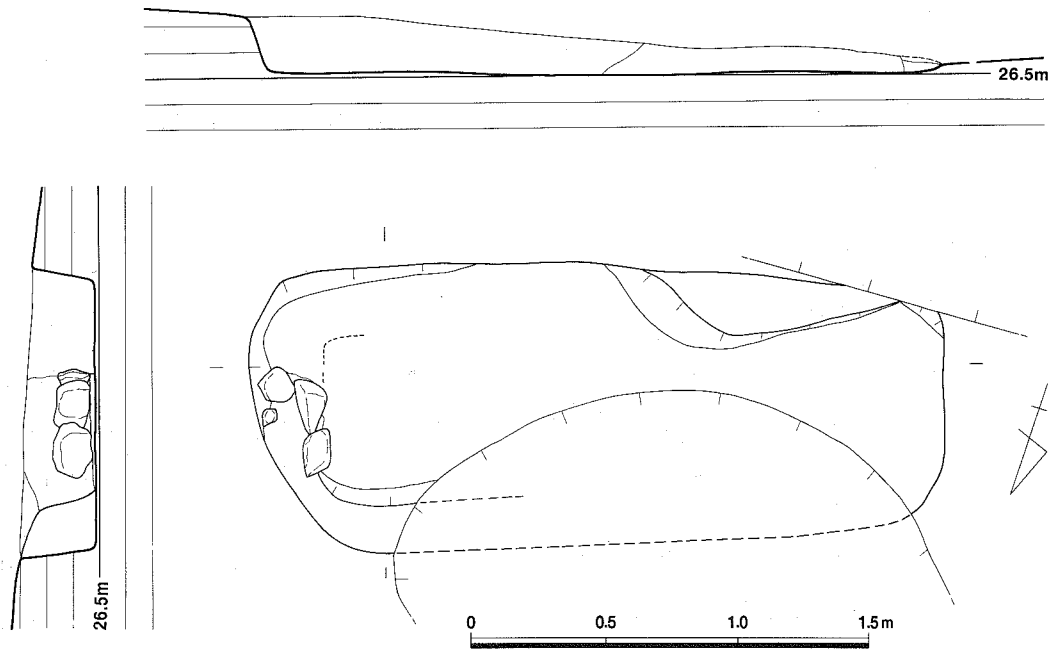
### 가. 遺構(圖面 42, 圖版 20-5)

해발 28.0m선상에 만들어진 목관묘이다. 주축방향은 N80°W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되게 설치되었다. 遺構의 서남쪽이 나무구덩이로 인해서 유실되어 유구의 잔존상태가 좋지 않다. 무덤의 규모는 잔존길이 225cm, 폭 105cm, 깊이 40cm이고, 목관의 규모는 잔존길이 160cm, 너비 63cm, 높이 40cm이다.

서단벽쪽으로 훼손이 심하여 전체적인 양상을 살피기는 어렵지만 유구의 내부토는 명황갈색토로 구성된 충전토와 풍화암반이 혼입된 암갈색토로 구분된다. 유구의 가운데로 함몰현상이 보이며, 유구의 바닥에는 별다른 시설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출토된 유물도 없다.



圖面 42. 20號 木棺墓<1/30>



圖面 43. 21號 木棺墓<1/30>

### (21) 21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43, 圖版 21-1)

해발 26.8m선상에 위치한 목관묘로 주축방향은 N72°W이다. 전체적으로 나무구덩이로 인해 원형이 많이 훼손된 상태이다. 무덤의 규모는 길이 263cm, 폭 108cm, 깊이 30cm이며, 목관의 규모는 길이 200cm, 폭 60cm, 깊이 30cm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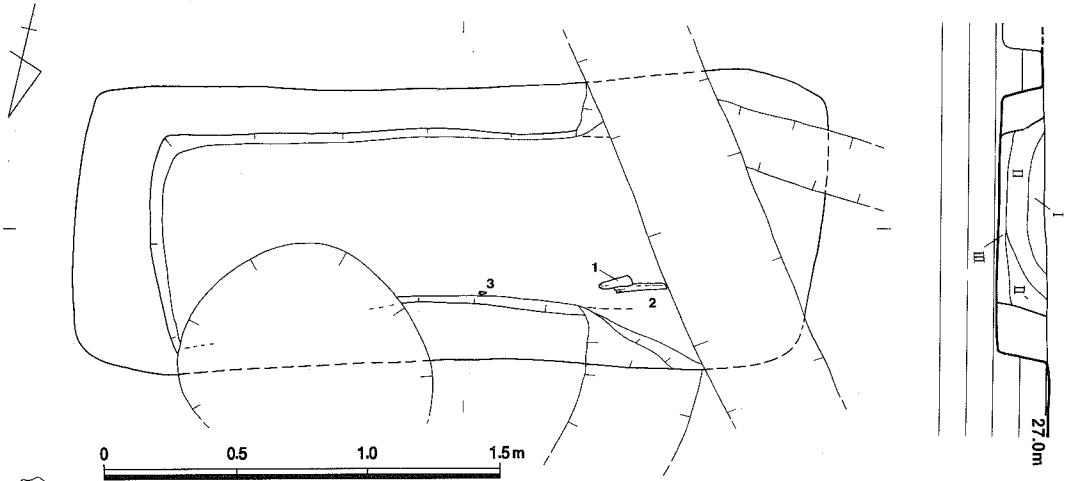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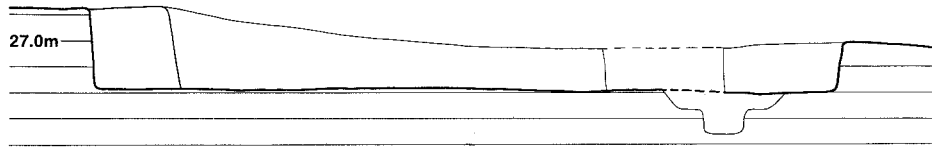
동단벽쪽의 충전토 내부에 활석이 혼입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충전토의 훼손이 심하여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유구의 대부분이 나무구덩이와 배수로에 의해 파괴되어 遺構의 대략적인 내용 밖에 파악할 수 없었다. 출토된 유물도 없다.

### (22) 22號 木棺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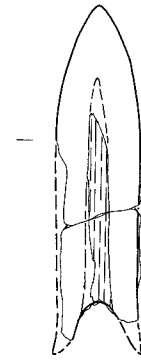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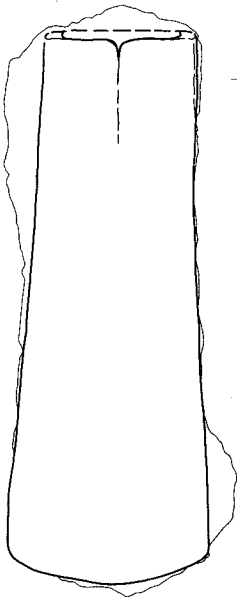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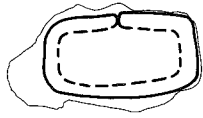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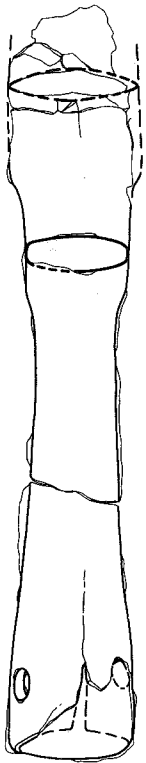
#### 가. 遺構(圖面 44, 圖版 21-2)

해발 27.0m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목관묘이다. 나무구덩이와 배수로에 의해 유구의 대부분이 파손되었다. 주축방향은 N79°W이며, 무덤의 규모는 길이 250cm, 폭 106cm, 깊이 30cm이다. 잔존하고 있는 목관의 규모는 추정길이 210cm, 너비 60cm, 높이 30cm로 추정된다.

충전토는 명황갈색토이며, 유구 내부토는 암적갈색토로 부식이 심한 편이다. 바닥에는 관의 부식흔으로 보이는 회백토층이 나타나 있으며,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동쪽 단벽에 치우쳐 바닥에서 鐵鏟, 鐵斧, 鐵鏟가 1점씩 출토되었다.



- I : 암적갈색토
- II : 암적갈색토, 풍화암반 혼입, II' 층 보다 점성 강함
- III : 회백색 점질토



3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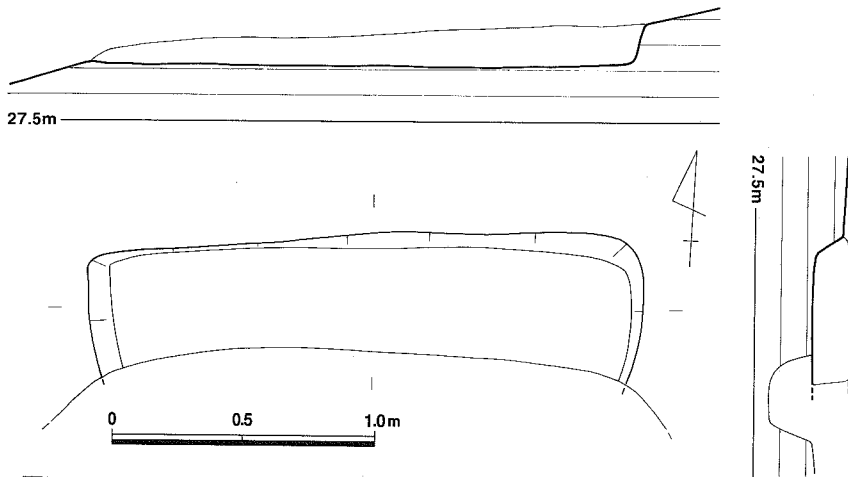
圖面 44. 22號 木棺墓<1/30>와 出土遺物<1/2>

## 나. 遺物

圖面 44-1(圖版 21-3)은 身部가 대부분 결실된 二段柄式鐵銼이다. 身部 단면은 볼록렌즈형이며 柄部의 단면은 장방형이다. 銼部에 고정구멍이 2개 있다. 잔존길이 20.2cm, 공부지름 3.2cm이며, 출토위치는 2이다.

圖面 44-2(圖版 21-4)는 鍛造鐵斧이다. 銼部の 이음새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銼部の 단면은 장방형이며 내면에는 木柄의 흔적이 남아 있다. 길이 14.8cm, 너비 5.3cm, 銼部外徑 4.0×2.3cm이며, 출토위치는 1이다.

圖面 44-3(圖版 21-5)은 無莖式 鐵鏃으로 基部는 삼각형으로 만입하여 있다. 화살대 흔적은 남아 있으나 고정구멍은 보이지 않는다. 잔존길이 8.9cm, 너비 2.2cm이며, 출토위치는 3이다.



圖面 45. 23號 土墳墓<1/30>

## (23) 23號 土墳墓

### 가. 遺構(圖面 45, 圖版 21-6)

구릉의 서쪽 사면 해발 27.7m 상에 위치하는 土墳墓이다. 주축방향은 N86°E이며, 무덤의 규모는 길이 210cm, 잔존너비 45cm, 깊이 1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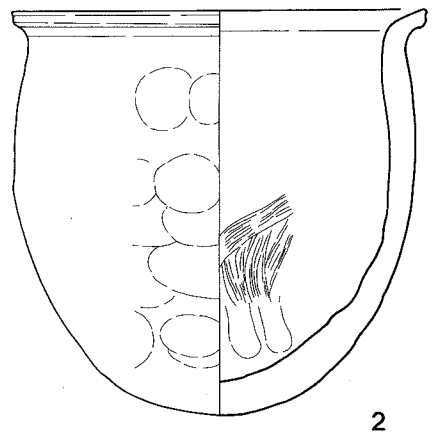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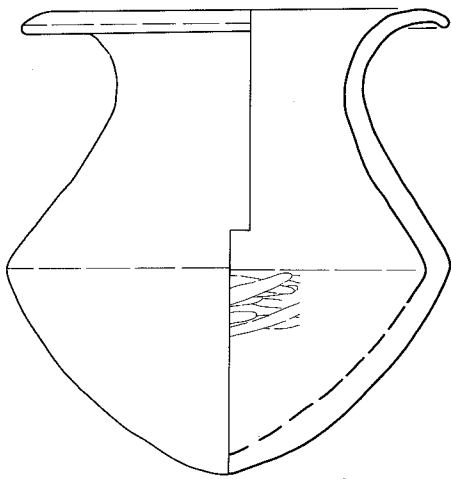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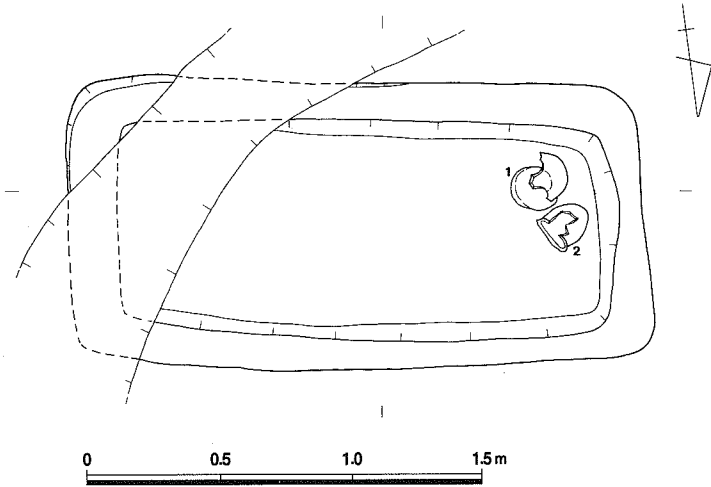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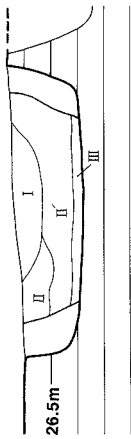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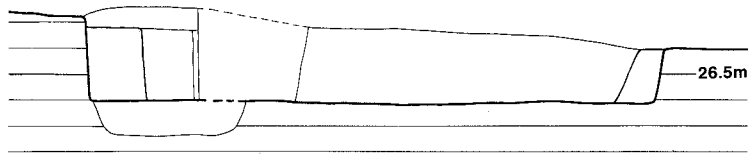
나무구덩이와 경작에 의해 유구의 상부 대부분이 유실되어 정확한 구조는 알 수 없다. 충전토의 범위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목관이 사용되지 않은 直葬의 형태로 추정된다. 그리고 出土遺物도 없다.

## (24) 24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46, 圖版 22-1, 2)

해발 26.6m선상에 축조된 목관묘로 遺構의 상부가 유실되어 잔존깊이가 깊지 않다. 구릉의

- I : 회색색토
- II : 회색색토, 무단 및  
중와 압판 다량 혼입
- II' : 회색갈색토
- III : 회백색토, 점성 강함



圖面 46. 24號 木棺墓<1/30>와 出土遺物<1/3>

서쪽 사면에 치우쳐서 위치하며, 묘광의 주축방향은 N79°W이다. 무덤의 규모는 길이 216cm, 폭 110cm, 깊이 37cm이고, 목관의 규모는 길이 175cm, 폭 73cm, 깊이 28cm로 추정된다.

유구 내부토는 크게 3개층으로 구별되며 함몰양상을 보여주는 I층은 회흑색토로 구성되어 있다. III층의 경우 충전토의 범위 안쪽에 깔려져 있는데 유구의 바닥을 정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목관바닥의 부식으로 인해 회백색으로 변한 것으로 생각된다. 충전토로 사용된 토양은 황갈색의 풍화암반편을 포함한 토양과 적갈색계열은 토양 등 몇 종류의 흙으로 채워져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유물은 목관 내부 바닥에서 주머니호와 소형 와질옹이 각각 1점씩 출토되었는데, 두 유물 모두 바닥에서 10cm가량 떠서 출토되는 양상으로 보아 목관 위 또는 충전토 위에 있던 것이 목관 함몰시에 안으로 쓸려 들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 나. 遺物

圖面 46-1(圖版 22-4)은 와질 주머니호로 구연부와 동체부가 일부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장식과 운모를 소량 혼입하였다. 내외면 전체는 회백색이며 일부 흑회색과 황회색이다. 器面은 일부 마연한 흔적이 보이며, 내면에는 물손질 흔적이 보이며, 박자흔도 일부 보인다. 전체적인 기형이 동중간부분에서 넓게 펼쳐져서 각을 지닌 것으로 古式瓦質土器의 마지막 단계의 특징을 보여준다. 높이 17.6cm, 口徑 14.5cm, 胴最大徑 16.7cm이며, 출토위치는 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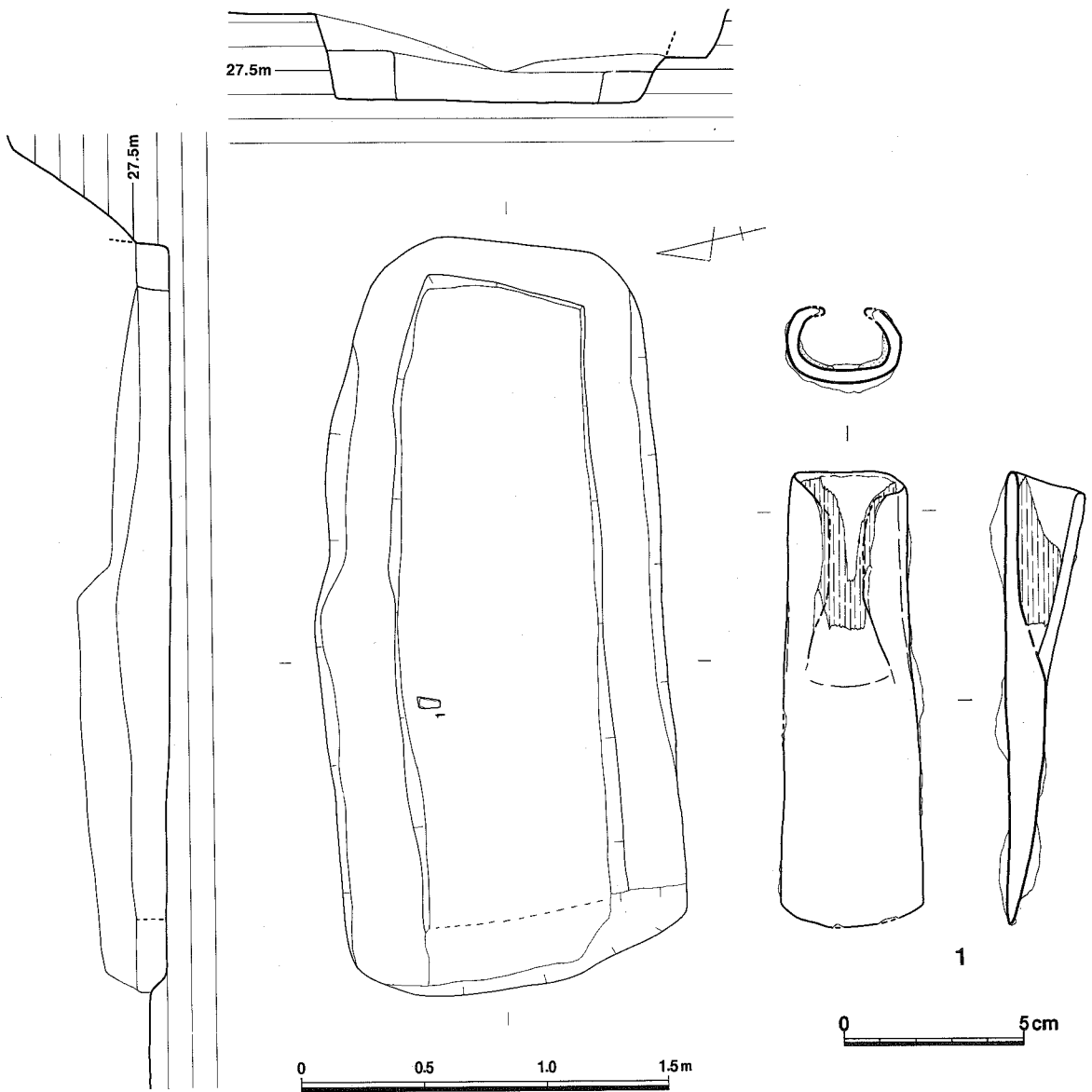
圖面 46-2(圖版 22-3)는 와질의 小甕으로 구연부에서 동체부가 1/4정도 결실되었다. 색조는 전체 연회색이며, 태도는 정선된 점토로 장식, 운모, 석영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구연부에는 회전물손질하였고 전체적으로 물손질과 박자흔이 관찰된다. 내면에는 동체부 및 저부에는 목리흔과 물손질흔이 남아 있으며, 동체상부는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높이 15.5cm, 口徑 15.6cm이며, 출토위치는 2이다.

## (25) 25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47, 圖版 23-1)

해발 27.7m선상에 위치하는 목관묘이다. 遺構의 주축방향은 N77°W이고, 무덤의 규모는 길이 307cm, 너비 135cm, 깊이 38cm이다. 목관의 규모는 길이 260cm, 너비 85cm, 깊이 20cm로 추정된다.

유구 내부토는 충전토와 교란이 심한 부식토로 구성된다. 충전토는 황갈색 풍화암반편을 다수 포함하는 편이며, 내부토는 후대의 경작으로 인해 부식기운이 매우 강한 편인데 주로 암회갈색계열이다. 유물은 유구의 바닥에서 鐵斧 1점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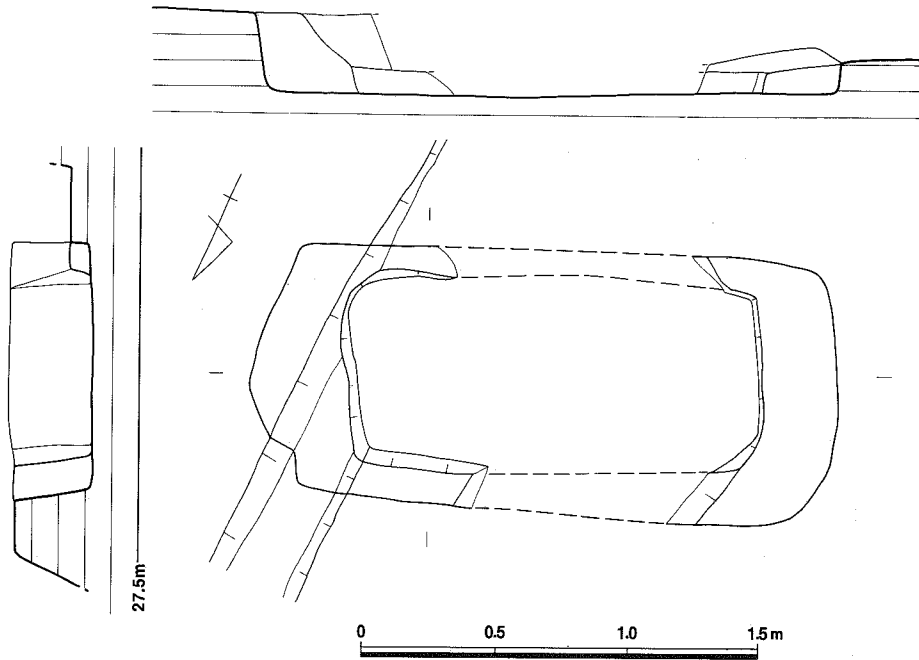


圖面 47. 25號 木棺墓<1/30>와 出土遺物<1/2>

#### 나. 遺物

圖面 47-1(圖版 23-3)은 完형의 鍛造鐵斧이다. 水化가 심하며, 銚部와 身部가 直선으로 연결된 다. 公부내면에는 木柄의 痕적이 남아 있으며, 銚部는 완전히 닫히지 않고 열려져 있다. 公부단 면은 타원형이다. 길이 13.2cm, 너비 4.1cm, 公부외경 3.3×2.3cm이다.





圖面 48. 26號 木棺墓<1/30>

## (26) 26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48, 圖版 23-4)

해발 27.9m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목관묘이다. 주축방향은 N65°E이고, 27호 목관묘와 인접해 있다. 무덤의 규모는 길이 220cm, 너비 99cm, 깊이 32cm이고, 충전토로 본 목관의 규모는 길이 155cm, 너비 73cm, 깊이 31cm이다.

유구의 중심부는 후대의 경작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어 양쪽 단벽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유구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며,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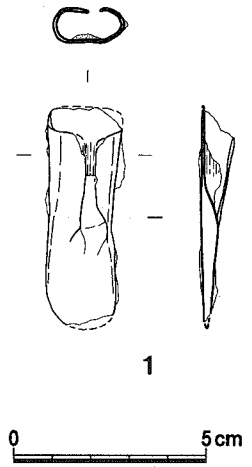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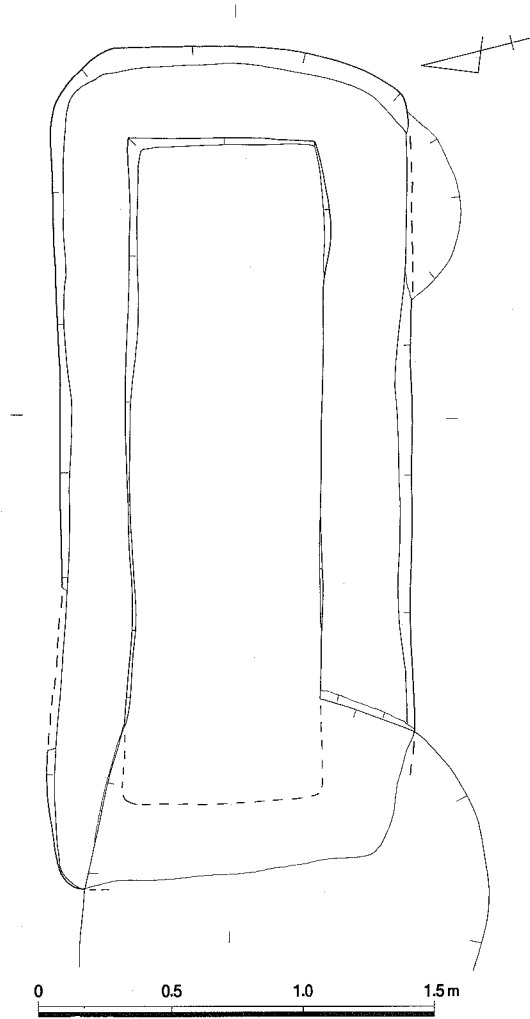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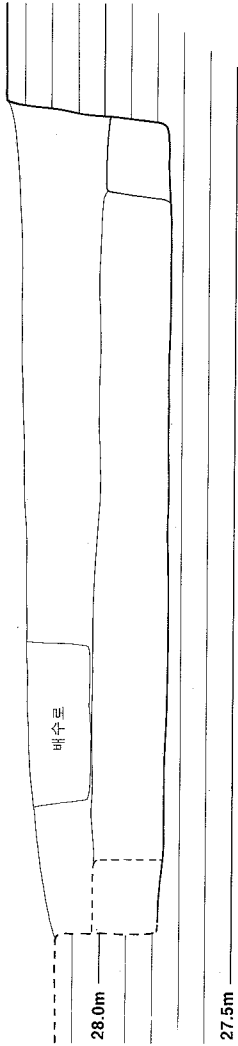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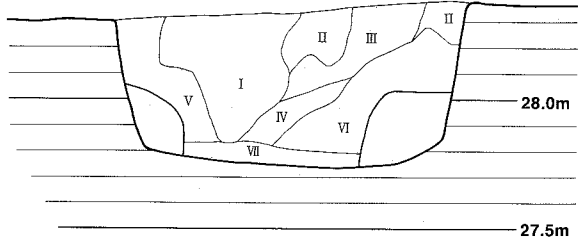
## (27) 27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49, 圖版 24-1, 2)

해발 28.4m선상에 위치한 장방형 목관묘로 북동쪽에는 청동기시대의 유구인 4호 주거지가, 북서쪽에는 26호 목관묘가 위치하고 있다. 유구의 서쪽 단벽이 과수원 경작으로 인해 훼손되었다. 遺構의 주축방향은 N75.5°W이며, 무덤의 규모는 길이 320cm, 너비 130cm, 깊이 60cm이다. 목관의 규모는 길이 255cm, 너비 75cm, 깊이 25cm로 추정된다.

유구는 서단벽쪽의 훼손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온전히 보존된 상태이다. 유구 내부토는 충전토를 제외한 대부분이 회흑색계열이며, 충전토는 풍화암반편이 일부 혼입된 것으로 아

- I : 암갈색부식토
- II : 암회갈색 사질토
- III : 황갈색토, 풍화암반 소량 혼입
- IV : 황갈색토
- V : 암황갈색, 점성 강함
- VI : 황갈색토, 풍화암반 다량 혼입
- VII : 회갈색토, 점성 강함



圖面 49. 27號 木棺墓<1/30>와 出土遺物<1/2>

마도 유구 조성시의 굴착된 흙을 재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쪽 단벽의 바닥에서 목관의 흔적으로 생각되는 회백색 점토가 일부 확인되었다. 유물은 바닥에서 확인된 것은 없고 내부 조사시에 확인된 鐵斧 1점이 있다.

## 나. 遺物

圖面 49-1(圖版 24-3)은 鍛造鐵斧로 선단부와 鑿部 일부 결실되었다. 鑿部는 닫히지 않은 상태이며 내면에 목질흔이 남아 있다. 鑿部 단면은 타원형이다. 길이 5.75cm, 너비 1.8cm, 鑿部外徑 1.8×1.0cm이다.

## (28) 28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50, 圖版 24-4)

구릉의 정선부 해발 28m선상에 위치한 장방형의 木棺墓로 동남쪽으로 29호 목관묘와 인접해 있다. 주축방향은 N66°W이며, 무덤의 규모는 길이 321cm, 너비 110cm, 깊이 51cm이고, 목관은 길이 219cm, 너비 65cm, 깊이 30cm정도로 추정된다.

서쪽 단벽은 과수원 경작으로 유구의 상부가 일부 파손되었다. 양 단벽쪽의 충전토 면적이 장벽쪽의 면적보다 넓은 형태로 목관의 규모에 비해 묘광을 넓게 굴착하였다. 상면은 별다른 시설을 하지 않고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유구의 바닥에서 鐵斧 1점, 鐵劍 1점이 출토되었다.

## 나. 遺物

圖面 50-1(圖版 24-5)은 鐵劍으로, 身部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身部에 칼집으로 보이는 목질이 일부 부착되어 있고 柄部에도 목질이 부착되어 있다. 身部 단면은 볼록렌즈형이나 柄部쪽으로 가면서 점차 장방형으로 변화한다. 길이 36.5cm, 身部 23.7cm, 柄部 12.8cm, 너비 3.5cm이며, 출토 위치는 1이다.

圖面 50-2(圖版 24-6)은 鍛造鐵斧로 완형이다. 鑿部 단면은 장방형이며, 선단부는 수화가 심하여 부풀어 있다. 길이 10.5cm, 너비 4.5cm, 鑿部外徑 3.8×2.5cm이며, 출토 위치는 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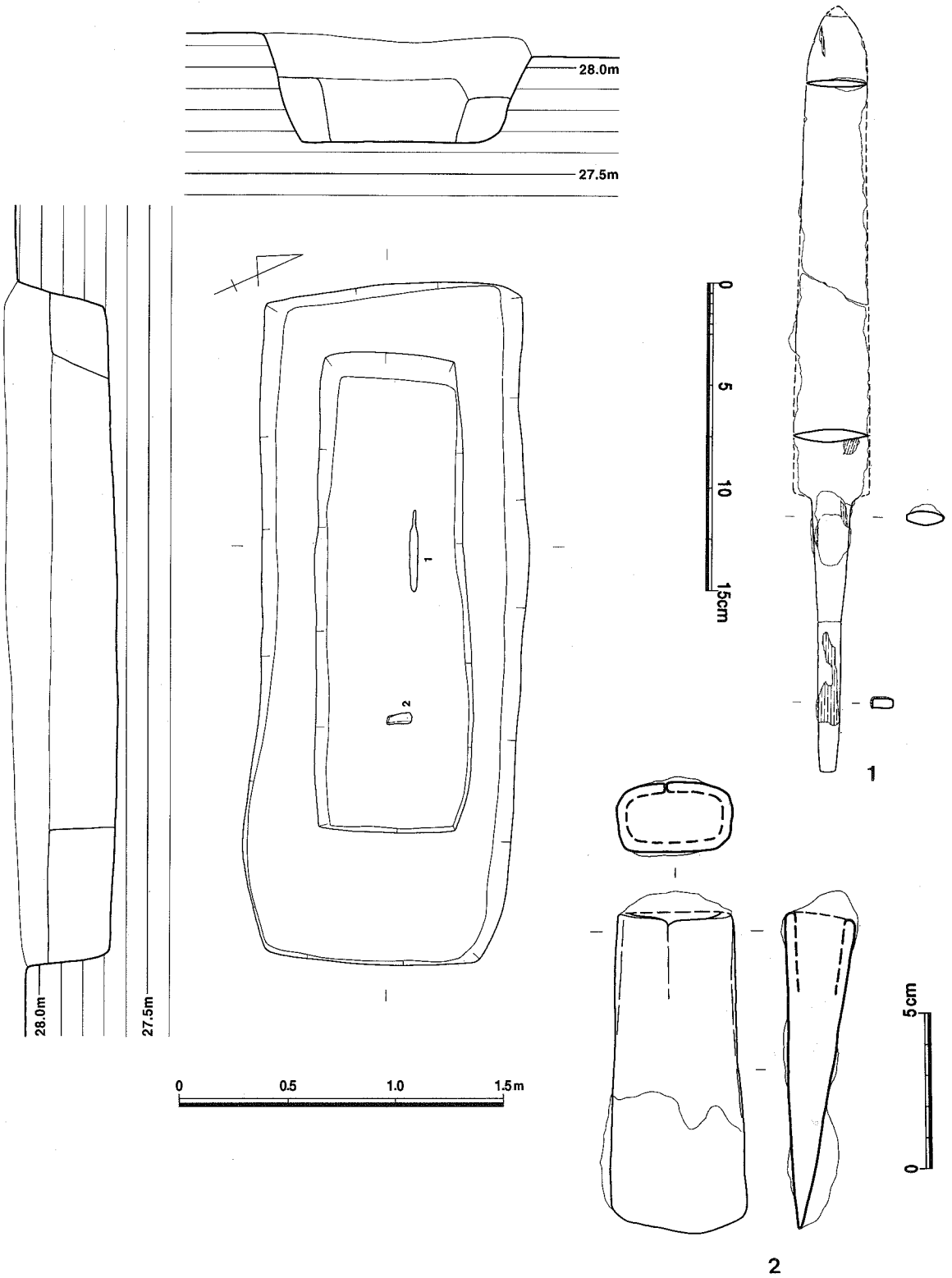
## (29) 29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51, 圖版 25-1, 2)

해발 28.4m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목관묘이다. 주축방향은 N64°W이며, 무덤의 규모는 길이 200cm, 너비 95cm, 깊이 50cm이다. 목관의 규모는 길이 126cm, 너비 54cm, 잔존깊이 15cm이다. 배수로와 나무구덩이에 의해 유구가 훼손된 상태이지만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는데는 무리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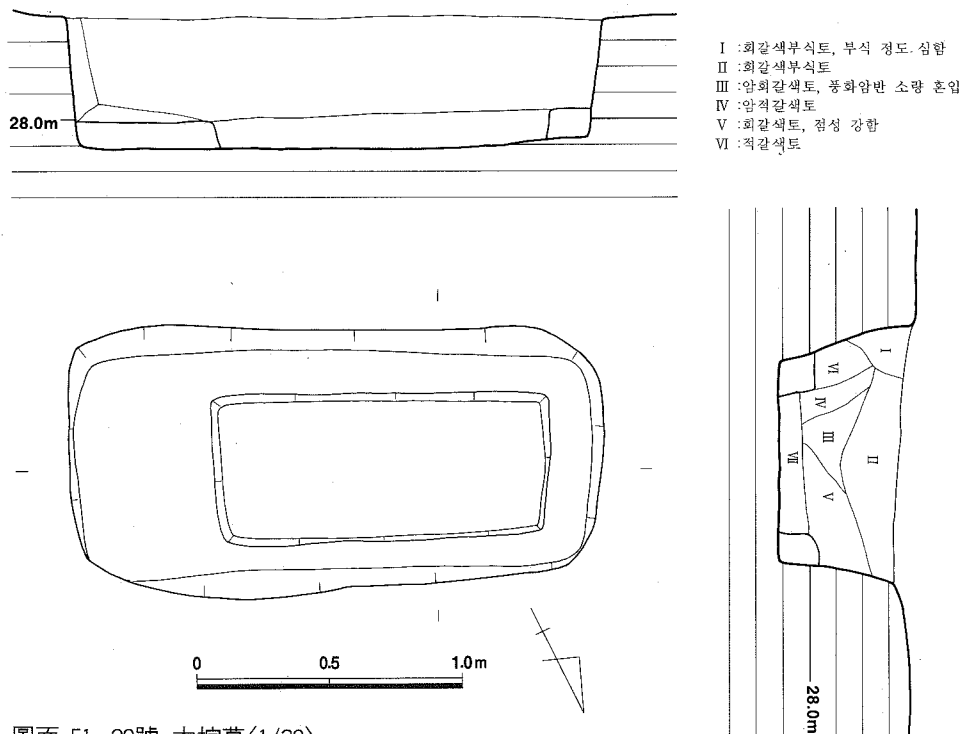
충전토로 볼 때 목관의 높이가 대단히 낮은 편으로 전체적인 유구 내부토의 양상은 함몰상이 대단히 약한 편이다. 그리고 목관내에 채워진 층위와 상부의 토층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의 유사한 양상이다.

동단벽쪽의 충전토는 서단벽보다 30cm정도 넓은데, 때문에 목관이 서단벽쪽으로 쏠린 모양이



圖面 50. 28號 木棺墓<1/30>와 出土遺物<1 : 1/3, 2 : 1/2>

다. 유구의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圖面 51. 29號 木棺墓<1/30>

### (30) 30號 木棺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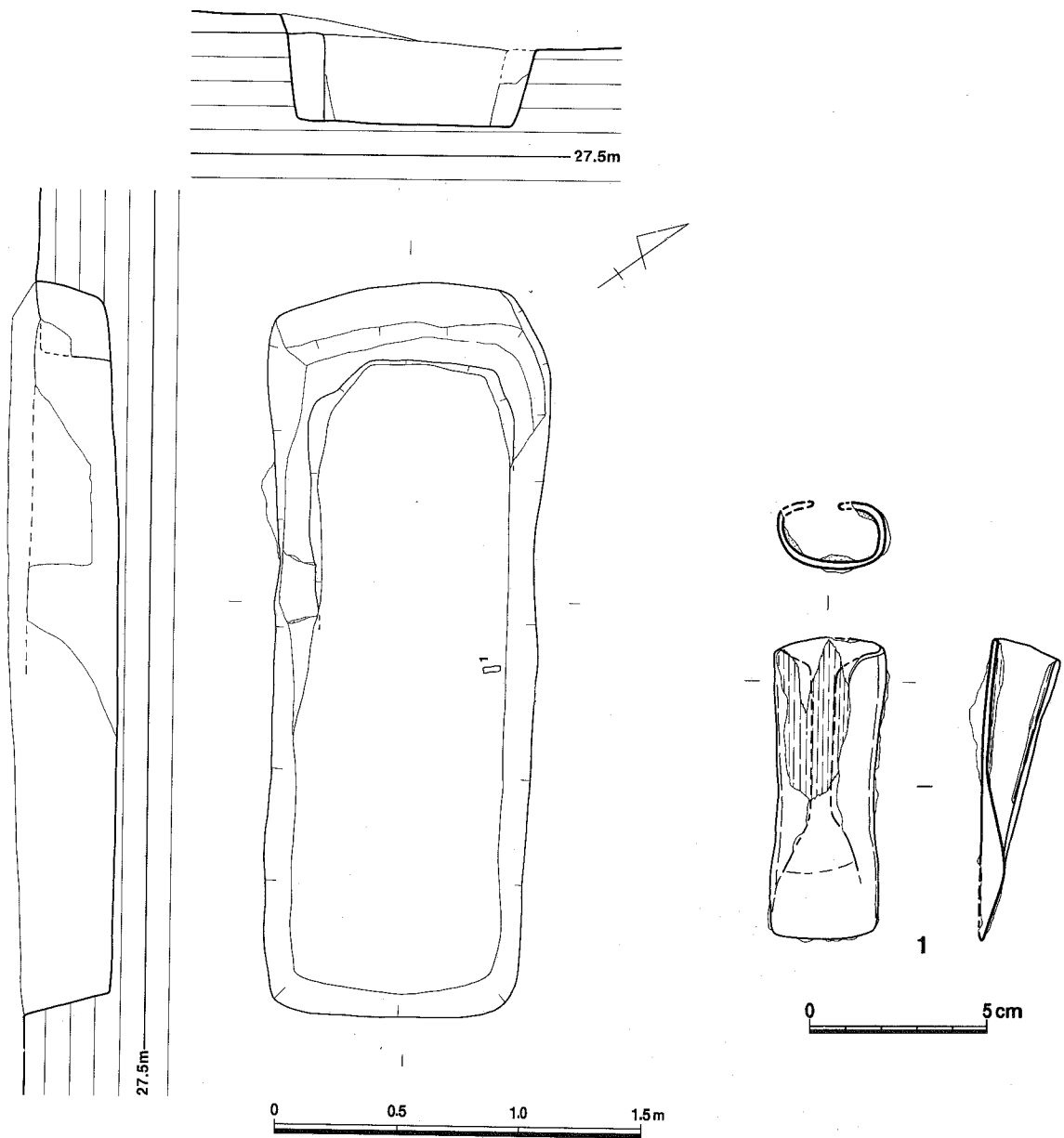
#### 가. 遺構(圖面 52, 圖版 25-4)

구릉의 정선부에 위치하며 후대의 경작으로 遺構의 대부분이 훼손되었다. 주축방향은 N59°W이고 무덤의 규모는 길이 305cm, 너비 107cm, 깊이 42cm이다. 내부훼손이 심하여 목관의 길이는 알 수 없으며 너비는 72cm, 깊이는 36cm로 추정된다.

충전토는 서남쪽 장단벽 일부에만 남겨져 있을 정도로 내부의 교란이 심하다. 남겨진 충전토로 보아 다른 유구에 비해 목관의 높이는 비교적 높았던 것 같다. 유물은 북쪽 장벽의 중간부분에서 鏃部만 남아 있는 鐵斧 1점이 출토되었다.

#### 나. 遺物

圖面 52-1(圖版 25-3)은 鍛造鐵斧로 鏃部가 일부 결실되었다. 수화가 심하여 잔존상태는 대단히 불량한 편이다. 鏃部에는 목질이 남아 있으며, 공부단면은 타원형이다. 길이 8.8cm, 너비 3.0cm이고, 鏃部外徑 3.2×2.0×4.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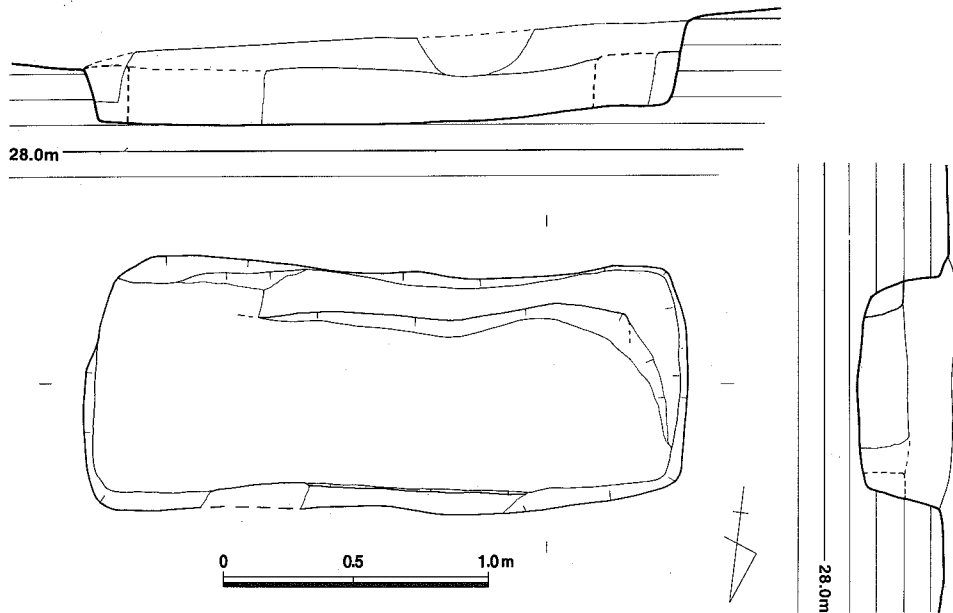


圖面 52. 30號 木棺墓<1/30>와 出土遺物<1/2>

### (31) 31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53, 圖版 26-1)

구릉의 정선부 해발 28.5m상에 위치하고 있는 목관묘이다. 경작으로 인해 유구의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다. 유구의 주축방향은 N83°E이며, 무덤의 규모는 길이 223cm, 너비 85cm, 깊이 33cm이다. 추정되는 목관의 규모는 길이 175cm, 너비 60cm 정도이다. 충전토의 잔존상태로 볼 때



圖面 53. 31號 木棺墓<1/30>

목관의 높이는 22cm 정도로 추정된다.

유구의 바닥에서는 목관의 흔적으로 생각되는 회백색토가 전면에 걸쳐서 확인되는데 서쪽의 양끝은 돌출된 모습을 보이는데 결구방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훼손이 심하며 충전토도 한쪽면에서만 보일 뿐 전체적인 유구의 양상은 알 수 없다. 출토된 유물은 없다.

### (32) 32號 土壙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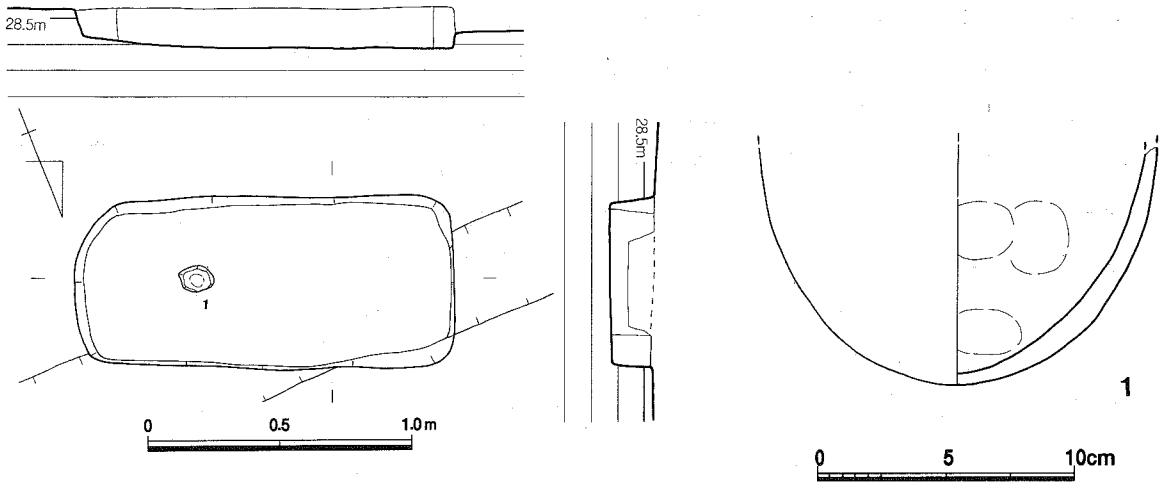
#### 가. 遺構(圖面 54, 圖版 26-2)

해발 28.5m선상에 위치한 소형 土壙墓로 남쪽으로 34호 목관묘가 위치하고 있다. 遺構의 중심부는 나무구덩이에 의해 파괴되었다. 유구의 주축방향은 N68°W이고, 무덤의 규모는 길이 143cm, 너비 65cm, 최대깊이 15cm이다.

유구내에서 충전토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목관이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유구는 길이에 비해 너비가 넓게 구획되어 있으며, 상부훼손으로 인해 묘광의 깊이는 얇은 편이다. 동쪽 단벽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연결용 1점이 유구의 바닥에서 출토되었다.

#### 나. 遺物

圖面 54-1(圖版 26-3)은 연결용으로 구연과 동체상부가 결실되었고, 동체에서 저부에 이르는 일부분만 남아 있다. 태토는 장석이 혼입되었고, 색상은 내외면 모두 황흑색을 띤다. 내면은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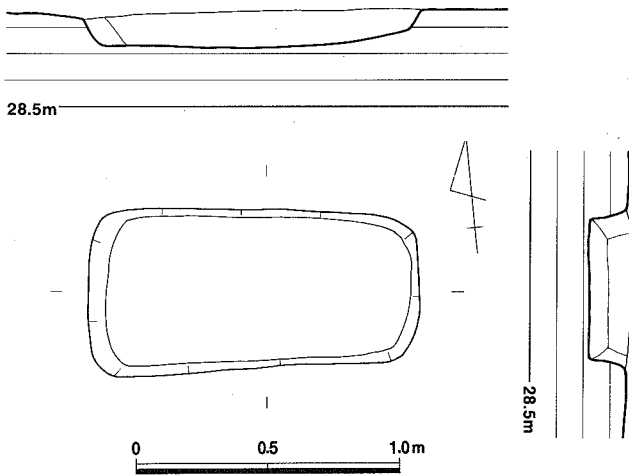


圖面 54. 32號 土壙墓<1/30>와 出土遺物<1/3>

황색, 외면은 흑갈색을 띤다. 전체적으로 박리가 심해 정면기법은 확인이 어렵다. 殘存높이 9.4cm이다.

### (33) 33號 土壙墓

#### 가. 遺構(圖面 55, 圖版 26-4)



圖面 55. 33號 土壙墓<1/30>

해발 28.8m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의 土壙墓이다. 동쪽으로 34호 목관묘가 위치하고 있다. 주축방향은 N84°W이며, 무덤의 규모는 길이 126cm, 너비 61cm, 잔존 깊이 16cm이다.

층전토가 확인되지 않은 토광묘이다. 전체적으로 상부교란이 심하여 유구의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유구 내부에 채워진 흙은 암반알갱이가 섞인 갈색토의 단일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한 듯하며, 출토유물도 없다.

### (34) 34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56, 圖版 26-5, 6 ; 27-1, 2)

구릉의 정선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62°W이다. 무덤의 규모는 길이 313cm, 너비 140cm, 깊이 68cm이다. 목관의 규모는 길이 248cm, 너비 70cm, 깊이 37cm로 추정된다. 유물의 출토량이나 규모면에서 대안리유적의 유구중 최상급에 속하는 것이다.

유구의 바닥은 가운데가 좀 더 깊은데 회백색의 고운 사질토로 정지하였다. 유구 내부토는 중앙으로 함몰된 상황을 보여주는데 회흑색토가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유구의 바닥에서는 충전토의 범위와 일치하게 회백색의 점질토가 확인된다. 이는 목관의 흔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다.

토기유물은 充塡土 內部와 충전토 상부에서 주로 확인된다. 서남쪽 모서리부분의 충전토 내부에서 2점의 토기가 부장되어 있었다. 長胴形의 兩耳附甕은 바닥에 누운상태였고, 短頸壺는 충전토에 뜬 상태로 확인되었다. 동북쪽 모서리의 충전토 상부에서 단경호의 구연부를 비롯한 편들이 수습되었는데 나머지 동체부편은 遺構의 중앙부에서 추가로 확인되었다. 이는 목관을 안치하고 충전토를 채운 후에 일정한 의례절차를 거행하면서 토기편을 파손한 채 매납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목관내에서는 철검과 鐵斧 등이 피장자가 안치된 곳 주변에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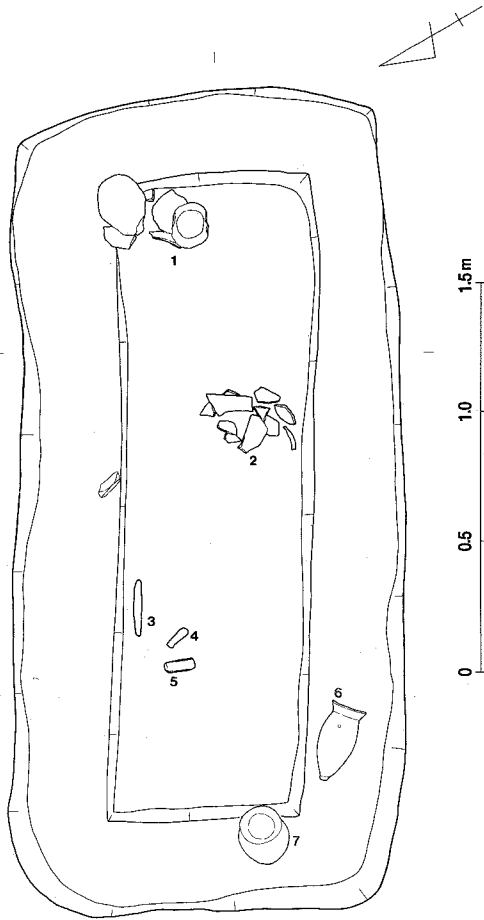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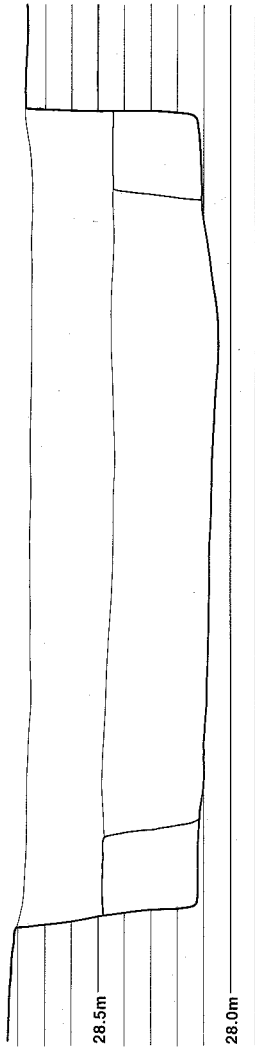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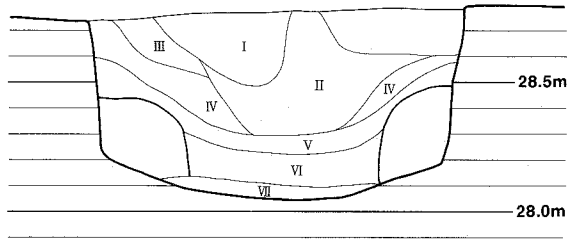
### 나. 遺物

圖面 57-1(圖版 27-3)은 瓦質 短頸壺로 구연과 동체부만 일부 잔존한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장식이 혼입되었다. 색상은 내·외면 모두 황색이며, 일부 암회색을 띤다. 바닥은 圓底이며 전체적으로 球形이다. 胴最大徑은 胴體部 中位에 있다. 頸部는 직립하다가 구연단에서 외반한다. 동체부에는 격자타날한 후 10조의 횡침선을 돌렸다. 내면에는 박자흔이 뚜렷하게 남아있으며 구연부의 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구연부편은 충전토 상부에서 동체부는 유구의 중앙에서 확인되었다. 추정높이 30.5cm, 口徑 16.9cm, 胴最大徑 21.2cm이며, 출토위치는 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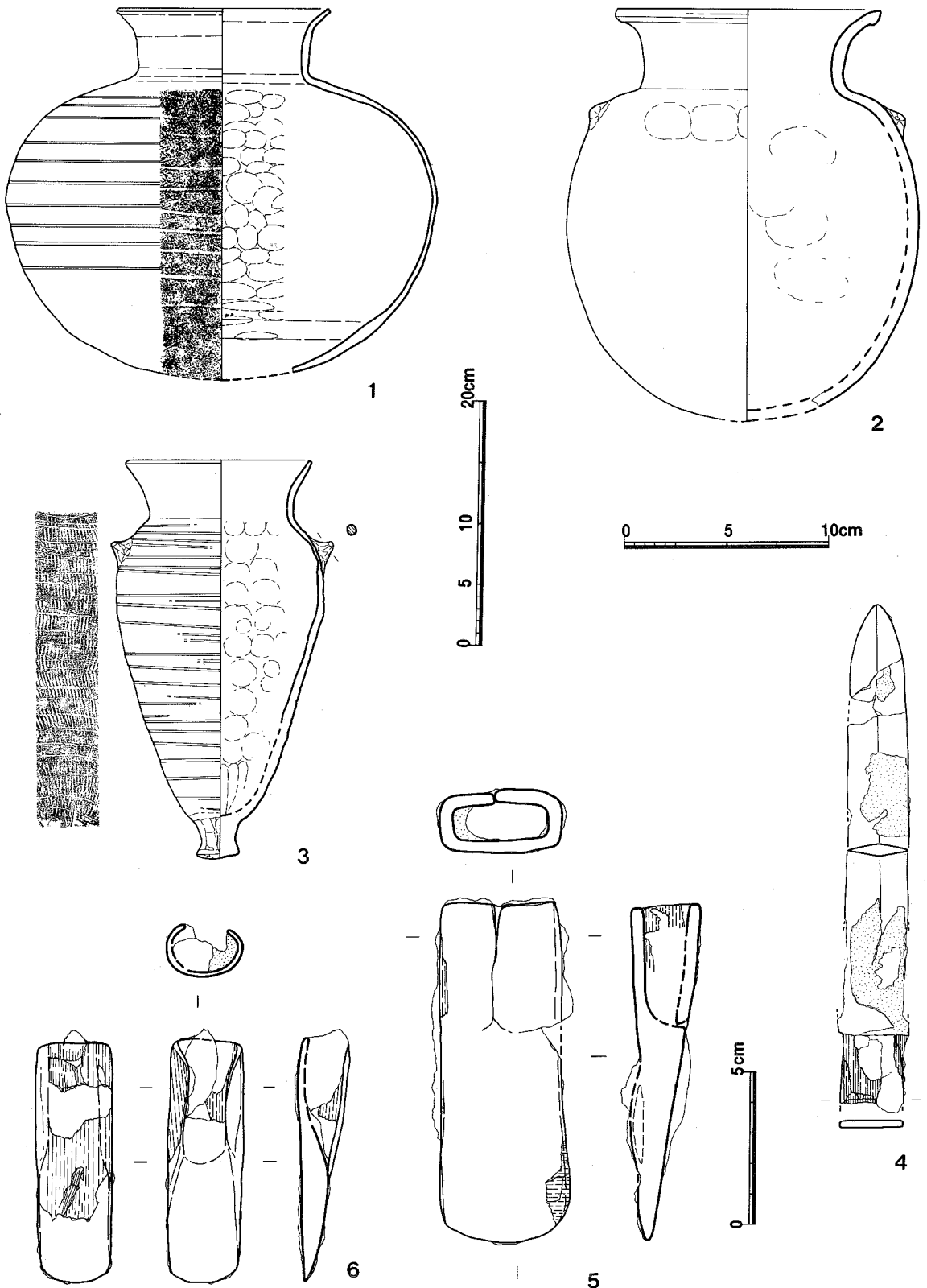
圖面 57-2(圖版 28-1)는 口緣部와 底部가 일부 결실된 瓦質 兩瘤附壺이다. 燒成은 비교적 불량한 편이며, 전체적으로 박리가 심하다. 색상은 회갈색을 띠며, 부분적으로는 속심이 자색인 곳도 있다. 정선된 태토에 입자 크기가 다양한 장식 알갱이가 다량 혼입되어 있다. 동체내부에 박리가 심하지만 내박자 흔적이 일부 확인된다. 구연부는 회전물손질 정면하였고 동체부에는 박자흔이 확인되는데 박리가 심한 편이다. 동체상부 양쪽에 꼭지를 부착하였다. 높이 19.6cm, 口徑 12.3cm, 胴最大徑 16.5cm이다. 출토위치는 2이다.

圖面 57-3(圖版 27-4)은 長胴形 瓦質 兩耳附甕이다. 부분적으로 약간씩 결실되기는 했으나 거의 완형이다. 燒成은 양호하며 전체적으로 회청색을 띤다. 부분적으로 회백색조를 띠는 곳도 있다. 태토는 정선된 것으로 혼입 알갱이는 적다. 구연부는 회전물손질 정면하였고, 底部를 제외하고 전 동체부에 승석타날하였다. 동체내부에도 지두흔과 내박자흔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胴

- I : 회흑색토
- II : 암갈색 사질토
- III : 황갈색토, 점성 강함
- IV : 암적갈색토
- V : 회황색토, 풍화알반 다량 혼입
- VI : 명갈색토
- VII : 회백색 점질토



圖面 56. 34號 木棺墓<1/30>



圖面 57. 34號 木棺墓 出土遺物<1, 3 : 1/5, 2, 4 : 1/3, 5, 6 : 1/2>

最大徑은 동체상부에 있고 그 부분에 양이가 붙어 있다. 이 토기는 길게 뻗은 장동형의 동체부로 동체하부로 갈수록 축약된 후 축약된 굽모양의 底部가 부착되어 있다. 높이 32.8cm, 口徑 14.6cm, 底徑 3.5cm이며, 출토위치는 4이다

圖面 57-4(圖版 28-2)는 身部和 柄部 일부가 결실된 鐵劍이다. 柄部에는 세로의 목질이 부착되어 있고, 身部에는 유기질흔(칼집흔)이 부착되어 있다. 身部 단면은 菱形이고 柄部 단면은 세장방형이다. 잔존길이 25cm, 身部길이 21.2cm, 너비 0.6cm, 柄部두께 0.4cm이다. 출토위치는 5이다.

圖面 57-5(圖版 28-3)는 身部가 일부 결실된 鍛造鐵斧로 身部 일부가 수화로 부풀어 올랐다. 공부내부와 선단부에 부분적으로 목질이 남아 있다. 공부단면은 장방형이며, 길이 11.3cm, 너비 4.2cm이며, 출토위치는 5이다.

圖面 57-6(圖版 28-4)은 완형의 小形 鍛造鐵斧이다. 鍔斧내부와 공부 바깥 윗면에 목질흔이 부착되어 있다. 鐵斧의 아랫면에 목질이 秀着되어 있다. 鍔部에서 身部·인부까지 쪽 뻗은 직선형이다. 길이 8.1cm, 너비 2.4cm이며, 출토위치는 6이다.

### (35) 35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58, 圖版 28-5, 6)

해발 28.8m선상에 위치한 비교적 길이가 긴 목관묘이다. 동쪽으로 36호 목관묘가 인접해 있다. 유구의 중심부분은 후대의 경작으로 인해 훼손이 심한 편이다. 주축방향은 N89.5°E이고, 무덤의 규모는 길이 300cm, 너비 100cm, 깊이 74cm이고, 충전토의 잔존상태로 보아 목관의 규모는 길이 230cm, 너비 60cm, 깊이 38cm이다.

유구 내부토는 후대 교란에 의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지만 충전토부분은 비교적 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충전토는 묘광을 판 흙을 그대로 사용한 듯하다. 遺構가 전체적으로 훼손되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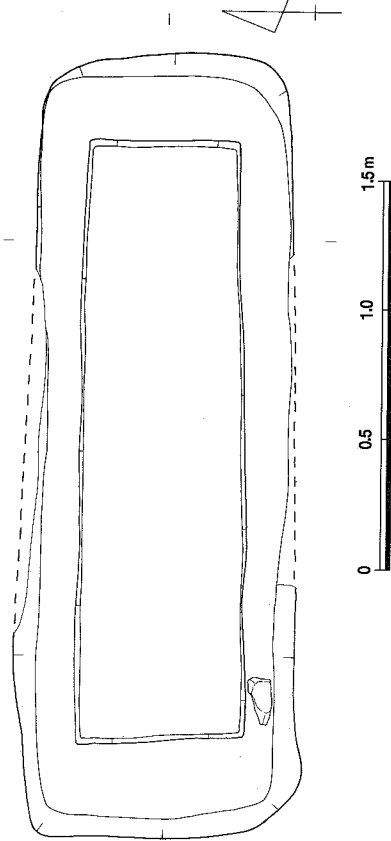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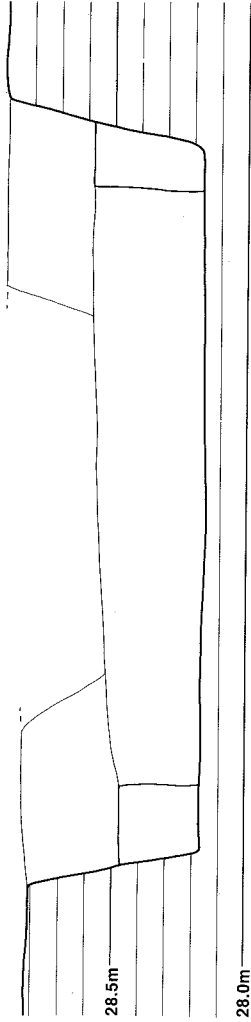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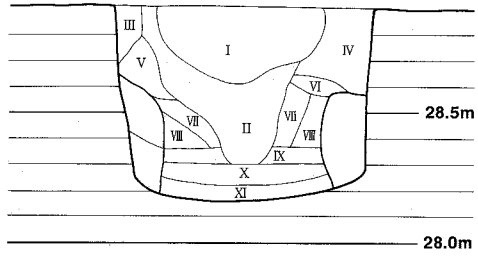
유구의 바닥에서 목관의 잔흔으로 생각되는 3~6cm의 점토띠가 돌려지는데 충전토보다 벽면에 근접하여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다.

### (36) 36號 木棺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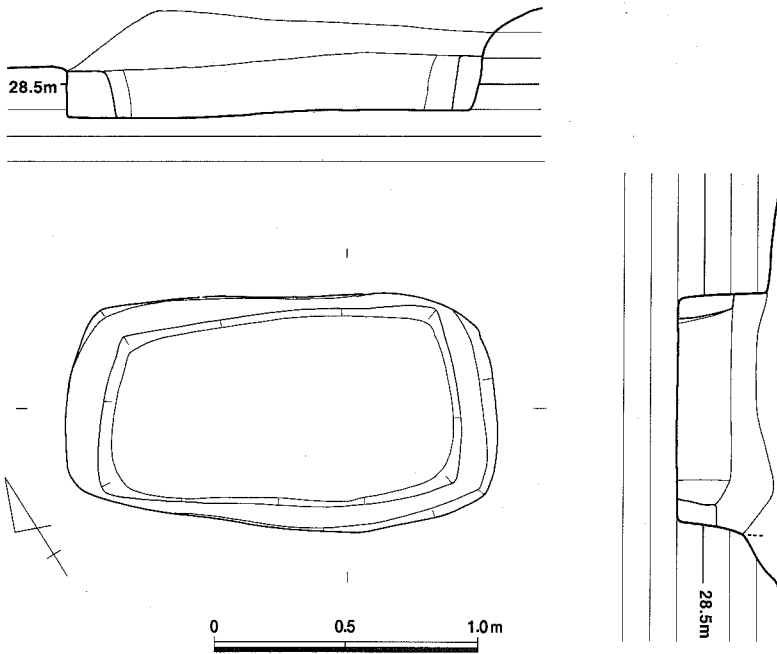
#### 가. 遺構(圖面 59, 圖版 29-1)

해발 28.7m선상에 위치한 소형 木棺墓이다. 북쪽으로 34호 목관묘가 위치해 있다. 후대의 경작으로 인해 북쪽 단벽 모서리 일부와 남장벽 일부가 훼손되었다. 주축방향은 N58°W이고, 무덤의 규모는 길이 163cm, 너비 91cm, 잔존깊이 41cm이다. 목관의 규모는 길이 130cm, 너비 73cm, 깊이 21cm로 추정된다.

- I : 회흑색 부식토
- II : 암갈색 부식토
- III : 적갈색 사질토
- IV : 암적갈색토
- V : 황갈색토, 풍화암반 혼입
- VI : 명갈색토
- VII : 황갈색토, 사질토
- VIII : 회황갈색토, 점성 강함
- IX : 암갈색토
- X : 황적갈색토
- XI : 회백색 점질토



圖面 58. 35號 木棺墓<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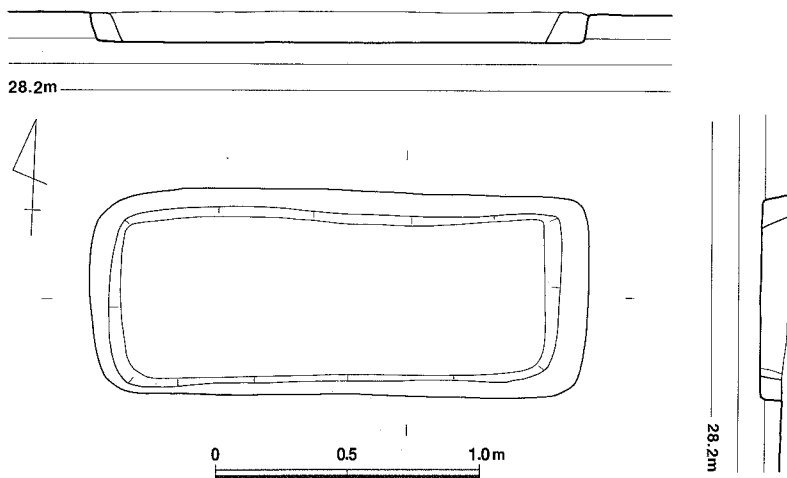
충전토의 폭이 대단히 좁은 편인데 전체적으로 묘광에 비해 목관이 큰 편이다. 유구의 내부는 별다른 시설없이 생토면을 정지하여 목관을 안치한 것으로 보인다. 출토유물은 없었다.

圖面 59. 36號 木棺墓<1/30>

### (37) 37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60, 圖版 29-2)

해발 28.5m상에 위치하는 木棺墓이며, 유구의 길이 방향으로 배수로가 관통하여 유구를 일부 파손하였다. 주축방향은 N87°E이며, 무덤의 규모는 길이 189cm, 너비 79cm, 잔존깊이 11cm이다.



圖面 60. 37號 木棺墓<1/30>

목관의 규모는 길이 170cm, 너비 66cm로 추정된다.

床面은 별다른 시설 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상부가 많이 삭평되어 충전토의 높이도 추정이 불가능하다. 유구의 바닥에 회백색의 점질토가 간헐적으로 보이는데 목관의 흔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충전토는 황갈색이며 내부토는 갈색기가 강하다. 소형목관묘로서 부장된 유물은 없으며, 소아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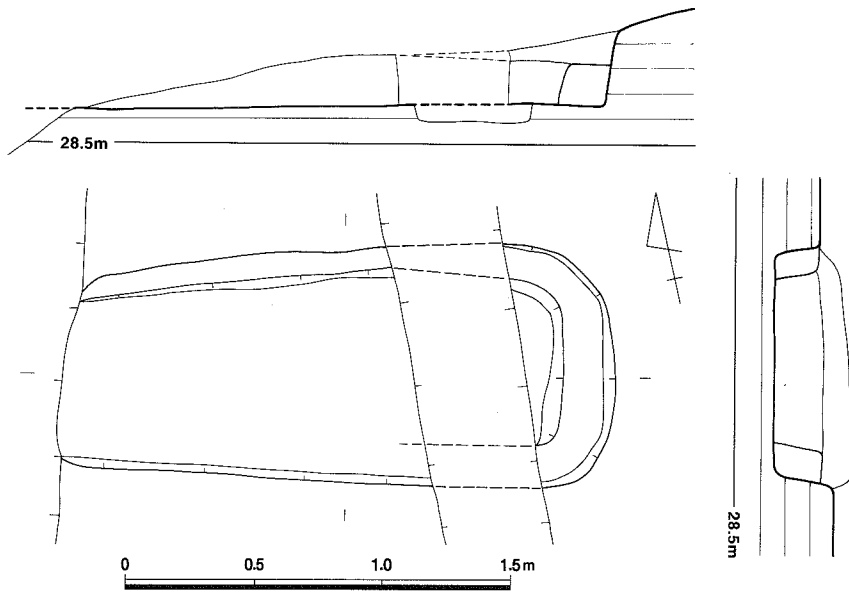
### (38) 38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61, 圖版 29-3)

구릉의 정선부 해발 28.9m선상에 위치하며, 3호溝에 의해 서단벽쪽이 파손되었다. 또한 후대의 배수로와 경작 등으로 인해 유구의 동쪽부분도 훼손이 심한 편이다.

유구의 주축방향은 N78°W이고 등고선 방향과 직교되게 설치되어 있다. 무덤의 규모는 잔존 길이 212cm, 너비 92cm, 깊이 30cm이며,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충전토의 형태를 통해 추정되는 목관의 규모는 추정길이 180cm, 너비 65cm, 깊이 19cm이다.

충전토는 황갈색의 암반편이 주를 이루는데 일부는 흑갈색의 부식기가 강한 토양도 보인다. 아마도 충전토가 2개 이상의 다른 성분의 토양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충전토의 내측으로 유구 바닥에 회백색의 점질토가 한 벌 깔려 있는데 아마도 목관의 부식에 의해 변색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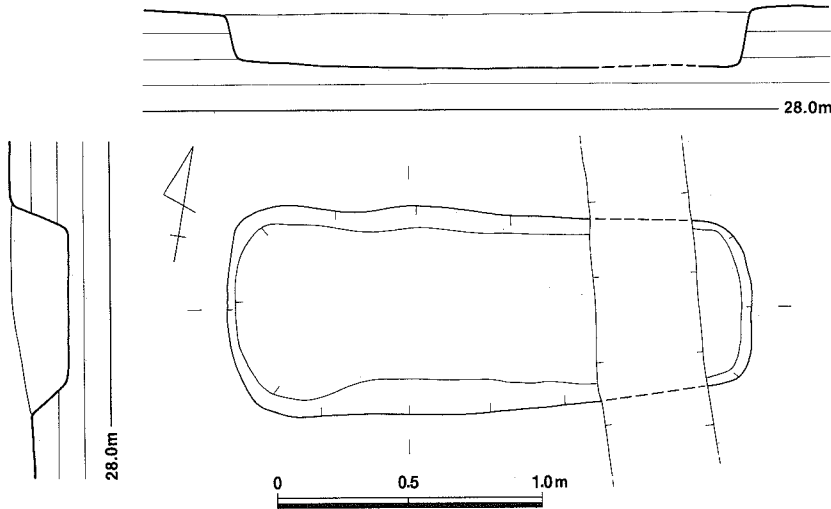


圖面 61. 38號 木棺墓<1/30>

(39) 39號 土壙墓

가. 遺構(圖面 62, 圖版 30-1)

해발 28.4m선상에 위치하며 배수로와 경작으로 인해 遺構의 상부가 대부분 유실되어 유구의 깊이가 상당히 얇아졌다. 주축방향은 N80°E이며, 무덤의 규모는 길이 200cm, 너비 77cm, 깊이 21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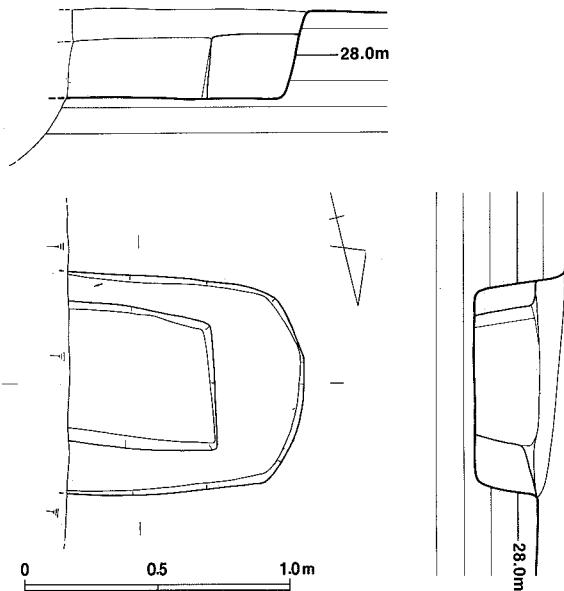


圖面 62. 39號 木棺墓<1/30>

유구의 내부조사과정에서 충진토로 볼 만한 토층이 확인되지 않았고, 목관의 흔적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목관이 설치되지 않은 直葬의 土壙墓로 추정된다.

유구의 평면은 전체적으로 말각

장방형으로 별다른 시설은 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출토유물도 없다.



圖面 63. 40號 木棺墓<1/30>

(40) 40號 木棺墓

가. 遺構(圖面 63, 圖版 30-2)

3호 溝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遺構의 동쪽 대부분은 구에 의해 완전히 훼손되어 서단벽 일부만 남아 있다. 주축방향은 N77°W이며, 남아 있는 무덤의 규모는 잔존길이 88cm, 너비 85cm, 깊이 35cm이다. 잔존하는 목관의 규모는 길이 54cm, 너비 53cm, 깊이 24cm이다.

유구 내부토는 회흑색을 포함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부만 잔존하여 토층을 살피기가 어렵다. 충진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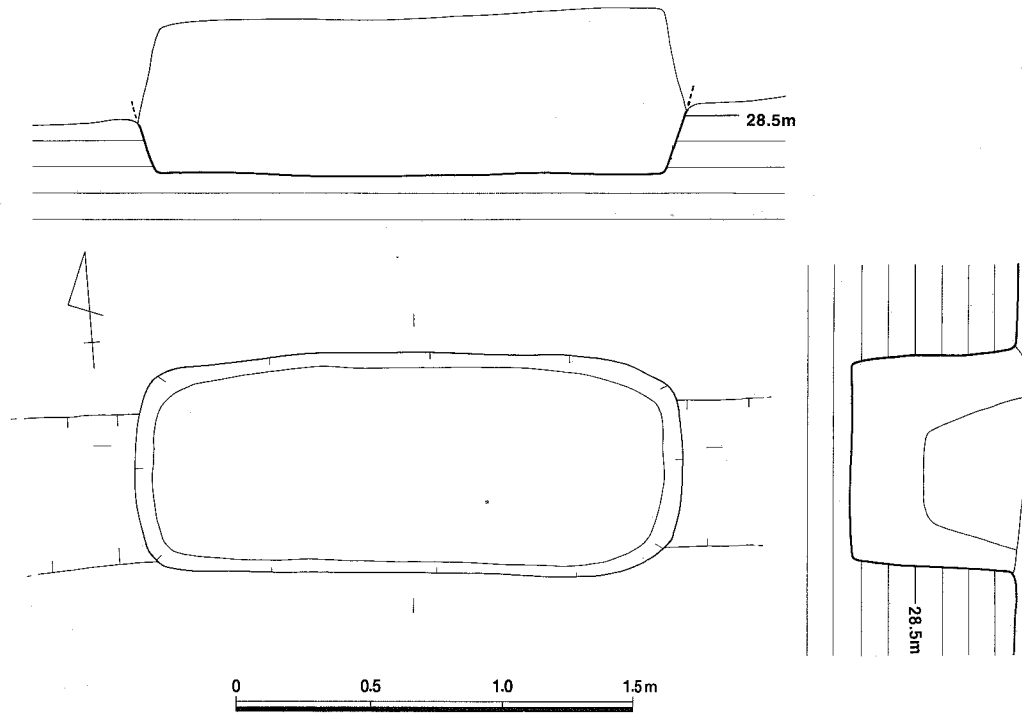
암황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져 있다. 유구내에서는 출토유물이 없다.

**(41) 41號 土壙墓**

가. 遺構(圖面 64, 圖版 30-3)

구릉의 정선부에 위치하며, 유구의 주축방향은 N85° W이다. 무덤의 규모는 길이 207cm, 너비 85cm, 깊이 60cm이다. 과수원 배수로가 유구의 주축방향으로 관통하여 유구의 토층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리고 遺構의 중앙에 9호 옹관묘가 중복되어 있어 유구의 내부가 대부분이 훼손되었다.

토층단면에서 충전토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목관이 없는 土壙墓인 것으로 추정된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정지하여 사용하였다. 출토유물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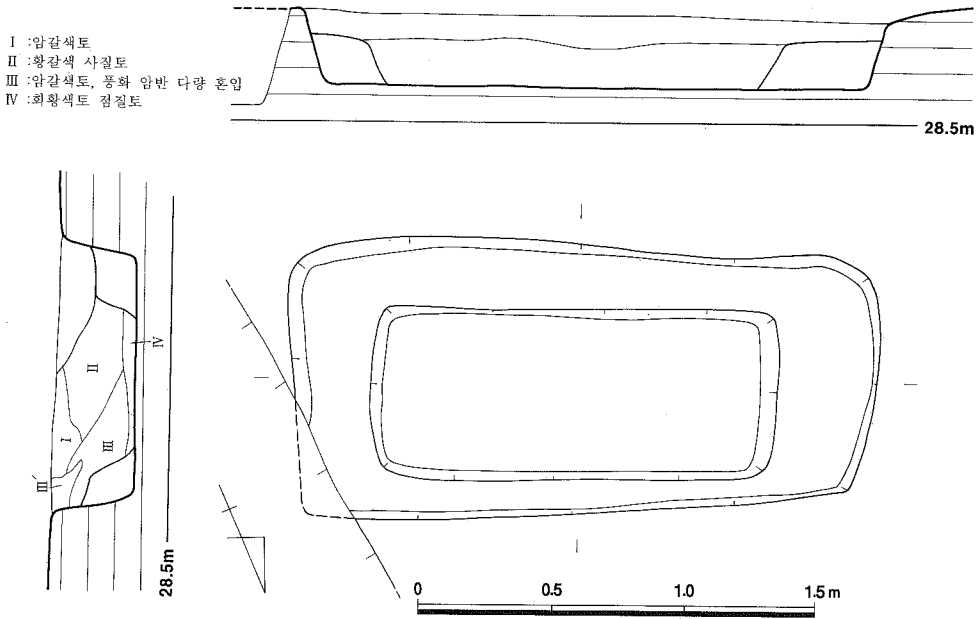
圖面 64. 41號 土壙墓<1/30>

**(42) 42號 木棺墓**

가. 遺構(圖面 65, 圖版 30-4)

해발 29.5m선상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67° W이다. 무덤의 규모는 길이 220cm, 너비 104cm, 깊이 28cm이며, 목관의 규모는 길이 143cm, 너비 58cm, 깊이 15cm로 추정된다.

경작과 나무구덩이 등으로 인해 상부 유실이 심한 편인데 유구 내부토의 토층도 많이 훼손된 상태이다. 황갈색 풍화암편이 혼입된 층전토는 남장벽쪽이 조금 넓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목관을 한쪽으로 치우쳐 설치한 결과로 보인다. 유구의 바닥은 생토위에 얇게 흙을 깔아서 정지한 후 사용하였으며, 목관의 부식흔으로 판단되는 회백색토가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다.



圖面 65. 42號 木棺墓<1/30>

### (43) 43號 木棺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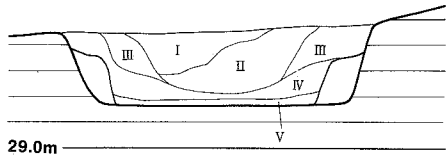
#### 가. 遺構(圖面 66, 圖版 31-1~3)

구릉의 동쪽 정선부에 위치하며 유구의 서쪽은 3호 溝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 밖에도 배수로와 구덩이 등에 의해 전체적으로 유구의 훼손이 심하다. 유구의 주축방향은 N63°W이며, 무덤의 규모는 길이 300cm, 너비 117cm, 깊이 43cm이다. 층전토의 잔존상태로 추정되는 목관의 규격은 추정길이 220cm, 너비 82cm, 깊이 2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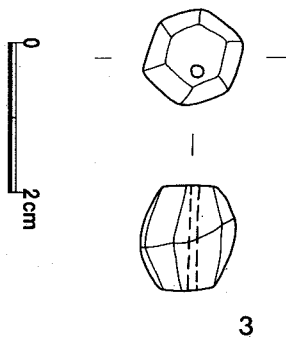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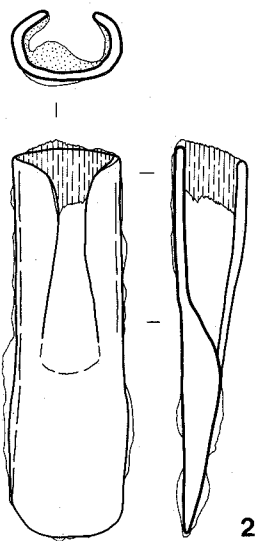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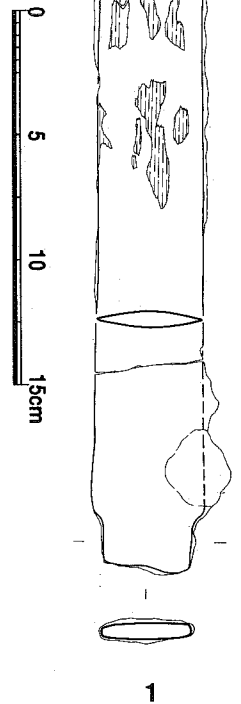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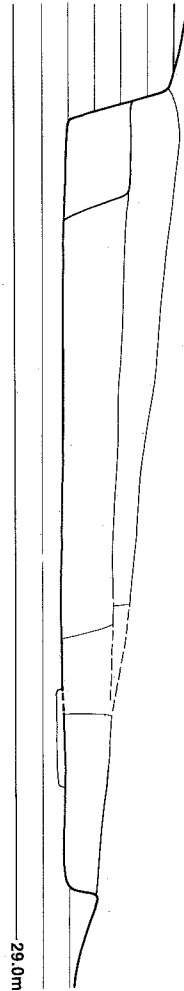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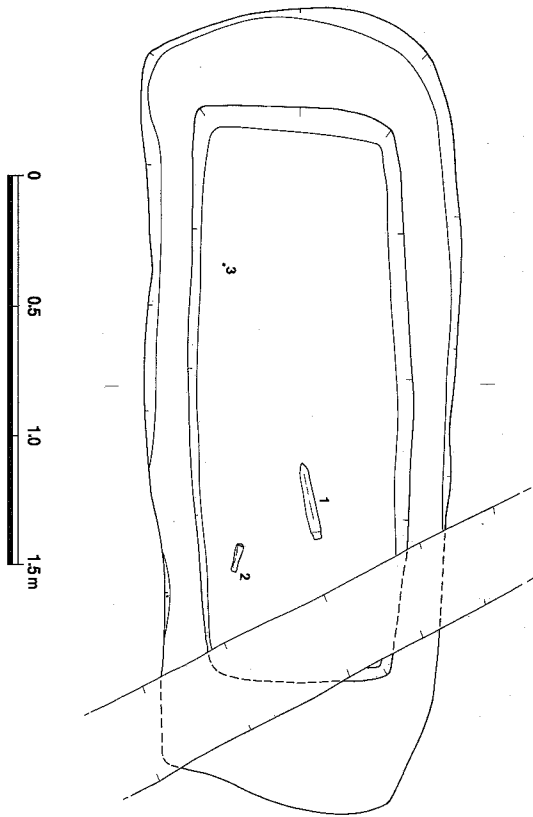
묘광의 장축이 300cm인 규모가 큰 유구이다. 내부의 토층은 층전토와 4개의 토층으로 구분되는데 단벽상에서 약간 남쪽으로 치우쳐서 함몰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유물은 유구의 상면에서 鐵劍 1점, 鐵斧 1점, 頸飾 1점이 출토되었다.

#### 나. 遺物

圖面 66-1(圖版 31-4)은 鐵劍으로 身部の 表面에는 검집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목질이 부착되



- I : 회흑갈색토
- II : 회흑색토
- III : 암황갈색 사질토
- IV : 명적갈색토
- V : 회백색 점질토



圖面 66. 43號 木棺墓<1/30>와 出土遺物<1 : 1/3, 2 : 1/2, 3 :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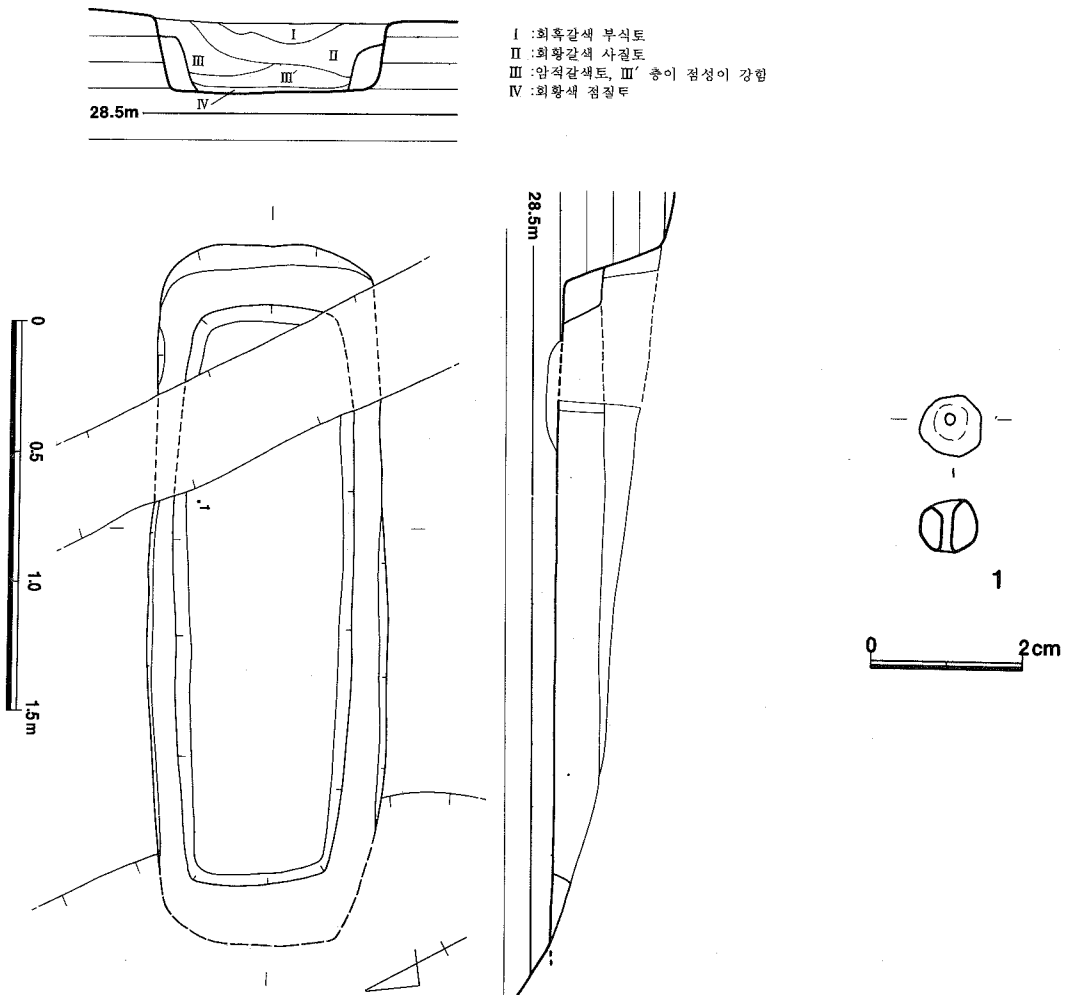
어 있으며 단면은 볼록렌즈형이다. 柄部는 짧은데 고정구멍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 완형으로 길이 33.0cm 너비 4.2cm이며, 출토위치는 1이다.

圖面 66-2(圖版 31-5)는 鍛造鐵斧로서 鋤部는 끝을 말아 올렸으며, 단면은 타원형이다. 鋤部는 열린 상태이며 내면에 목질흔이 잔존하고 있다. 길이 10.5cm, 너비 3.3cm, 鋤部外徑 3.0×2.0cm이며, 출토위치는 2이다.

圖面 66-3(圖版 31-6)은 반투명의 청색 유리제 頸飾이다. 육면체로 가공하였다. 외면은 일부 박리된 상태이다. 길이 1.4cm, 너비 1.2cm이며, 출토위치는 3이다.

#### (44) 44號 木棺墓

가. 遺構(圖面 67, 圖版 32-1, 2)



圖面 67. 44號 木棺墓<1/30>와 出土遺物<1 : 1/1>

구릉의 남쪽 사면에 위치하며 배수로와 경작으로 인해 유구의 상부가 경사지게 삭평되었다. 주축방향은 N62°W으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무덤의 규모는 길이 270cm, 너비 86cm, 깊이 37cm이며, 목관의 규모는 길이 212cm, 너비 59cm, 깊이 20cm로 세장한 편이다.

유구 내부토는 크게 3개층으로 구분되는데, 유구의 바닥에는 생토면 위에 한 벌 갈아서 정지한 것 같다. 유구의 서쪽으로는 경사지면서 묘광과 충전토가 삭평되었다. 유물은 경식 1점이 유구의 바닥에서 수습되었다.

#### 나. 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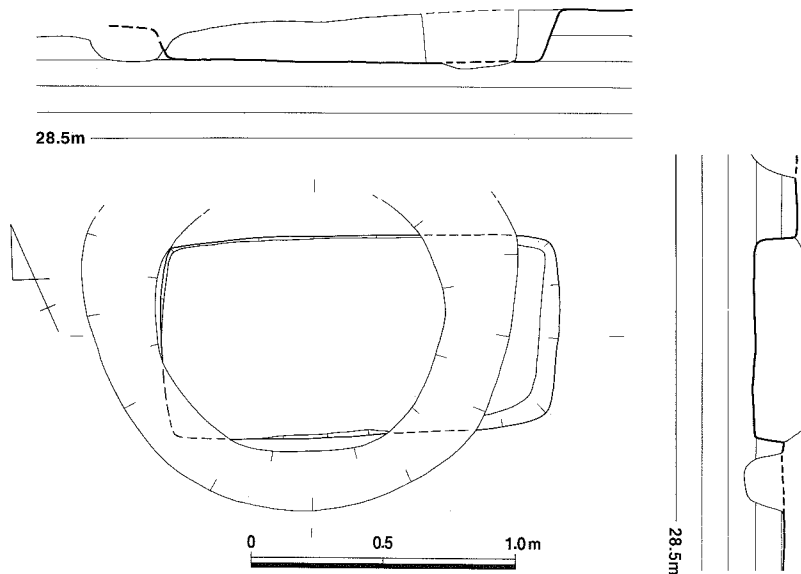
圖面 67-1(圖版 32-3)은 황갈색의 호박제 경식이며 평면은 육면체이다. 구멍은 양쪽에서 뚫었다. 길이 0.7cm이다.

### (45) 45號 土壙墓

#### 가. 遺構(圖面 68, 圖版 32-4)

해발 28.9m선상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이 N67°W인 土壙墓이다. 무덤의 규모는 길이 150cm, 너비 77cm, 깊이 20cm이다.

나무구덩이에 의해 遺構의 대부분이 유실되었고 유구 내부토 역시 상부의 경작으로 인해 오염이 심한 상태였다. 내부조사에서 충전토의 흔적이 전혀 감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목관이 없었던 토광묘일 가능성이 높다. 유구 내부토는 교란이 심하여 자세한 유구의 양상을 알 수 없다. 출토유물은 없었다.



圖面 68. 45號 土壙墓<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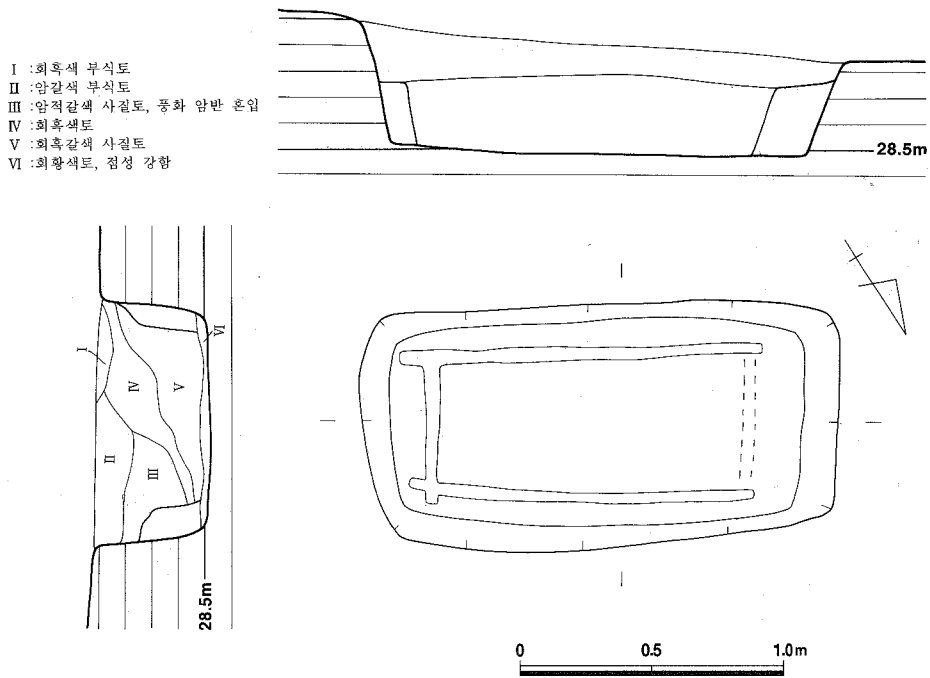
(46) 46號 木棺墓

가. 遺構(圖面 69, 圖版 32-5)

해발 28.9m선상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59°W으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되게 설치되어 있다. 무덤의 규모는 길이 182cm, 너비 95cm, 깊이 30cm이며,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다. 충전토로 본 목관의 규모는 길이 126cm, 너비 64cm, 깊이 28cm이다.

대안리유적 목관묘의 토층은 크게 아래쪽의 토층과 상부의 회흑색토로 양분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46호 목관묘는 역으로 회흑색토가 아래에 위치하는 특징을 보인다.

유구의 바닥은 회백색토로 정지하였으며 그 위에 목관을 안치하였다. 목관의 흔적으로 생각되는 회백색의 점토띠가 'ㅍ'자상으로 나타난다. 출토된 유물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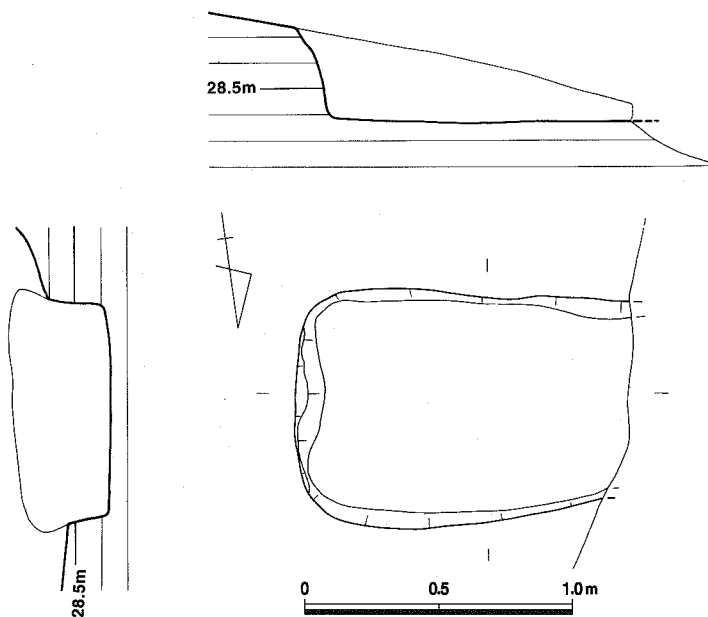


圖面 69. 46號 木棺墓<1/30>

(47) 47號 土墳墓

가. 遺構(圖面 70, 圖版 33-1)

해발 28.6m선상에 위치하며, 3호 溝에 의해 유구의 서쪽은 파손되었다. 잔존하는 묘광의 주축방향은 N82°W이다. 무덤의 규모는 잔존길이 125cm, 너비 86cm, 깊이 34cm이다.



圖面 70. 47號 土壤墓(1/30)

유구의 파손이 심하여 자세하게 조사할 수는 없었지만 토층조사에서 층전토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목관이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유구의 바닥은 별다른 시설 없이 생토를 그대로 정지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 (48) 48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71, 圖版 33-2~4)

28.3m선상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73°W이다. 유구의 서단벽쪽은 3호 溝에 의해 파손되었다. 무덤의 규모는 잔존길이 190cm, 너비 102cm, 깊이 45cm이며, 바닥에서 확인된 목관의 규모는 잔존길이 167cm, 너비 64cm, 높이 27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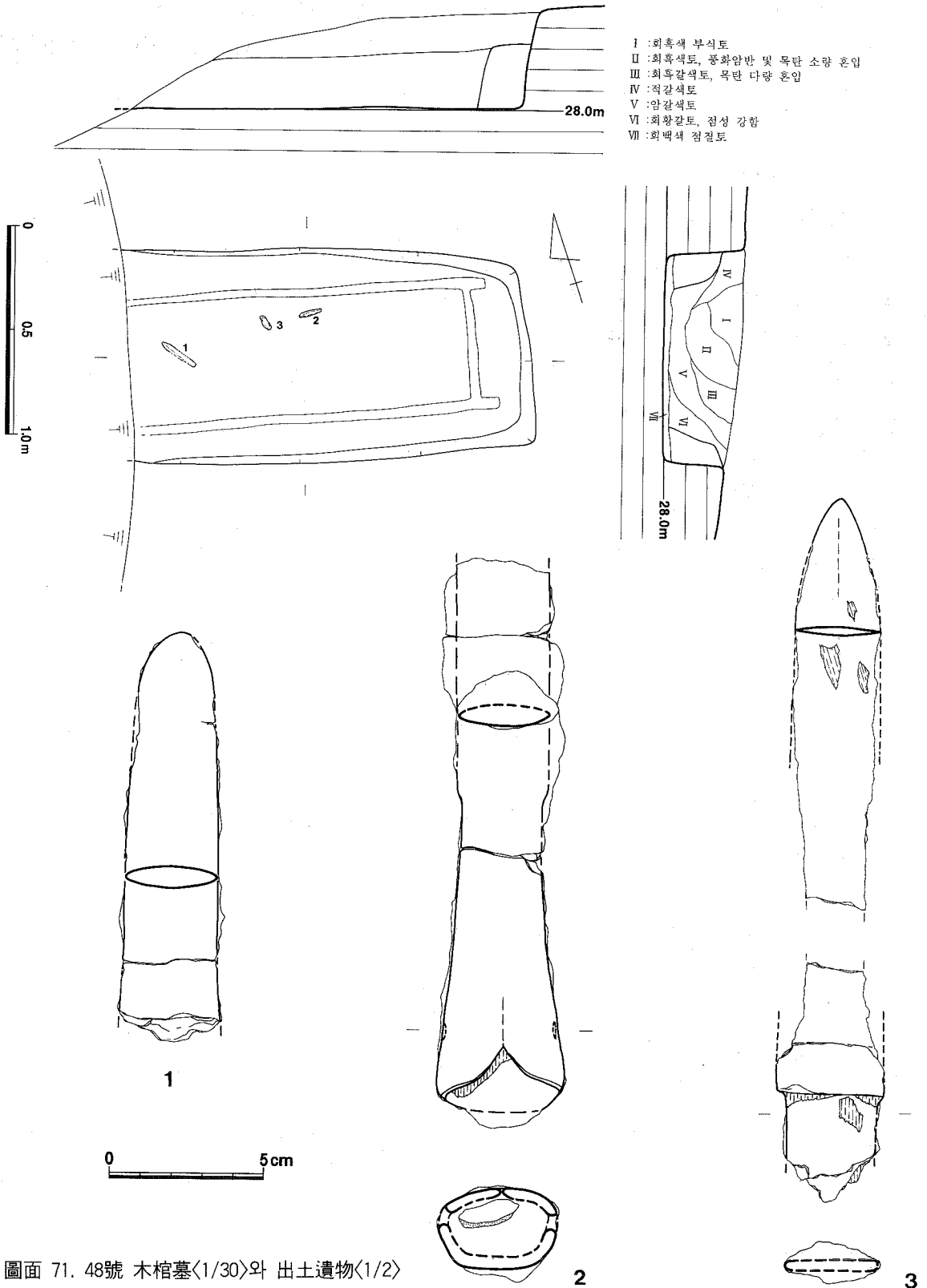
유구 내부토는 층전토와 7개의 층위로 구분되는데 회흑색토는 IV층에서 확인된다. 층전토를 제거하고 바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회백색의 점토띠가 'ㅍ'자상으로 확인되었는데, 목관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점토띠의 폭은 5cm 내외이다.

유물은 북장벽 중간에 철검 1점과 서단벽쪽으로 鐵鉞 1점이 수습되었으며 내부토에서도 鐵鉞편 1점이 수습되었다.

##### 나. 遺物

圖面 71-1(圖版 33-5)은 蓋部는 결실되고 身部만 잔존하고 있는 鐵鉞片이다. 身部の 단면형태는 볼록렌즈형이다. 잔존길이 13.7cm, 너비 3.1cm이다.

圖面 71-2(圖版 33-6)는 關部가 2단으로 단이 져 있는 二段柄式鐵鉞이다. 신부단면은 볼록렌즈형이며 蓋部 내부에 목질흔은 남아 있다. 고정구멍은 2개가 양쪽으로 뚫어져 있다. 잔존길이 18.5cm, 너비 3.0cm이며, 출토위치는 2이다.



圖面 71. 48號 木棺墓<1/30>와 出土遺物<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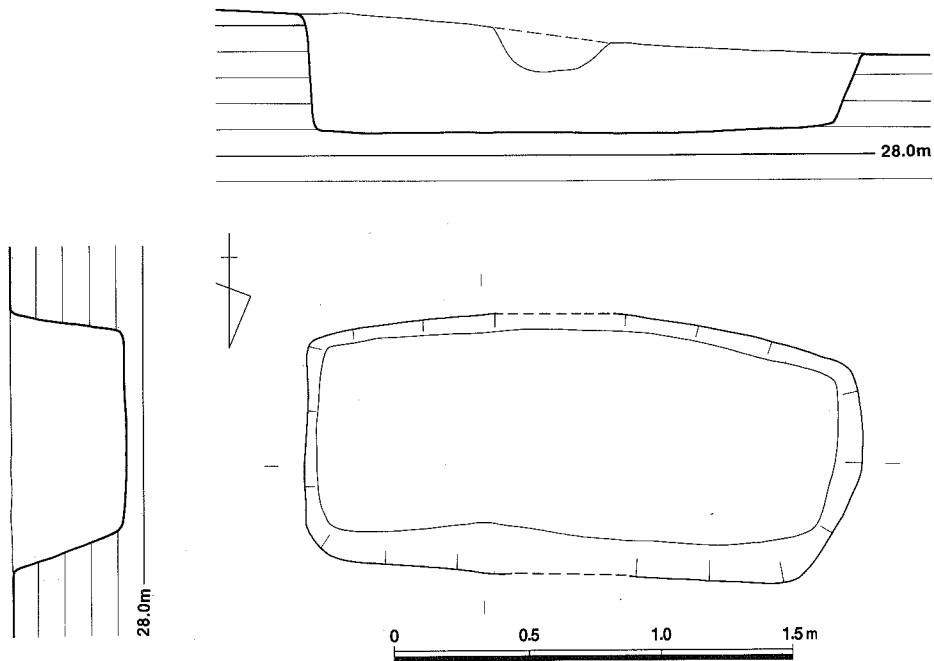
圖面 71-3(圖版 33-7)은 身部와 柄部가 일부 결실된 鐵劍이다. 身部에 검집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목질이 남아 있다. 身部 단면은 볼록렌즈형이며, 柄部에는 부분적으로 목질이 부착되어 있다. 추정길이 23.5cm, 너비 2.9cm이며, 출토위치는 1이다.

### (49) 49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72, 圖版 34-1)

해발 28.5m선상에 위치하며,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유구이다. 배수도가 유구의 중심부를 파손시켰다. 주축방향은 N90°W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되게 축조되었다. 무덤의 규모는 길이 210cm, 너비 100cm, 깊이 43cm이다.

시굴조사 당시 토층자료를 남기지 않아 목관의 규모는 파악할 수 없다. 충전토와 대안리유적의 목관묘에서 나타나는 회흑토가 확인되었음은 당시 조사내용에서 알 수 있었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벽면은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斜壁이며, 바닥은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고 생토면을 정지하여 사용하였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圖面 72. 49號 土墳墓<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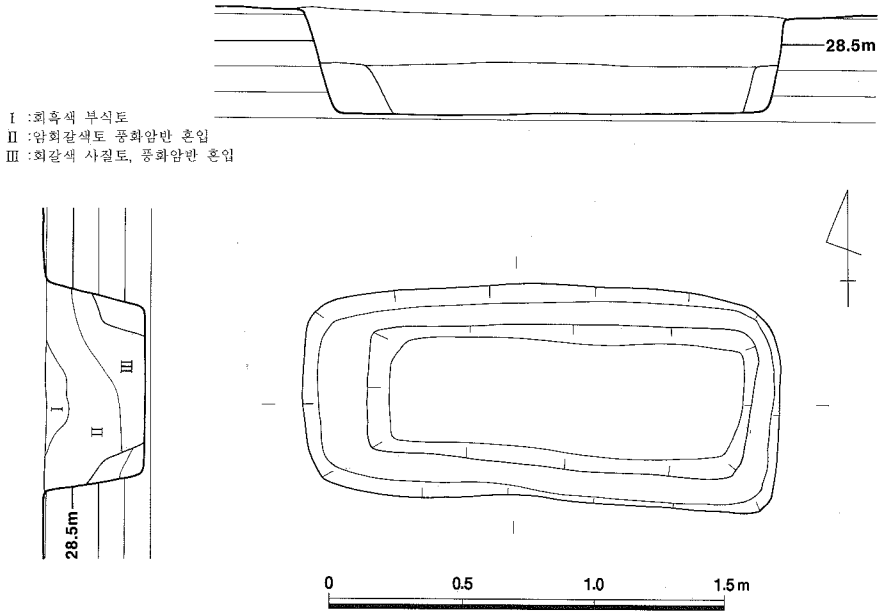
### (50) 50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73, 圖版 34-2)

구릉의 정선부 해발 28.6m선상에 위치하는데 주축방향은 N90°W이다. 무덤의 규모는 길이 180cm, 너비 80cm, 깊이 37cm이며, 목관의 규모는 길이 135cm, 너비 42cm, 깊이 20cm로 추정되는

비교적 소형의 목관묘이다.

토층은 층전토와 3개의 층위로 구분되며 목관 상부에서 확인되는 회흑색토는 내부토층의 상단에 미세하게 남아 있다. 유물은 동단벽쪽 층전토 위에서 기형을 알 수 없는 대호편이 검출되었으나 매납품이 아니라 봉분축조시에 혼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圖面 73. 50號 木棺墓<1/30>

### (51) 51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74, 圖版 34-3~5 ; 35-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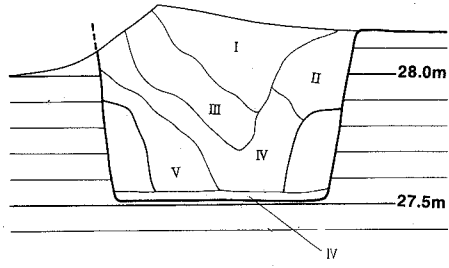
구릉의 남쪽 사면 해발 28.2m선상에 위치하며, 4호 溝에 의해 遺構의 상부는 유실되었으며 서쪽모서리는 대부분 파괴되었다. 주축방향은 N89°E이고, 무덤의 규모는 길이 290cm, 너비 95cm, 깊이 66cm이다. 유구의 바닥에서 확인되는 회백색의 점토피로 보아 목관의 규모는 길이 222cm, 너비 65cm, 깊이 34cm이다.

유구 내부토는 5개층으로 구분되는데 최하층은 관을 놓기 위해 정지한 흙으로 판단된다. 층전토를 제거한 후 바닥조사에서 목관의 흔적으로 생각되는 회백색의 점토피가 'ㅍ'자상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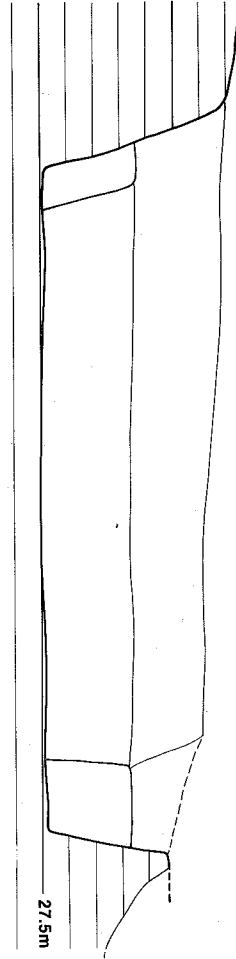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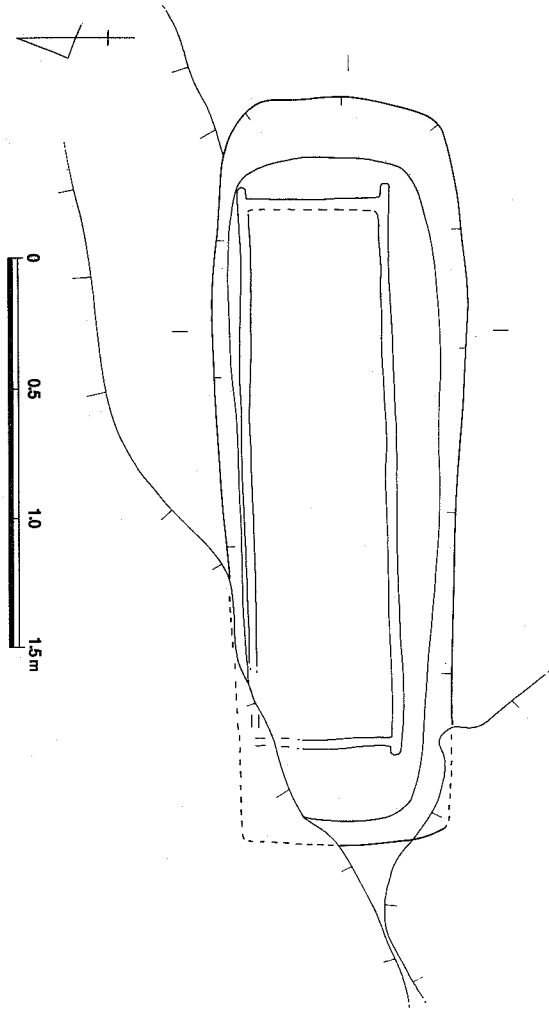
유물은 유구의 바닥에서 鍛造鐵斧 1점과 基部만 남은 상태의 鐵鎌이 출토되었다.

#### 나. 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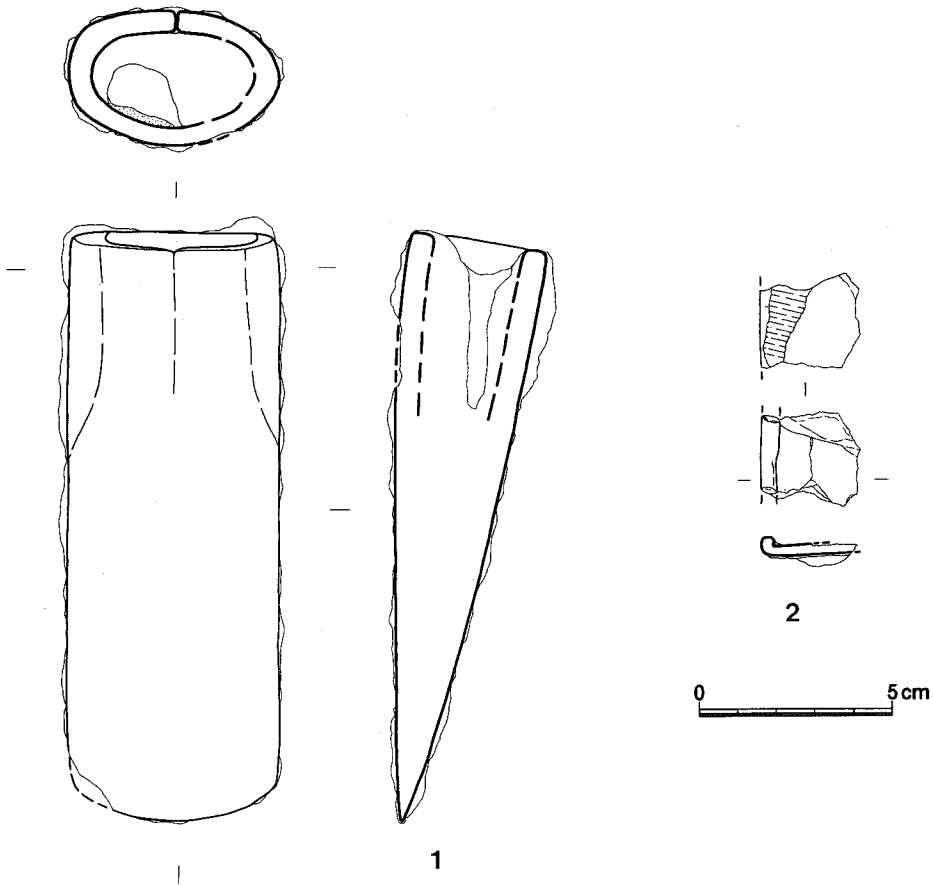
圖面 75-1(圖版 35-3)은 鍛造鐵斧로 鋏部の 단면은 장방형이다. 鋏部 내면은 銹化되어 막힌



- I : 회색토
- II : 회색토, 목관 다량 혼입
- III : 회갈색 사질토, 풍화 암반 및 목관 혼입
- IV : 암회갈색 사질토
- V : 암갈색 사질토
- VI : 회백색 점질토



圖面 74. 51號 木棺墓<1/30>



圖面 75. 51號 木棺墓 出土遺物<1/2>

상태이다. 규격은 길이 15.8cm, 너비 5.9cm, 蓋部外徑 5.7×3.2cm이며, 출토위치는 1이다.

圖面 75-2(圖版 35-4)는 基部 일부만 잔존하는 鐵鎌片이다. 基部를 둥글게 말아 접었고 뒷면에는 목질흔이 남아 있다. 잔존길이 2.5cm, 잔존너비 2.4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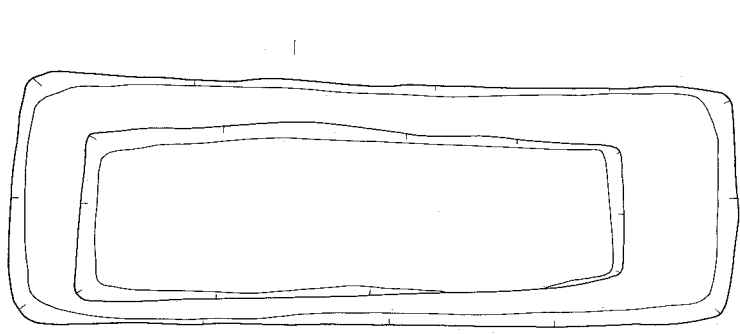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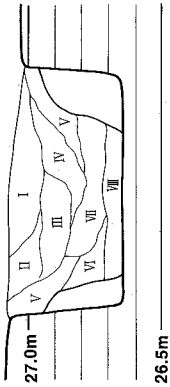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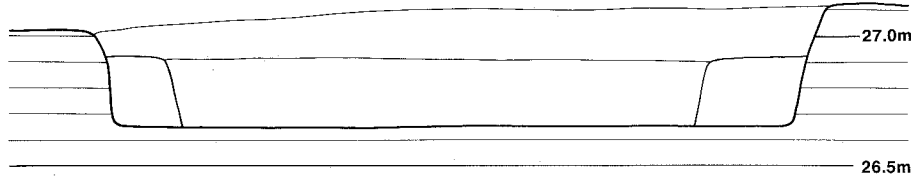
## (52) 52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76, 圖版 35-5, 6)

해발 27.1m선상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86°E이다. 무덤의 규모는 길이 275cm, 너비 92cm, 깊이 45cm이다. 목관의 규모는 길이 205cm, 너비 64cm, 깊이 26cm로 추정된다.

유구 내부토의 토층은 모두 8개층으로 구분되며, 목탄이 다량 혼입된 회흑색토는 상부의 V층이다. 토층은 중앙으로 함몰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며, 충전토는 밝은 황갈색의 풍화암반편층이 혼입되어 있는데 표광굴착시 흙을 재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충전토의 잔존상태로 보아 목관은 남쪽으로 치우친 상태로 위치하였다. 출토된 유물은 없다.

- I : 회흑색 부식토
- II : 회흑색토, 목단 및 봉화 암반 다량 혼입
- III : 회황갈색토, 봉화, 암반 혼입
- IV : 회적갈색 사질토
- V : 회갈색, 점성 강함
- VI : 밀갈색 사질토
- VII : 회황갈색, 봉화, 암반 소량 혼입, 점성 강함
- VIII : 회황갈색 점질토



圖面 76. 52號 木棺墓<1/30>

### (53) 53號 土墳墓

#### 가. 遺構(圖面 77, 圖版 36-1, 3)

구릉의 남쪽 사면 해발 27m선상에 위치하며, 배수로와 나무구덩이에 의해 유구의 파손의 극심하다. 유구의 주축방향은 N72°W이며, 무덤의 규모는 길이 240cm, 너비 76cm, 깊이 41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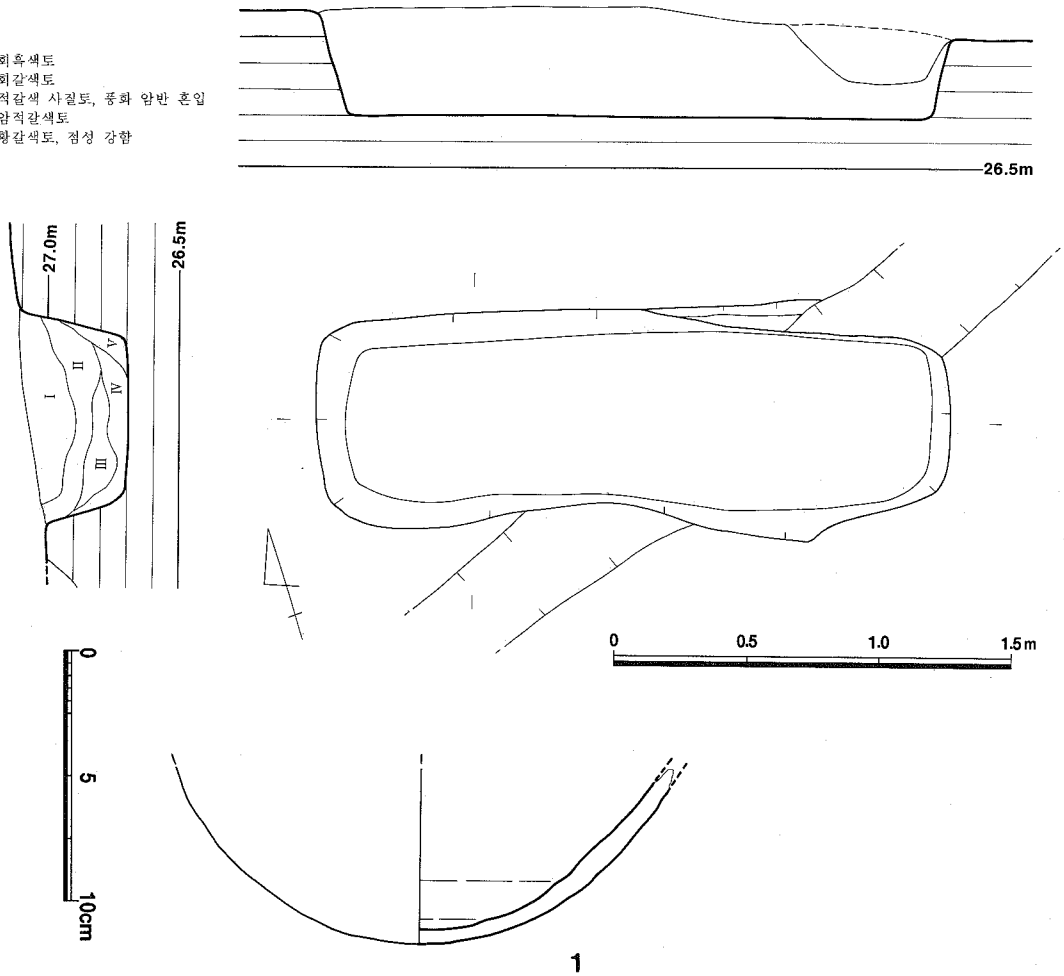
유구의 내부토는 5개층으로 구분되는데 중앙으로 함몰되는 양상이 약하게 확인된다. 회흑색토는 가장 상부에 있는 I 층이다. V 층의 토양은 북쪽으로 치우쳐서만 나타나는데 평면조사에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았다. 유구 내부토 조사과정에서 충전토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목관이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내부토를 조사시에 短頸壺의 低部가 채집되었다.

#### 나. 遺物

圖面 77-1(圖版 36-2)은 短頸壺의 底部로 추정되는 土器片이다. 내면 적갈색, 외면 암회청색이다. 태토에 굵은 석립이 혼입되어 있으며, 내외면 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알 수 없다. 잔존높이 6.6cm이다.

- I : 회흑색토
- II : 회갈색토
- III : 적갈색 사질토, 풍화 암반 혼입
- IV : 암적갈색토
- V : 황갈색토, 점성 강함



圖面 77. 53號 木棺墓<1/30>와 出土遺物<1/3>

### (54) 54號 木棺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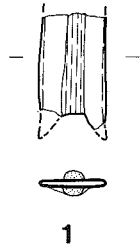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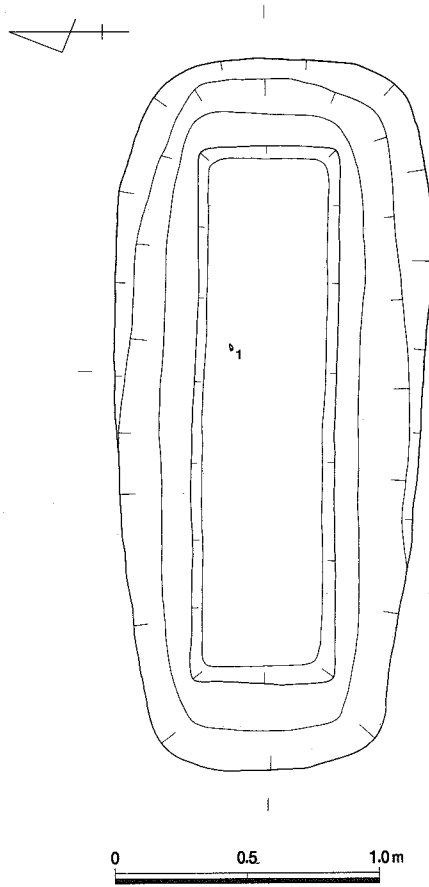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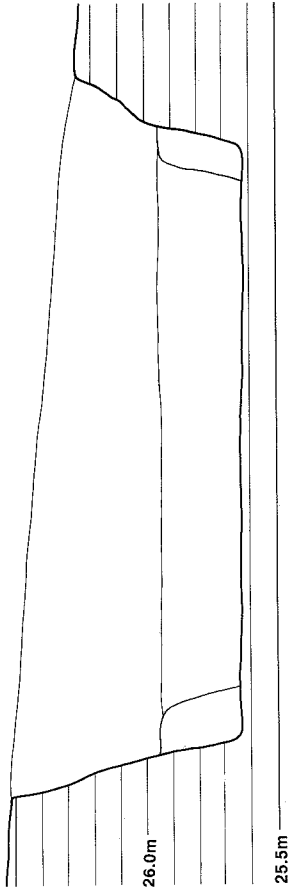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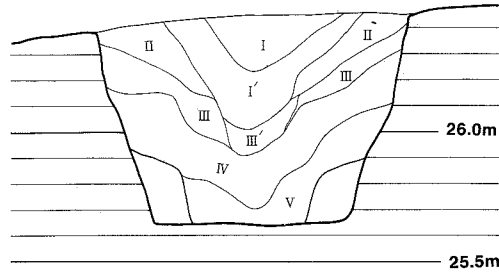
#### 가. 遺構(圖面 78, 圖版 36-4~7)

구릉의 남쪽 사면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90°W이다. 무덤의 규모는 길이 275cm, 너비 115cm, 깊이 85cm이며, 充填土의 잔존상태로 볼 때 목관의 규모는 길이 190cm, 너비 46cm, 깊이 30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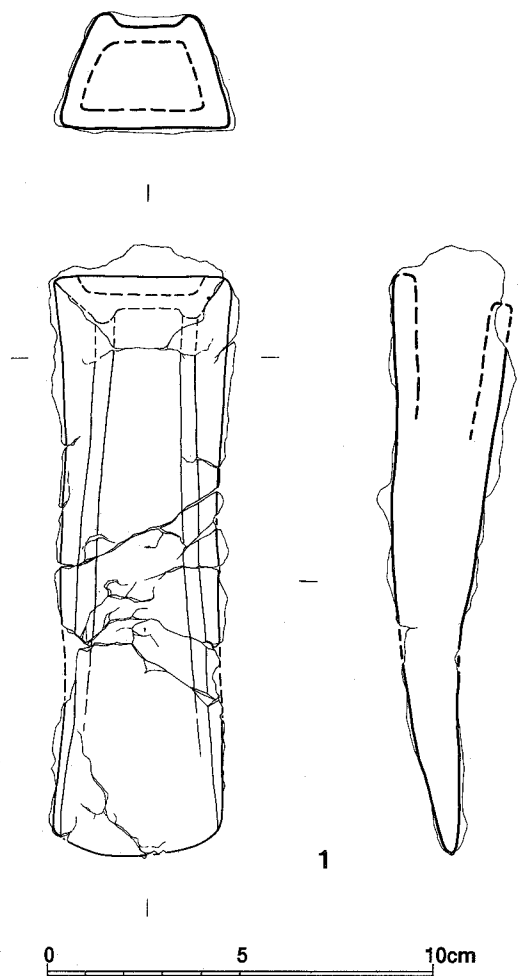
유구 내부토층은 충진토와 함몰토층으로 구분되는데 유구의 중앙으로 함몰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대안리유적 목관묘의 특징인 회흑색토는 상부의 I, II층으로 황색계토층 위에 위치한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네모서리를 모두 둥글게 처리한 말각장방형이며, 벽은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벽이다. 바닥은 생토면을 정지하여 사용하였다.

유물은 鐵鍬 1점, 鐵斧 1점이 유구의 바닥에서 출토되었다.

- I : 회색토
- II : 회색토
- III : 암회갈색토
- IV : 암갈색토, 풍화 암반 혼입
- V : 암황갈색토, 점성 강함
- ※ 받기 I > I' II > III > III'



圖面 78. 54號 木棺墓<1/30>와 出土遺物<1/2>



圖面 79. 54號 木棺墓 出土遺物<1/2>

목관의 흔적으로 판단된다.

묘광은 장타원형처럼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였으며 양장벽쪽은 계단상으로 굴착하였다. 이는 묘광의 굴착시 붕괴를 막기위한 방안이 아니었나 추정된다.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출토된 유물은 없다.

### (56) 56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81, 圖版 37-2)

해발 25.9m선상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78°W이다. 무덤의 규모는 길이 274cm, 너비 91cm, 깊이 42cm이며, 잔존하는 충진토로 보아 목관의 규모는 길이 212cm, 너비 54cm, 깊이 27cm이다.

유구 내부토층은 충진토를 제외하면 2개층정도로 구분되며 I, II층은 구성물질에서 다소 차

### 나. 遺物

圖面 78-1(圖版 36-5)은 基部가 결입된 無莖式 鐵鏃이다. 선단부는 결실되었고 화살대의 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길이 2.6cm, 너비 1.8cm이며, 출토위치는 1이다.

圖面 79-1(圖版 36-6)은 鑄造鐵斧로 전체적으로 파손이 심한 편이다. 등의 양단에는 2조의 돌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鑿部의 단면은 사다리꼴이다. 규모는 길이 15.3cm, 너비 4.2cm, 鑿部(밑변×윗면×높이)4.9×2.8×3.2cm이다.

### (55) 55號 木棺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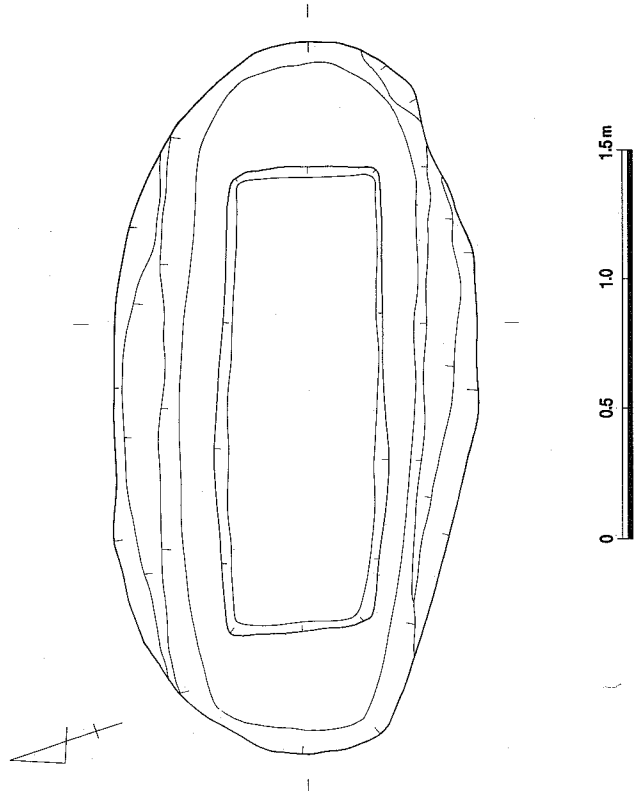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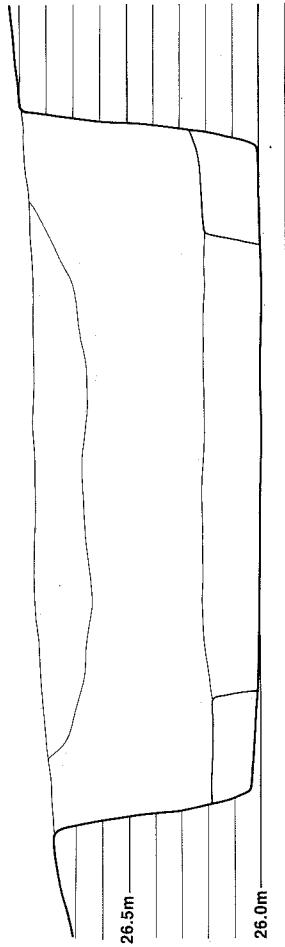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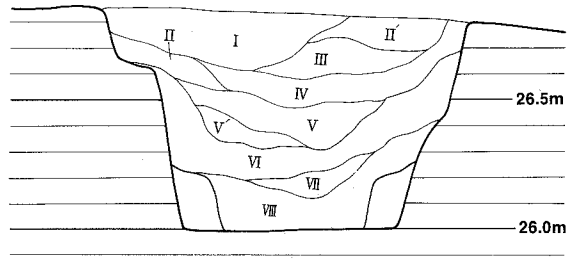
#### 가. 遺構(圖面 80, 圖版 37-1)

해발 26.8m선상에 위치하는데, 주축방향은 N71°W이며 등고선 방향과 직교되게 설치되어 있다. 무덤의 규모는 길이 275cm, 너비 135cm, 깊이 85cm이며, 목관의 규모는 길이 180cm, 너비 60cm, 깊이 23cm로 추정된다.

유구 내부토층은 전체적으로 회흑색계를 띠며, 약하게 함몰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가장 아래층은 점성이 강한 회백색 점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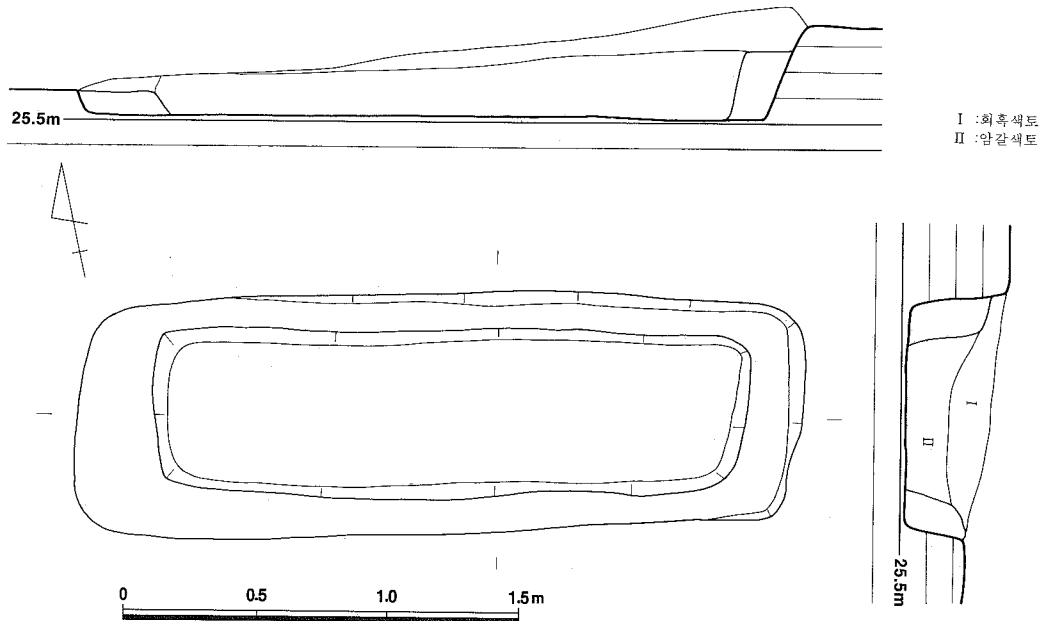


- I : 회색 부식도
- II : 회색토, 목탄 및 풍화 암반 다량 혼입
- III : 암회황색토, 풍화 암반 혼입
- IV : 암적갈색 사질토
- V : 회황색토
- VI : 암갈색 사질토
- VII : 회갈색 사질토
- VIII : 회황갈색토



圖面 80. 55號 木棺墓<1/30>

이를 보이지만 거의 같은 색조로 보아도 좋다. 잔존깊이가 얇아 함몰양상은 명확하지 않았다. 평면형태는 장단축비가 2.4 : 1인 장방형이다. 바닥은 특별한 시설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유물은 바닥에서 단경호 1점이 출토되었다.



圖面 81. 56號 木棺墓<1/30>

### (57) 57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82, 圖版 37-3, 4)

구릉의 남쪽 사면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85°W로 등고선방향과 직교되게 설치되었다. 무덤의 규모는 길이 245cm, 너비 120cm, 깊이 74cm이다. 충전토의 상태로 보아 목관의 규모는 길이 152cm, 너비 52cm, 깊이 25cm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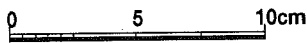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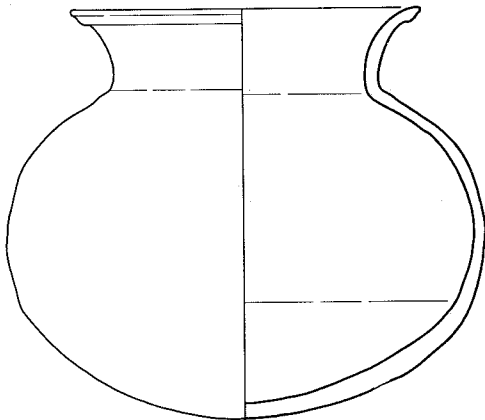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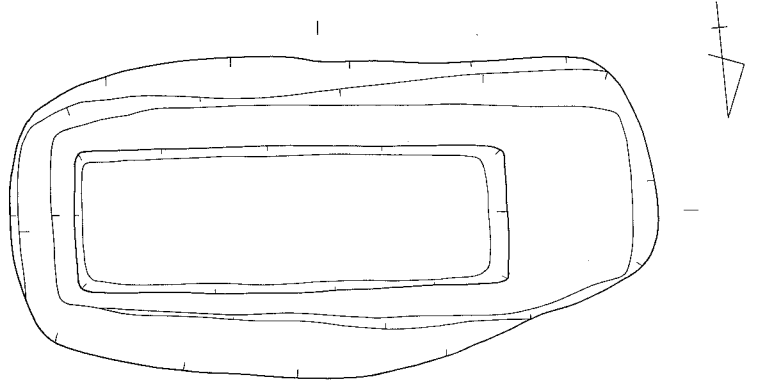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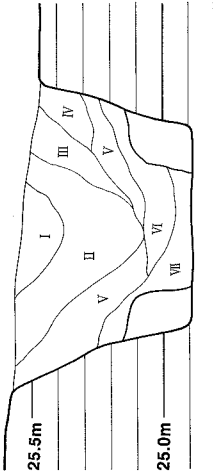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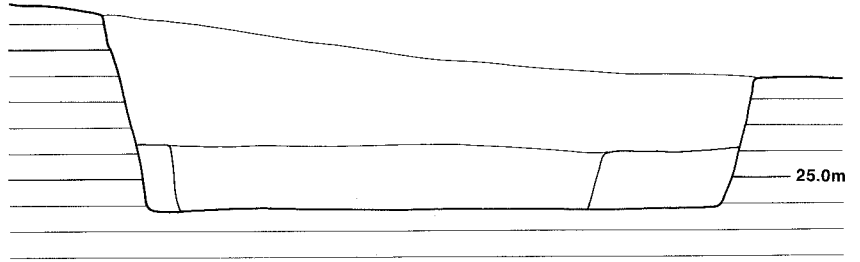
묘광은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斜壁이며, 장벽쪽은 좀 더 경사를 두었다. 평면형태는 네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말각장방형이다.

유구 내부토층은 충전토와 함께 함몰된 봉토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로 함몰된 토층은 회흑색토와 회황색토로 구성되는데 모두 중앙으로 몰려서 내려 앉은 양상이다. 회흑색토는 토층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 매장이 끝나고 봉토를 만든 후, 의례 시에 덮힌 것으로 생각된다.

#### 나. 遺物

圖面 82-1(圖版 37-5)은 瓦質의 短頸壺이다. 구연부와 동체부가 1/3 가량 결실되었다. 내외면 연회색이며, 燒成은 비교적 양호한 편인데 석영, 장식, 운모 등이 혼입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높이 16.2cm, 口徑 13.4cm이다.

- I : 회색토
- II : 회갈색토, 목판 다량 혼입
- III : 암갈색 사질토
- IV : 회황색토
- V : 황갈색토
- VI : 황갈색토
- VII : 명황갈색토, 점성이 강하며 입자가 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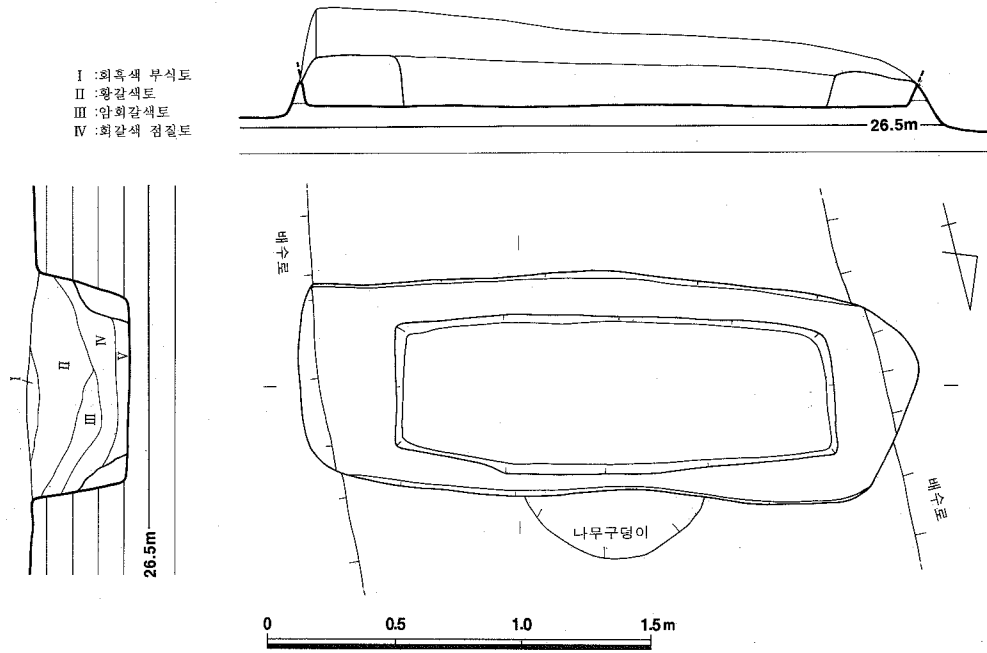
**(58) 58號 木棺墓**

가. 遺構(圖面 83, 圖版 38-1, 2)

구릉의 남쪽 사면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79°W으로 등고선방향과 직교한다. 무덤의 규모는 길이 240cm, 너비 83cm, 깊이 38cm이다. 충전토의 범위로 보아 목관의 규모는 길이 170cm, 너비 62cm, 깊이 20cm정도 일 것으로 추정된다.

동서의 단벽쪽은 과수원 배수로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북장벽쪽에는 나무구덩이에 의해 일부가 훼손되었다. 遺構의 바닥은 별다른 시설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한 듯하다. 출토된 유물은 없다.

圖面 82. 57號 木棺墓<1/30>와 出土遺物<1/3>



圖面 83. 58號 木棺墓<1/30>

### (59) 59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84, 圖版 38-3)

구릉의 남쪽 사면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70°W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되게 설치되어 있다. 무덤의 규모는 길이 270cm, 너비 78cm, 깊이 80cm이며, 충전토의 범위로 본 목관의 규모는 길이 193cm, 너비 54cm, 깊이 27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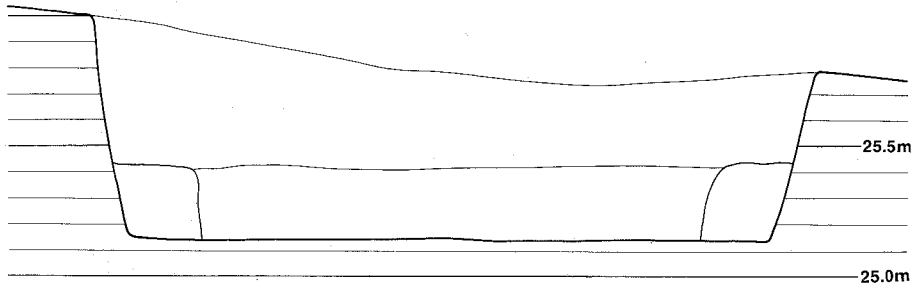
복장벽의 일부는 나무구덩이에 의해 파손되었다. 遺構의 평면은 전체적으로 약간 뒤틀린 형태로 부정형에 가깝다. 유구 내부토는 충전토와 함께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III층이 회흑색토로 유구 중앙으로 함몰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유물은 단경호 1점과 鐵鏟 1점이 유구 내부토의 정리과정에서 수습되었는데 아마도 봉토축조 과정에서 매납된 것으로 보인다. 遺構의 바닥에서는 鐵斧 1점, 鐵鏟 1점, 그리고 파손된 鐵鎌편이 검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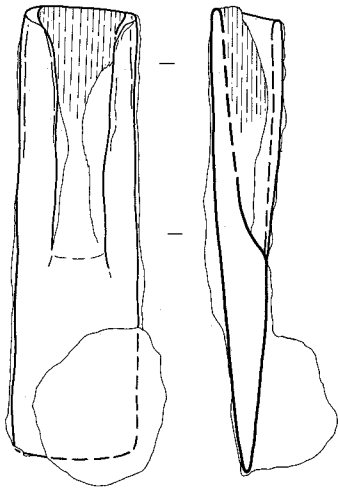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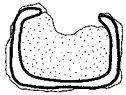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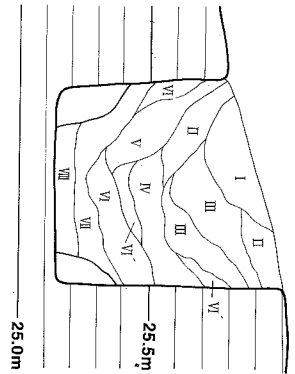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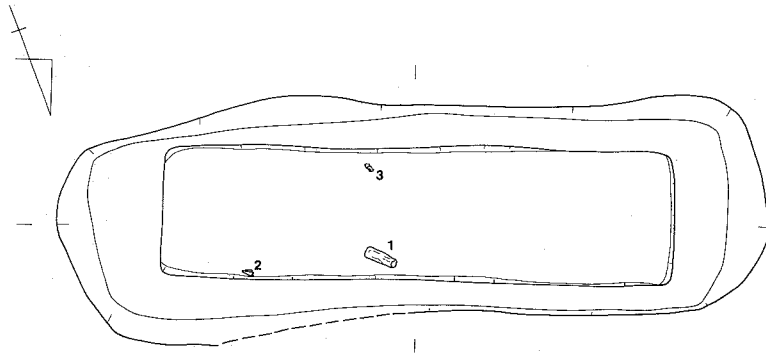
#### 나. 遺物

圖面 84-1(圖版 38-4)은 鍛造鐵斧로 銚部의 단면은 장방형이다. 銚部는 열린 상태로 내부에 목질흔이 남아 있다. 길이 12.0cm, 너비 3.4cm이며, 출토위치는 1이다.

圖面 84-2, 3(圖版 38-5, 6)은 無莖式 鐵鏟으로 基部는 삼각형으로 만입되어 있으며, 화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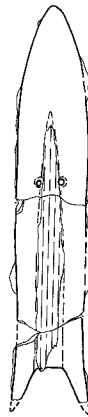
- I : 퇴축색토
- II : 퇴축색토, 무탄 다량 혼입
- III : 퇴축색토
- IV : 암갈색토, 풍화 암반 혼입
- V : 암황갈색토
- VI : 암황갈색토, 점성이 강함
- VII : 황갈색토, 사질 성분이 강함
- VIII : 명황갈색 점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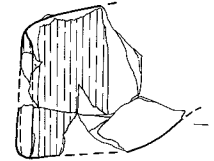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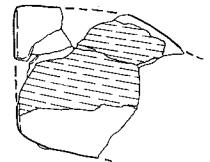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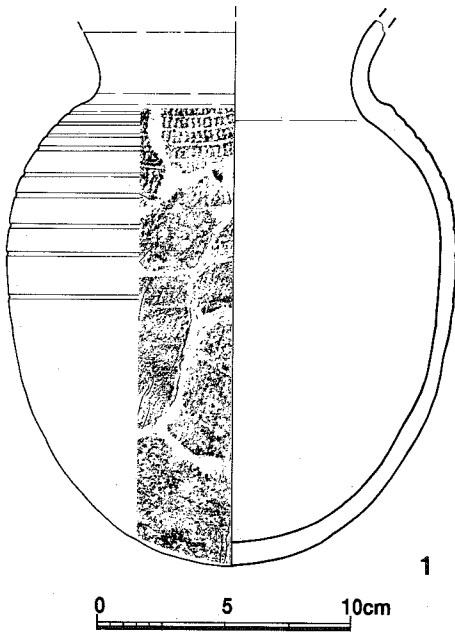
3



4



圖面 84. 59號 木棺墓<1/30>와 出土遺物<1/2>



圖面 85. 59號 木棺墓 出土遺物<1/3>

흔적이 남아 있다. 2(圖版 38-5)에서는 고정 구멍은 확인되지 않는다. 잔존길이 9.9cm, 너비 1.9cm이다. 3(圖版 38-6)은 2와 동형으로 身部의 중간부분에 고정구멍이 2개 있다. 잔존길이 10.9cm, 너비 1.9cm이며, 출토 위치는 2이다.

圖面 84-4(圖版 38-7)는 鐵鎌으로 基部 일부만 잔존한다. 基部는 꺾어 접었고, 양면에 목질이 잘 남아 있다. 잔존길이 4.5cm, 너비 4.1cm이며, 출토 위치는 3이다.

圖面 85-1(圖版 38-8)은 短頸壺이다. 燒成은 보통이며, 내외면 명적갈색이다. 태토에는 석영, 장식 등이 혼입되어 있다. 외면에는 승석타날 후 침선을 시문하였는데, 肩部에서 아래로 갈수록 간격이 넓게 시문되어 있다. 잔존높이 21.5cm, 胴最大徑 17.5cm이다.

## (60) 60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86, 圖版 39-1, 2)

해발 26.5m선상에 위치하며, 상부에 1호 석곽묘가 중복되어 있다. 주축방향은 N90°W으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되게 설치되어 있다. 무덤의 규모는 길이 236cm, 너비 83cm, 깊이 34cm이며, 목관의 규모는 길이 190cm, 너비 54cm, 깊이 21cm로 추정된다.

유구의 상부는 현대의 경작으로 인해 상당부분이 훼손되었다. 묘곽의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단축비는 2.8 : 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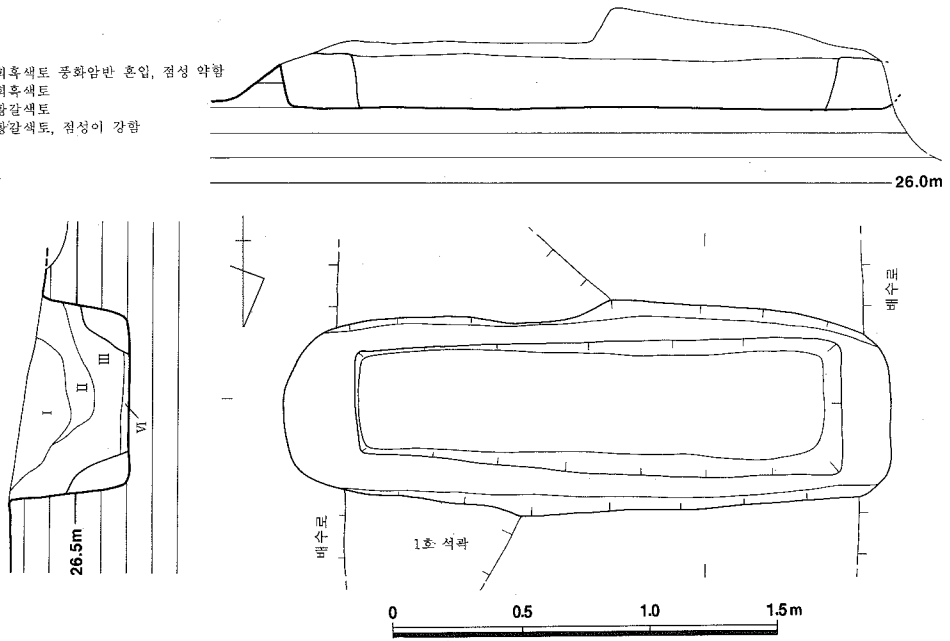
유구 내부토는 충전토와 4개의 토층으로 구분되는데 회흑색토가 'U'자상으로 함몰된 양상을 보여준다. IV층은 회백색토로 목관과 관련된 토층으로 판단된다. 출토된 유물은 없다.

## (61) 61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87, 圖版 39-5)

구릉의 서쪽 사면 25.8m상에 위치하는 목관묘이다. 북쪽으로 62호 목관묘와 나란하게 축조되었다. 주축방향은 N73°E이며, 무덤의 규모는 길이 275cm, 너비 123cm, 깊이 67cm이다. 목관의

- I : 회색색토 풍화암반 혼입, 점성 약함
- II : 회색색토
- III : 황갈색토
- IV : 황갈색토, 점성이 강함



圖面 86. 60號 木棺墓<1/30>

규모는 길이 220cm, 너비 65cm, 깊이 30cm로 추정된다.

바닥에서 목관흔이 확인되는데 양쪽 단벽쪽의 바닥흔적 모양이 'ㄱ'형으로 동쪽 단벽에 비해 서쪽 단벽의 폭이 더 넓다. 내부토는 충전토와 완만하게 중앙으로 함몰되는 양상을 보이는 5개 층의 내부 함몰토로 구성되어 있다.

유물은 북쪽 장벽에 인접하여 중간에서 서쪽으로 약간 치우쳐 철기유물만 부장되어 있다.

#### 나. 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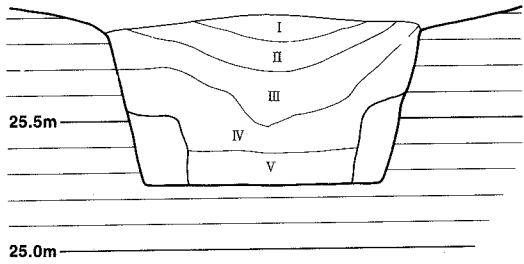
圖面 87-1(圖版 39-3)은 鍛造鐵斧로 인부가 약간 결실되었으나 거의 완형에 가깝다. 鑿部는 둥글게 말아 올려졌으나 鑿部는 서로 떨어져 있다. 鑿部 내에는 목질이 다량 남아 있고 공부 두께는 비교적 얇다. 길이 11.2cm, 너비 2.6cm, 공부너비 1.8cm이며, 출토위치는 1이다.

圖面 87-2(圖版 39-4)는 身部和 선단부가 결실된 鐵鎌으로 基部는 녹이 부풀어 올라 基部 관찰이 어렵다. 身部 일부에는 유기질의 흔적이 일부 남아 있고, 身部の 두께는 볼록렌즈에 가깝다. 잔존길이 12cm, 너비 2.8cm이며, 출토위치는 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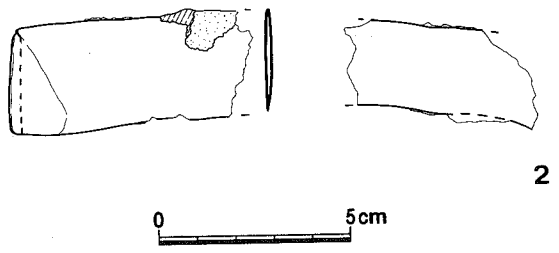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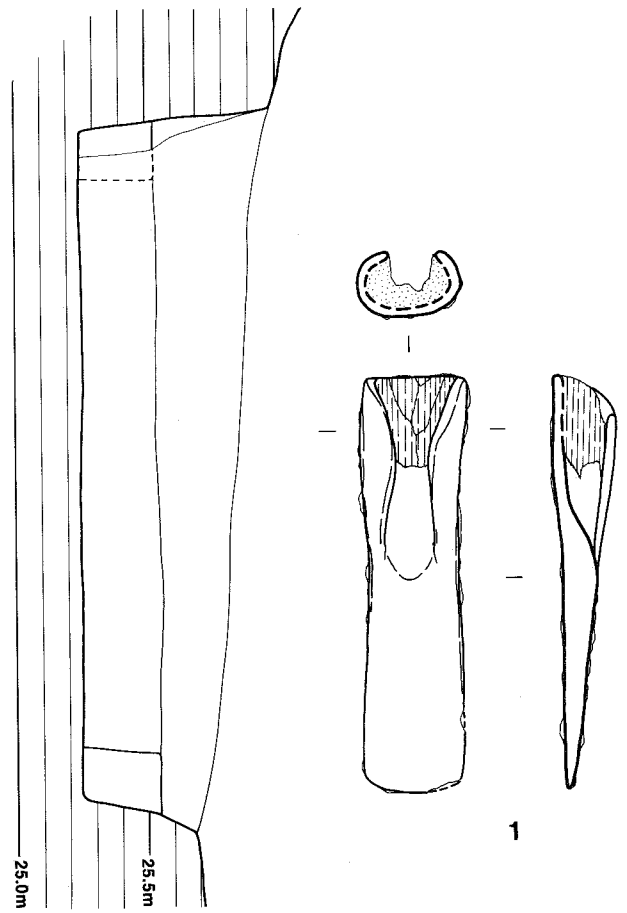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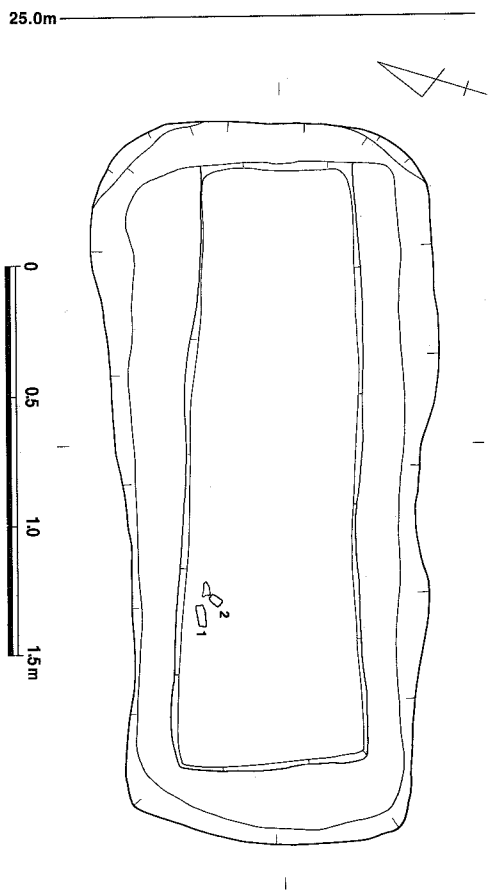
### (62) 62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88, 圖版 40-1~3)

구릉의 서쪽 사면 해발 26.2m상에 위치하고 있다. 주축방향은 89.5° W이다. 무덤의 규모는 길이 290cm, 너비 140cm, 깊이 67cm이고, 목관의 규모는 길이 230cm, 너비 75cm, 깊이 30cm정도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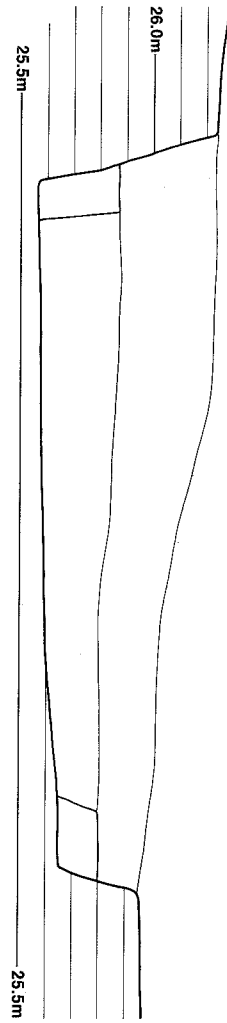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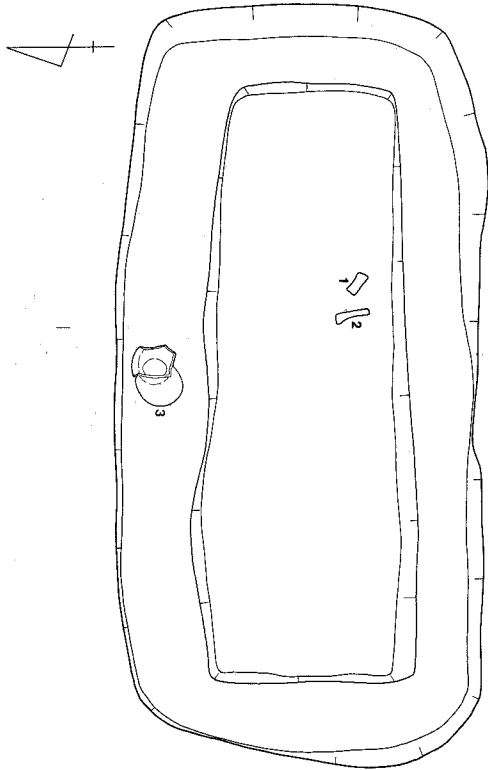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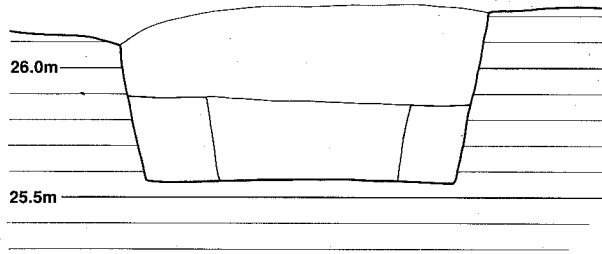


- I : 암갈색토
- II : 암갈색 사질토
- III : 암적갈색 사질토, 풍화암반 다량 혼입
- IV : 황적갈색토, 풍화암반 다량 혼입
- V : 회갈색토, 점성 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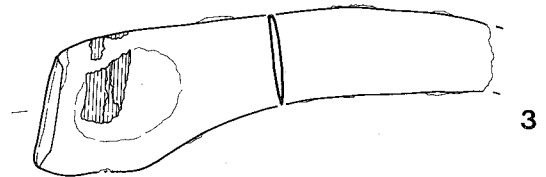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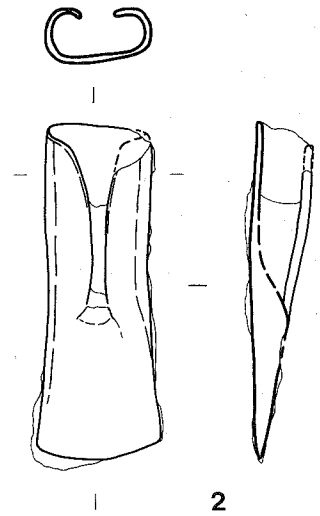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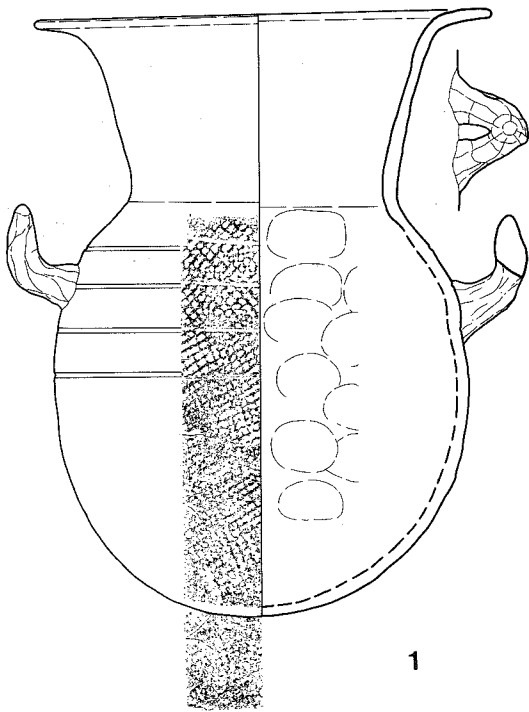


圖面 87. 61號 木棺墓<1/30>와 出土遺物<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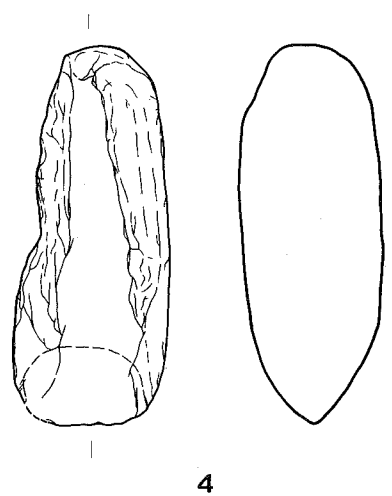


圖面 88. 62號 木棺墓<1/30>



목관 흔적조사에서 서쪽 단벽은 'π'형으로 튀어나와 있고, 동쪽 단벽은 충전토의 범위에서 부분적으로 불을 맞은 소토와 흑색 부식토의 재층(?)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북쪽 장벽의 충전토 중앙부분에서 組合牛角形把手附壺 1점과 남쪽 장벽에 접하여 鐵斧, 鐵鎌이 각 1점이 출토되었다. 서쪽 장벽의 보강토 내에서 석기 1점이 출토되었으나 구릉 상부의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 쓸려 내려온 것으로, 목관묘의 축조 당시에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圖面 89. 62號 木棺墓 出土遺物<1 : 1/3, 2~4 : 1/2>

## 나. 遺物

圖面 89-1(圖版 40-4)은 瓦質의 組合牛角形把手附壺이다.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거의 완형이다. 燒成을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외면은 회청색이고 속심은 회백색이다. 특히 구연부와 동체부의 1/2가량은 박리가 심하다. 비교적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고 있는데 석영이나 장식 등의 작은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양쪽에 달린 把手는 비대칭으로 把手의 가장자리가 위쪽으로 꺾여 올라간 모양이다. 頸部는 차츰 외반하다가 구연부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바깥쪽으로 꺾인 형태이다. 頸部는 물손질 정면하였고 동체부는 박자타날 정면하였다. 동체내부에도 내박자의 흔적이 뚜렷이 확인되고 있다. 동체부는 격자타날 정면후에 동체상부에 등간격으로 4조의 침선을 돌리고 있다. 기면의 박리가 심하여 磨研의 흔적은 잘 관찰되지 않는다. 높이 23.8cm, 口徑 17.9cm, 胴最大徑 16.2cm이다. 출토위치는 1이다.

圖面 89-2(圖版 40-5)는 잔존상태가 양호한 소형 鍛造鐵斧이다. 銚部는 장방형에 가깝고 인부 쪽에서 약간 넓어지는 형태이다. 길이 9.0cm, 너비 3.0cm, 공부외경 1.5cm×2.7cm이고 출토위치는 2이다.

圖面 89-3(圖版 40-6)은 선단부가 결실된 鐵鎌으로 基部 단면은 'ㄷ'자형이다. 身部 단면은 볼록렌즈형에 가깝다. 등 부분의 두께가 인부만큼이나 얇다. 基部부분에 세로의 목질이 부착되어 있다. 基部 일부는 약간 부풀어올라 있고 인부에는 마모흔이 보인다. 잔존길이 12.4cm, 너비 2.5cm,이며, 출토위치는 3이다.

圖面 89-4(圖版 40-7)는 蛤刃石斧이다. 윗면과 아랫면의 일부와 인부에 마연의 흔적이 남아있다. 양쪽 측면은 박리가 심한 편이다. 충전토 내부에서 출토되었지만 목관묘의 부장유물이 아니고 구릉의 정선부에 위치하고 있는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관련이 있는 유물로 판단된다. 길이는 10.2cm, 너비는 4cm, 두께는 3.7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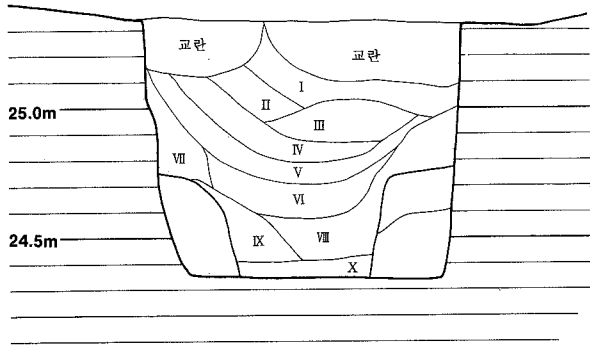
## (63) 63號 木棺墓

### 가. 遺構(圖面 90, 圖版 41-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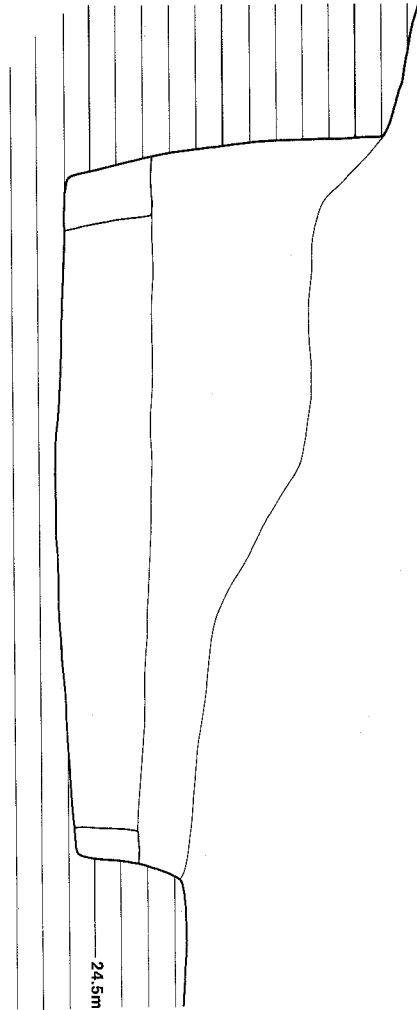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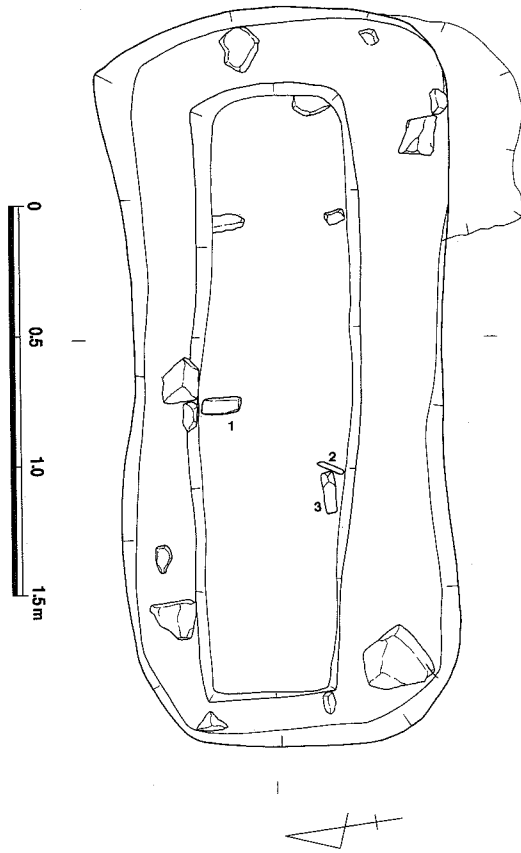
해발 25.5m상에 위치한 장방형 목관묘이다. 동남쪽으로 62호 목관묘와 인접하고 있다. 주축 방향은 N82°W이고, 무덤의 규모는 길이 285cm, 너비 117cm, 잔존최고 깊이 120cm이다. 목관의 규모는 길이 247cm, 너비 60cm, 깊이 36cm이다.

묘광의 장·단벽 모두 직벽이며, 모서리는 둥글게 표현되어 있다.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충전토는 남쪽단벽이 북쪽 장벽보다 넓게 나타나 있는데 지름 15~20cm의 할석이 섞여있다. 내부토는 충전토와 황적갈색계통의 함몰토로 구성되어 있다. 함몰토는 11개층으로 구분되는데 중앙으로 함몰되는 양상이며 XI층은 목관의 부식 흔적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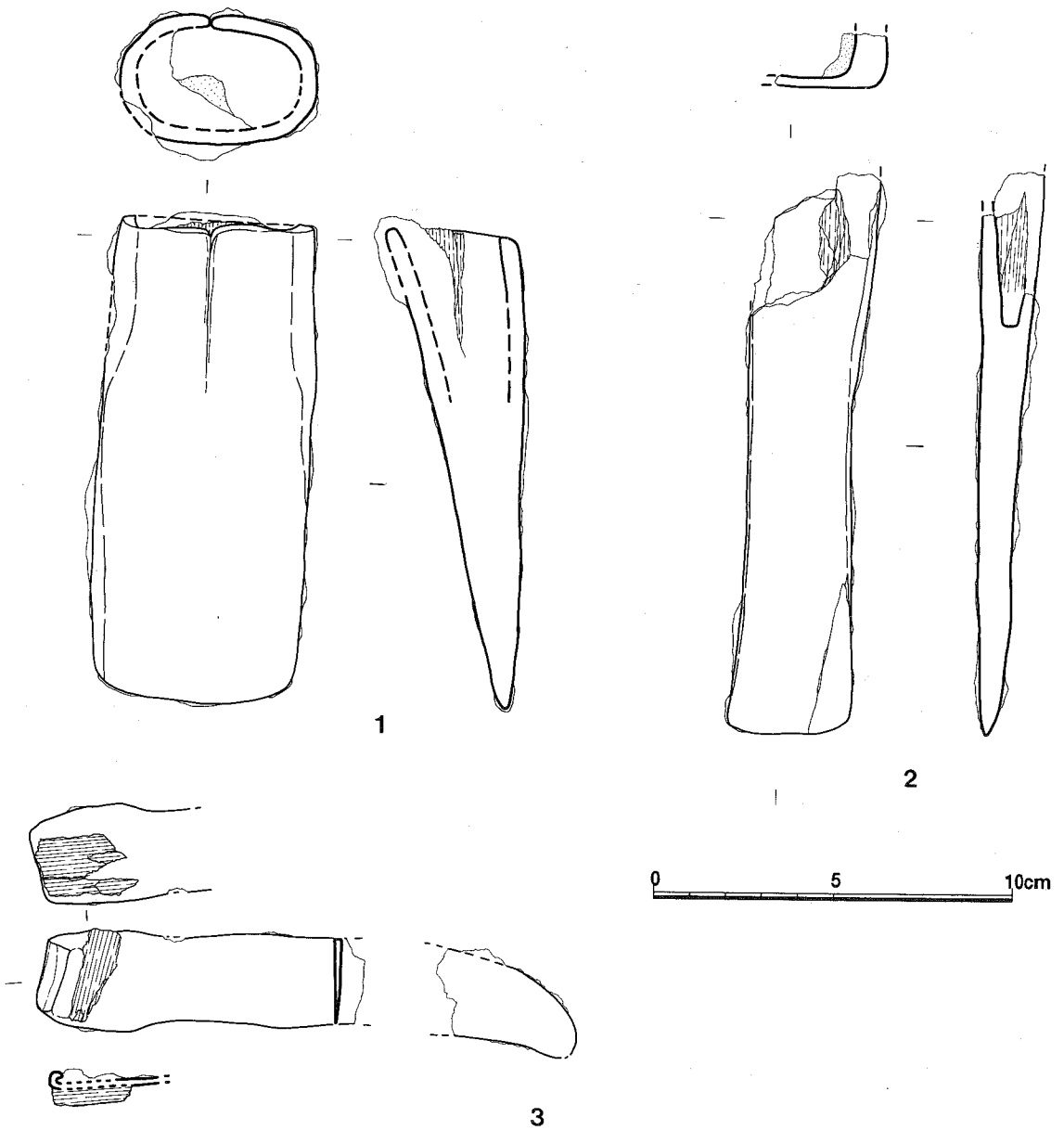
유물은 바닥에서 鐵斧와 鐵鎌 등의 철기유물이 부장되었으며 충전토와 봉토 등에서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 I : 적갈색토
- II : 적갈색 사질토, 풍화 암반 다량 혼입
- III : 암적갈색 사질토
- IV : 명적갈색 사질토
- V : 암갈색 사질토
- VI : 회갈색토
- VII : 적갈색토
- VIII : 황갈색토
- X : 회황갈색 점질토



圖面 90. 63號 木棺墓(1/30)



圖面 91. 63號 木棺墓 出土遺物<1/2>

### 나. 遺物

圖面 91-1(圖版 41-3)은 鍛造鐵斧로 銚部에서 刃部까지 일직선으로 쪽 뺀 형태이다. 銚部는 타원형으로 말아 올렸고, 銚部 內부는 수화가 심하여 부풀어 올라 막힌 상태이다. 銚部內에는 목질흔이 남아 있다. 잔존길이 13.9cm, 너비 6.0cm이며, 출토위치는 1이다.

圖面 91-2(圖版 41-4)는 鍛造鐵斧로 전체적이 모양이 세장하여 일반적인 鐵斧가 아니라 목공

구로 추정된다. 공부가 결실된 상태이며, 내부에 목질이 일부 남아 있다. 鍔部 쪽에서는 윗면과 아랫면의 두께보다도 측면의 두께가 두껍다. 잔존길이는 16.3cm, 너비는 3.0cm, 인부너비 3.5cm이고, 출토위치는 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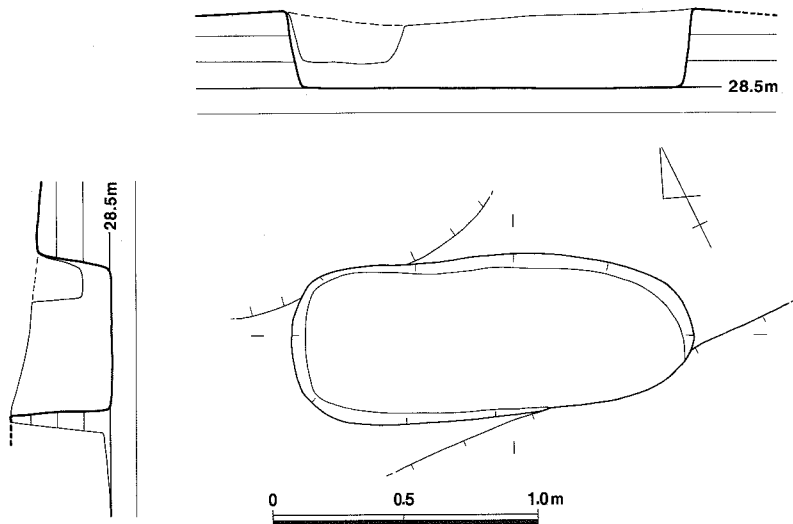
圖面 91-3(圖版 41-5)은 身部 일부가 결실된 鐵鎌이다. 身部 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고 基部 단면은 'ㄷ'자형이다. 基部부분에는 목질이 부착되어 있는데 앞면과 뒷면의 방향이 서로 다르다. 基部쪽의 세로 방향은 낫의 손잡이와 관계 있는 목질로 생각되지만 뒤쪽의 가로방향 목질은 柄部에 고정 후 완전한 결박을 위해 쇠기를 박은 것으로 짐작된다. 인부부분에는 基部와의 경계지점에 단이 약간 져 있다. 잔존길이 13.6cm, 너비 2.5cm이며, 출토위치는 2이다.

## (64) 64號 土墳墓

### 가. 遺構(圖面 92, 圖版 41-6)

해발 28.8m선상에 위치하며, 후대의 나무구덩이와 배수로에 의해 대부분이 파손되었다. 주축 방향은 N65°W으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되게 설치되어 있다. 무덤의 규모는 길이 150cm, 너비 62cm, 깊이 28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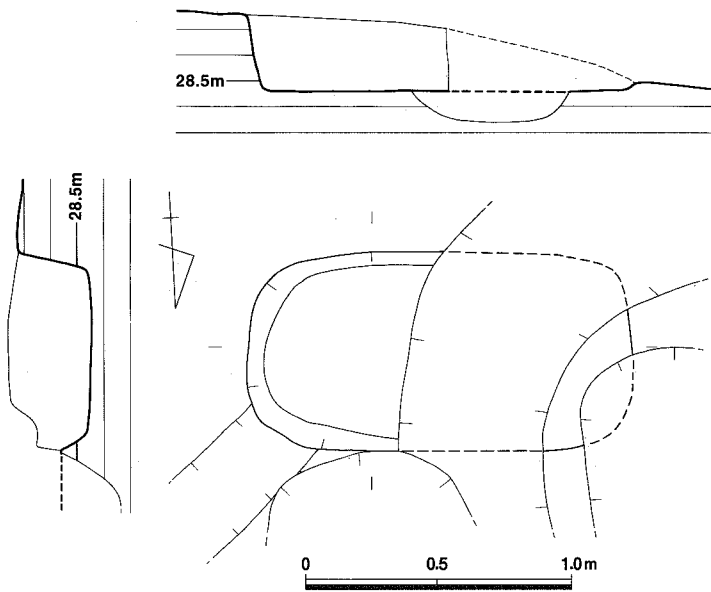
대부분이 파괴되어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남아 있는 내부의 토층에서 충전토의 구조가 보이지 않았으며 遺構의 규모 역시 목관을 사용하기에는 작은 규모이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圖面 92. 64號 土墳墓<1/30>

## (65) 65號 土壙墓

### 가. 遺構(圖面 93, 圖版 41-7)



圖面 93. 65號 土壙墓(1/30)

구릉의 28.7m선상에 위치하며, 2호 주거지의 溝를 파괴하면서 설치되었다. 遺構의 서쪽은 나무구덩이에 의해 대부분이 유실되었다. 주축방향은 N87°W으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되게 설치되어 있다. 묘곽의 규모는 잔존길이 145cm, 너비 75cm, 깊이 28cm이다.

대부분이 파괴되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규모로 볼 때 목관을 사용하지 않은 토광직장묘로 판단된다. 출토된 유물은 없다.

## (66) 1號 甕棺墓

### 가. 遺構(圖面 94, 圖版 42-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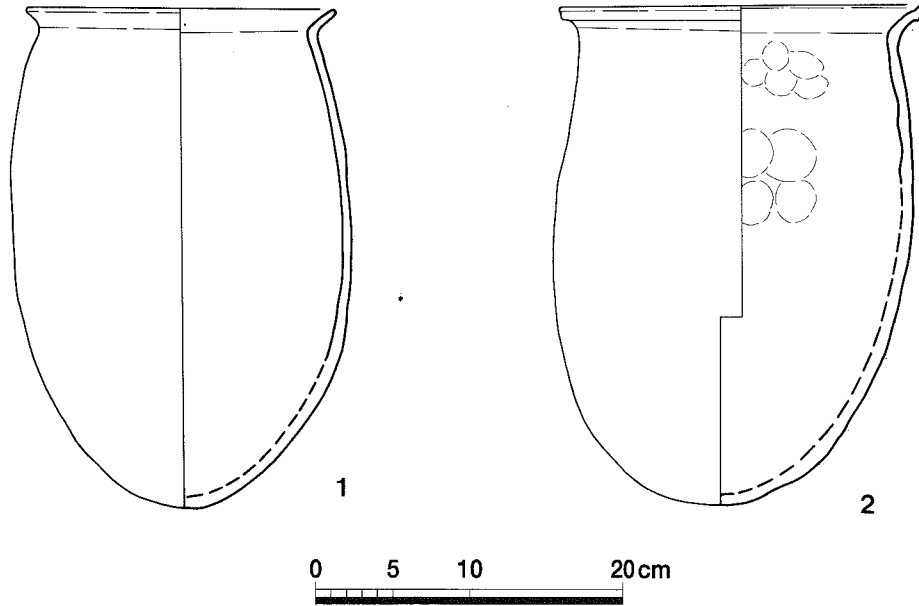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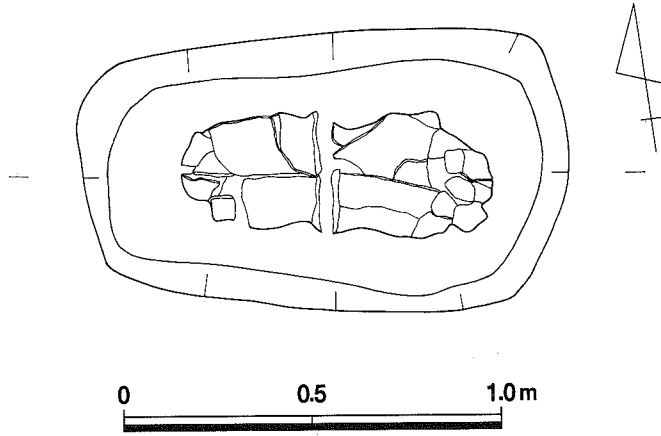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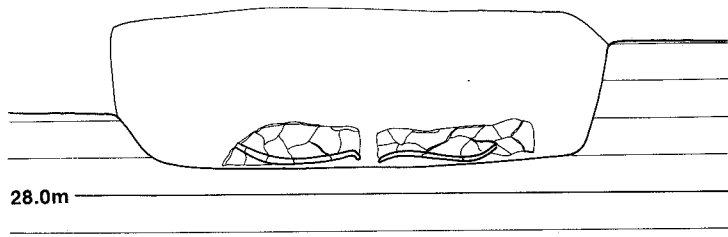
해발 28.4m선상에 위치하며, 1호 주거지의 중심부를 파괴하면서 설치되었다. 遺構의 장축방향은 N81°W이고, 규모는 길이 130cm, 너비 75cm, 깊이 42cm이다.

유구 내부토는 목관묘에서 보이는 회흑색토와 암갈색토로 구성되어 있는데 옹관이 무너지면서 내부로 함몰된 양상을 보인다.

主甕은 동쪽에 위치한 瓦質甕이며, 副甕은 서쪽의 瓦質甕이다. 옹관의 결합상태는 어느 한쪽으로 끼워넣은 형태가 아닌 주옹과 부옹의 구연부가 맞대어진 양상이다. 주옹과 부옹이 연결된 상태에서의 옹관의 규모는 85cm이다.

주옹인 圖面 94-1(圖版 42-3)은 와질 옹으로 구연과 동체부가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燒成은 양호하며, 전체적으로 황갈색을 띤다. 태토에는 석영, 장석 등이 혼입되어 있다. 바닥은 圓底이며, 胴最大徑은 胴中位에 있으며 口徑과 거의 같다. 내면에 박자흔 남아 있으며, 외면은 바리가 심해 정면기법이 확인되지 않는다. 높이 32.8cm, 口徑 23.2cm, 胴最大徑 23.0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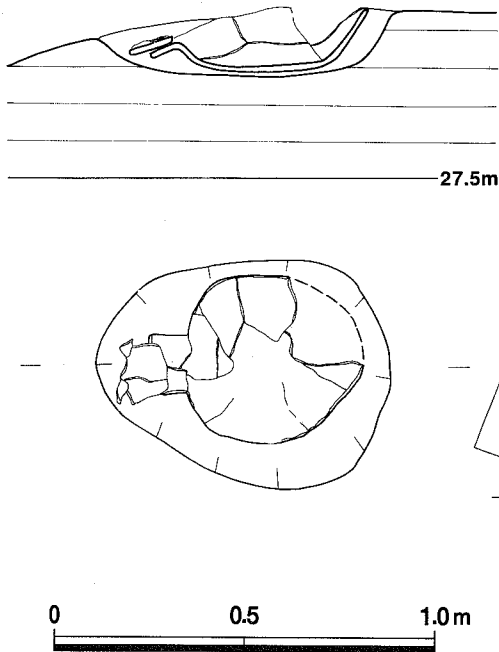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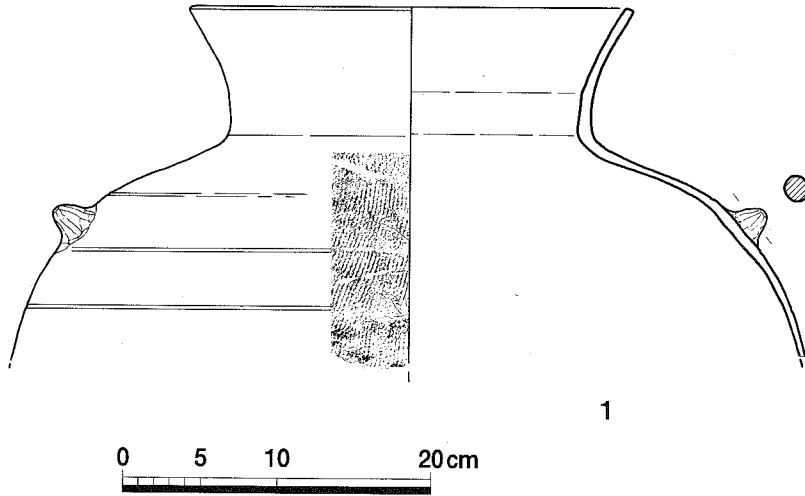
부옹인 94-2(圖版 42-4)는 역시 瓦質甕으로 구연부가 일부 결실된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온전하다. 태토에는 다량의 장석 석영, 운모가 혼입되어 있다. 전체적인 기형은 장란형이며, 器



圖面 94. 1號 甕棺墓<1/20>와 出土遺物<1/5>



벽이 상당히 얇은 편이다. 정면기법은 박리로 인해 잘 나타나지 않는다. 높이 32.9cm, 口徑 19.8cm, 胴最大徑 22.0cm이다.



圖面 95. 2號 甕棺墓<1/20>와 出土遺物<1/5>

### (67) 2號 甕棺墓

#### 가. 遺構(圖面 95, 圖版 42-5)

해발 27.9m선상에 등고선 방향과 직교되게 축조된 습口式甕棺墓이다. 주축방향은 N89° W이며, 잔존하는 묘광의 규모는 길이 77cm, 너비 62cm, 깊이 18cm이다.

副甕이 있는 서쪽은 경작으로 인해 완전히 유실되어 훼손되었다. 잔존하는 묘광의 형태는 원형에 가깝지만 부옹의 규모를 추정한다면 장방형에 가까운 타원형의 묘광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主甕은 동쪽의 단경호이고, 부옹은 서쪽에 놓인 토기인데 유구가 결실되면서 대부분이 파손되어 형태 파악이 곤란한 상태이다. 결합상태는 부옹의 구연부를 주옹 구연부 내측으로 끼워넣은 형태이다.

주옹인 圖面 95-1(圖版 42-6)은 대형의 와질단경호로 견부를 포함한 구연부와 동체만 남아 있는 전체적 복원이 어려워 일부만 복원한 상태이다. 태토에는 다량의 장식과 운모 등이 혼입되어 있으며, 색상은 암회청색으로 燒成은 보통이다. 표면에는 승석타날되어 있으며 침선이 둘러져 있다. 口徑은 29.9cm, 잔존높이는 24.9cm이다.

## (68) 3號 甕棺墓

### 가. 遺構(圖面 96, 圖版 43-1, 2)

해발 28.0m선상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84°W로 주변에 있는 목관묘의 방향과 나란하게 축조되었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묘광의 규모는 길이 129cm, 너비 60cm, 깊이 25cm이다.

主甕과 副甕으로 구성되었는데 주옹은 兩瘤附壺이고 부옹은 서쪽의 瓦質甕이다. 주옹과 부옹의 결합은 부옹의 구연부가 주옹의 구연부 안쪽으로 삽입된 상태이다. 결합상태의 길이는 100cm이다. 주옹이 묘광과 붙어 있는 반면 부옹의 서쪽벽과 일정한 공간을 유지하고 있다. 유물 부장을 위한 공간일 가능성도 있으나 확인된 유물은 없다. 유기물의 매납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유물은 주옹 내부에서 頸飾 1점이 출토되었다.

주옹인 圖面 96-1(圖版 43-3)은 대형의 瓦質 兩瘤附壺이다. 전체적으로 1/2 정도 결실되었다. 燒成은 양호하며, 태토에는 석영, 장식 등이 혼입되어 있다. 胴上位에 꼭지 2개가 부착되어 있으며, 底部에도 꼭지가 달린 흔적이 확인된다. 전체적인 기형은 장란형이다. 내면의 동체하부에 박자흔이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물손질 정면한 흔적이 확인된다. 추정높이 64cm, 추정口徑 31.9cm, 胴最大徑 44.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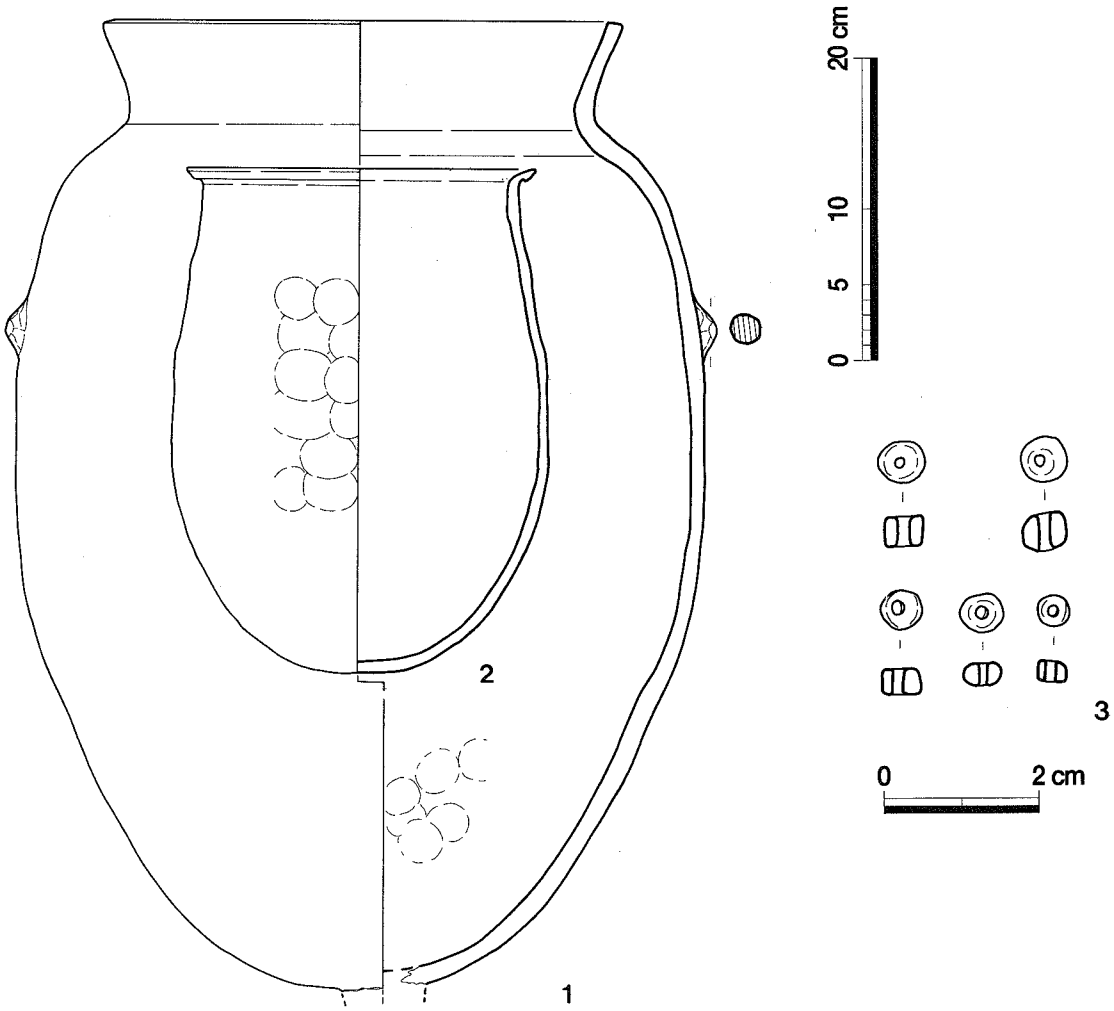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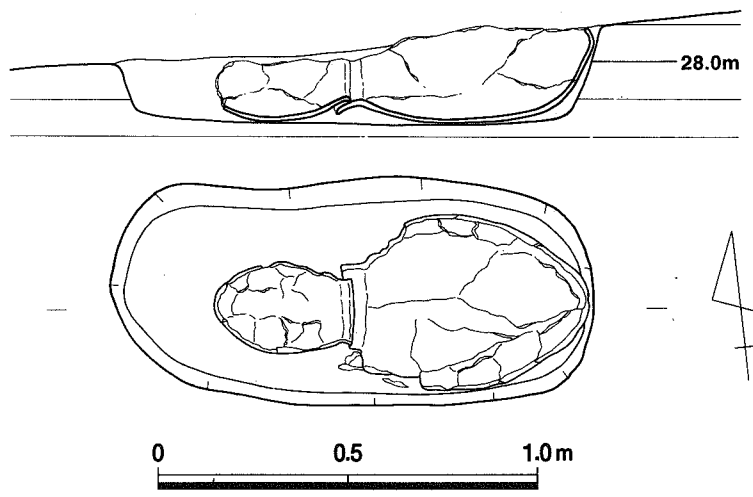
부옹인 圖面 96-2(圖版 43-5)는 내외면 연회색의 瓦質 甕이다. 燒成은 양호하며, 태토에는 석영, 장식, 운모 등이 혼입되어 있다. 바닥은 圓底이며 전체적인 형태는 계란모양이다. 胴最大徑이 口徑보다 크다. 외면은 전체적으로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박자흔이 남아 있다. 높이 33.2cm, 口徑 22.5cm, 胴最大徑 24.4cm이다.

그리고 주옹 속에서 확인된 유리제 경식(圖面 96-3, 圖版 43-4)은 모두 5점이다. 2점은 투명한 것이나 조잡하여 내부는 반투명의 탁한 상태이다. 3점은 녹색이다. 지름은 0.4~0.6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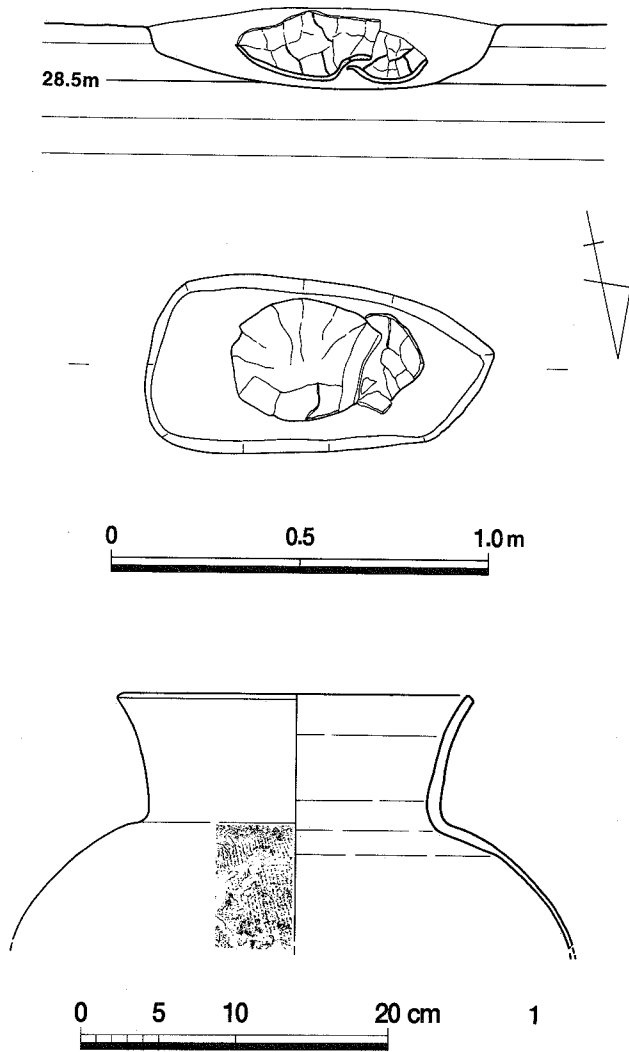
## (69) 4號 甕棺墓

### 가. 遺構(圖面 97, 圖版 43-6)

해발 28.6m선상에 위치하며, 4호 주거지의 북쪽 일부를 파괴하고 축조되었다. 나무구덩이에 의해 서쪽 묘광의 일부가 파손되었다. 遺構의 주축방향은 N78°W이며, 묘광의 규모는 길이 92



圖面 96. 3號 甕棺墓<1/20>와 出土遺物< 1, 2 : 1/5, 3 : 1/1>



圖面 97. 4號 甕棺墓<1/20>와 出土遺物<1/5>

### (70) 5號 甕棺墓

#### 가. 遺構(圖面 98, 圖版 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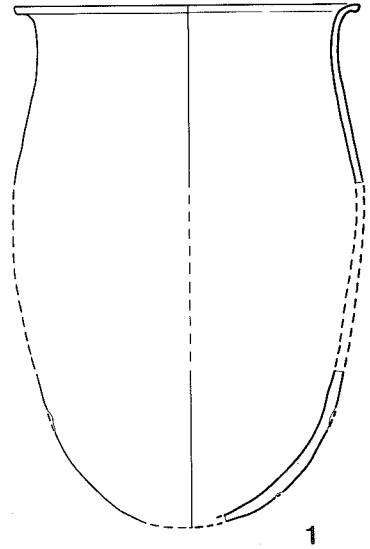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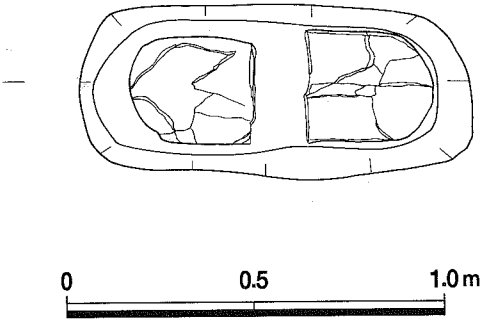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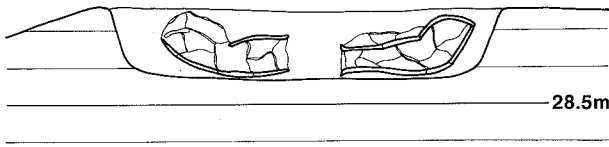
해발 28.7m선상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88°W으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되게 축조되었다. 묘광의 평면은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04cm, 너비 46cm, 깊이 18cm이다.

편의상 동쪽의 토기를 주옹으로 서쪽의 토기를 부옹이라고 한다. 주, 부옹은 규격면에서 거의 유사하며 동일한 기형의 토기를 사용하고 있다. 조사당시 결합부위는 10cm가량 떨어진 상태였다. 이는 토압에 의해 유구가 함몰되는 과정에서 맞대어진 구연부가 분리된 것으로 추정해

cm, 너비 46cm, 깊이 20cm이다.

주옹의 구연부가 부옹의 구연부 내측으로 들어간 결합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주옹은 구연부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구연부가 제거된 토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옹은 대형의 단경호를 상용하였다. 결합상태의 잔존길이는 53cm이다.

부옹인 圖面 97-1(圖版 43-7)은 비교적 크기가 큰 대형 단경호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복원이 어려워 구연부 일부만 복원한 상태이다. 와질이며, 燒成은 양호한 편이다. 내외면 모두 연한 황갈색이며, 태토에는 장식, 운모 및 굵은 사립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외면에는 굵은 승석타날하였다. 잔존높이 15.3cm, 추정구경은 22.3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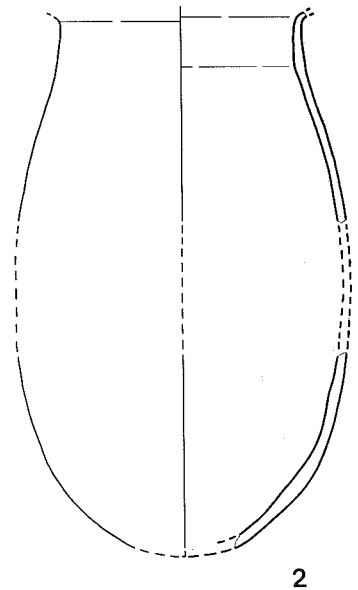


圖面 98. 5號 甕棺墓<1/20>와 出土遺物<1/5>

볼 수 있다.

주용인 圖面 98-1(圖版 44-2)은 연질옹으로 전체적으로 적갈색을 띠며 燒成은 보통이다. 태토는 석영과 장석을 다량 혼입하였으며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을 살피기 어렵다. 구연부와 底部만 남아 있어 전체적인 계측이 어렵지만 추정높이는 35.0cm, 추정구경은 22.3cm이다.

부용인 圖面 98-2(圖版 44-3)는 구연부가 완전히 결실된 연질옹이다. 동체부도 결실되어 전체적인 높이를 알 수 없다. 燒成을 보통이며, 외면 암갈색, 내면 황갈색을 띤다. 추정높이 33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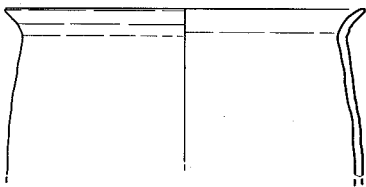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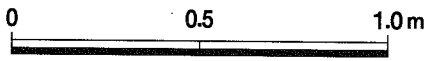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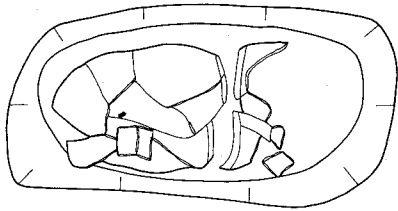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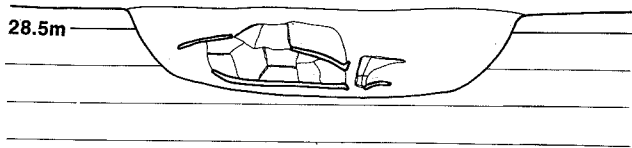


### (71) 6號 甕棺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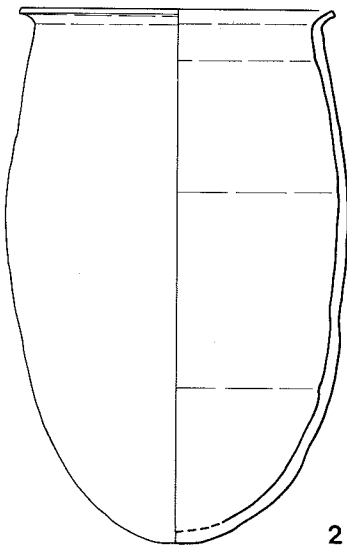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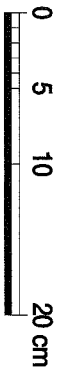
#### 가. 遺構(圖面 99, 圖版 44-4)

해발 28.5m선상에 위치하며, 나무구덩이에 의해 주용의 한쪽면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주축방향은 N85°W으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되게 축조되었다. 묘광의 평면은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03cm, 너비 55cm, 깊이 23cm이다.





1



2

圖面 99. 6號 甕棺墓<1/20>와 出土遺物<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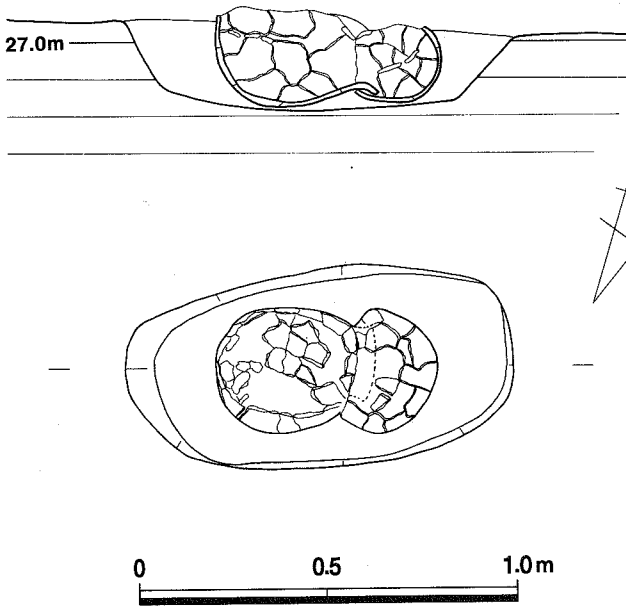
주옹과 부옹의 규모가 비슷하여 구분이 모호하지만 유적내에서 조사된 옹관묘에서 주옹의 위치가 동쪽으로 일치하고 있어 6호 옹관 역시 동쪽의 것이 주옹으로 추정된다. 구연부가 접친상태의 결합이 아니고 맞붙어 있는 상태이다.

주옹인 圖面 99-1(圖版 44-5)은 내외면 적황색의 軟質甕이다.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만 잔존하고 있다. 잔존하고 있는 형태로 보아 장란형의 옹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박리가 진행되어 정면기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殘存높이 10.9cm, 口徑 23.4cm이다.

부옹인 圖面 99-2(圖版 44-6)는 내외면 암회색의 瓦質甕이다. 태토는 장식, 운모 등의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구연은 짧게 외반하고 구연단은 안쪽으로 거의 직립한다. 底部는 圓底이며 전체적인 기형은 계란모양이다. 내외면 박리가 심해 정면기법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높이 35.3cm, 口徑 20.2cm, 胴最大徑 22.3cm이다.

### (72) 7號 甕棺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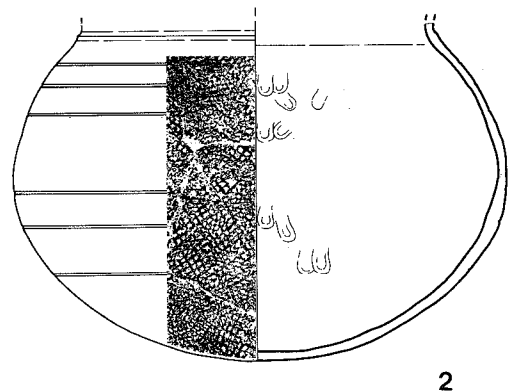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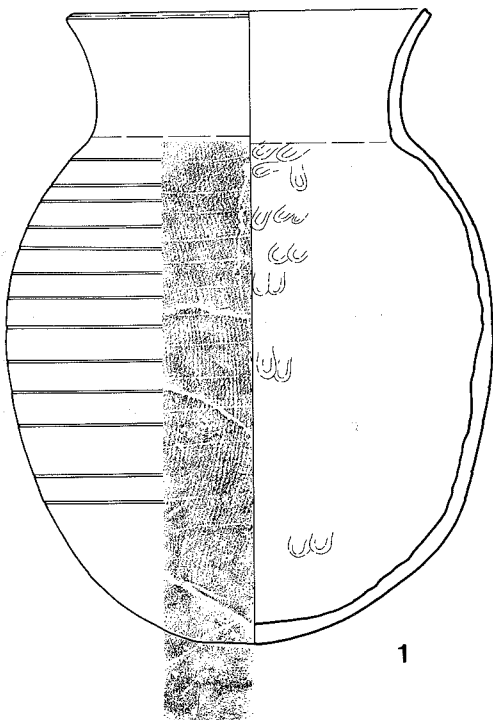
가. 遺構(圖面 100, 圖版 45-1, 2)  
해발 27m선상에 등고선 방향과 직교되게 축조된 옹관묘이다. 주축 방향은 N75°E이고 묘광의 규모는



길이 104cm, 너비 54cm, 깊이 24cm이다.

주옹은 동쪽의 단경호이고, 부옹은 서쪽의 단경호인데 결합상태는 부옹의 구연을 의도적으로 깨뜨려서 주옹의 구연이 부옹 속으로 삽입된 형상이다. 결합상태의 길이는 58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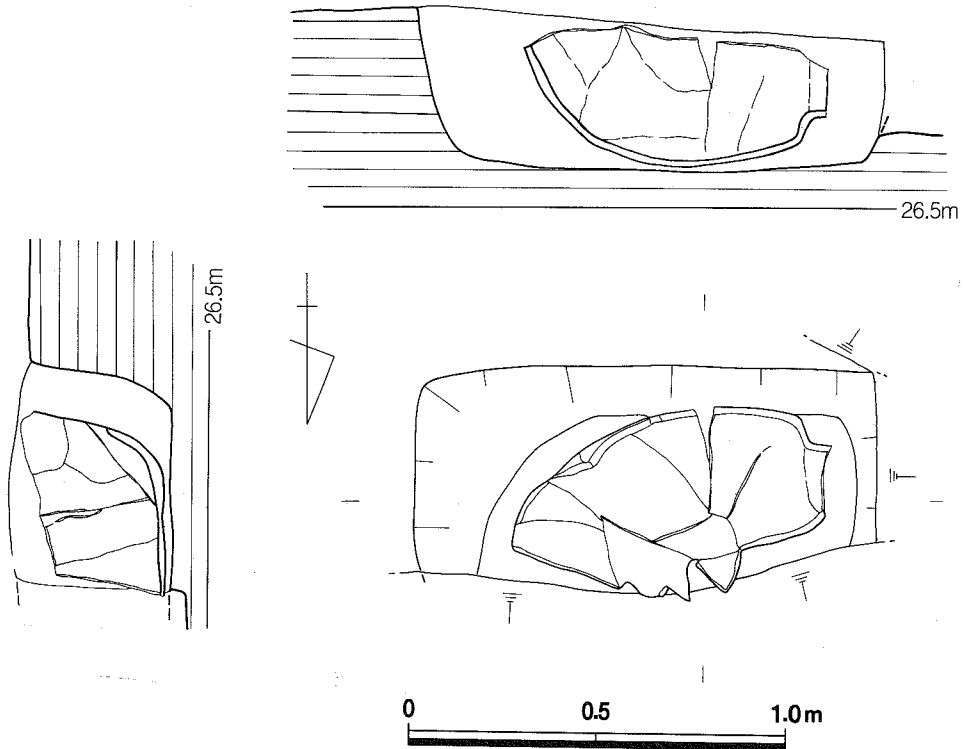
주옹인 圖面 100-1(圖版 45-3)은 내외면 적갈색의 短頸壺이다. 부분적으로 결실되었으나 거의 완형으로 남아 있다. 燒成은 양호하며, 태토에는 석영, 장식 등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동체부는 球形에 가까운 卵形이다. 頸部는 서서히 외반하고 있다. 동체부에는 승석타날 후 13조의 횡침선을 돌렸는데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외면에는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는데 박리로 인해 부분



圖面 100. 7號 甕棺墓<1/20>와 出土遺物<1/5>

적으로만 남아 있다. 내면에는 지두흔이 남아 있다. 높이 41.6cm, 口徑 22.8cm, 胴最大徑 31.7cm이다.

圖面 100-2(圖版 45-4)는 구연부가 결실되어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으나 동체부로 볼 때 단경호일 가능성이 높다. 내외면 암회청색이며, 燒成 양호하다. 태토에는 석영, 장석, 운모가 혼입되어 있다. 동체부에는 격자타날하였는데 박리가 심해 희미하게 남아 있다. 동체부에 6조의 횡침선을 돌렸다. 내면에는 지두흔이 남아 있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 정면 하였다. 높이 22.2cm, 胴最大徑 32.5cm이다.



圖面 101. 8號 甕棺墓<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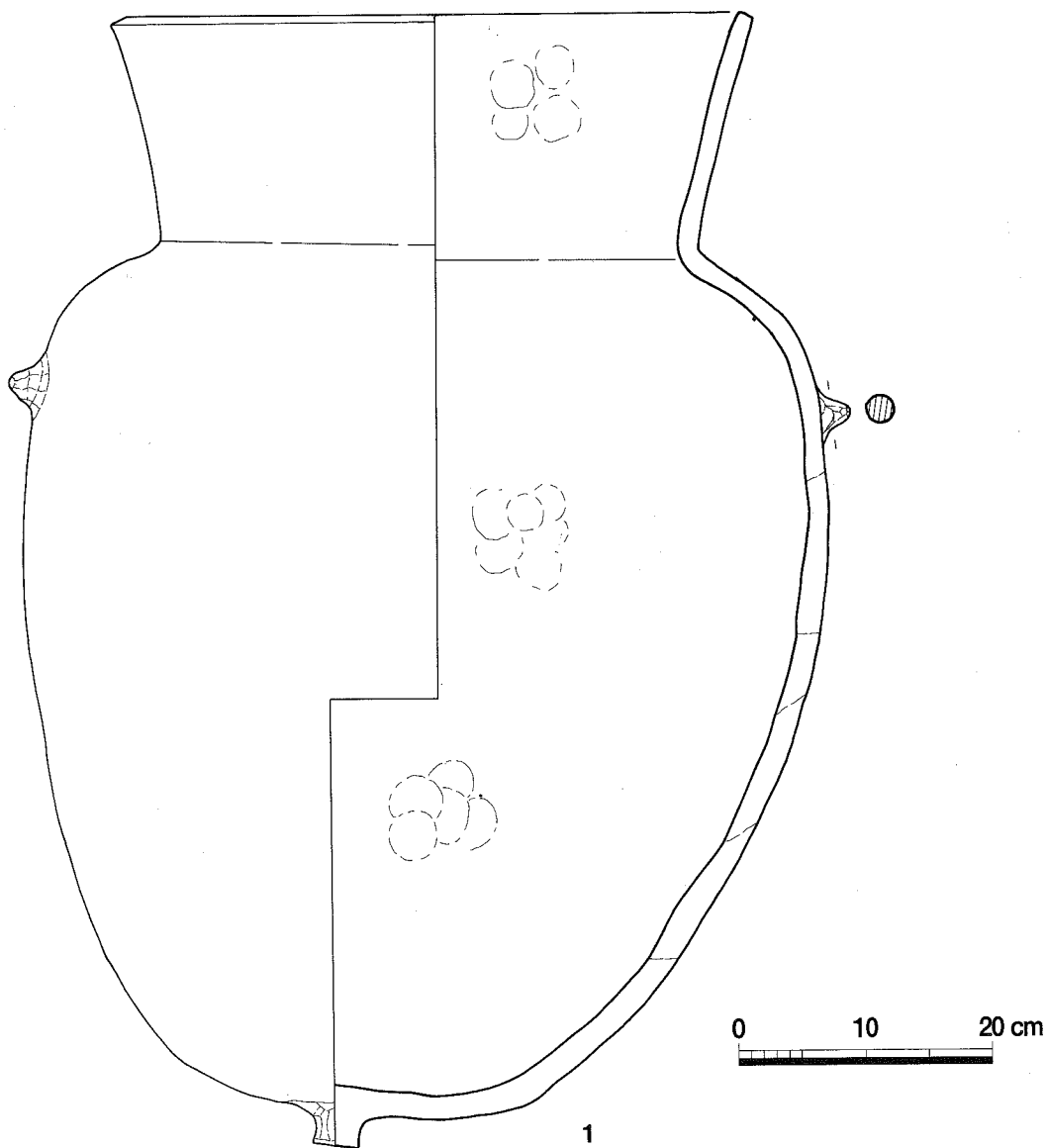
### (73) 8號 甕棺墓

#### 가. 遺構(圖面 101, 圖版 45-5)

구릉의 남쪽 사면에 위치하고 있는 甕棺墓이다. 장축방향은 N89°W으로 등고선방향과 직교되게 축조되어 있다. 동서남북으로 배수로가 축조되면서 유구를 파괴시켰다. 잔존하는 묘광의 규모는 잔존길이 122cm, 너비 60cm, 깊이 42cm이다.

大壺의 한쪽면은 완전히 유실된 상태였는데 배수로에 흐트져 있던 土器片을 수습하여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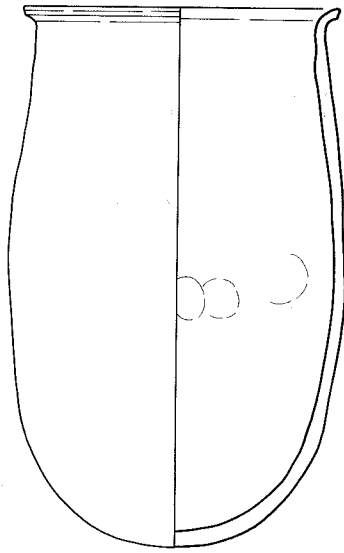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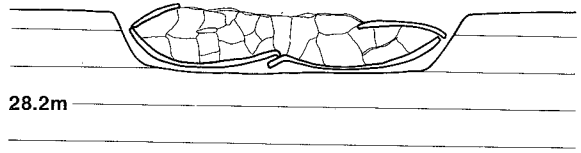
圖面 102. 8號 甕棺墓 出土遺物<1/6>

하였다. 서쪽부분이 유실되어 副甕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잔존상태만으로 본다면 單甕式 甕棺일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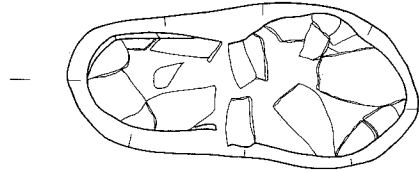
圖面 102-1(圖版 46-1)은 甕棺으로 사용된 大壺이다. 회백색 와질토기로 두께가 대단히 두꺼워 마치 기와를 방불케 한다. 태토는 정선된 니질점토를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물손질 정면하였고 동체부 하단에는 점토띠의 접합흔적이 있다. 양쪽 어깨에 꼭지를 부착하였다. 높이 92.0cm, 口徑 49.5cm, 胴最大徑 66.2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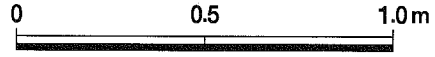
1



28.2m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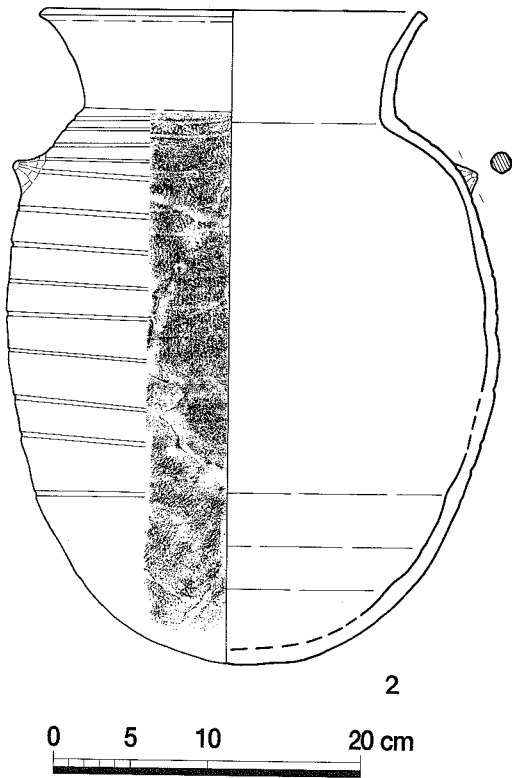


### (74) 9號 甕棺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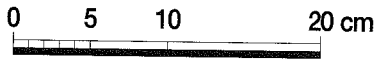
#### 가. 遺構(圖面 103, 圖版 46-2)

해발 28.9m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41호 土壙墓를 파괴하면서 축조되었다. 공교롭게도 41호 토광묘의 중심부분에 축조되어 있지만 41호 토광묘를 파괴하고 축조된 것이 분명하다.

주축방향은 N85°W이며 묘광의 규모는 길이 92cm, 너비 43cm, 깊이 17cm이다. 主甕은 장란형의 양이부단 경호이며, 副甕은 장란형의 용이다. 결합방식은 부瓮의 구연부가 주瓮의 구연부에 삽입된 구조이다. 주瓮의 내부에서 유일한 부장품인 유리제 구슬 1점이 수습되었다.



2



圖面 103. 9號 甕棺墓<1/20>와 出土遺物<1, 2 : 1/5, 3 : 1/1>

부옹인 圖面 103-1(圖版 46-3)은 瓦質甕이다. 태토에는 석영, 장석 등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내외면 황갈색이며 부분적으로 흑반이 나타나고 있다. 바닥은 圓底이며 전체적인 모양은 계란형이다. 口徑보다 胴最大徑이 1.1cm 가량 크다. 전체적으로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내면에는 지두흔이 확인된다. 높이 35.5cm, 口徑 20.5cm, 胴最大徑 21.6cm이다.

주옹인 圖面 103-2(圖版 46-4)는 구연부가 1/4 결실된 兩瘤附短頸壺이다. 와질이며, 내외면 황갈색을 띠고 있다. 저부는 圓底이며, 동체부는 卵形이다. 胴上位에 작은 꼭지가 2개 부착되어 있다. 頸部는 서서히 외반하는 형태이다. 동체부에는 胴上位에서 底部로 갈수록 간격이 벌어지게 13조의 횡침선을 돌렸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높이 43.0cm, 口徑 24.2cm, 胴最大徑 31.8cm이다.

圖面 103-3(圖版 46-5)은 청록색의 유리제 구슬이다. 지름 0.45cm, 두께 0.5cm이다.

### 3. 三國時代의 遺構

#### (1) 1號 石槨墓

##### 가. 遺構(圖面 104, 圖版 47-1~4)

구릉의 남쪽 사면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30°W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무덤의 규모는 길이 258cm, 너비 122cm, 깊이 30cm이다.

유구의 남쪽벽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유구의 중심부로 배수로가 지나가면서 유구의 대부분이 결실되었다. 묘제는 豎穴式石槨墓로 대안리유적에서 유일하게 조사된 삼국시대의 무덤이다.

잔존하는 벽면은 할석을 이용하여 세로쌓기 하였으며, 2단만 남아 있다. 屍床은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고 생토면을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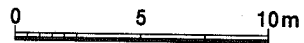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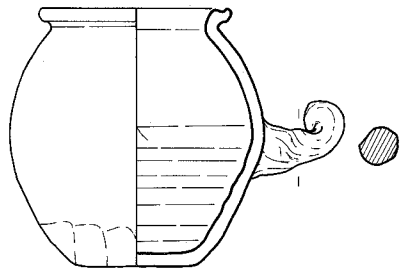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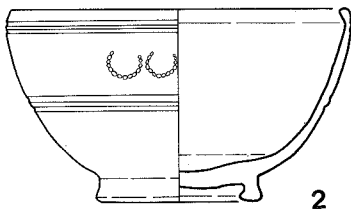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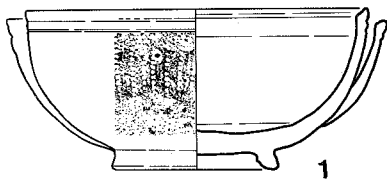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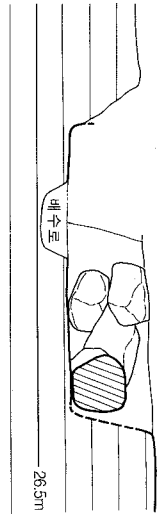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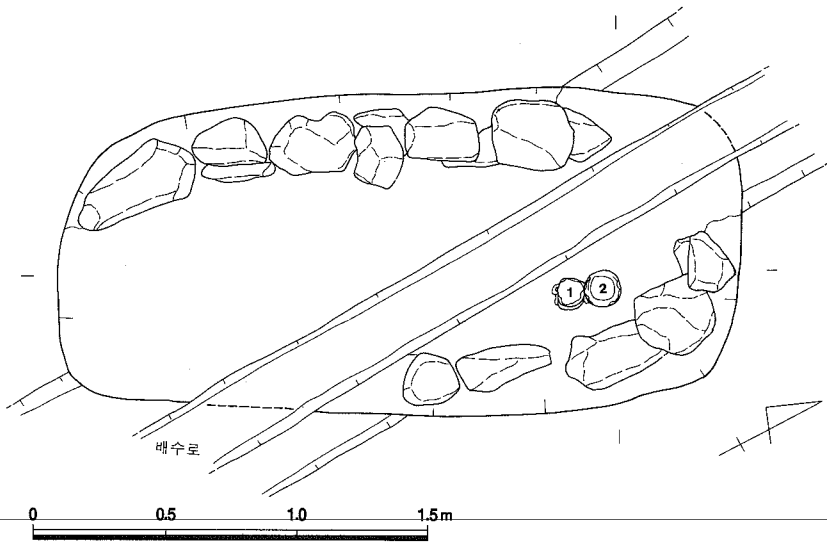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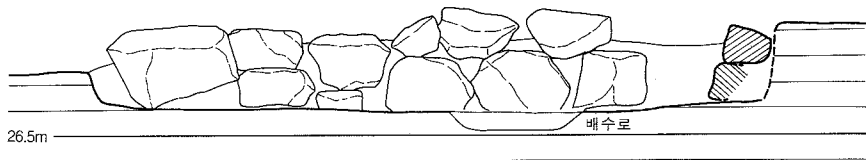
유물은 북쪽 부장공간에서 臺附盥 1점, 把手附甕 1점, 臺附把手附盥 1점이 유구의 북단벽쪽에서 출토되었다.

##### 나. 遺物

圖面 104-1(圖版 47-5)은 내외면 회청색의 臺附盥으로 燒成은 양호하다. 태토에는 석영, 장석 등이 혼입되어 있다. 내외면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높이 6.2cm, 口徑 14.2cm, 굽저경 6.2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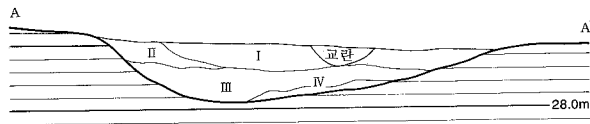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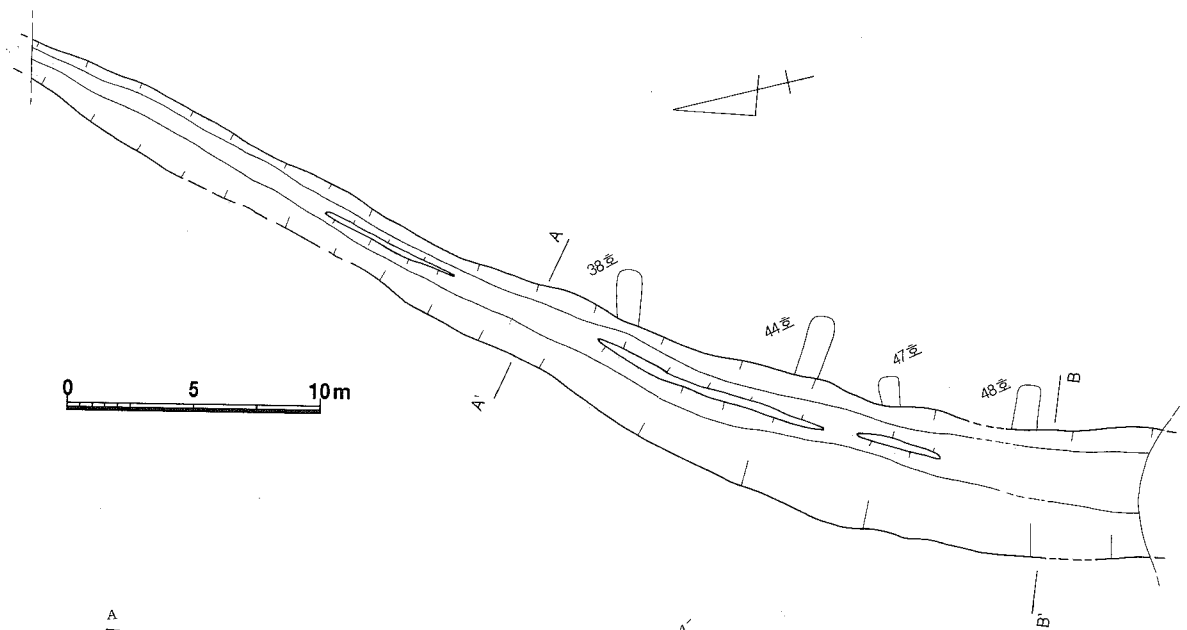
圖面 104-2(圖版 47-6)는 동체부가 1/2 가량 결실된 臺附盥이다. 내외면 암회청색이며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동체부와 구연단에 2조의 침선이 돌아간다. 침선사이에 점열문을 시문하였다. 높이 7.4cm, 口徑 12.5cm, 굽지름 5.7cm, 굽높이 1.0cm이다.

圖面 104-3(圖版 47-7)은 동체부가 1/3 가량 결실된 把手附甕이다. 내외면 회청색으로 燒成은 양호하며 태토에는 석영, 장석 등의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저부와 동체부 연결부위에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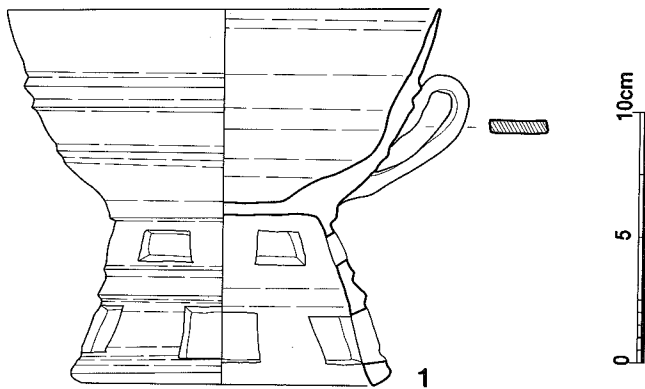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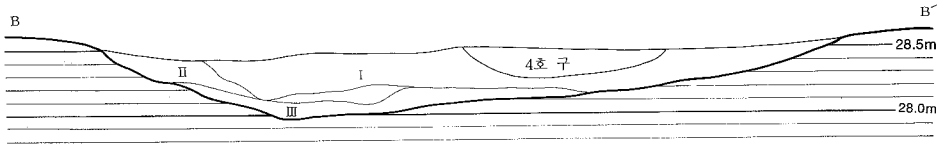


圖面 104. 1號 石槨墓<1/30>와 出土遺物<1/3>

기흔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胴最大徑 부위에 파수가 부착되어 있다. 높이 9.9cm, 口徑 7.0cm, 底徑 4.6cm이다.



- I : 회색 부식토, 풍화 암반 다량 혼입
- II : 회색토
- III : 회황갈색 사질토
- IV : 회황갈색토, 점성 강함



圖面 105. 3號 溝 平面圖<1/300>, 土層圖<1/60> 및 出土遺物<1/3>

## (2) 3號 溝

### 가. 遺構(圖面 105, 圖版 48-1, 2)

2호 溝 아래에 위치하며 2호 溝와 평행하게 진행된다. 溝가 만들어진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삼한시기의 목관묘를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목관묘 이후의 어느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

溝의 단면은 완만한 'U'자상을 띠며, 유적이 입지한 구릉을 가로질러 있는 상태이다. 溝 내부의 퇴적토는 목관묘에서 확인되는 회흑색토와 사질성분이 많은 암갈색토로 구성되어 있다. 구의 퇴적토를 본다면 목관묘시기와 그다지 큰 차이를 가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로 보아 단정하기는 어렵다. 출토된 유물은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편과 삼한시기의 와질토기, 그리고 삼국시대의 대부과수부완 1점 등이 있다. 출토유물들은 대부분 기형파악이 곤란한 토기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대부과수부완만이 원형을 유지한 상태였다.

유물의 출토상태는 층위에 구별됨이 없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여 삼국시대 이후에 매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삼한시기 이후 삼국시대 사이에 형성되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잔존길이 47m, 최대폭 520cm, 깊이 53cm이다.

### 나. 遺物

圖面 105-1(圖版 48-3)은 臺附把手附甕이다. 내외면 회청색이며 燒成은 양호하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대각에는 장방형의 투창이 상하 교차되게 6개가 배치되어 있다. 돌대에 의해 구분된 위와 아래의 투창 크기가 다르다. 높이 14.5cm, 口徑 16.3cm, 底徑 11.2cm이다.

## 4. 朝鮮時代 遺構 및 기타 遺構

### (1) 1號 民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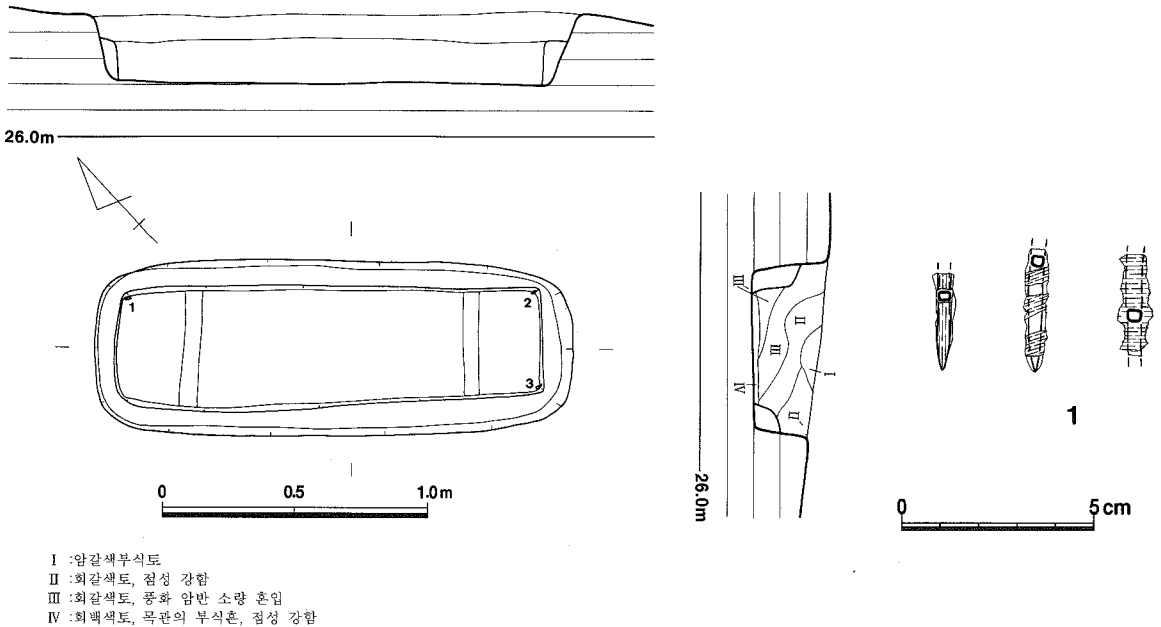
#### 가. 遺構(圖面 106, 圖版 48-4)

구릉의 서쪽 사면에 위치하고 있는 유구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되어 있다. 주축방향은 N47°W이다. 무덤의 규모는 길이 181cm, 너비 158cm, 깊이 25cm이며, 목관의 규모는 길이 160cm, 너비 49cm, 깊이 17cm이다.

네모서리에서 관정이 출토되었으며 토층에서도 보강토의 흔적이 비교적 잘 나타나고 있다. 유구의 양쪽으로 폭 0.8cm내외의 회백색토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관을 놓기 위해 관 밑에 관대를 놓은 흔적으로 판단된다.

### 나. 遺物

圖面 106-1~3(圖版 58-5~7)은 관정으로 모두 4점이 출토되었는데 1점은 부식이 심해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어 3점만 도면화 하였다. 목질은 잔존하고 있으며 3점 모두 頭部는 결실되었다. 단면형태는 방형이다. 잔존길이 2.6~3.2cm이다.



圖面 106. 1號 民墓<1/30>와 出土遺物<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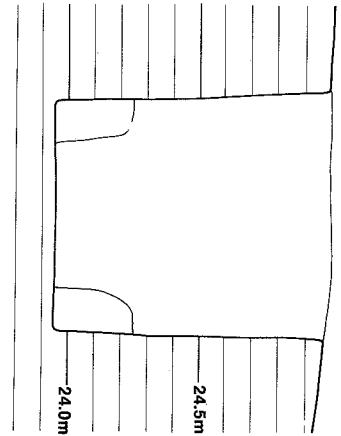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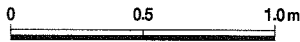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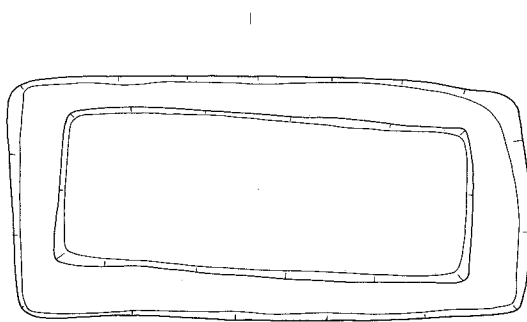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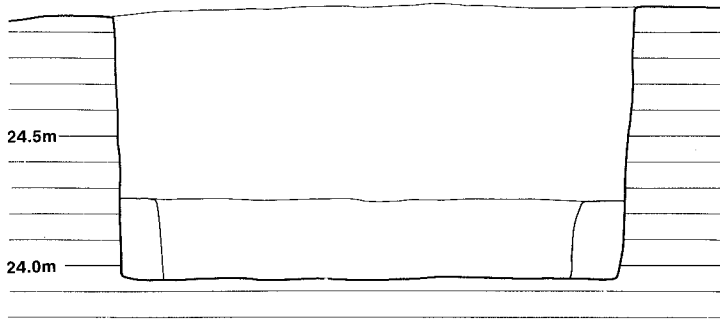
## (2) 2號 民墓

### 가. 遺構(圖面 107, 圖版 49-1)

구릉의 동쪽 사면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70°W으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되게 설치하였다. 무덤의 규모는 길이 197cm, 너비 93cm, 깊이 105cm이며, 충전토로 추정되는 목관의 규모는 길이 152cm, 너비 57cm, 깊이 30cm이다.

유구 내부토는 목관의 부식 후 한쪽으로 경사지게 함몰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내부토인 양갈색 부식토에는 분청사기편, 옹기편 등이 섞여 있다. 遺構의 시기를 알 수 있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내부토에서 보이고 있는 분청사기편이나 옹기 등을 통해 볼 때 유구의 조성시기는 조선후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구의 깊이가 105cm로 상당히 깊게 편이며, 벽면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다. 그 밖에 시설은 보이지 않는다.



圖面 107. 2號 民墓<1/30>

### (3) 1號 豎穴遺構

#### 가. 遺構(圖面 108, 圖版 4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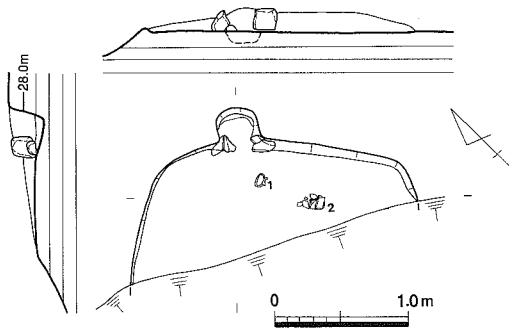
해발 28.0m에 축조된 조선시대 豎穴遺構이다. 장축방향은 N45°W으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축조하였다. 규모는 길이 206cm, 잔존폭 100cm, 깊이 17cm이다.

구릉의 경사면을 깎아서 만들었으며 북장벽쪽에 할석을 이용한 아궁이 시설이 남아 있다. 내부토는 회흑색 부식토로 소토 및 목탄이 혼입되어 있다. 바닥은 생토면을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상부의 교란이 심하여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아마도 조선시대의 묘막지로 추정된다. 유물은 바닥에서 粉靑沙器 종지, 대접 등이 출토되었다.

#### 나. 遺物

圖面 108-1(圖版 49-3)은 분청사기 종지로 외면에 백토로 분장하였다. 높이 6.2cm, 굽저경 5.2cm, 굽높이 0.8cm, 口徑 12.1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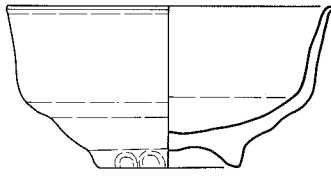


圖面 108-2(圖版 49-4)는 粉靑沙器 대접으로 동체부 1/2이 결실되었다. 외면은 청회색을 띠며 내면에는 회청색에 백토로 분장하였다. 높이 8.2 cm, 口徑 17.8cm, 굽저경 5.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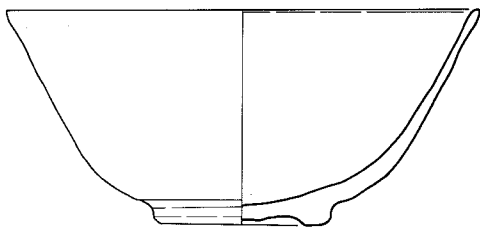
#### (4) 2號 豎穴遺構

##### 가. 遺構(圖面 109, 圖版 49-5)

해발 28.9m에 위치하고 있는 조선 시대 豎穴遺構이다. 장축방향은 N30° W으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만들어졌다. 규모는 길이 172cm, 너비 145cm, 깊이 16cm이다.



1



2



圖面 108. 1號 豎穴遺構<1/60>와 出土遺物<1/3>

4호 溝에 의해 유구의 상부가 심하게 훼손되었다. 유구는 구릉의 경사면을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며 북장벽쪽에 별다른 시설을 하지 않고 바닥에 경사지게 만든 아궁이 시설이 남아 있다. 내부토는 회흑색의 부식토이며, 소토 및 목탄이 아궁이 시설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 바닥은 생토면을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주혈이나 그 밖에 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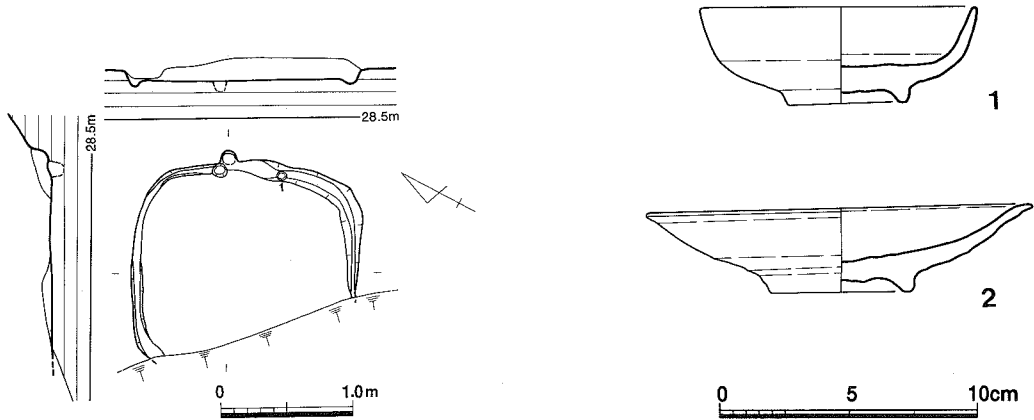
유물은 바닥에서 분청사기 종지 1점과, 대접 1점이 출토되었다.

#### 나. 遺物

圖面 109-1(圖版 49-6)은 분청사기 접시로 전체적으로 회녹색을 띠며, 내면은 백토분장으로 문양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배신 바닥 중앙에 외선문, 그 주변에는 지그재그 방향으로 시문된

파선문이 있다. 높이 3.3cm, 口徑 14.5cm, 굽지경 5.3cm, 굽높이 0.5cm이다.

圖面 109-2(圖版 49-7)는 분청사기 종지로 내외면 회녹색을 띠고 있으며 문양은 없다. 전체적으로 유약발림이 약하고 표면은 산화박리되었다. 높이 3.8cm, 口徑10.4cm, 底徑4.5cm, 굽높이 0.5cm이다.



圖面 109. 2號 豎穴遺構<1/60>와 出土遺物<1/3>

### (5) 4號 溝

#### 가. 遺構(圖面 110, 圖版 50-1~3)

시작지점은 알 수 없지만 조사범위 내의 29m 선상에서 시작하여 구릉을 따라서 점점 낮은 쪽으로 이어지면서 경사를 이룬다. 구릉 경계로 해서 서쪽에 조선시대 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수전과 연결된 물길일 가능성이 높다. 즉 민묘와 수혈유구 위에 조성된 논의 시기를 고려한다면 구의 조성시기는 그다지 오래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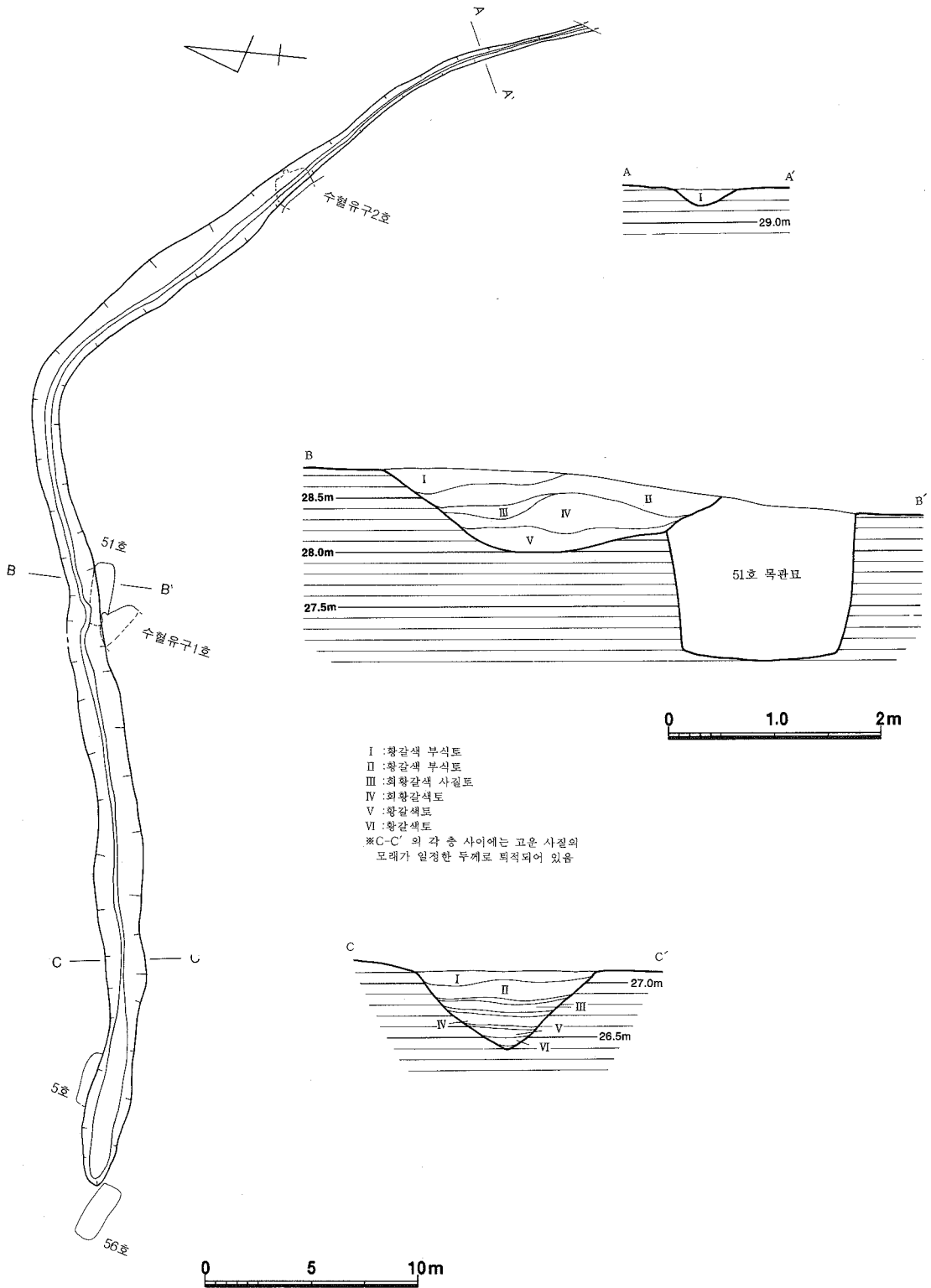
구의 단면은 V자상으로 나타나며 자연계곡의 물을 水田 주변으로 돌리는 용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溝 내부의 퇴적토는 황갈색 사질토이며, 자갈 및 작은 암반편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수습유물은 石劍片, 半月形石刀片 등과 無文土器片, 백자편, 옹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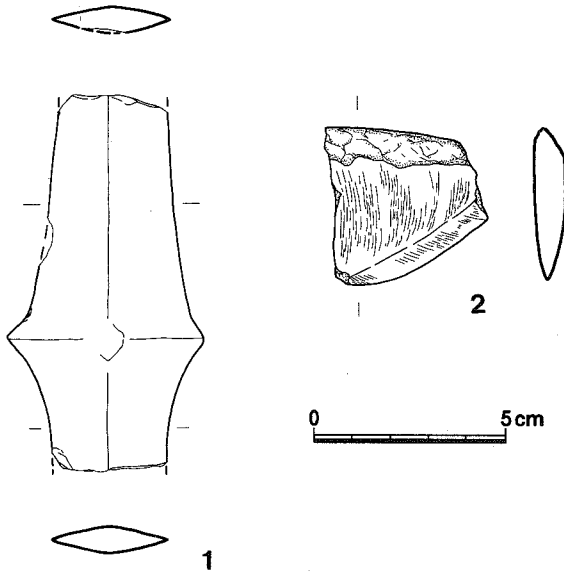
#### 나. 遺物

圖面 111-1(圖版 50-4)은 泥岩혼펠스製의 石劍片이다. 선단부와 柄部가 결실되어 전체적인 모양은 알 수 없다. 身部 단면은 능형이다. 규모는 잔존길이 10.1cm, 너비 3.3cm, 병부너비 3.1cm이다.

圖面 111-2(圖版 50-5)는 4호 溝 주변에서 수습한 泥岩製의 半月形石刀片이다. 전체적으로 흑갈색을 띠고 있다. 전면을 치밀하게 마연하였다. 규모는 잔존길이 3.9cm 너비 4.3cm이다.



圖面 110. 4號溝 平面圖<1/300>, 土層圖<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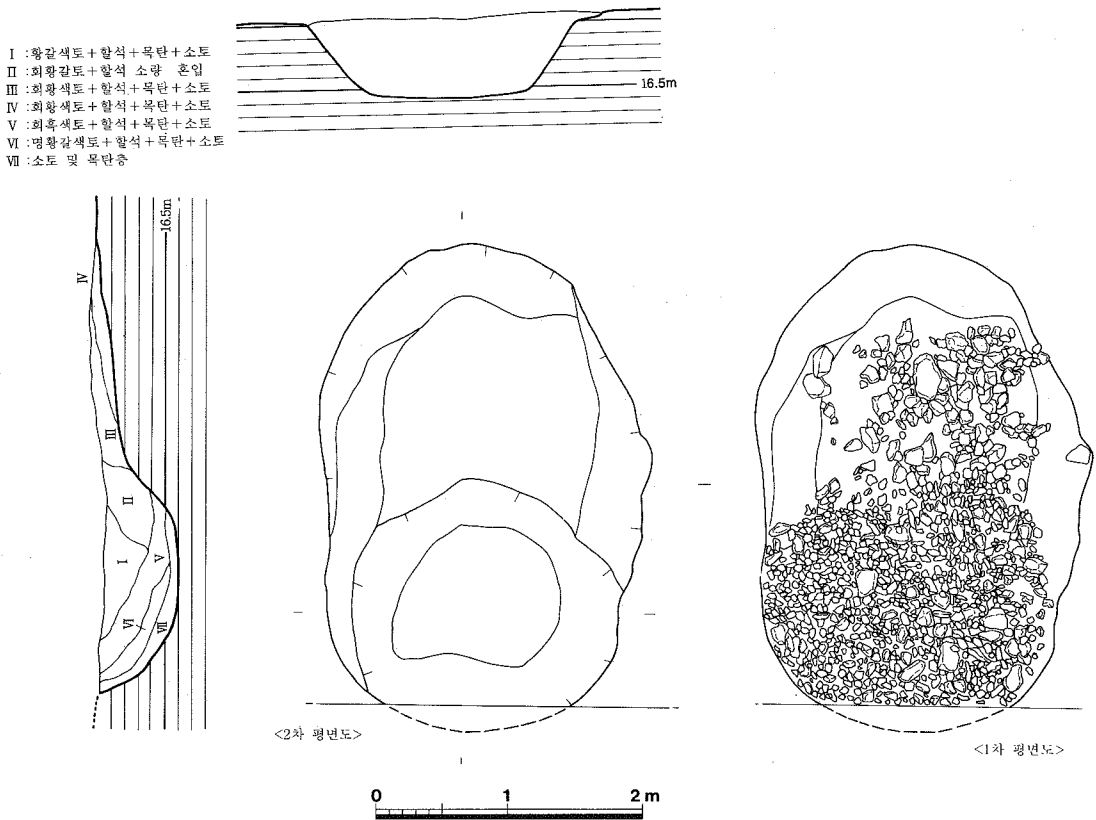


圖面 111. 4號 溝 出土遺物<1/2>

## (7) 삼가마

### 가. 遺構(圖面 112, 圖版 50-6~8)

구릉의 서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삼을 찌던 노천가마이다. 가마의 상부에는 불 맞은 할석들이 무더기로 놓여져 있었는데, 삼을 찌 때 사용되었던 돌로 판단된다. 장축 320cm, 단축 240cm 크기의 얇은 타원형의 수혈을 파고, 그 안쪽으로 장축 210cm, 단축 130cm, 최대깊이 59cm 규모의 가마를 마련하였다. 상부의 수혈은 삼가마를 이용했던 작업장의 범위로 추정되며 삼을 찌는 직접적



圖面 112. 삼가마 平 · 斷面圖<1/60>

인 시설은 바닥에 소토가 분포하고 있는 안쪽의 수혈이다.

가마의 바닥은 소토화되었는데 두께는 3~5cm 정도이다. 사용횟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닥면의 소토화된 두께를 볼 때 장기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은 흔히 大麻라고 불리는 삼베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써 우리나라에는 삼한시대부터 삼베를 생산하기 위해 재배되었다고 한다. 삼베를 생산하는 과정은 밭에서 삼을 수확하여 정련하기 까지, 찌기 및 껍질벗기기, 건조, 삶기, 세척 및 건조, 정련 등의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수확 후 대마를 뜨거운 증기를 이용하여 찌는 단계에서 노천가마를 이용하였다. 가마에서 불을 피우고 돌을 달구어 그 위에 삼을 놓고, 흙을 덮고, 물을 뿌려 여기서 발생하는 뜨거운 수증기를 이용하여 삼을 찌게 되는 것이다.

이 삼가마는 옹기 및 자기 등이 포함된 문화층 위에 조성되었다. 1976년 대마관리법(1976.4.7. 법률 제2895호)의 제정으로 삼의 재배 및 취급이 엄격히 규제되기 전까지 많은 농가에서 삼베를 생산하였기 때문에 이 삼가마의 조성시기는 아마도 1900년도 중엽경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IV. 考察

대안리유적에서는 靑銅器時代의 住居址가 7동, 三韓前期의 木棺墓 65기, 甕棺墓 9기가 조사되었다. 그리고 三國時代의 石槨墓 1기와 朝鮮時代의 민墓 2기와 墓幕址 2개소 등이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울산지역에서 확인예가 대단히 희소한 목관묘자료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大安里遺蹟 木棺墓의 樣相

울산지역에서 삼한전기의 목관묘유적이 확인된 곳은 다운동유적<sup>7)</sup>이 유일하며, 하대유적에서 그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을 뿐이다<sup>8)</sup>. 반면, 三韓後期의 木槨墓는 中山里遺蹟, 茶雲洞遺蹟, 下垈遺蹟 등 대단위 분묘군들이 조사되었다. 이들 삼한후기 목곽묘유적에서는 이른 바 '小國'의 존재를 상정할 만한 탁월한 遺物들이 확인되었으며, 아울러 다른 지역의 삼한후기 유적들과 비교해서 대등한 문화양상을 보여줌으로써 삼한후기 政治體의 존재를 상정해 볼 수 있었다.

반면, 이에 선행하는 木棺墓遺蹟은 아직까지 제대로 조사된 적이 없었다. 특히 목곽묘유적과 같은 공간에서 목관묘가 확인된 예는 다운동유적이 유일하다. 그나마도 아직 정확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 배치상태조차도 정확히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양묘제와의 관련성을 언급하기 어렵다. 목관묘를 사용한 집단과 목곽묘를 사용한 집단과의 관계는 최소한 울산지역에서는 언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다만 울산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木槨墓遺蹟이라고 할 수 있는 하대, 중산리유적의 예를 본다면 목관묘단계가 없이 목곽묘단계부터 墳墓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즉 목관묘집단에서 목곽묘집단으로의 연속적인 묘제의 전환이 아닌 목관묘와 목곽묘는 별개의 집단에 의해 조성된 것일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대안리유적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대안리유적에서 조사된 삼한전기의 유구는 充塡土가 확인되지 않은 土壙墓를 포함하는 목관묘 65기, 옹관묘 9기이다. 이들 유구에서 조사된 유물은 삼한전기의 가장 대표하는 古式瓦質土器인 組合牛角形把手附壺와 주머니壺를 비롯해서 短頸壺類 및 甕類 들이다. 그리고 鐵器遺物로는 鐵劍과 二段柄式鐵鉞, 鐵斧, 鐵鏃, 鐵鎌 등이 있다. 遺構와 遺物을 구별해서 살펴본다.

#### 1) 遺構

7) 兪炳一, 1996, 「蔚山 茶雲洞遺蹟」, 『第39回 全國歷史學大會發表要旨』

李盛周, 1997, 「木棺墓에서 木槨墓로」, 『新羅文化』14,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8) 釜山大學校博物館, 1997, 『蔚山下垈遺蹟-古墳 I』.

木棺墓, 土壙墓, 甕棺墓가 조사되었다. 이들 3가지 종류의 墓形은 墓域의 구별없이 서로 혼재한 상태로 분포하고 있다. 먼저 목관묘는 지표의 삭평으로 인해 당시의 깊이를 정확히 알수 없지만 현존하는 목관묘중 깊이가 가장 깊은 유구는 54壺 木棺墓로서 잔존깊이가 약 85cm로 다른 유구들도 대개 이 정도의 깊이를 유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遺構의 방향도 대개 磁北方向과 直交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등고선방향과도 직교하는 모습이다. 단 유구의 위치에 따라 등고선방향과 직교하지 않는 유구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유구의 분포를 보면 구릉상의 발달한 대지상에 주로 입지하며, 경사가 급한 곳으로는 분포 밀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유구의 구조는 다른 유적에서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많은 유구의 바닥에서 회백색의 점토띠가 확인된다는 점이 木棺의 흔적을 보여준다. 특히 일부 유구에서 점토띠의 모양이 '포'자상을 띠고 있어 목관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일부 유구에서는 바닥전체가 회백색을 띠고 있어 목관의 바닥이 부식된 흔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充填土는 일반적으로 墓壙을 굴착하면서 나온 흙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황갈색의 암반편이 포함되어 있다. 유구 내부토는 암갈색기운이 강한데 충전토의 토양과는 명확히 구별된다. 그리고 충전토의 내부에 할석이 부분적으로 채워진 경우와 충전토의 상부에 할석이 없혀진 경우도 있다. 기존에 알려진 목관묘유적에서도 이와 같은 점은 관찰되었던 현상으로 목관묘에서 특별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유구 내부토의 상층에는 부식이 심한 회흑색토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봉분의 최상층에 놓여졌던 층위로 생각되는데 의식적으로 봉분에 넣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회흑색토를 제외한 유구 내부토는 그다지 층위간에 구별이 뚜렷하지 않다.

유물부상양상을 보면, 토기류는 대개 충전토 상부나 목관위에 없거나, 충전토내에 매납되었다. 그리고 34호 목관묘출토 단경호의 경우 구연부는 충전토 상부에서, 동체부는 유구의 중앙부에서 수습되기도 하였다. 이는 목개를 덮은 후 거행된 일정한 의식행위의 결과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충전토내에 매납된 유물들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철기유물들은 주로 목관내 피장자의 주변에서 확인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鐵劍과 鐵銼, 그리고 鐵鏃 등이다. 그리고 철부와 철점들도 유구내에 부장되기도 한다. 간헐적으로 鐵斧는 유구 내부토에서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주목되는 것은 철점의 출토양상인데 身部가 대부분 결실된 채 基部만 부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파손품이 출토되는 것은 그리 낮설지 않은 것이지만 대안리유적에서 철점처럼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예가 드문 경우도 없다고 생각된다.

대안리유적의 목관묘는 기존에 조사되어졌던 목관묘유적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유구의 조사 과정에서 보인 현상을 살펴보면 주로 板材를 사용하여 유구를 만든 것으로 보이며, 結構方式은 유구의 바닥에서 보이는 '포'자형 점토띠에서와 같이 목관의 장단벽이 엇갈리게 배치한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목관묘의 중복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일정한 標識-封墳-이 지표에 남겨져 있을 것이라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sup>9)</sup>.

甕棺墓도 유적의 전 범위에 걸쳐서 9기가 조사되었는데 대부분 合口式 甕棺이었으나 9호 옹관은 단옹으로 마무리되었다. 옹관의 규모가 대체로 1m 내외의 소형인 점으로 볼 때 소아의 무덤으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옹관으로 사용된 토기는 대형 단경호, 연질옹, 대호들인데 불규칙적으로 상호 조합하여 구연부를 맞대거나 한쪽의 구연부를 삽입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옹관묘간의 중복은 전혀 없으며, 41호 목관묘의 묘광 중간에 중복된 9호 옹관을 제외하면 목관묘와도 중복되는 예가 없다. 단 9호 옹관묘의 경우도 41호 목관묘의 중심부에 정확히 중복된 점으로 보아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된 것인지 다소 의문이 있다.

## 2) 遺物

대안리유적의 목관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전체 유구수에 비해 대단히 빈약한 편이다. 전체 65기의 분묘중에서 출토품이 전혀 없는 유구가 36기나 된다. 물론 유기물로 된 부장품을 상정해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장유물이 대단히 빈약하여 다른 유적의 예와 비교된다. 古式瓦質土器의 대표적인 기종인 組合牛角形把手附壺는 1점, 주머니호는 2점이 조사되었다. 그 외의 기종은 대부분 단경호와 소형옹, 그리고 옹관으로 사용된 연질옹이 대부분이다. 토기의 기구구성도 대단히 단순한 것을 알 수 있다.

조합우각형파수부호(圖面 89-1)는 圓低로 기면에는 格子打捺되어 있고 胴上部에는 칩선이 둘러져 있다. 頸部는 직선적으로 완만하게 외반하며, 구연끝단에서 급하게 외반한다. 그리고 동체부는 비교적 卵形에 가깝다. 전체적으로 안정된 느낌을 주는데 下壘 44號의 것과 비교한다면 보다 퇴화된 느낌을 주는데 아마 거의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주머니호는 대각이 부착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2점이 각각 확인되었다. 대부주머니호(圖面 40-1)와 주머니호(圖面 46-1)는 臺脚의 有無를 제외한다면 기형상 구연부의 외반도에서 차이를 보일뿐 동체부의 형태는 같다. 동체부는 중앙부가 각이 지고 內灣度가 큰 것으로 고식와질토기의 마지막단계의 현상을 보여준다.

그 외 단경호류들이 다수 조사되었다. 대부분이 繩蓆打捺되었으며, 格子打捺된 것은 옹관으로 사용된 단경호(圖面 100-2)가 유일하다.

철기유물은 무기류로서 철검과 철모, 철촉이 있으며, 공구류로서 주조철부, 단조철부, 철검이 있다. 철검은 단검으로 柄部가 짧은 단병과 柄部가 긴 장병으로 구분된다. 철모는 2세기 중엽경

9) 李柱憲, 1994, 「三韓의 木棺墓에 대하여-嶺南地方出土 資料를 中心으로」, 第8回 釜山-九州 考古學共同研究會 釜山側 發表論文集.



에 한시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이단병식철모가 대부분이다. 철족은 무경식 철족만이 확인되었다.

## (2) 時期

대안리유적의 목관묘가 조성된 시기는 出土遺物의 검토를 통해 어느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연대추적의 가장 유력한 자료는 조합우각형파수부호와 주머니호, 그리고 이단병식철모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조합우각형파수부호를 보면 기면에 격자타날된 것으로 보아 볼 때 승석타날보다는 늦은 시기의 것으로 볼 수 있다<sup>10)</sup>. 현재까지의 조합우각형파수부호에 격자타날된 것을 松斗里 2號墓와 하대 44호 출토품이 있는데 대체로 목관묘의 등장기의 것이다.

그리고 주머니호의 경우도 胴體中央에서 각을 이루면서 내만도가 큰 모습은 일반적으로 주머니호의 최후단계에 해당된다. 지역별로 고식와질토기의 변화과정이 일관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대안리유적출토 주머니호도 고식와질토기 최후단계의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단병식철모도 일반적으로 목관묘 최후단계에서 목관묘등장기에 유행한 한시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지고 있다. 그러므로 대안리유적의 조성시기는 木棺墓末, 木槨墓初段階로 보는데는 무리가 없다.

그리고 65기의 목관묘중 유물의 출토량이 많지 않고, 또 동일기종의 출토례가 빈약하여 단계 구분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아마도 중심연대는 18호, 24호 목관묘 출토 주머니호의 연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 상하 연대폭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대안리유적의 조성시기는 대단히 짧은 기간에 한정되며, 2세기 중엽경의 어느 시점에 조성되기 시작하여 얼마되지 않아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대안리유적은 2세기대 조성되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단계의 유적은 대안리유적 주변은 물론 울산지역에서도 조사된 예가 없다. 즉 울산지역에서 점토대토기를 사용하는 세형동검기의 문화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반면 세형동검기 이전단계인 청동기시대의 유적은 대단히 많아서 현재 매장문화재가 조사되는 곳에서는 예외없이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확인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을 단순히 세형동검기단계의 유적조사가 미진한 결과도 치부해 버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주의 구정동, 입실, 죽동리 등지에서 세형동검기의 청동유물들이 다량으로 출토된 예를 본다면 울산지역에 이 시기의 유적들이 분포했다면 전혀 알려지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울산지역에서 세형동검기의 문화기반이 제대로 성숙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로 볼 때 대안리유적은 시간상, 공간상으

10) 李盛周, 1999, 「辰·弁韓地域 墳墓 出土 1~4世紀 土器의 編年」, 『嶺南考古學』24.

로도 '점(point)'의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 역시 다른지역에 비해 열세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 일단은 이와 같이 지역적으로 명백한 優劣現象이 보인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지역적 우열현상에 대해서는 아마도 기존의 재지문화와 새로이 유입되어 들어오는 문화사이의 관계로서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11)</sup>.

아직까지도 삼한전기의 울산지역은 자료의 추가에 따라 많은 변수를 지닌 상태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해당유적이 조사되어야만 명확한 사회상의 복원이 가능할 것이다. 삼한후기의 목곽묘자료는 비교적 많은 유적이 조사되어 지역간 비교연구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삼한전기는 아직도 지역간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단 현재까지의 조사성과로 보는 한 목관묘유적과 목곽묘유적이 연속적으로 입지하는 유적은 대체로 부산, 김해지역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지역은 대부분 별도의 지역을 구역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점은 재지집단과 이주집단과의 관계에서 접근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대안리유적 유구 및 출토유물 현황표

유구 번호	묘형	규격(cm)			장단축비	주요출토유물	비고
		길이	너비	깊이			
1	목관	268	95	42	2.8 : 1		
		(196)	40	25			
2	목관	280	101	62	2.8 : 1	단경호편 철검2, 철부2, 철검편,	
		203	54	30			
3	목관	294	95	57	3.1 : 1	철모1	
		(218)	64	25			
4	목관	267	74	57	3.6 : 1	철촉2	
		190	48	24			
5	목관	240	(45)	40		외질호편1 철모1	
		200	(30)	23			
6	목관	240	80	42	3.0 : 1		
		160	45	24			
7	목관	210	70	42	3.0 : 1		
		134	47	25			
8	목관	193	82	52	2.4 : 1		
		?	?	?			
9	목관	252	85	60	3.0 : 1	단경호1 주조철부1, 단조철부1, 철촉2,	
		235	60	28			
10	목관	304	113	40	2.7 : 1	철촉4	
		275	82	40			
11	목관	189	84	20	2.2 : 1		
		(152)	46	20			
12	목관	(72)	88	46			
		(32)	47	19			
13	목관	198	79	30	2.5 : 1		
		155	40	30			

11) 金榮珉, 2001, 「嶺南地方 1~3世紀代의 지역간 변화추이」, 『동아시아 1~3세기의 주거와 고분』, 문화재연구 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 제10집.

유구 번호	모형	규격(cm)			장단축비	주요출토유물	비고
		길이	너비	깊이			
14	목관	197	87	58	2.3 : 1		
		125	42	25			
15	목관	280	93	65	3.0 : 1	주조철부1	
		205	50	40			
16	목관	324	120	56	2.7 : 1	철모1, 철부1, 철검1	
		240	70	43			
17	토광	158	(50)	31			
18	목관	302	130	63	2.3 : 1	대부주머니호1, 철부1, 철검편	
		250	67	39			
19	목관	256	80	48	3.2 : 1	철부1	
		209	52	22			
20	목관	(225)	105	40			
		(160)	63	40			
21	목관	263	108	30	2.4 : 1		
		200	60	30			
22	목관	250	106	30	2.4 : 1	철촉1, 철부 1, 철모 1	
		210	60	30			
23	토광	210	(45)	15			
24	목관	216	110	37	2.0 : 1	주머니호1, 와질소용1	
		175	73	28			
25	목관	307	135	38	2.3 : 1	철부1	
		260	85	20			
26	목관	220	99	32	2.2 : 1		
		155	73	31			
27	목관	320	130	60	2.5 : 1	철부1	
		255	75	25			
28	목관	321	110	51	2.9 : 1	철부1, 철검1	
		219	65	30			
29	목관	200	95	50	2.1 : 1		
		126	54	15			
30	목관	305	107	42	2.9 : 1	철부1	
			72	36			
31	목관	223	85	33	2.6 : 1		
		175	60	22			
32	토광	143	65	15	2.2 : 1	연질용 1	
33	목관	126	61	16	2.1 : 1		
34	목관	313	140	68	2.2 : 1	단경호2, 장동용1, 철검1, 철부2	
		248	70	37			
35	목관	300	100	74	3.0 : 1		
		230	60	38			
36	목관	163	91	41	1.8 : 1		
		130	73	21			
37	목관	189	79	11	2.4 : 1		
		170	66	11			

유구 번호	묘형	규격(cm)			장단축비	주요출토유물	비고
		길이	너비	깊이			
38	목관	(212)	92	30			
		180	65	19			
39	토광	200	77	21	2.6 : 1		
40	목관	(88)	85	35			
		(54)	53	24			
41	토광	207	85	60	2.4 : 1		
42	목관	220	104	28	2.1 : 1		
		143	58	15			
43	목관	400	117	43	3.4 : 1	경식1, 철검1, 철부1	
		220	82	25			
44	목관	270	86	37	3.1 : 1	경식1	
		212	59	20			
45	토광	150	77	20	1.9 : 1		
46	목관	182	95	30	1.9 : 1		
		126	64	28			
47	토광	(125)	86	34			
48	목관	(190)	102	45		철검1, 철모1, 철모편	
		(167)	64	27			
49	목관	210	100	43	2.1 : 1		
50	목관	180	80	37	2.2 : 1		
		135	42	20			
51	목관	290	95	66	3.0 : 1	철부1, 철검편	
		222	65	34			
52	목관	275	92	45	3.0 : 1		
		205	64	26			
53	토광	240	76	41	3.1 : 1	호저부편	
54	목관	275	115	85	2.4 : 1	철촉1, 주조철부1	
		190	46	30			
55	목관	275	135	85	2.0 : 1		
		180	60	23			
56	목관	274	91	42	3.0 : 1	단경호1	
		212	54	27			
57	목관	245	120	74	2.0 : 1		
		152	52	25			
58	목관	240	83	38	2.9 : 1		
		170	62	20			
59	목관	270	78	80	3.5 : 1	단경호1 철부1, 철촉2, 철검편	
		193	54	27			
60	목관	236	83	34	2.8 : 1		
		190	54	21			
61	목관	275	123	67	2.2 : 1	철부1, 철검편	
		220	65	30			

유구 번호	모형	규격(cm)			장단축비	주요출토유물	비고
		길이	너비	깊이			
62	목관	290	140	67	2.0 : 1	조합우각형파수부호1, 철부1, 철검편, 석부1	
		230	75	30			
63	목관	285	117	120	2.4 : 1	철부2, 철검1	
		247	60	36			
64	토광	150	62	28	2.4 : 1		
65	토광	(145)	75	28			

## V. 맺음말

대안리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소규모 단위취락유적과 삼한전기의 분묘유적이 함께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의 주거지는 모두 7동이 조사되었다. 대부분 파손이 심하여 원형과악이 곤란하지만 비교적 대형주거지와 함께 소형의 주거공간이 같이 혼재한다. 먼저 1號 住居址는 벽구내에 배치된 주혈이 특이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벽구내에 주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주혈의 흔적이 유구의 벽면에까지 남아 있다. 벽면에 남아 있는 주혈의 형태로 보아 벽구에서 세워진 기둥은 바깥으로 10° 정도 기울어진 구조이다. 앞으로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구조복원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 청동기시대의 주거지들은 울산 지역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구조를 그대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동기시대 유구의 조성시기는 출토유물의 수량이 그다지 많지 않아 세분된 시기를 제시하기 어렵지만 孔列土器와 석촉 등으로 볼 때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삼한시대의 분묘는 목관묘 65기, 옹관묘 9기가 조사되었다. 유물의 검토를 통해 대략 2세기 중엽경의 집단무덤으로 추정하였다. 조사된 유구수에 비해 출토유물의 양이 빈약하여 다른지역과의 비교연구가 어렵긴 하지만 울산지역에서 삼한전기의 분묘가 조사된 것만으로도 학술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태껏 울산지역에서 삼한전기의 독립유적이 확인되지 못하였고 그러기 때문에 역사적 공백상태를 초래해왔던 것을 생각한다면 한단계 진일보한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울산지역에서는 삼한전기와 후기의 묘제, 즉 목관묘와 목곽묘가 별도의 공간에 조영되어 운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김해 양동유적에서는 같은 구릉에서 목관묘와 목곽묘가 연속적으로 조영되었다. 그런데 대안리유적은 목곽묘단계로 이행하지 않고 묘역의 사용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산리, 하대유적은 목관묘가 없이 목곽묘가 처음부터 조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분묘의 연속과 단절이라는 점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가 향후 연구과제라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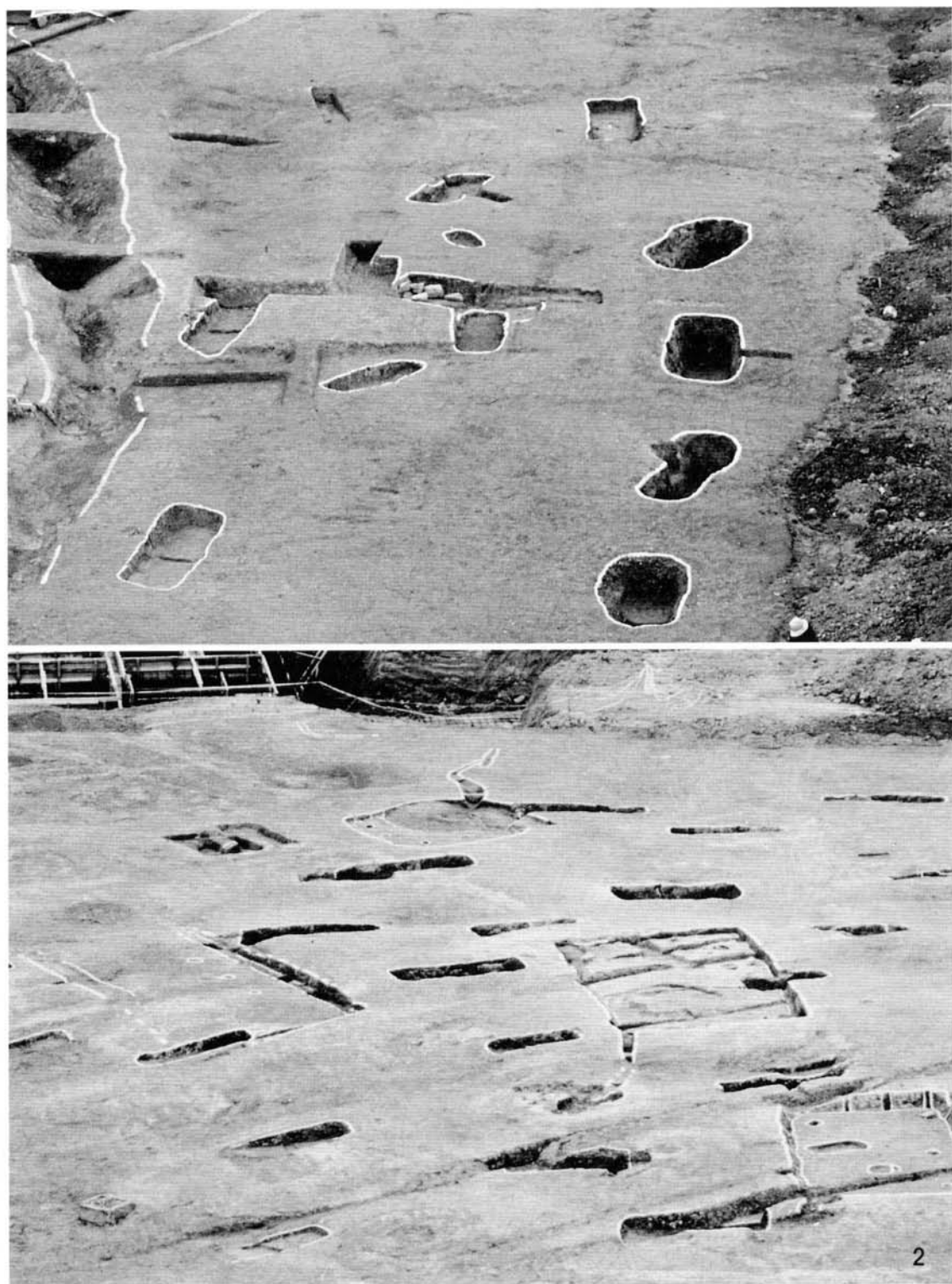
대안리유적의 통해 울산지역에도 삼한전기문화가 엄연히 존재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지만 또 이와는 별도로 이들과 상호작용을 하였던 집단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울산지역의 삼한전기의 문화양상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안리유적의 조사는 신자료의 획득이라는 성과와 동시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는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자료들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울산지역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복원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圖 版



圖版 1. 遺蹟 遠景(1) 및 全景(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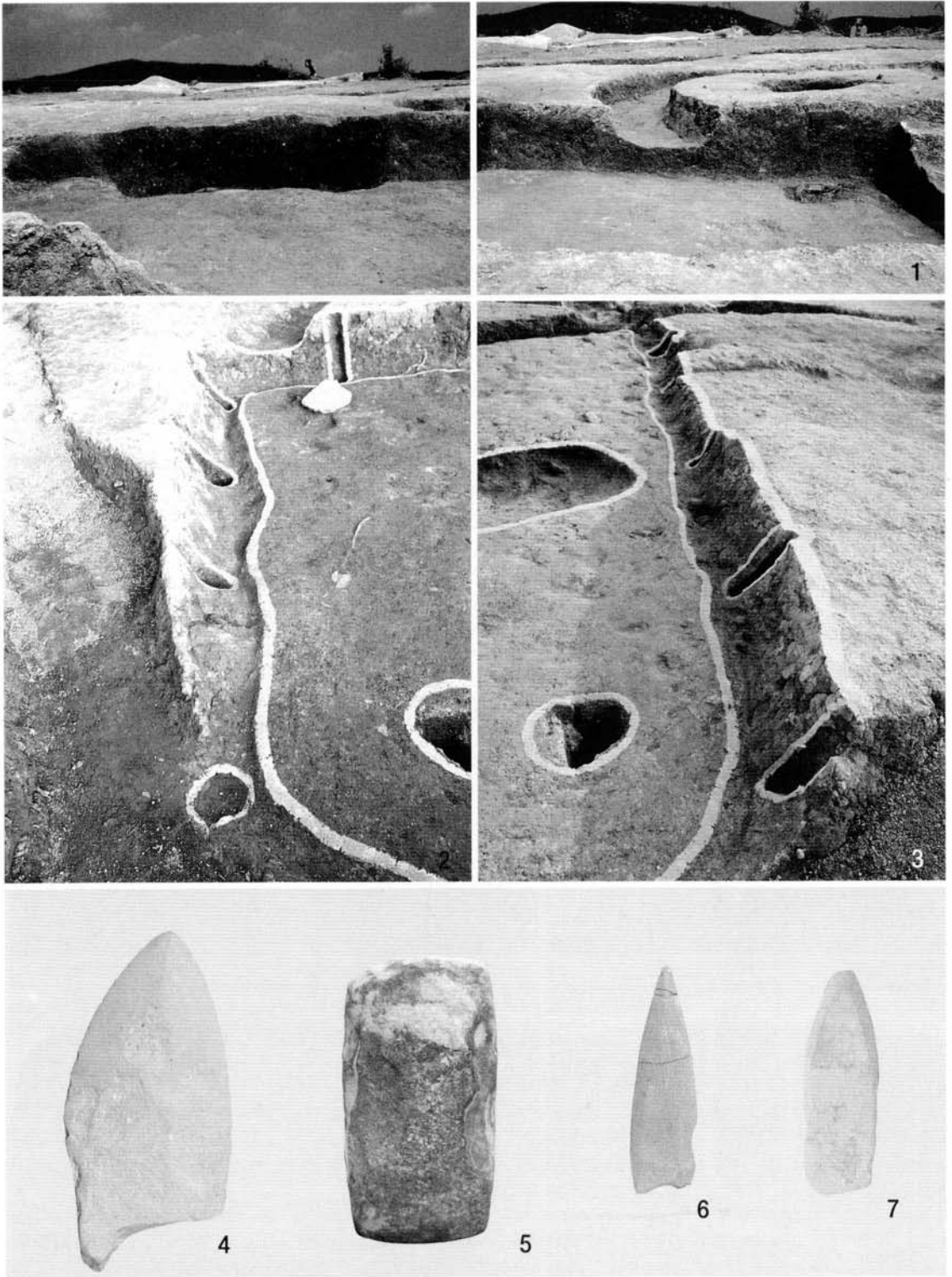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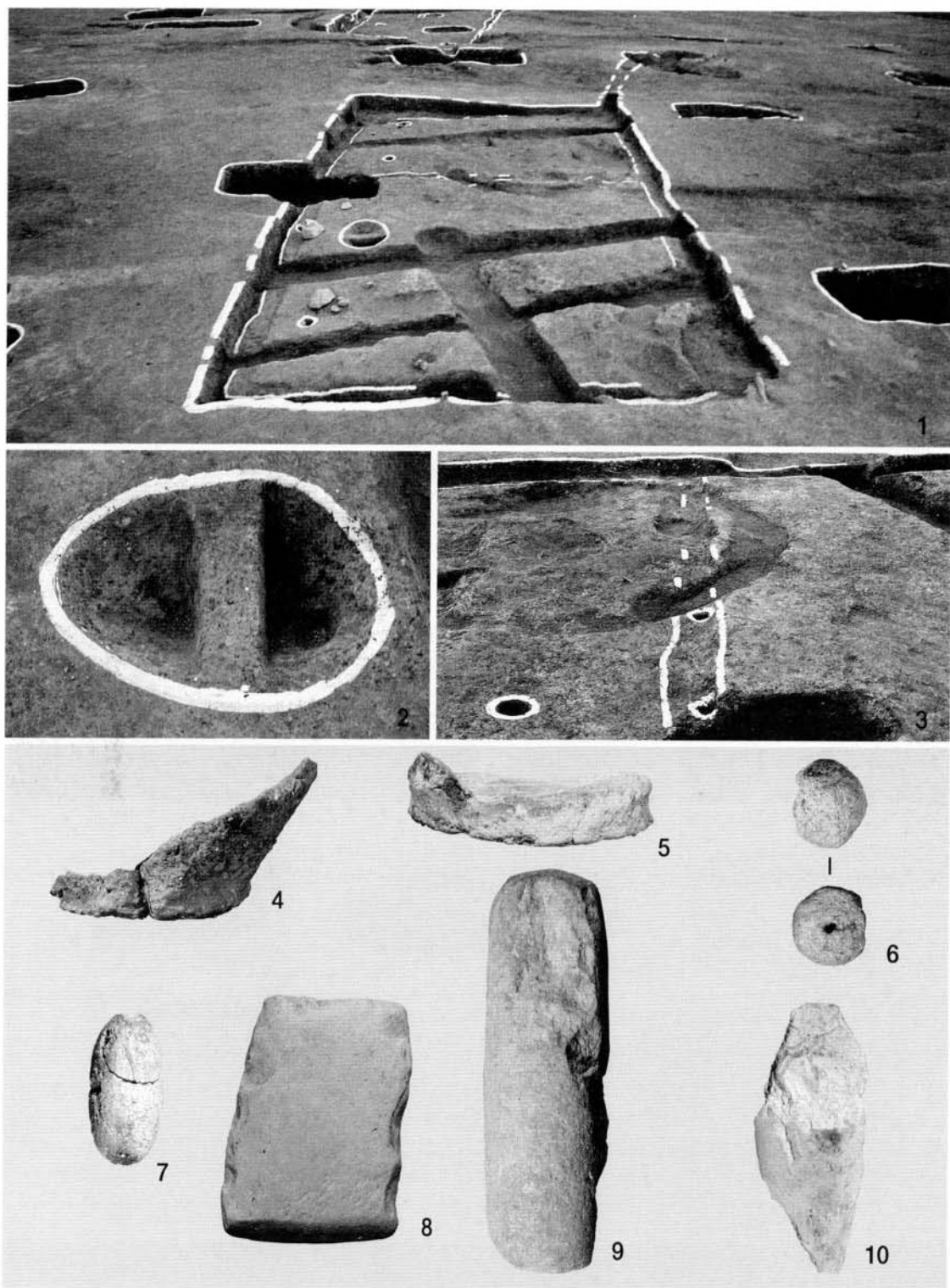
圖版 2. 60號 木棺墓 周邊 全景(1) 및 2號 住居址 周邊 全景(2)



圖版 3. 1號 全景(1), 住居址 柱穴(2), 壁溝內 柱穴(3), 調查前 狀態(4), 壁溝內 柱穴狀態(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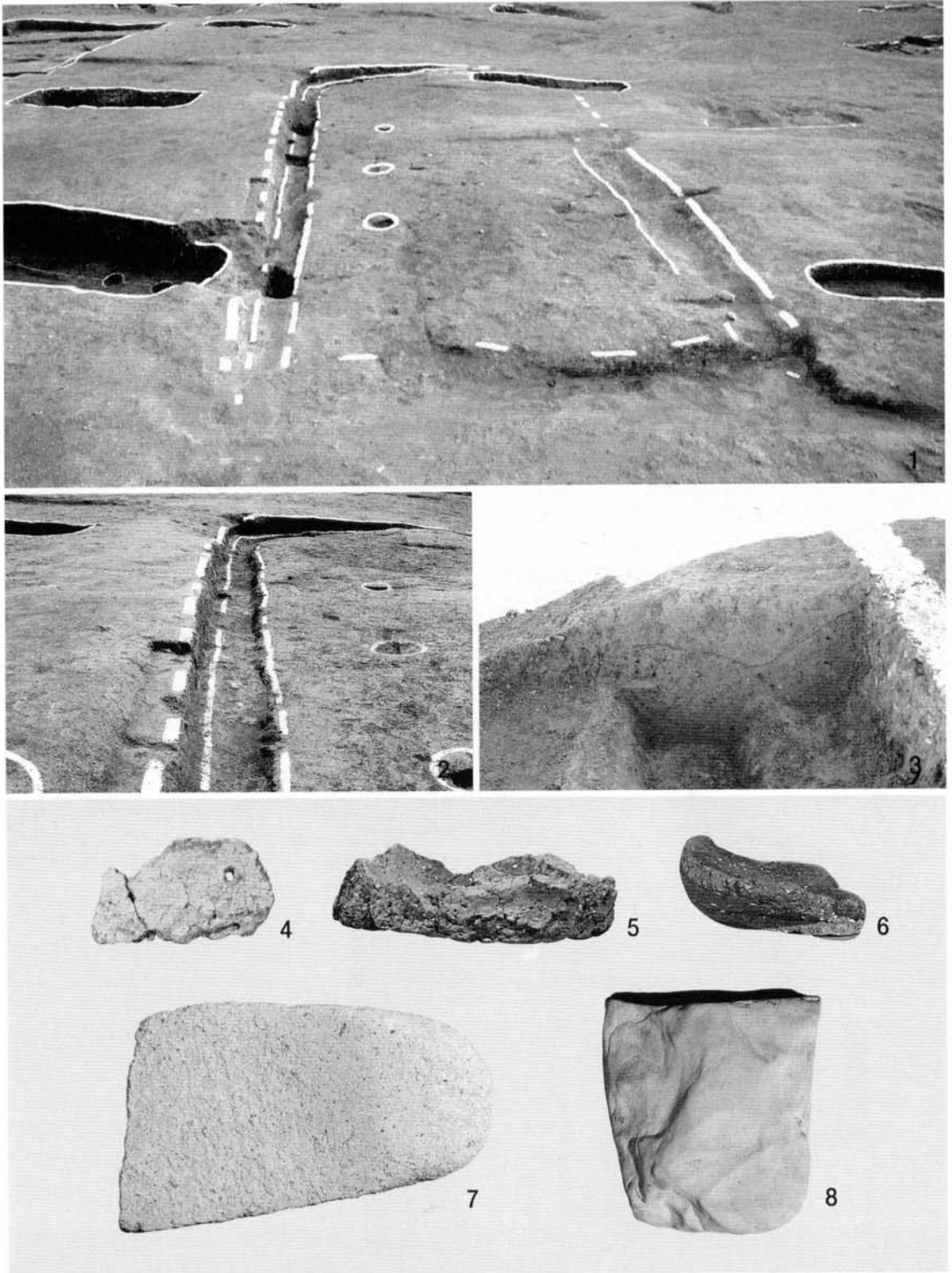


圖版 4. 1號 住居址 短軸 土層(1), 壁溝 及 壁溝內 柱穴 狀態(2, 3), 出土遺物(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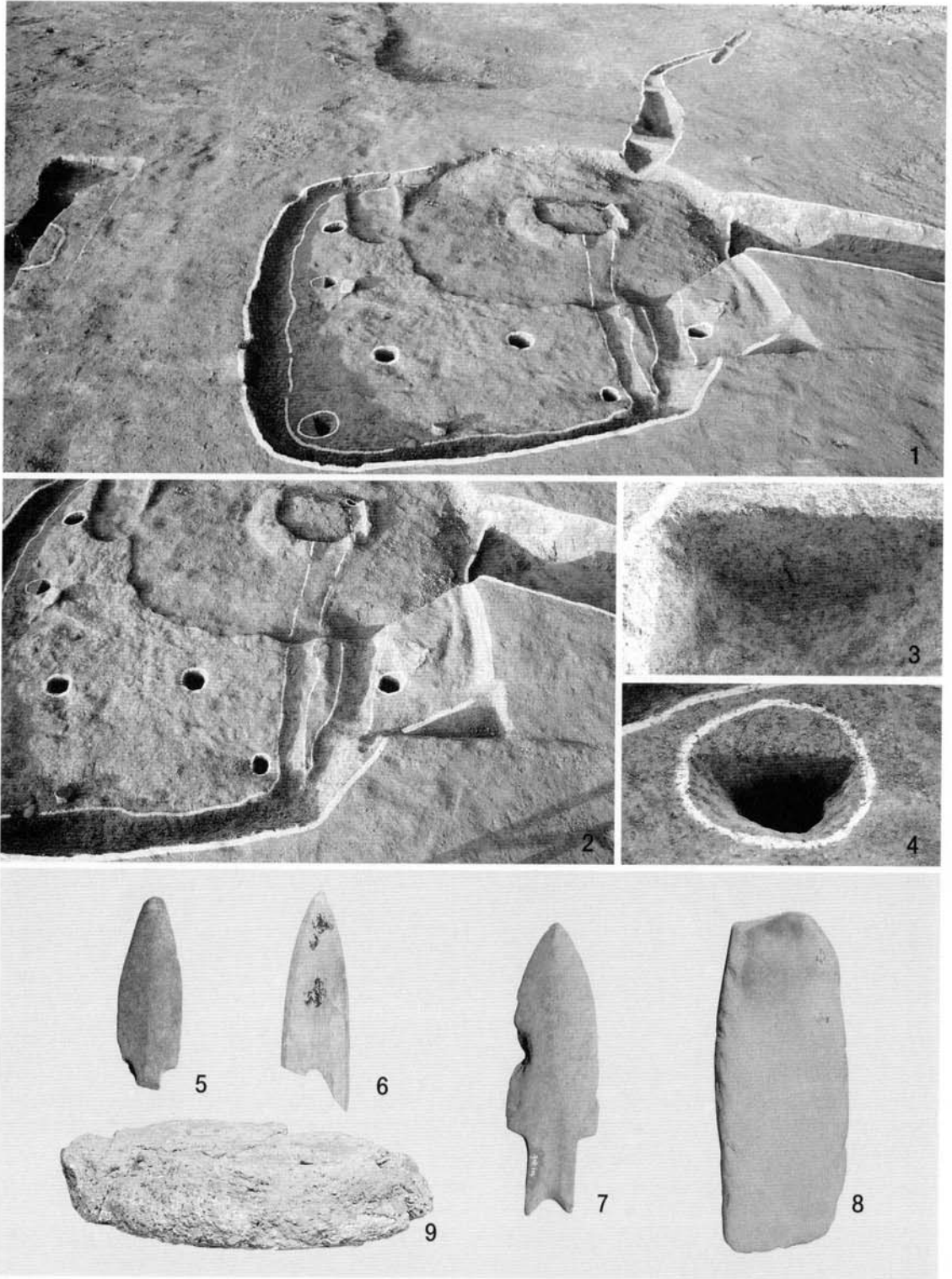


圖版 5. 2號 住居址 全景, 貯藏孔(2), 격벽시설(3), 出土遺物(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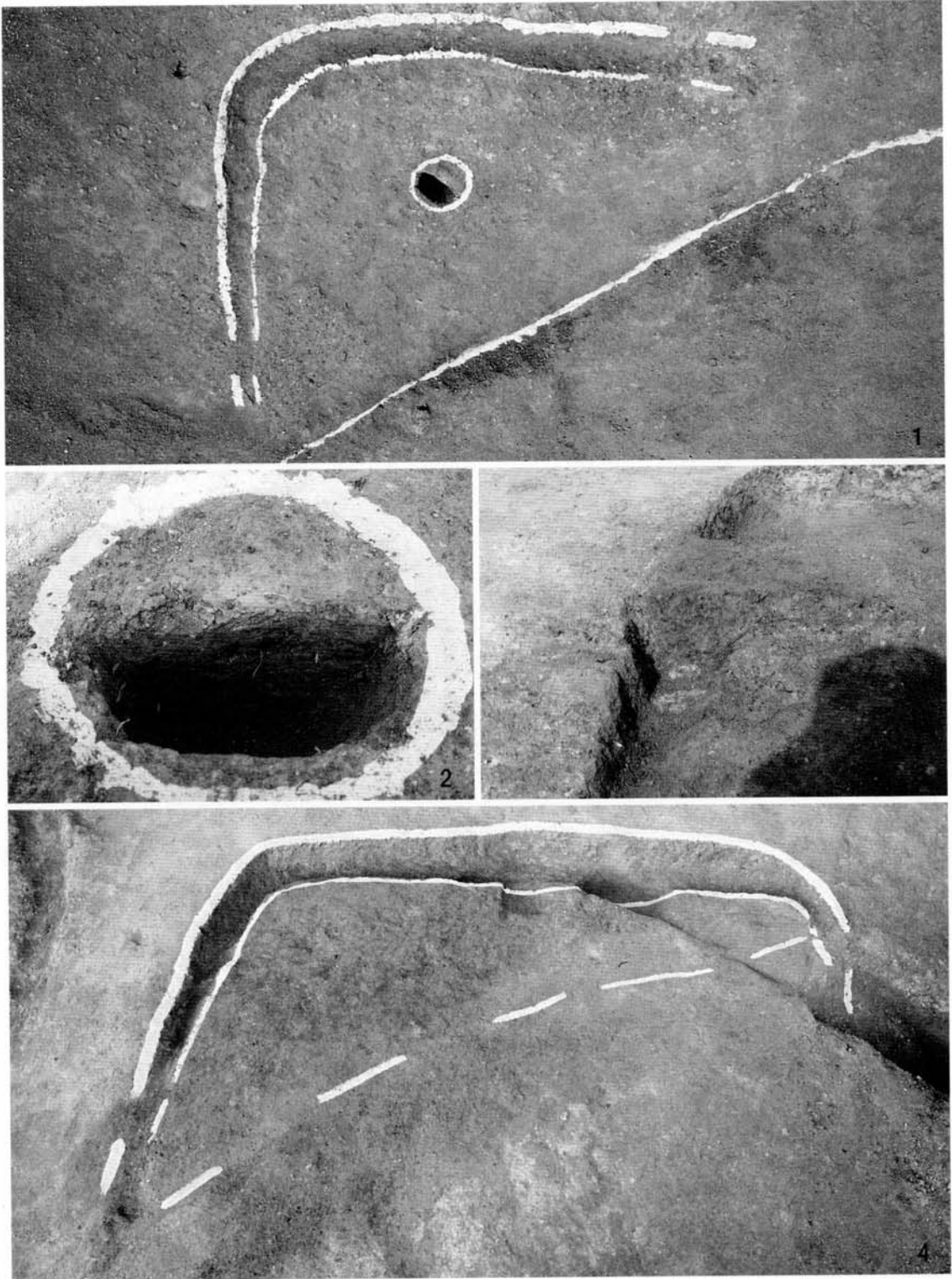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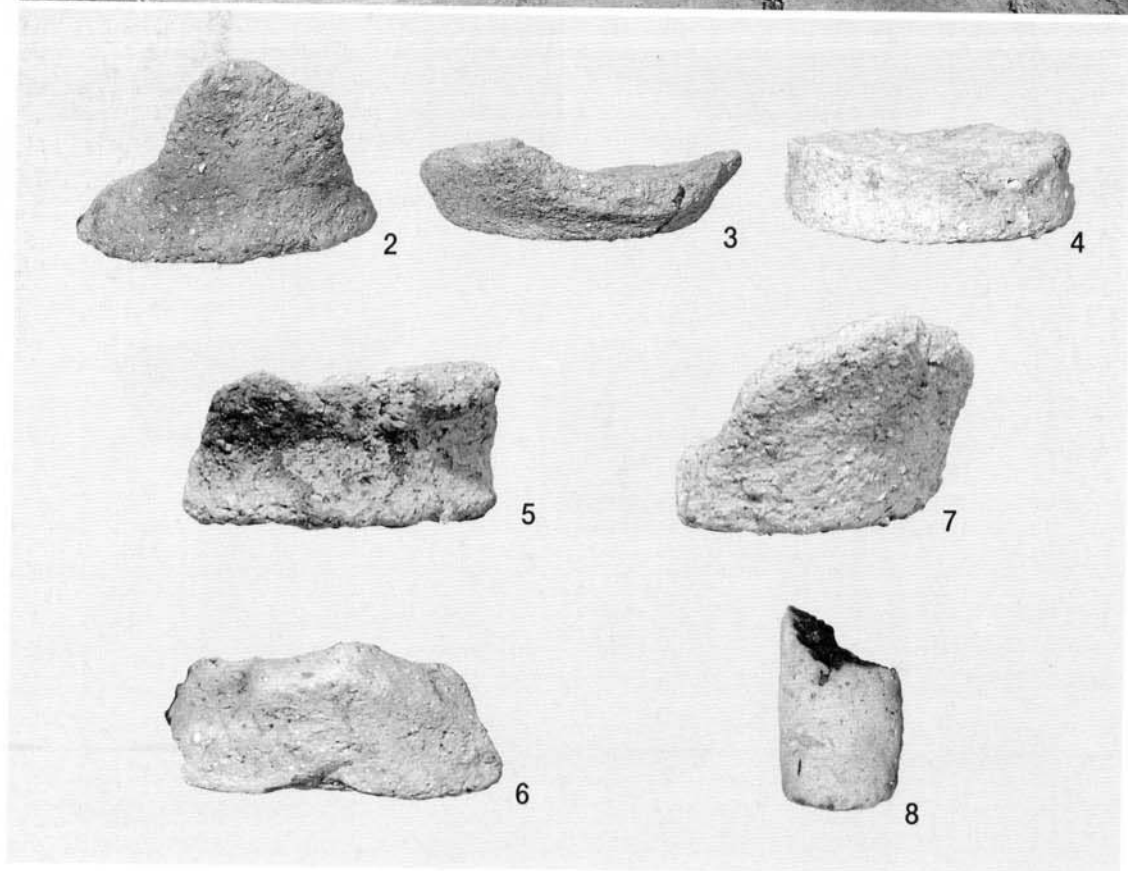
圖版 6. 3號 住居址 全景(1), 壁溝(2), 壁溝內 土層(3), 出土遺物(4~8)



圖版 7. 4, 5號 住居址 全景(2), 5號 住居址 柱穴 及 土層(3, 4), 4號(5), 5號(6~9) 住居址 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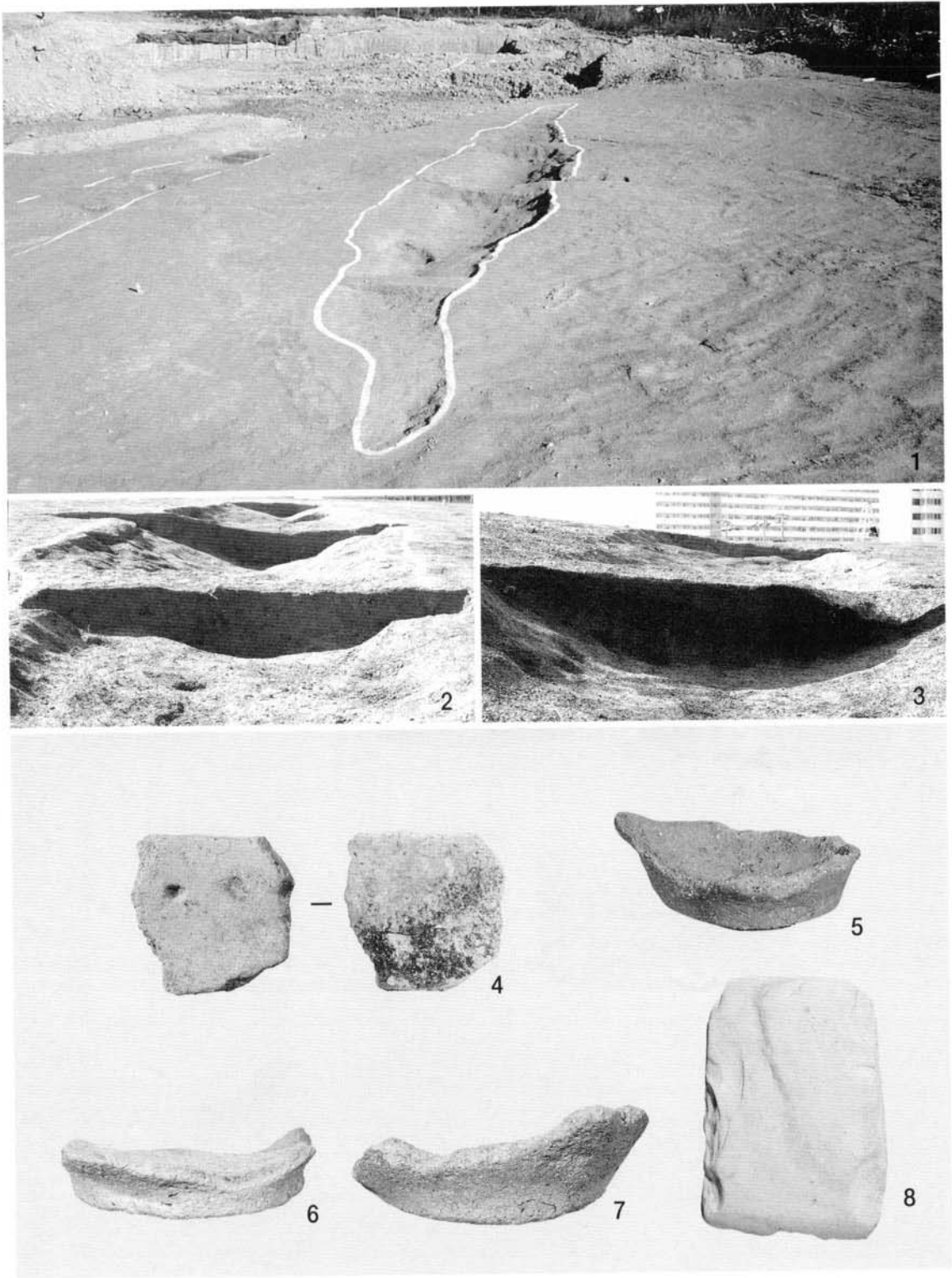


圖版 8. 6號 住居址 全景(1) 及 柱穴(2), 7號 住居址 全景(4) 及 壁溝土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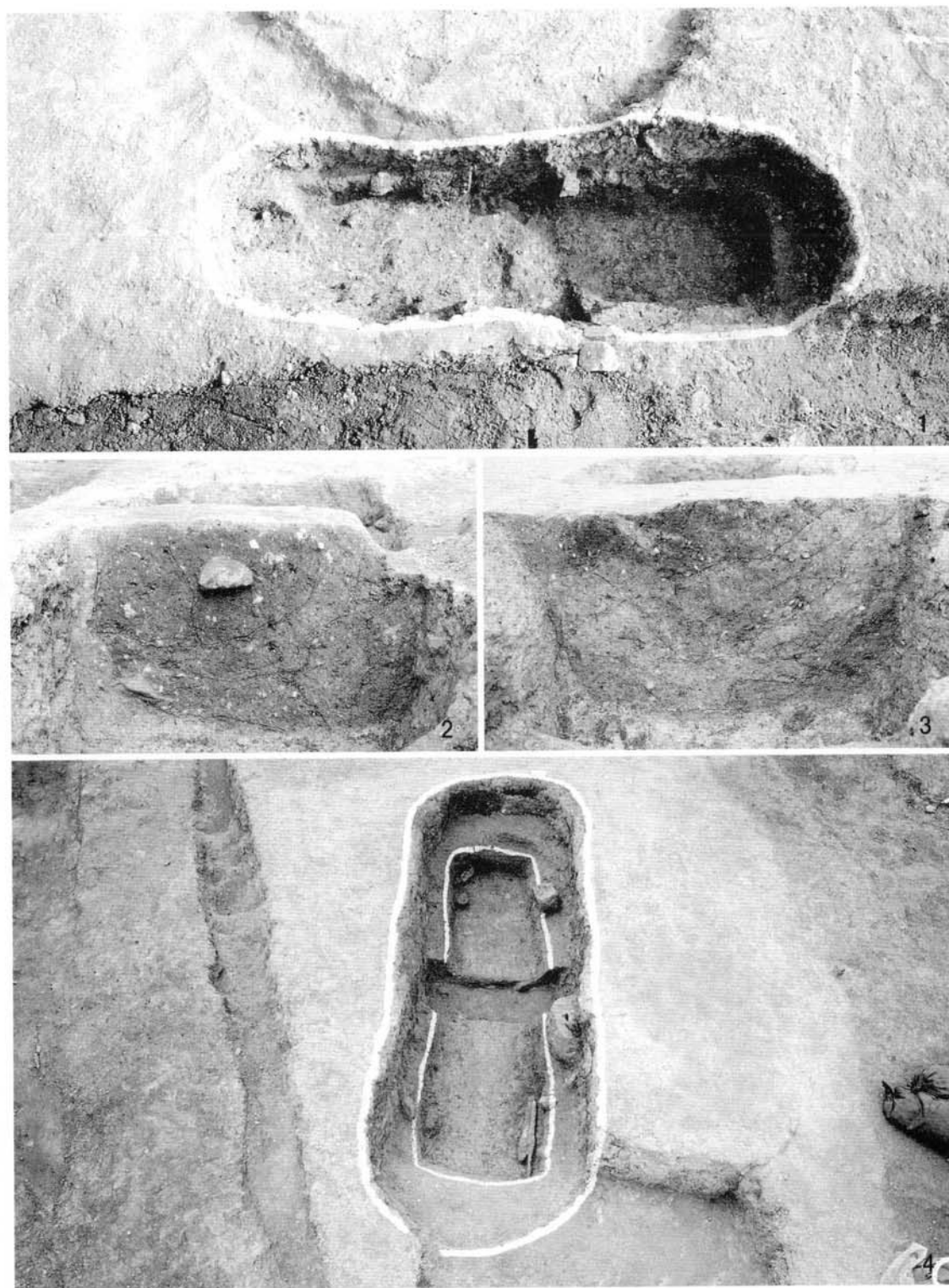


圖版 9. 1號溝 全景(1), 出土遺物(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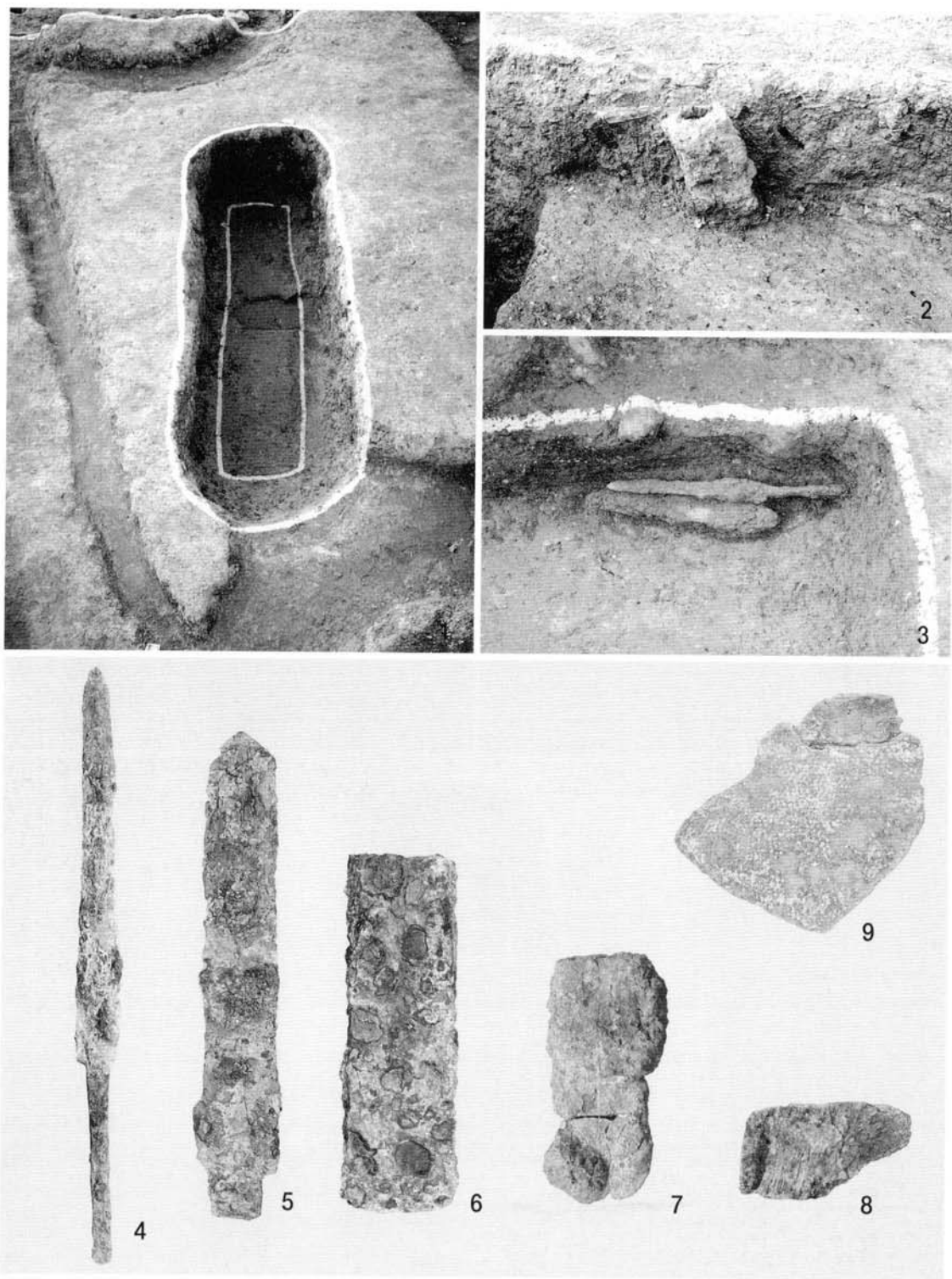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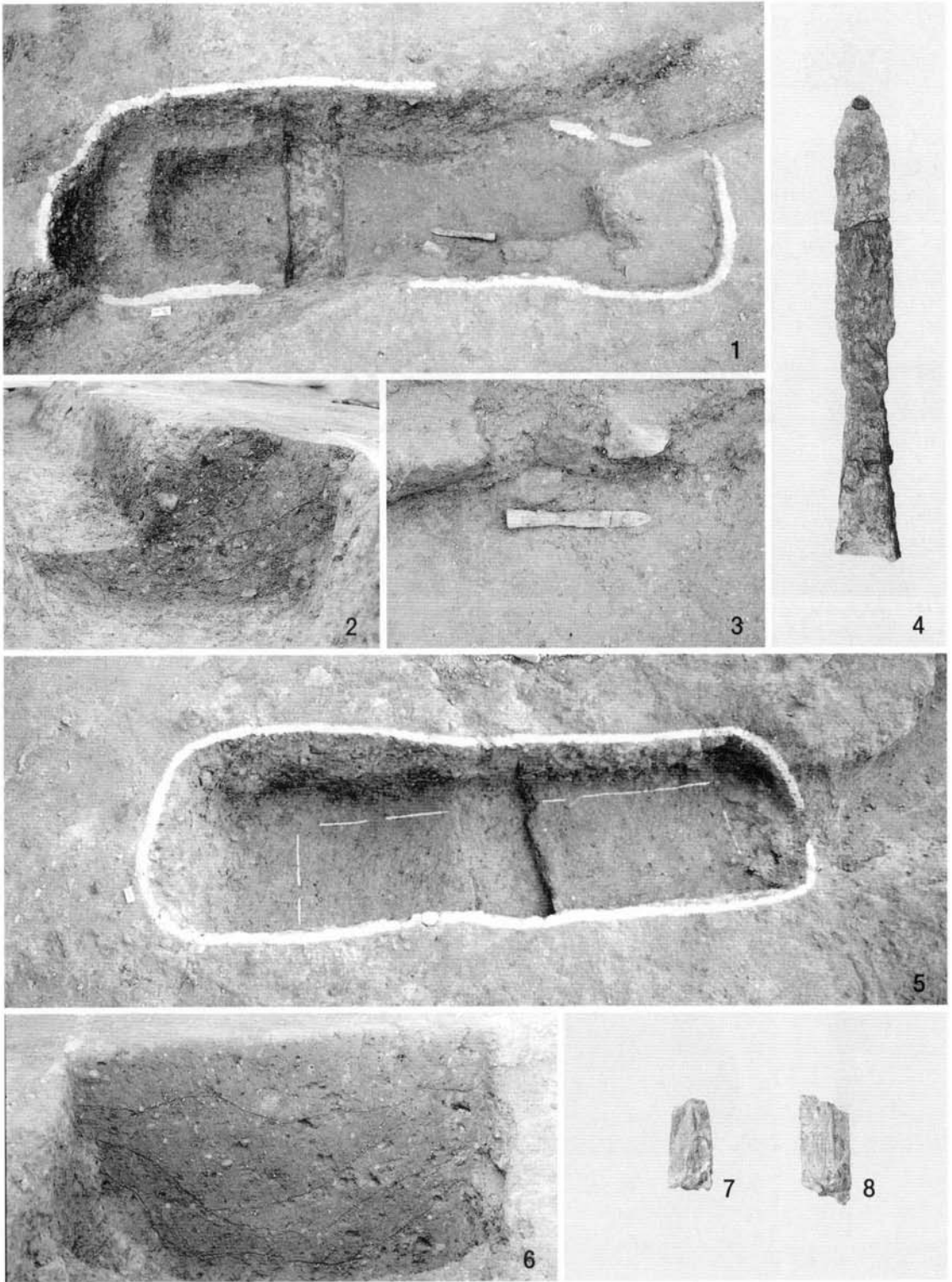
圖版 10. 2號 溝 全景(2), 土層(2, 3), 出土遺物(4~8)



圖版 11. 1號 木棺墓 全景(1), 土層(2), 2號 木棺墓 全景(4), 土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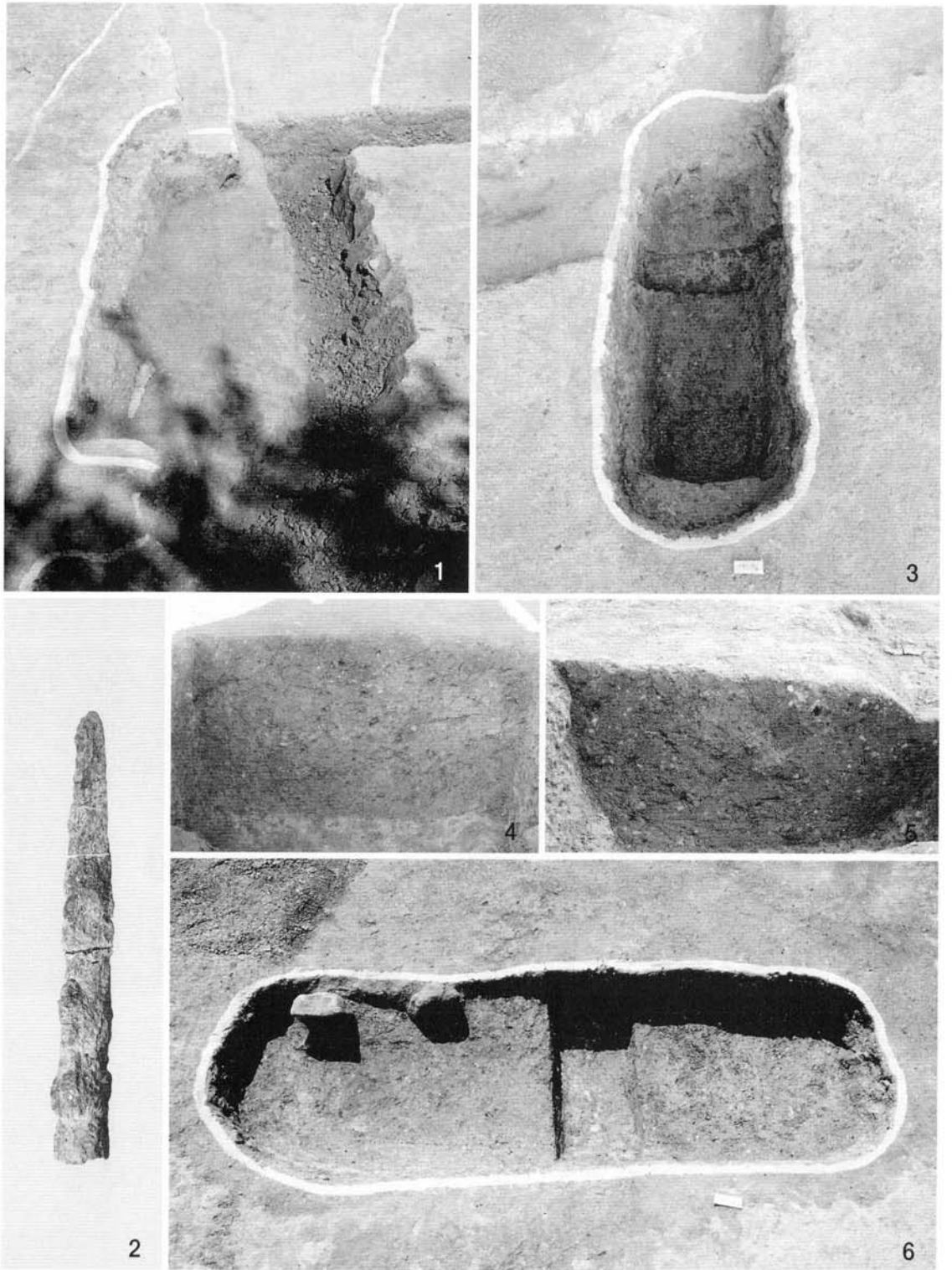


圖版 12. 2號 木棺墓 全景(1), 遺物 出土狀態(2, 3), 出土遺物(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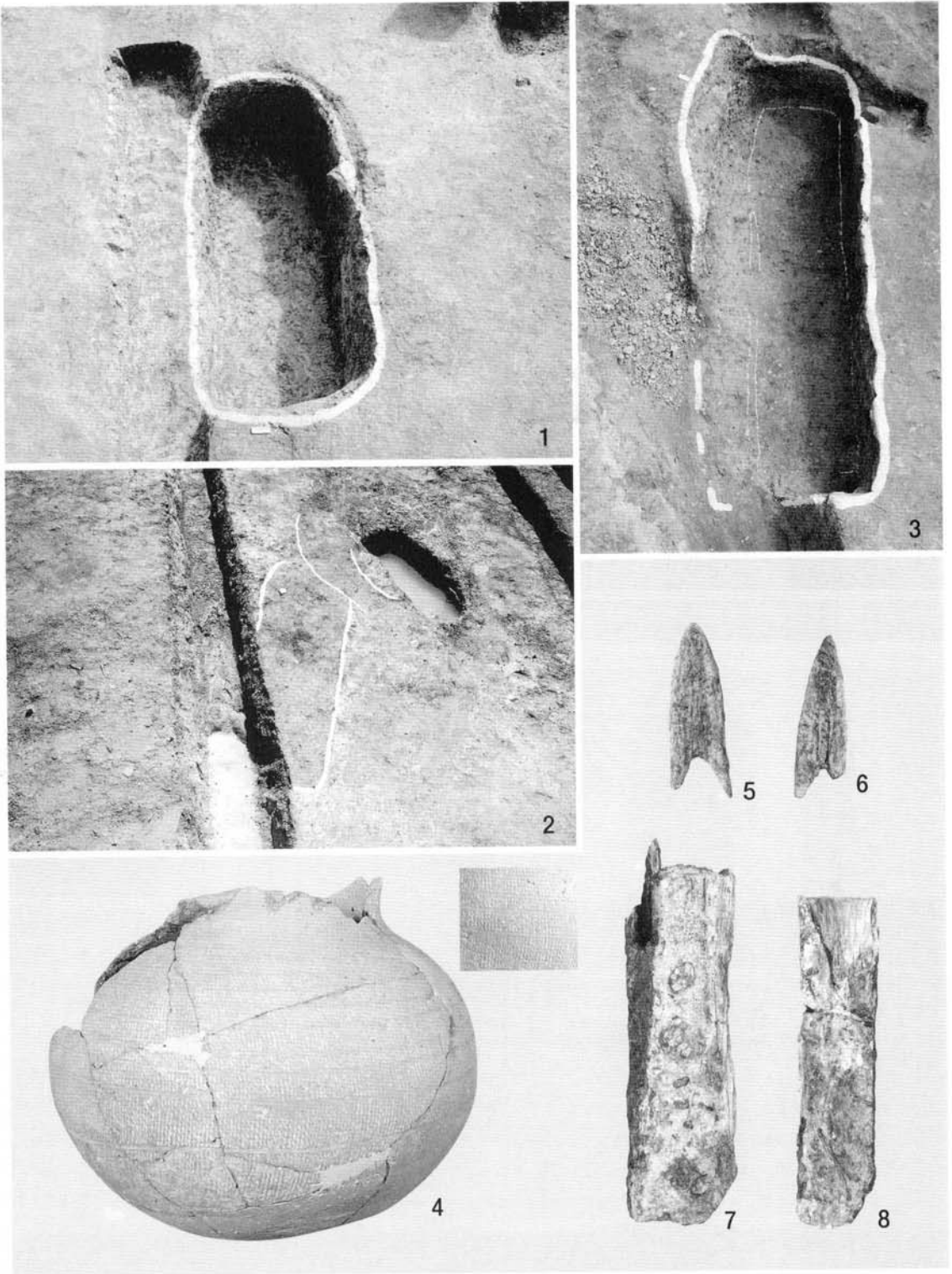


圖版 13. 3號 木棺墓 遺構 及 遺物(1~4), 4號 木棺墓 遺構 及 遺物(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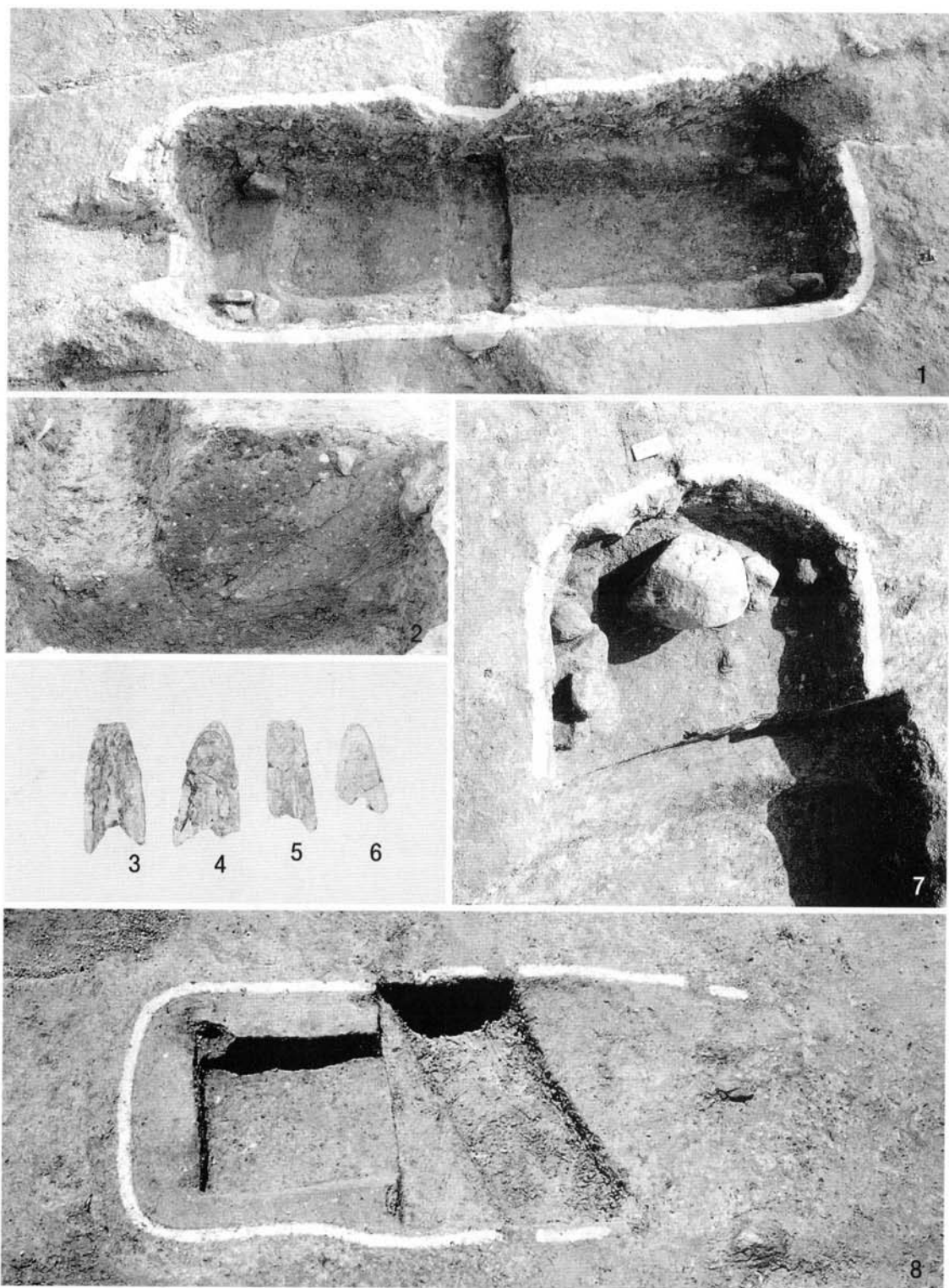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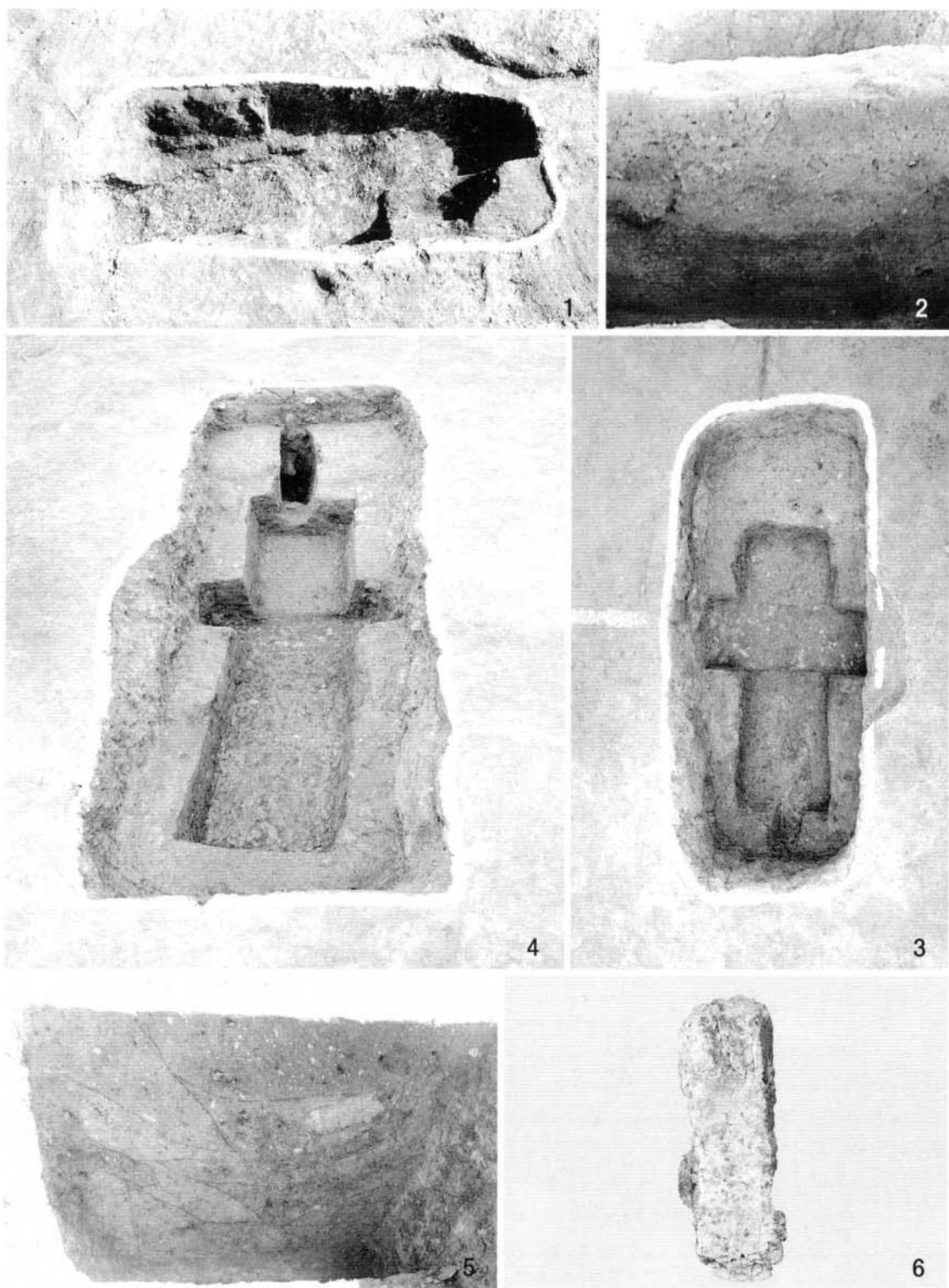
圖版 14. 5號 木棺墓 遺構 及 遺物(1, 2), 6號 木棺墓(5, 6), 7號 木棺墓(3, 4)



版 15. 8號 木棺墓 全景(1), 9號 木棺墓 全景(2, 3) 및 出土遺物(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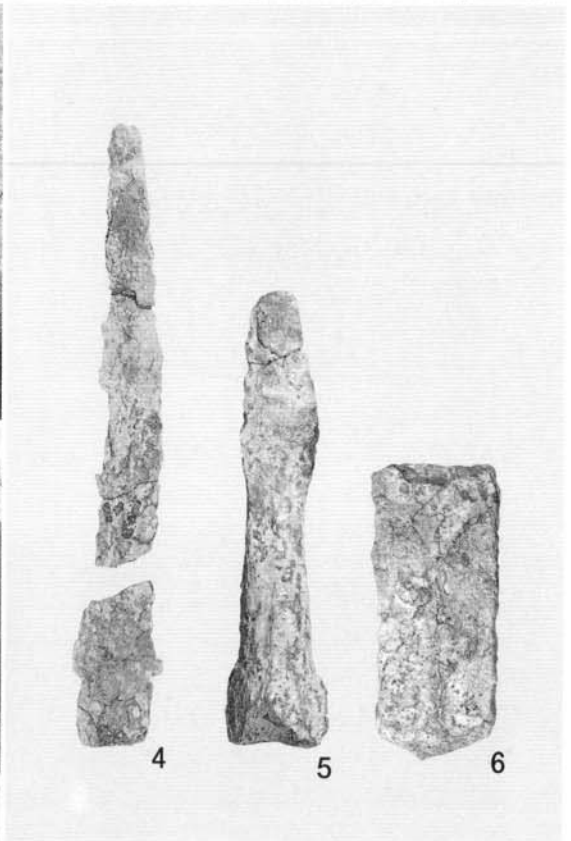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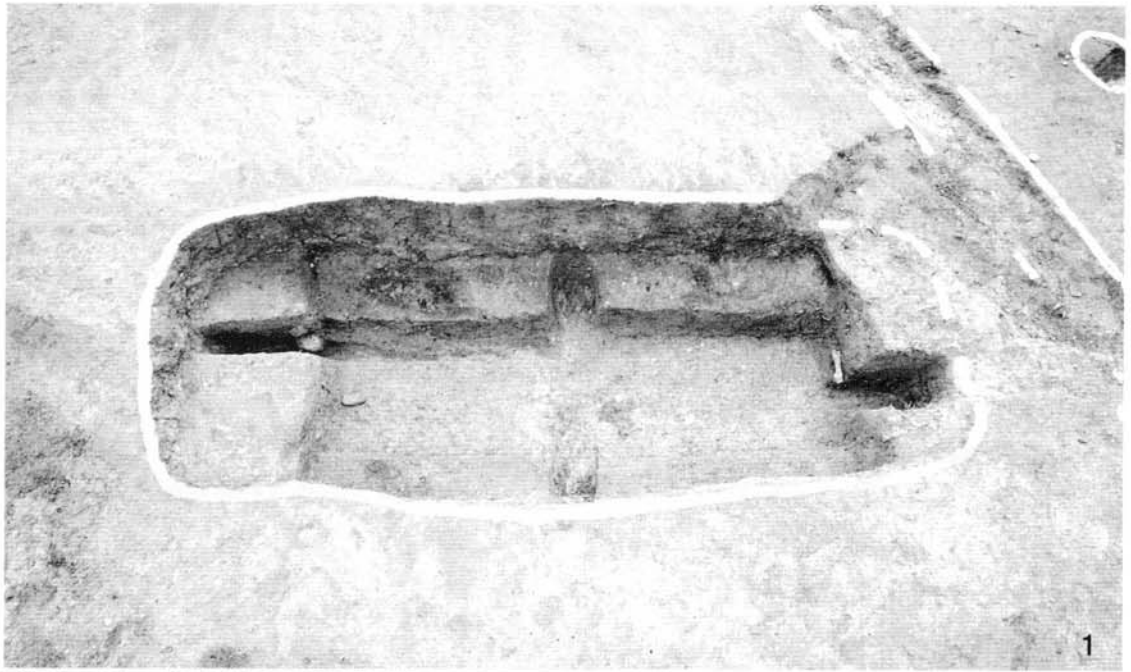


圖版 16. 10號 木棺墓 遺構 及 遺物(1~6), 11號 木棺墓 全景(8), 12號 木棺墓 全景(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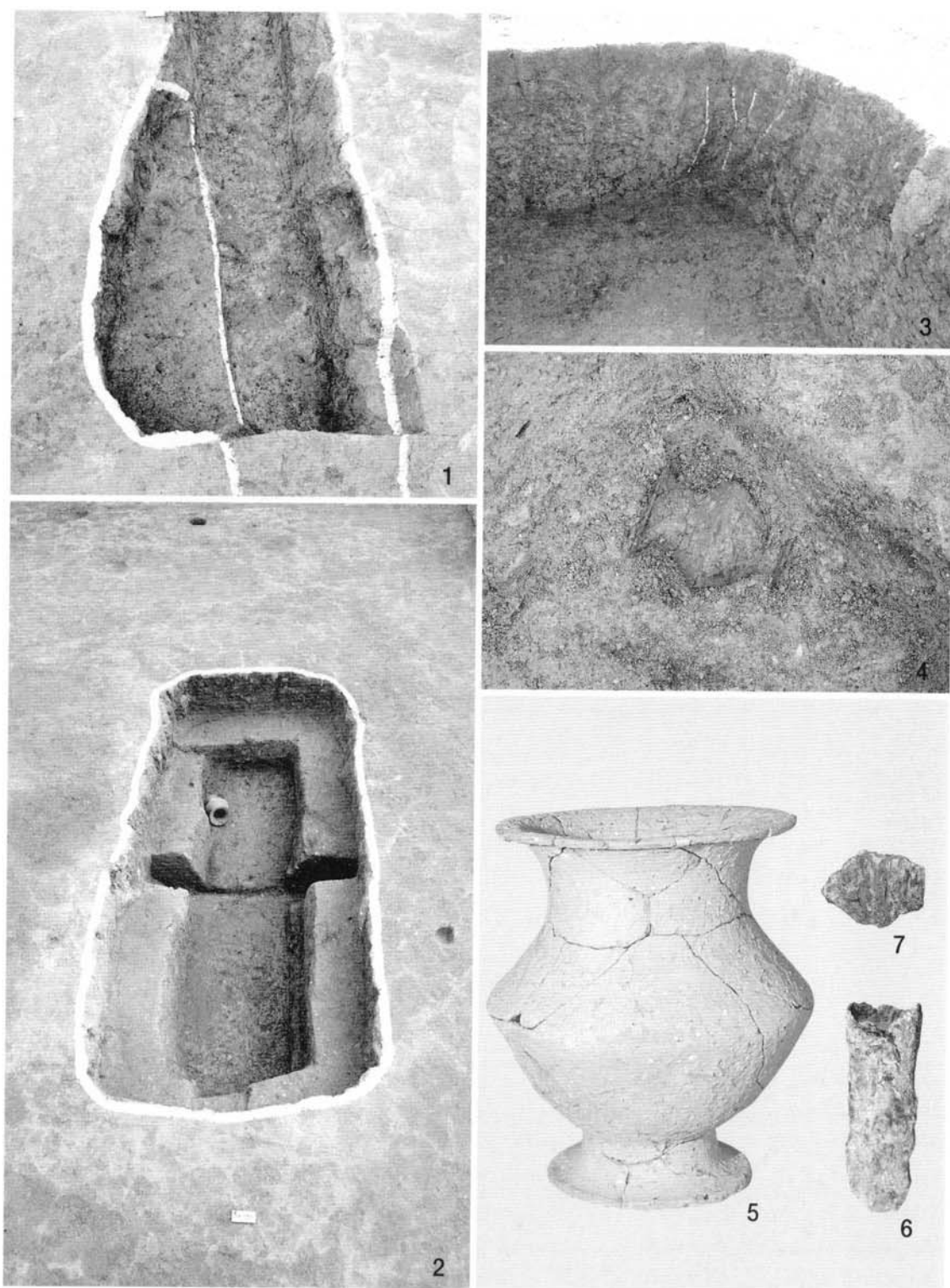


圖版 17. 13號 木棺墓 全景(1), 14號 木棺墓(2, 3), 15號 木棺墓(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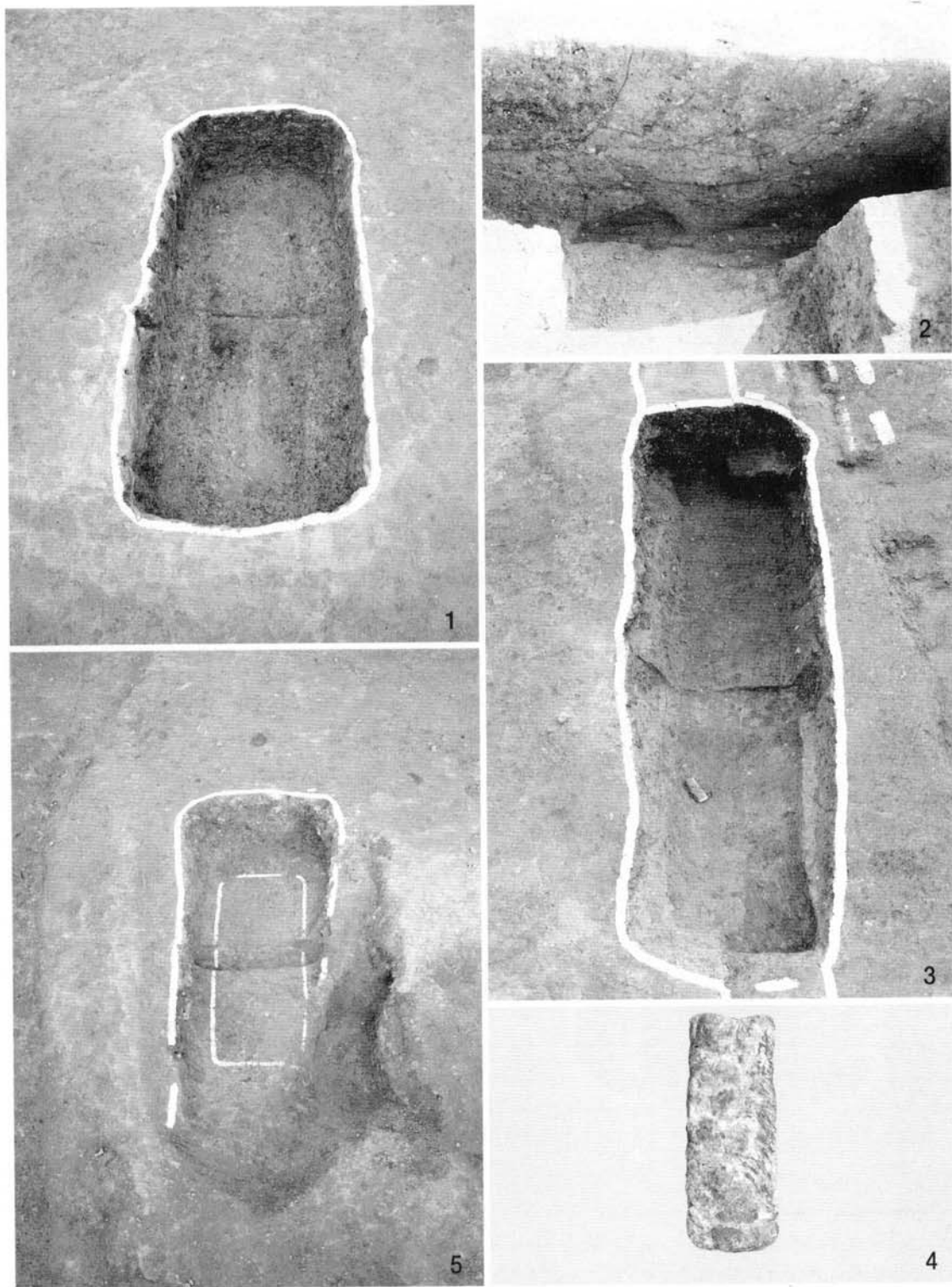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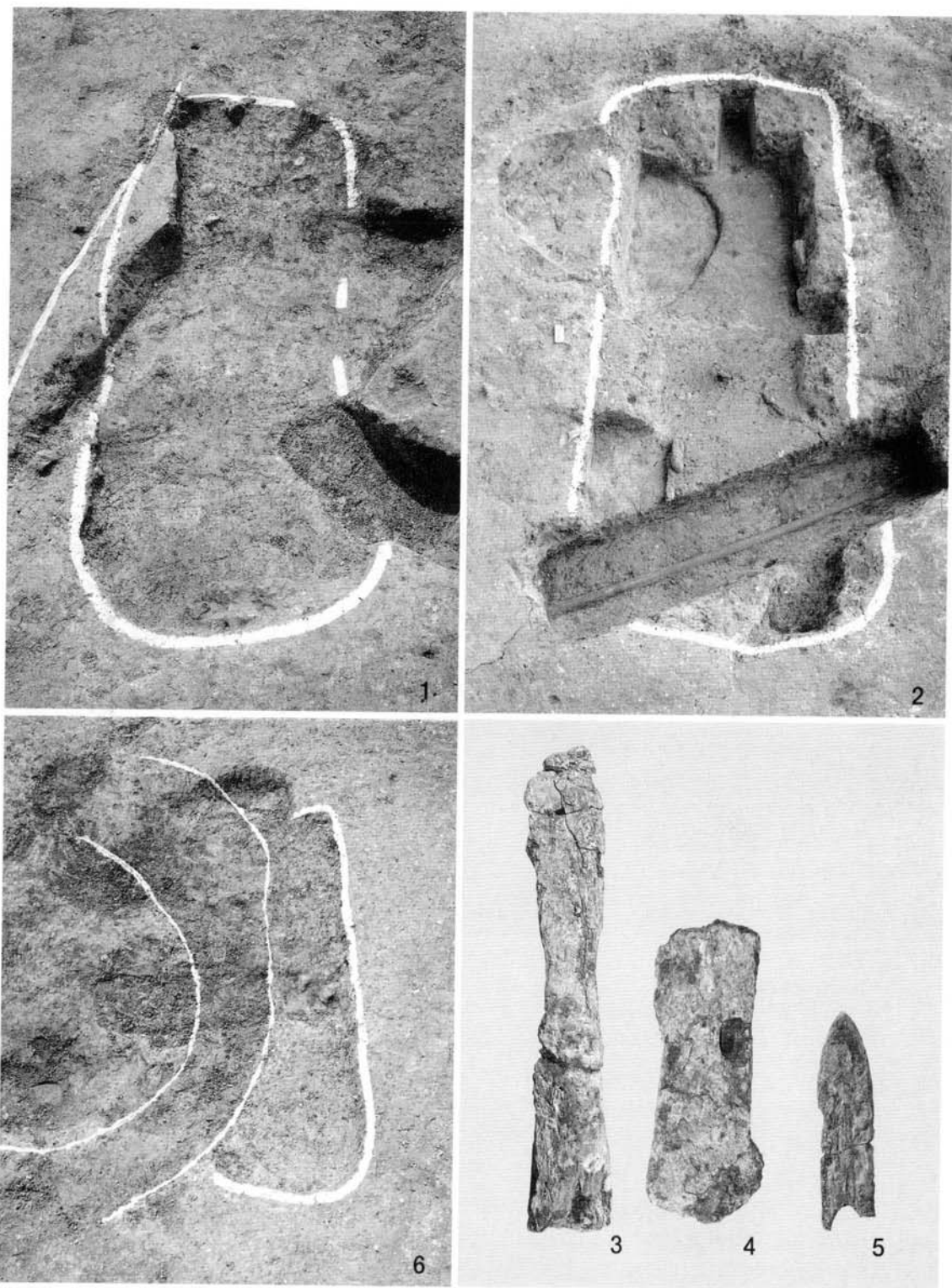
圖版 18. 16號 木棺墓 全景(1), 遺物出土狀態 및 土層(2, 3), 出土遺物(4~6)



圖版 19. 17號 土墳墓 全景(1), 18號 木棺墓 全景(2), 掘地具痕(3) 遺物出土狀態(4) 遺物(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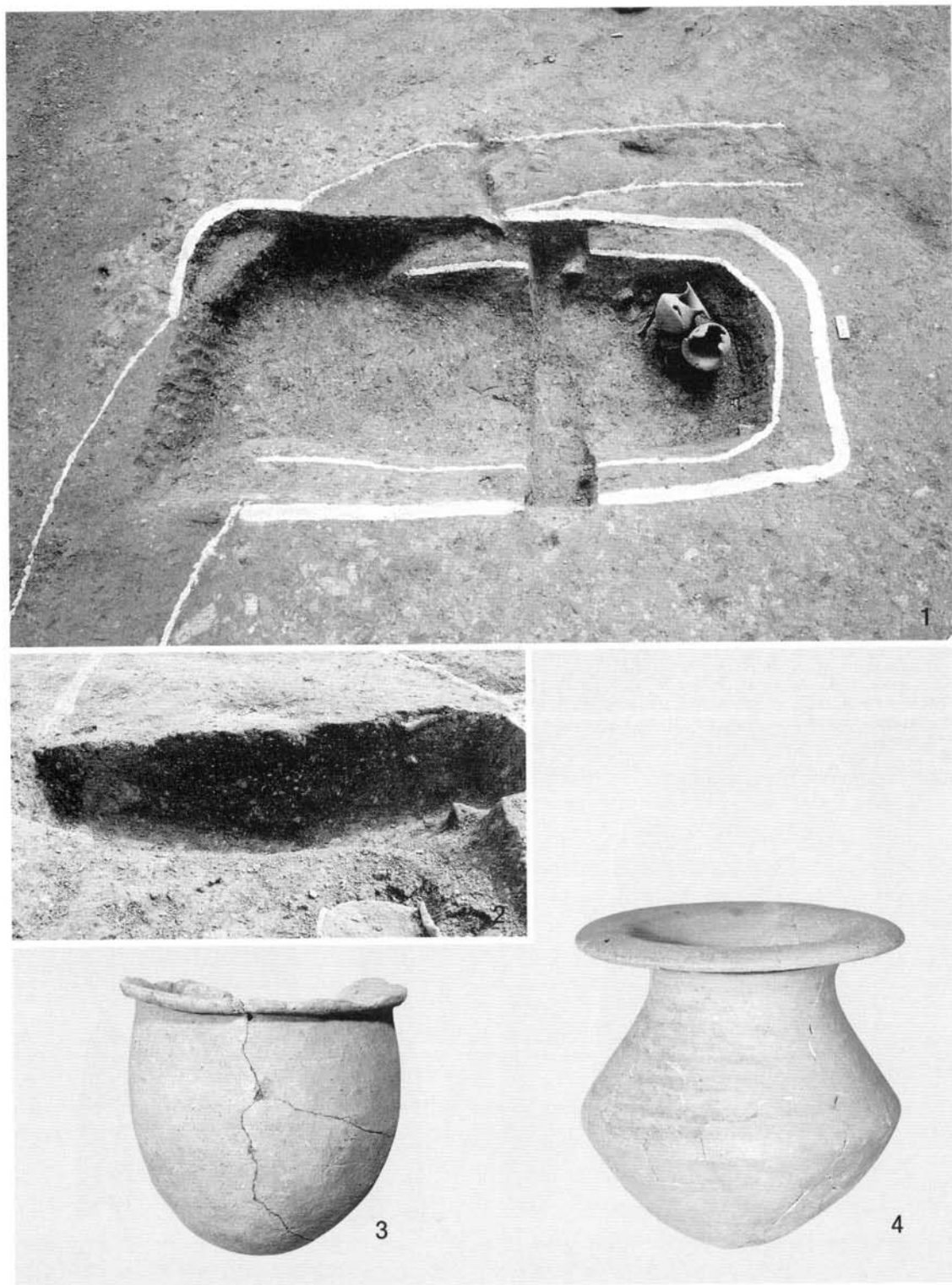


圖版 20. 18號 木棺墓 全景(1), 19號 木棺墓遺構 及 遺物(2~4), 20號 木棺墓 全景(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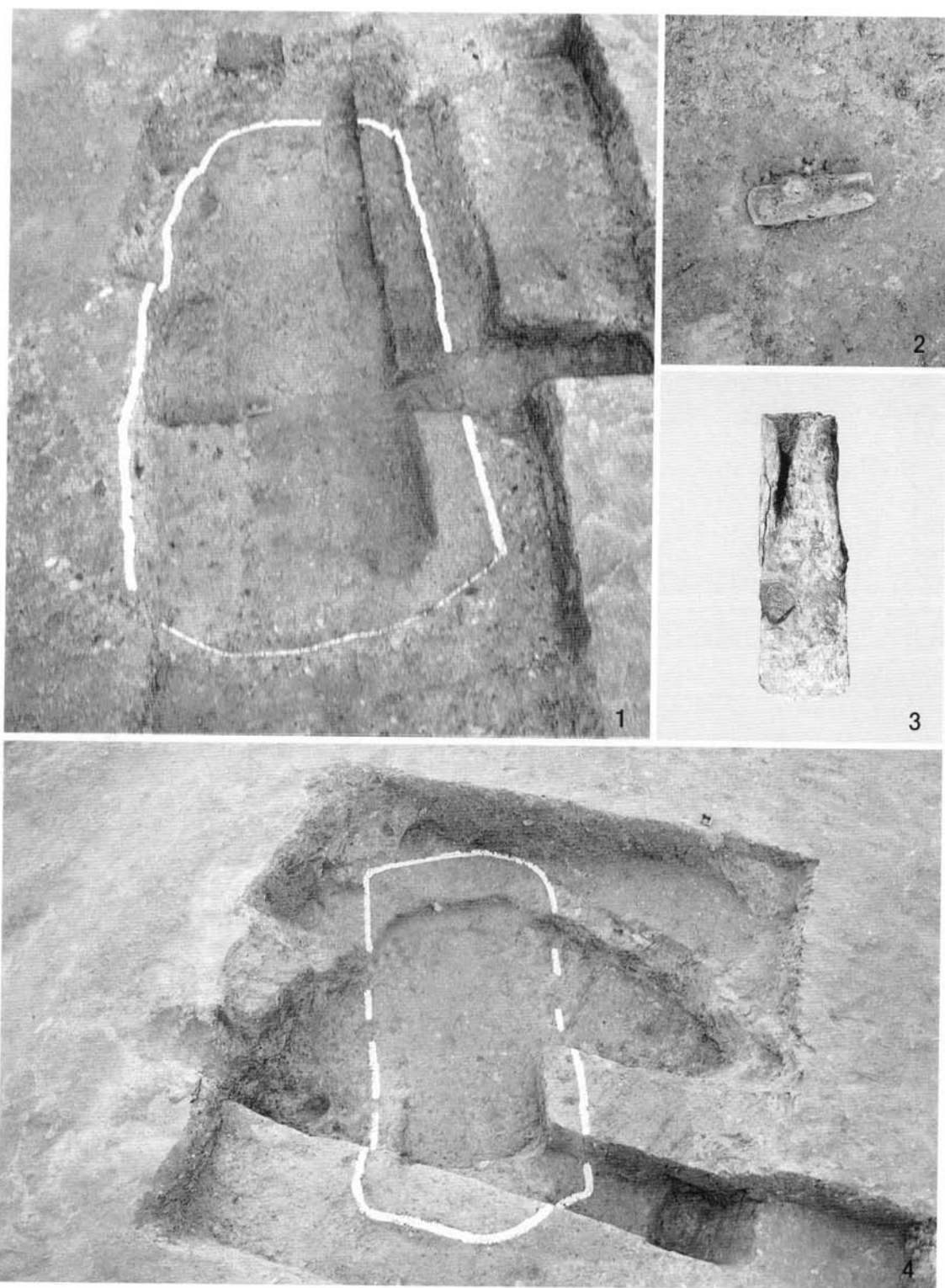


圖版 21. 21號 木棺墓 全景(1), 22號 木棺墓 全景 及 出土遺物(2~5), 23號 土壙墓 全景(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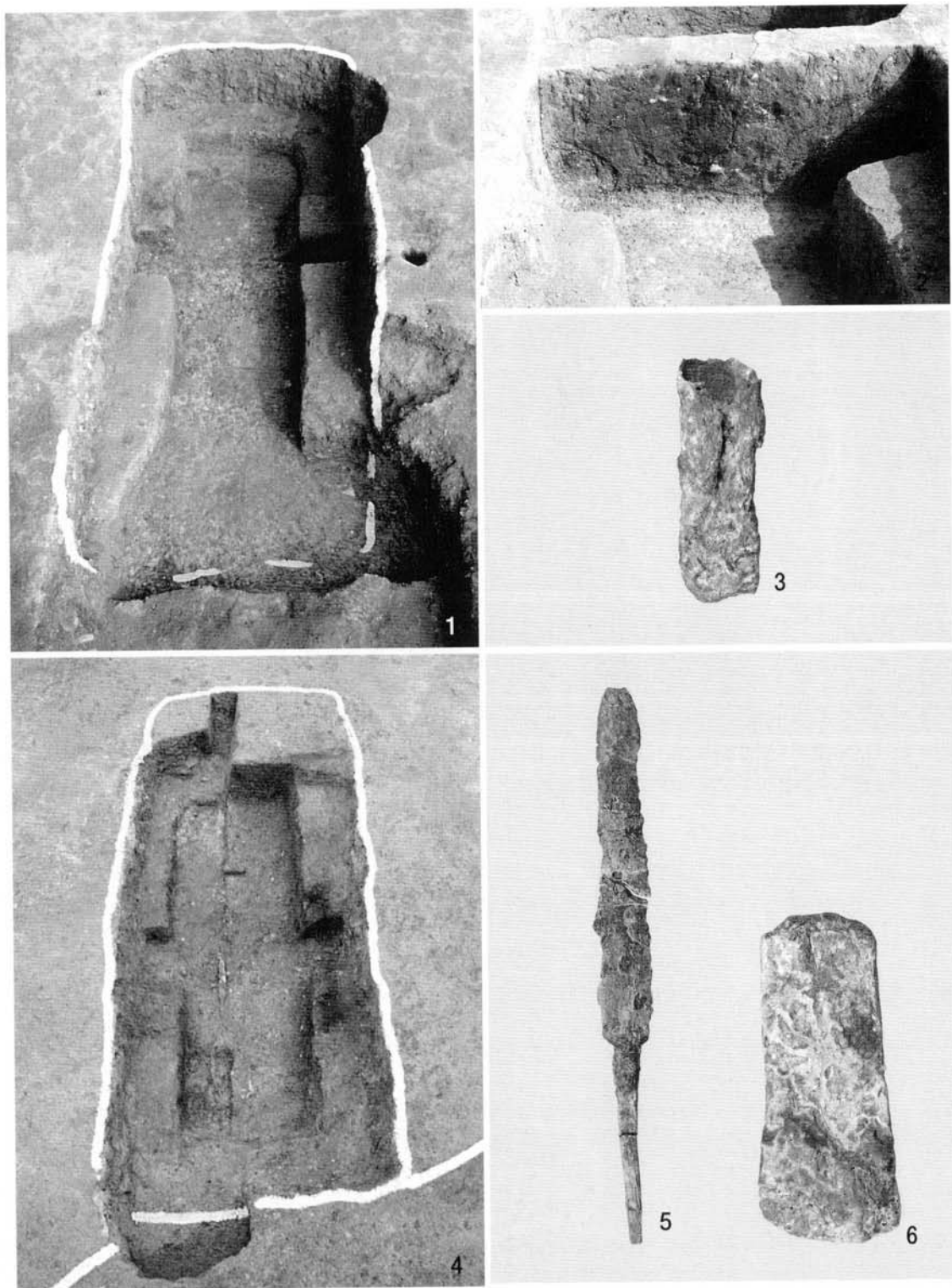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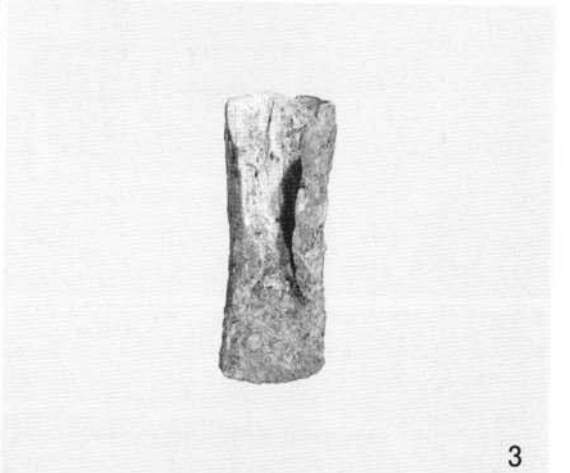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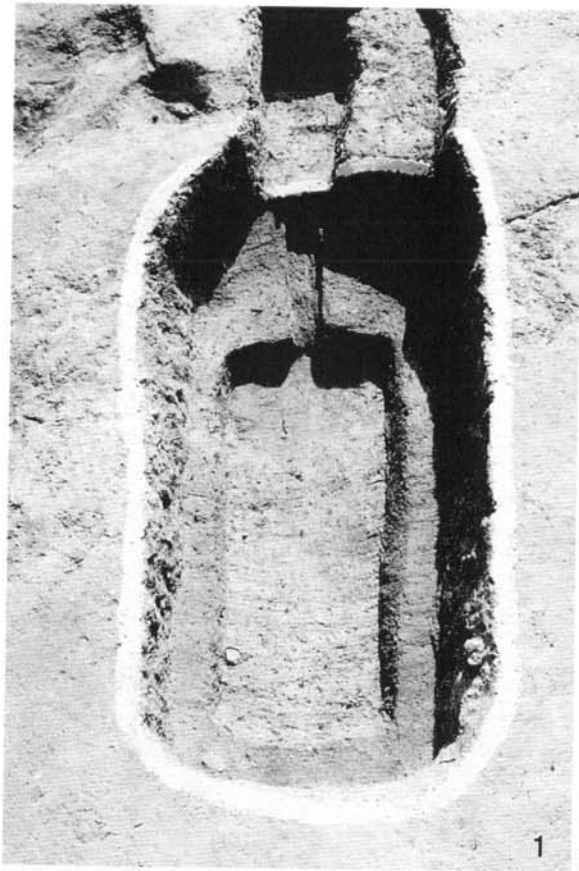
圖版 22. 24號 木棺墓 全景(1), 土層(2), 出土遺物(3, 4)



圖版 23. 25號 木棺墓 全景(1), 遺物出土狀態 (2) 出土遺物(3), 26號 木棺墓 全景(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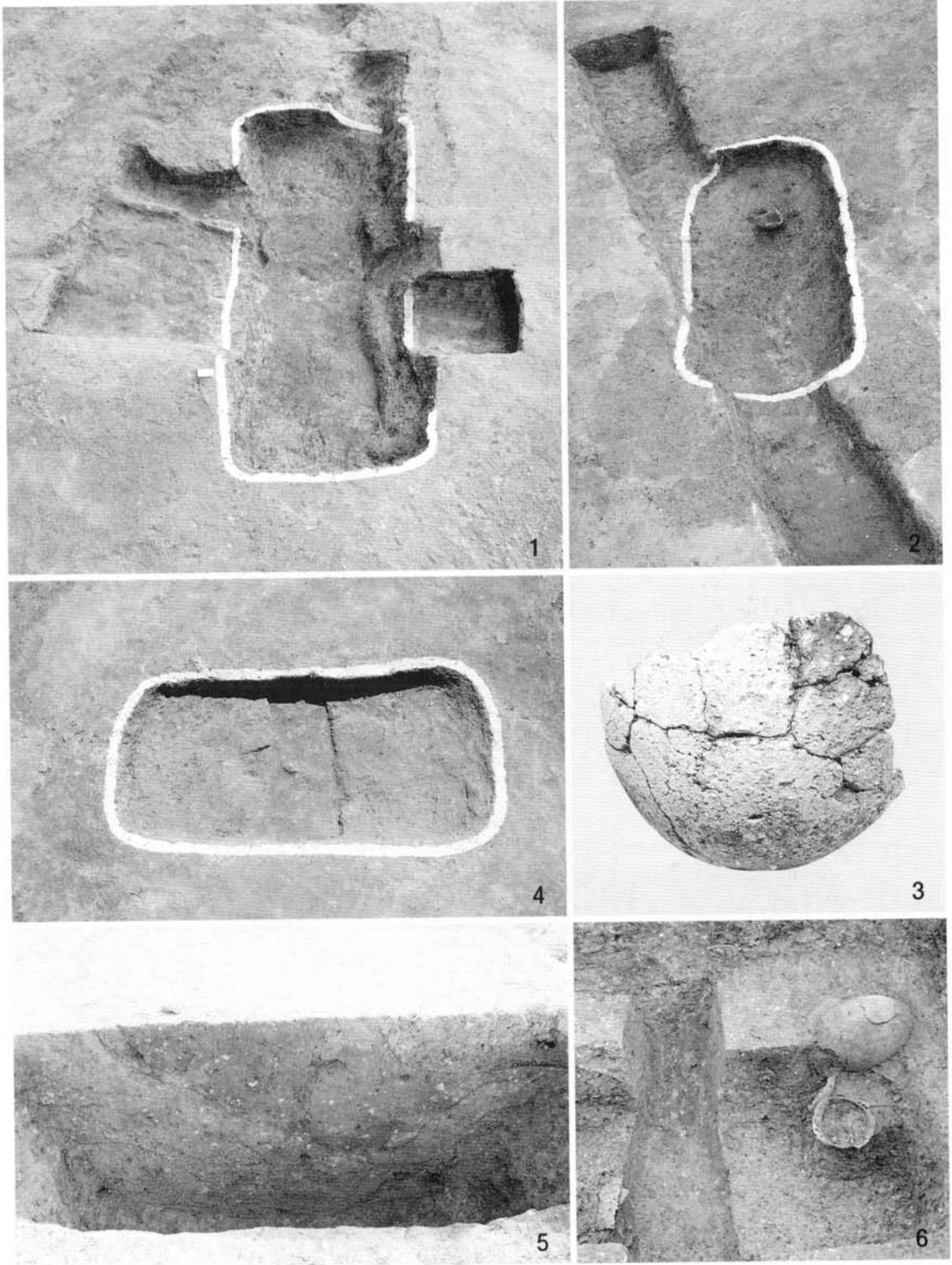


圖版 24. 27號 木棺墓 全景 및 出土遺物(1~3), 28號 木棺墓 全景 및 出土遺物(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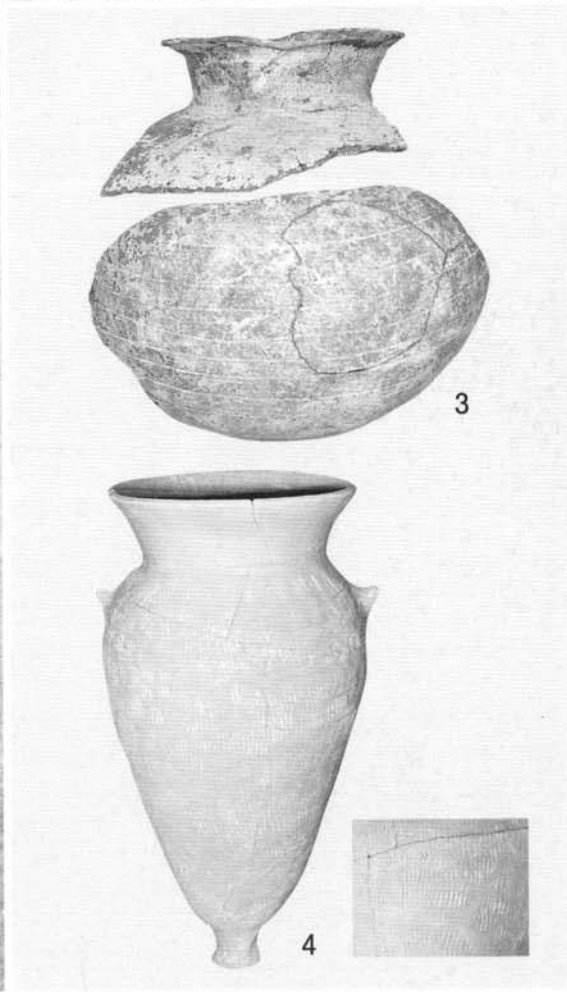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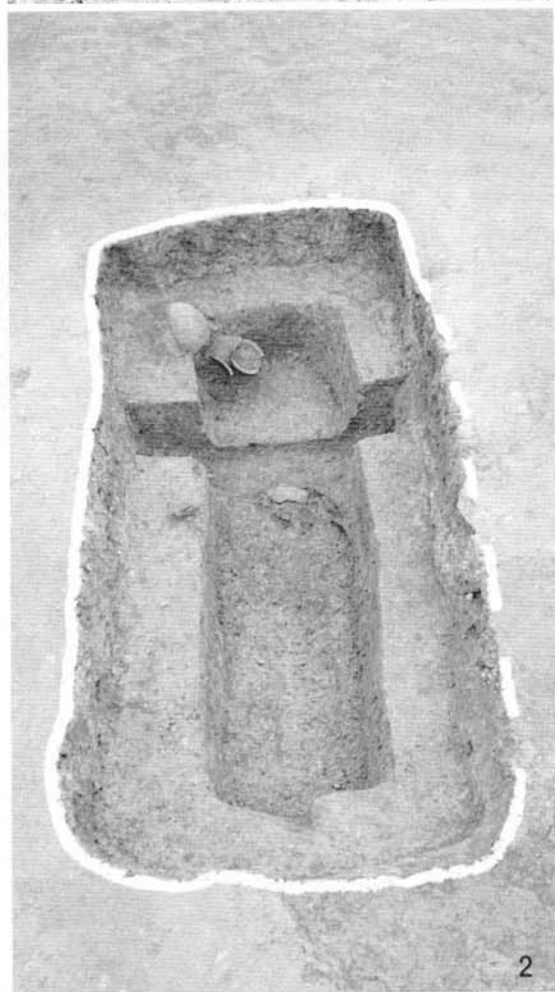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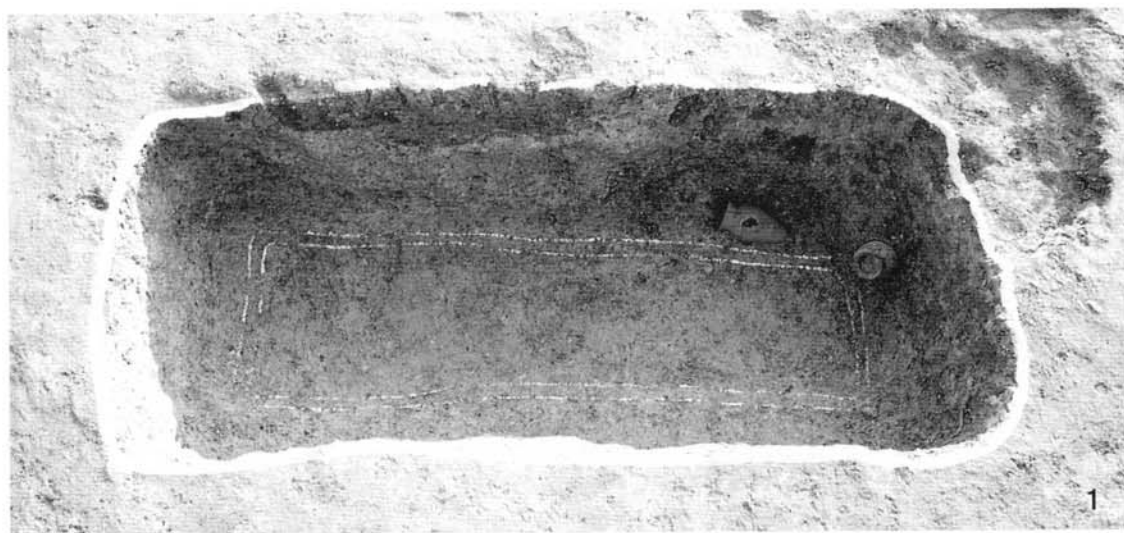


圖版 25. 29號 木棺墓(1, 2), 30號 木棺墓 全景(4), 出土遺物(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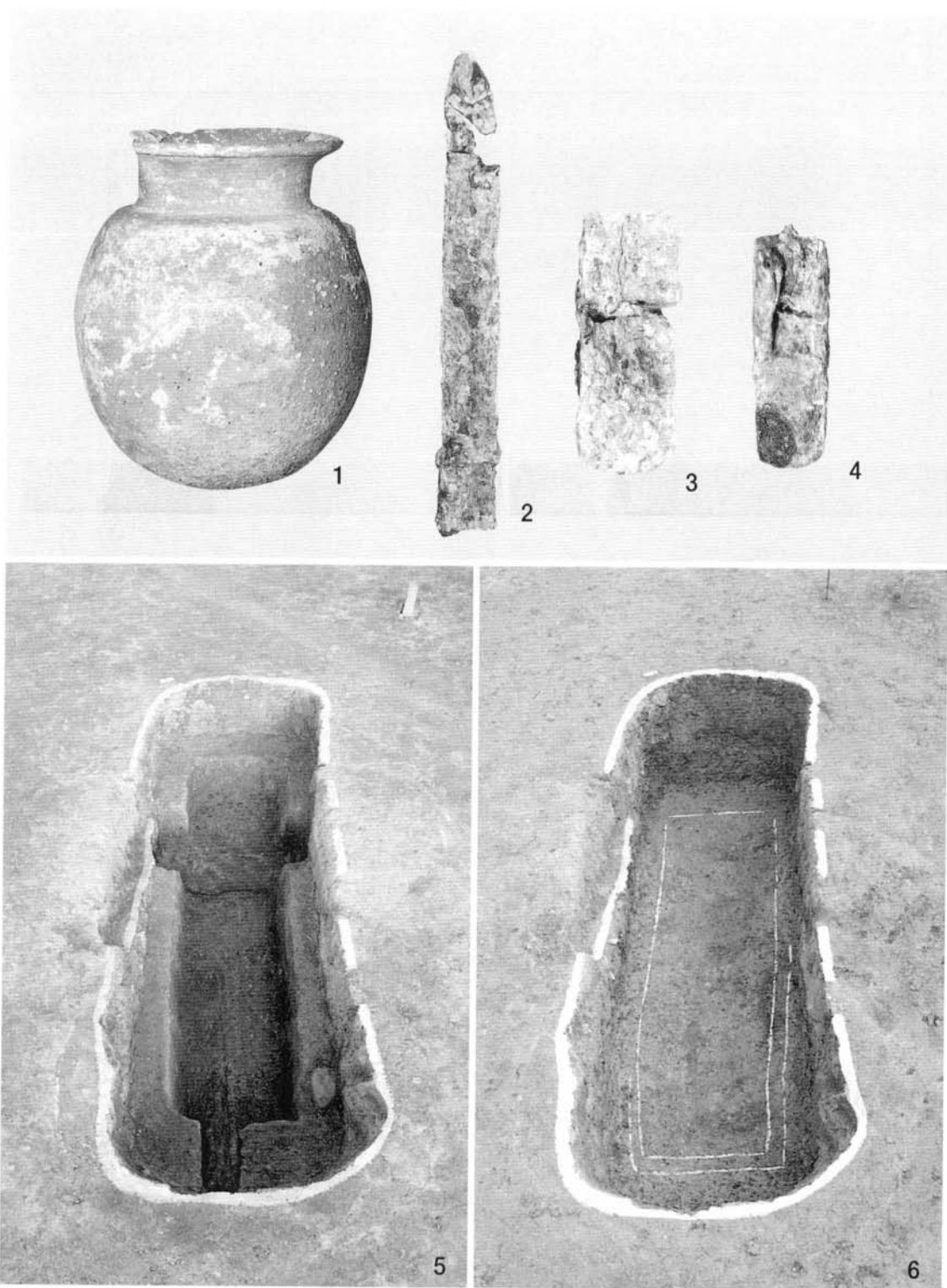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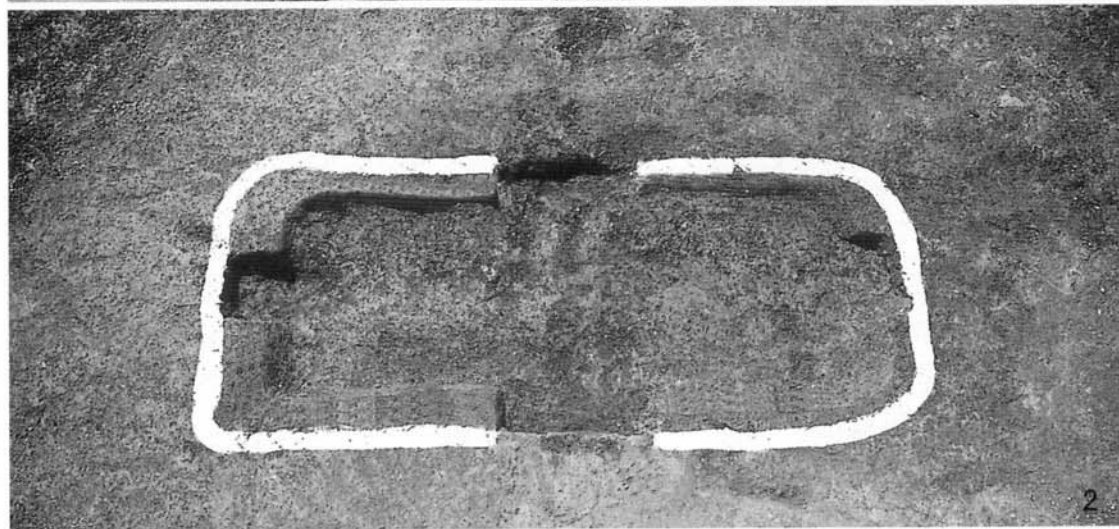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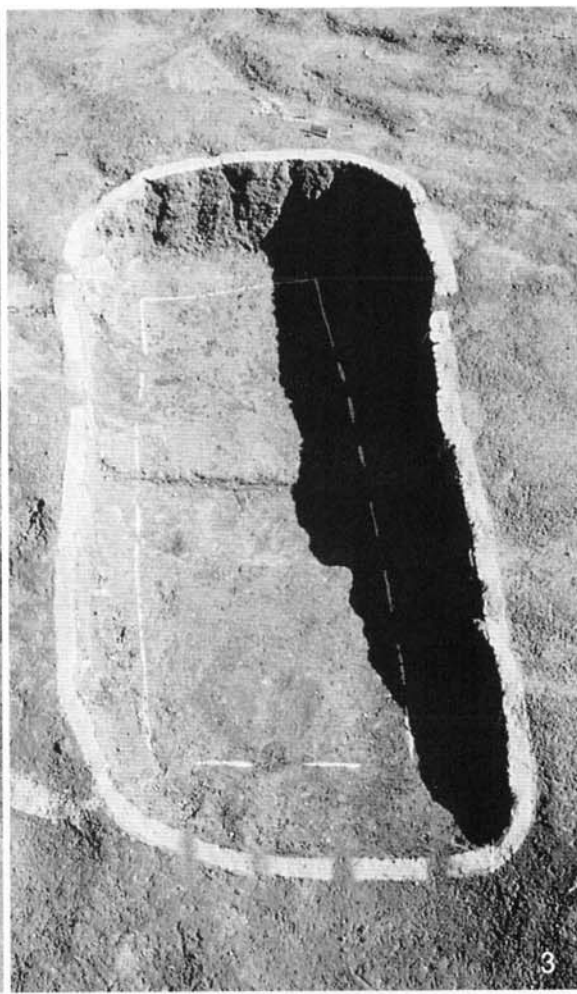
圖版 26. 31號 木棺墓(1), 32號(2, 3), 33號 土壙墓(4) 及 34號 木棺墓 土層外 遺物狀態(5, 6)



圖版 27. 34號 木棺墓 全景(1, 2), 出土遺物(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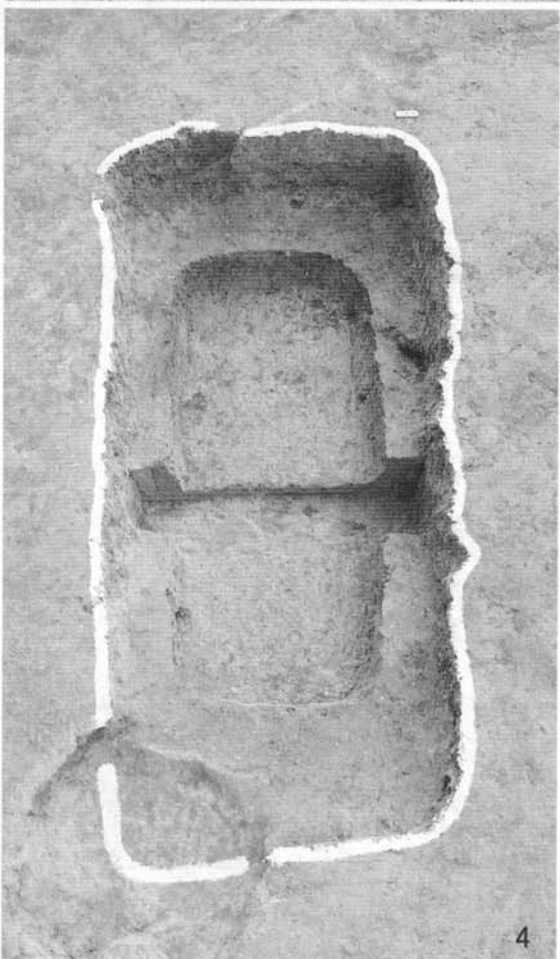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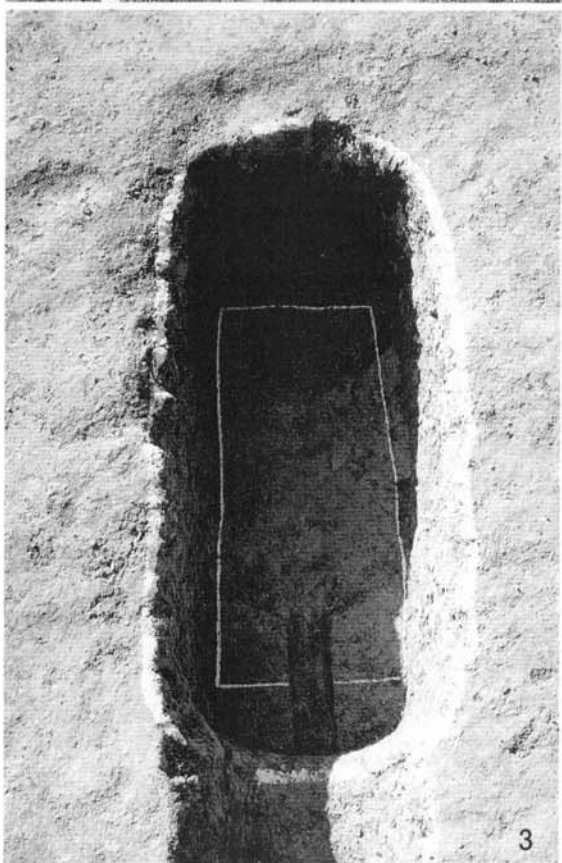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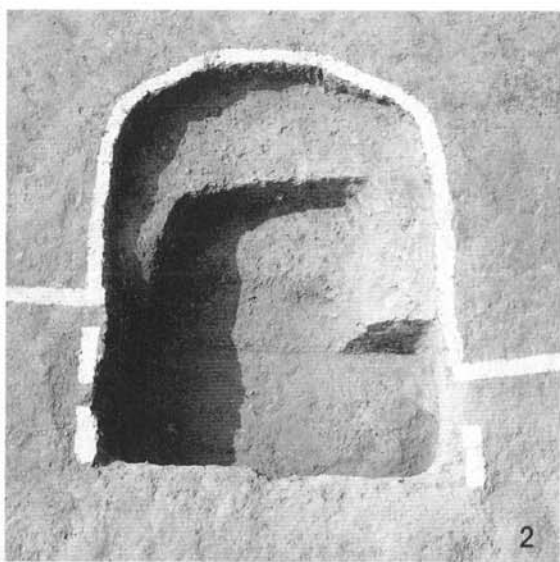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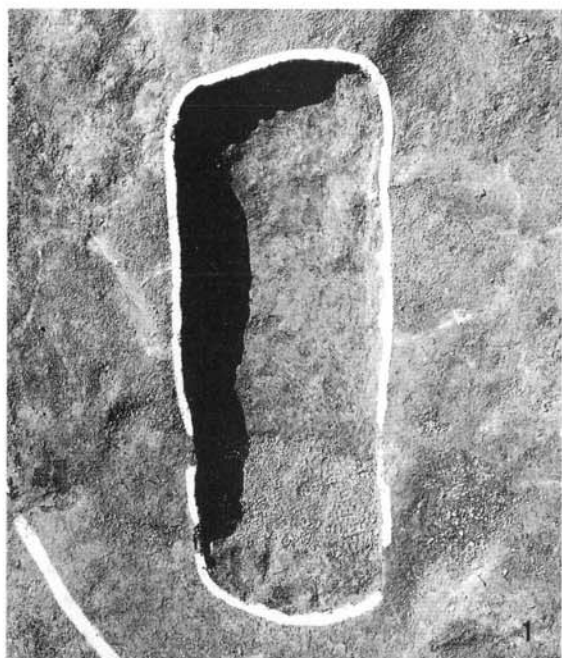


圖版 28. 34號 木棺墓 出土遺物(1~4), 35號 木棺墓 全景(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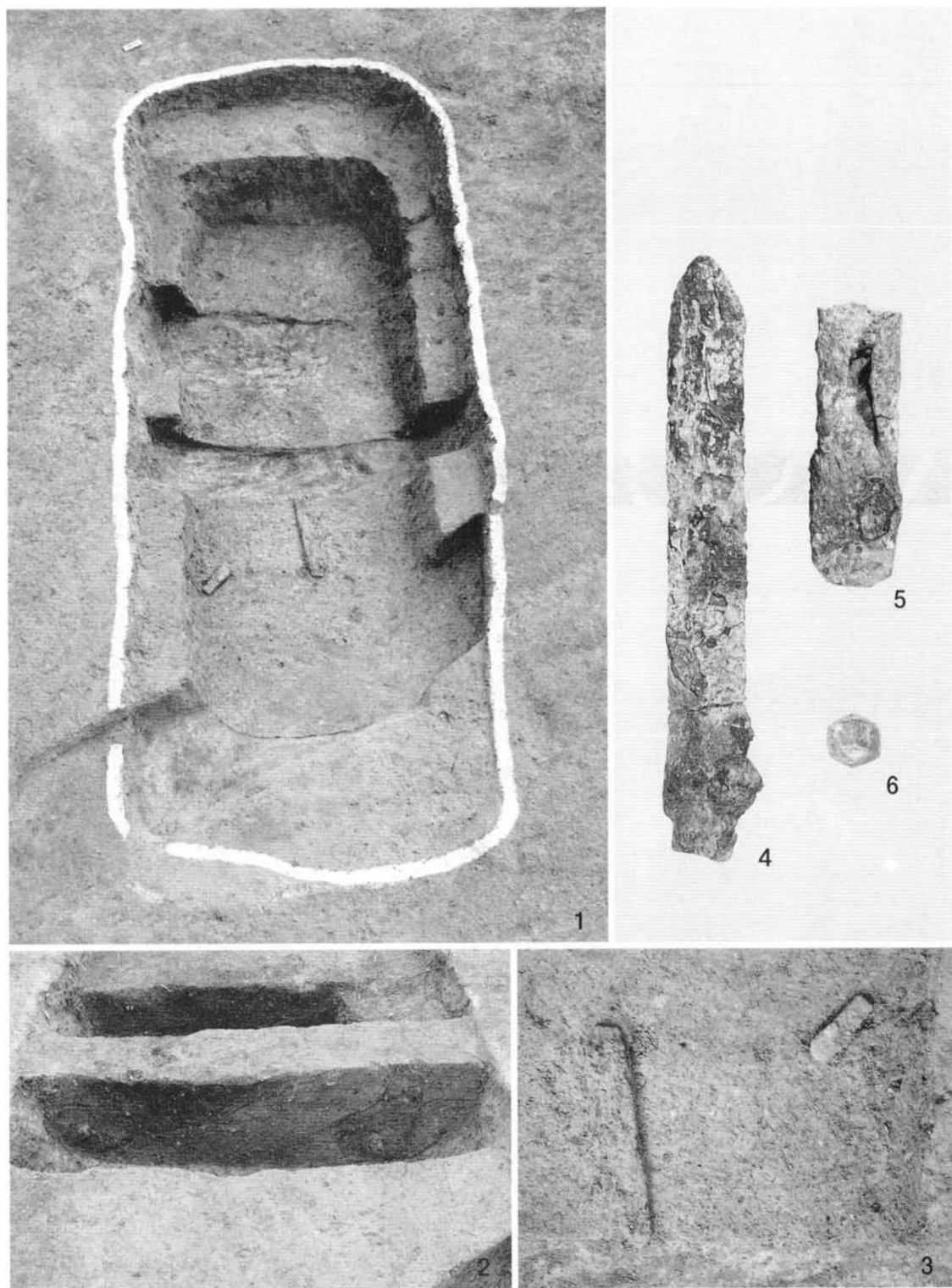


圖版 29. 36號(1), 37號(2), 38號(3) 木棺墓 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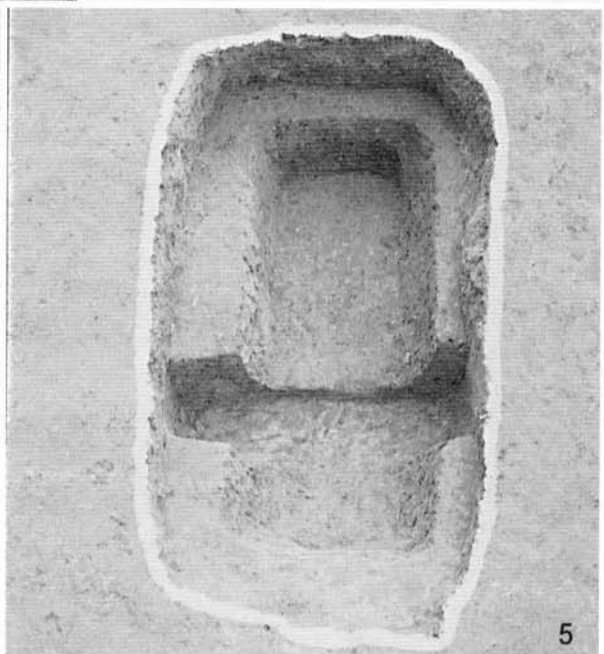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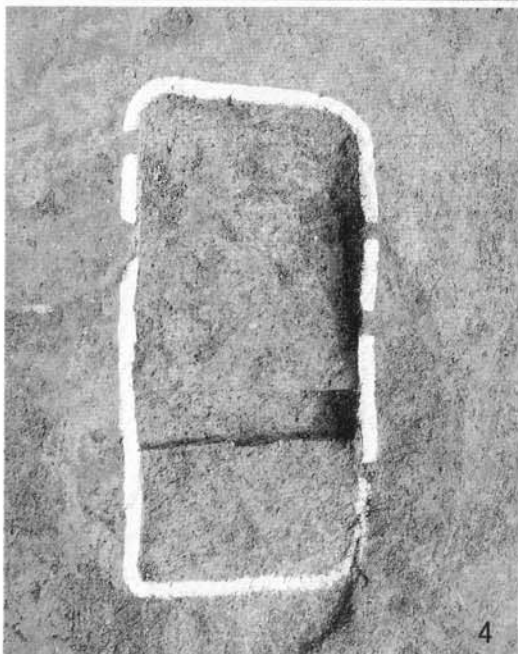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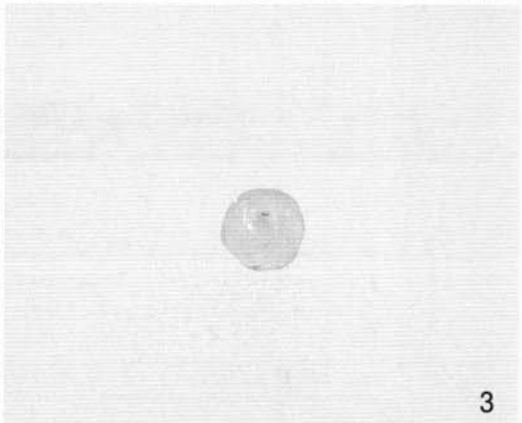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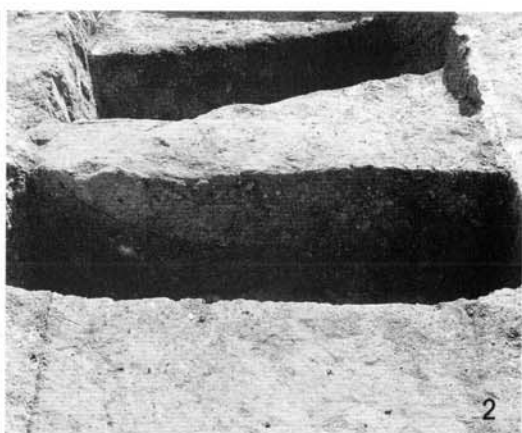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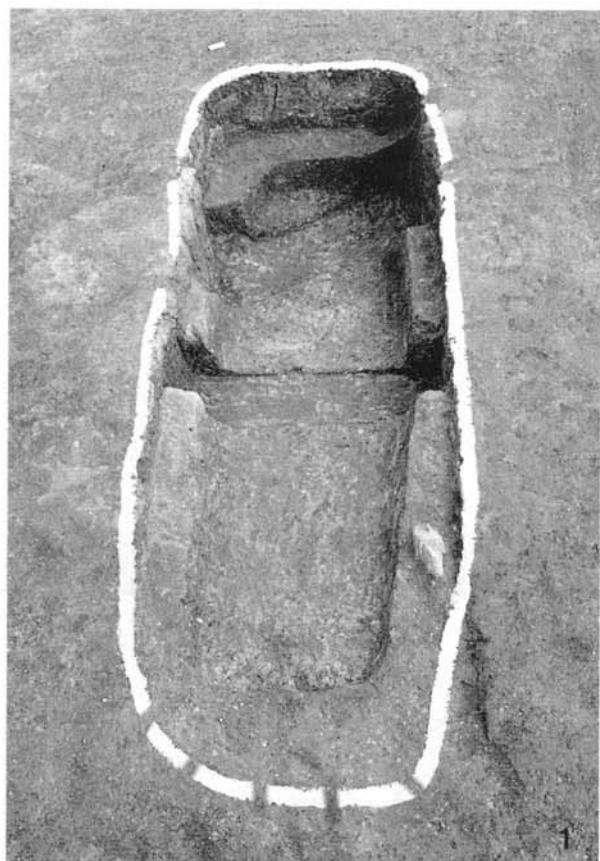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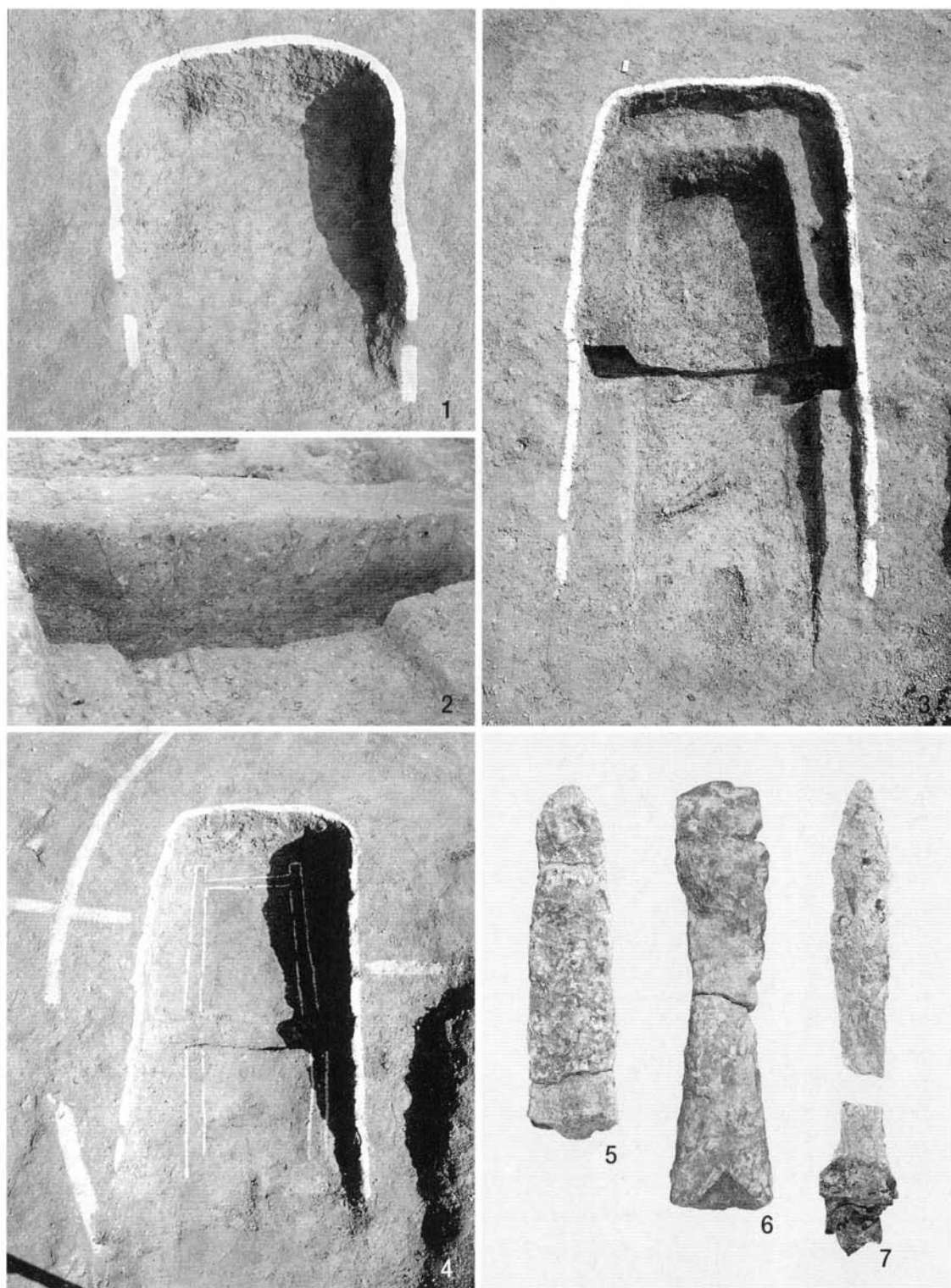
圖版 30. 39號(1), 40號(2), 41號(3), 42號(4) 木棺墓 全景



圖版 31. 43號 木棺墓 全景(1), 土層 及 遺物出土狀態(2, 3), 出土遺物(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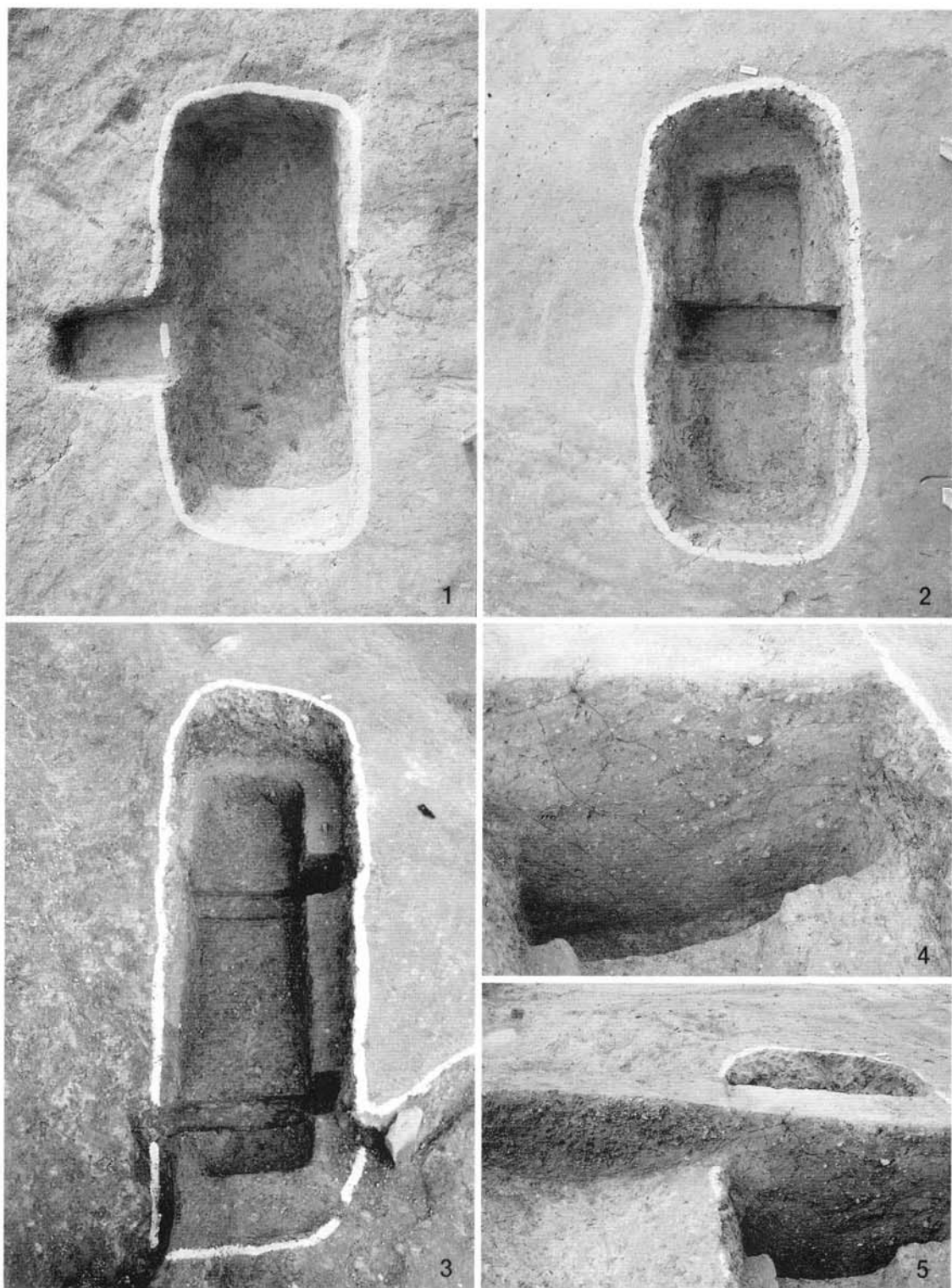


圖版 32. 44號 木棺墓(1~3), 45號 土壙墓 全景(4), 46號 木棺墓 全景(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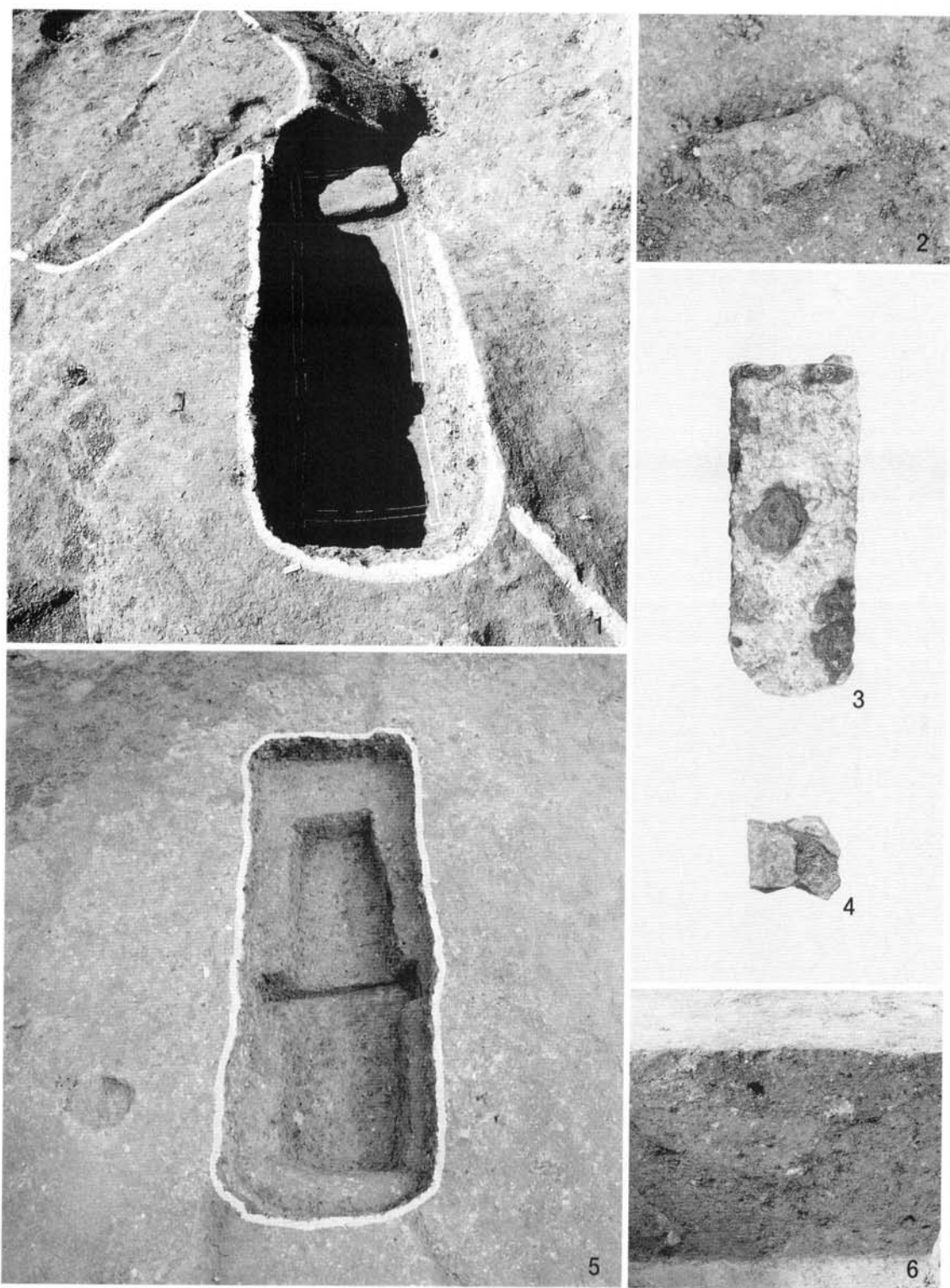


圖版 33. 47號 土壤墓 全景(1), 48號 木棺墓 全景(3, 4), 土層(2), 出土遺物(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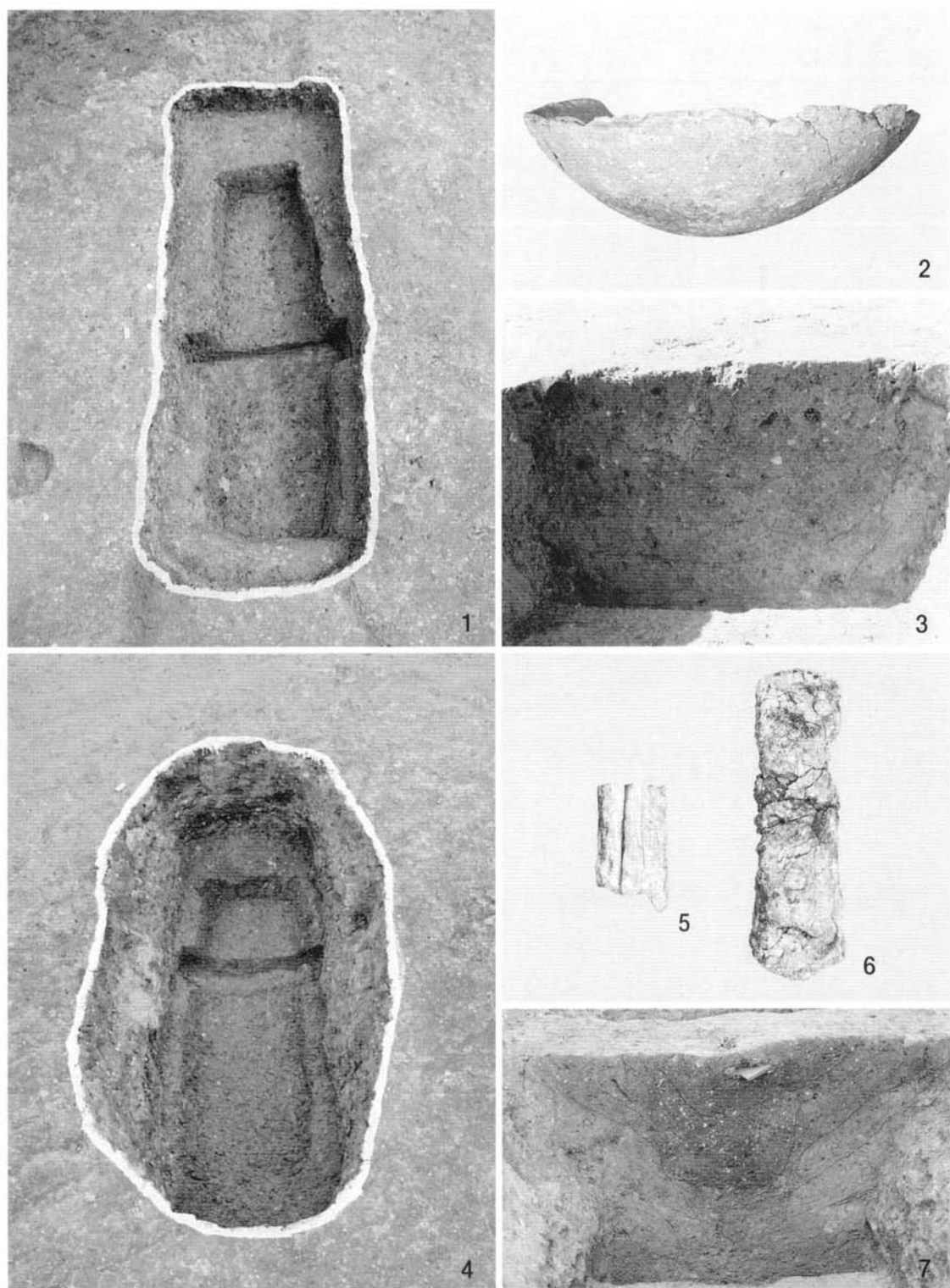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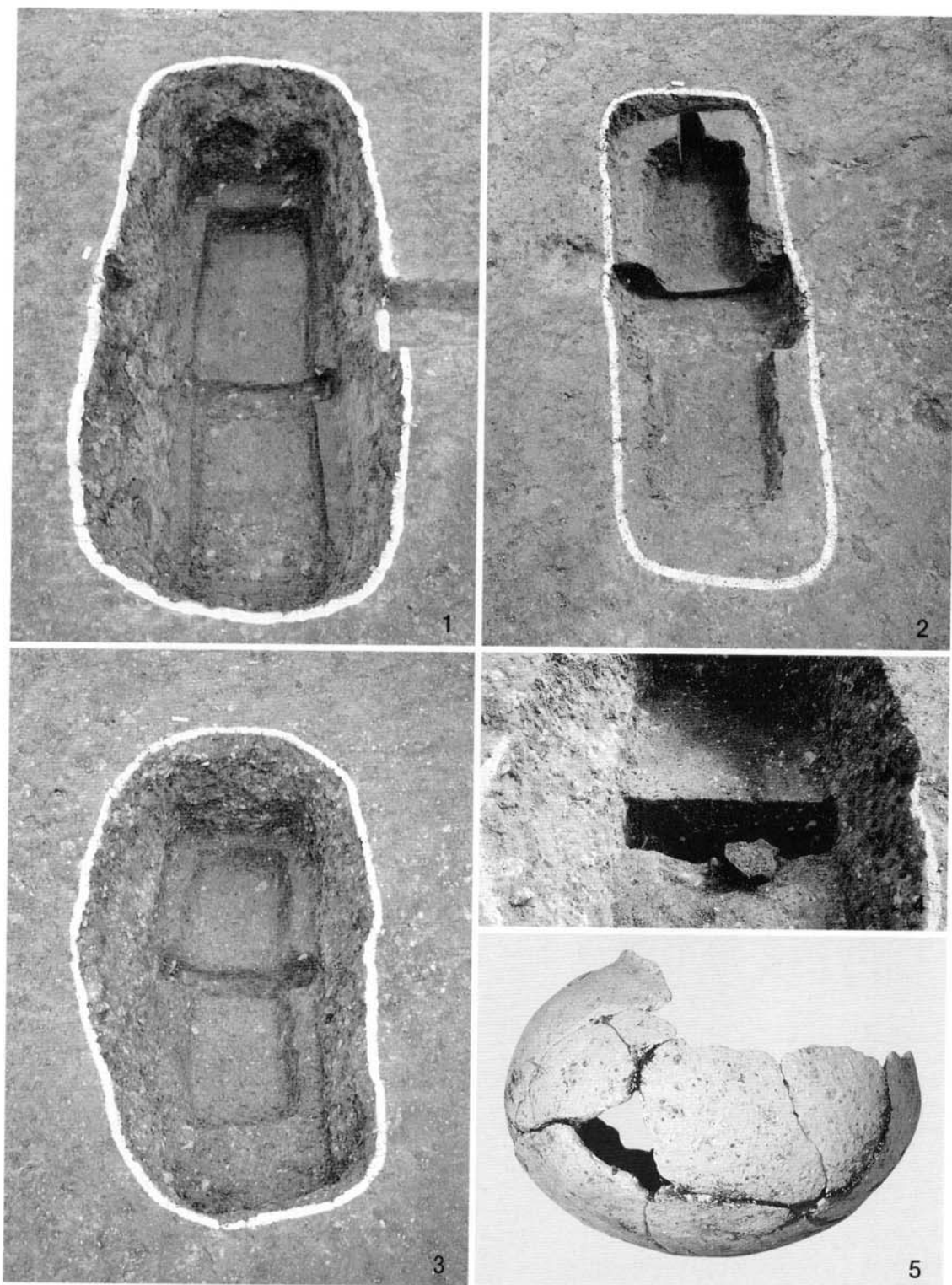
圖版 34. 49號 土壙墓 全景(1), 50號 木棺墓 全景(2), 51號 木棺墓 全景(3), 土層(4, 5)



圖版 35. 51號 木棺墓 全景 及 出土遺物(1~4), 52號 木棺墓 全景 及 土層(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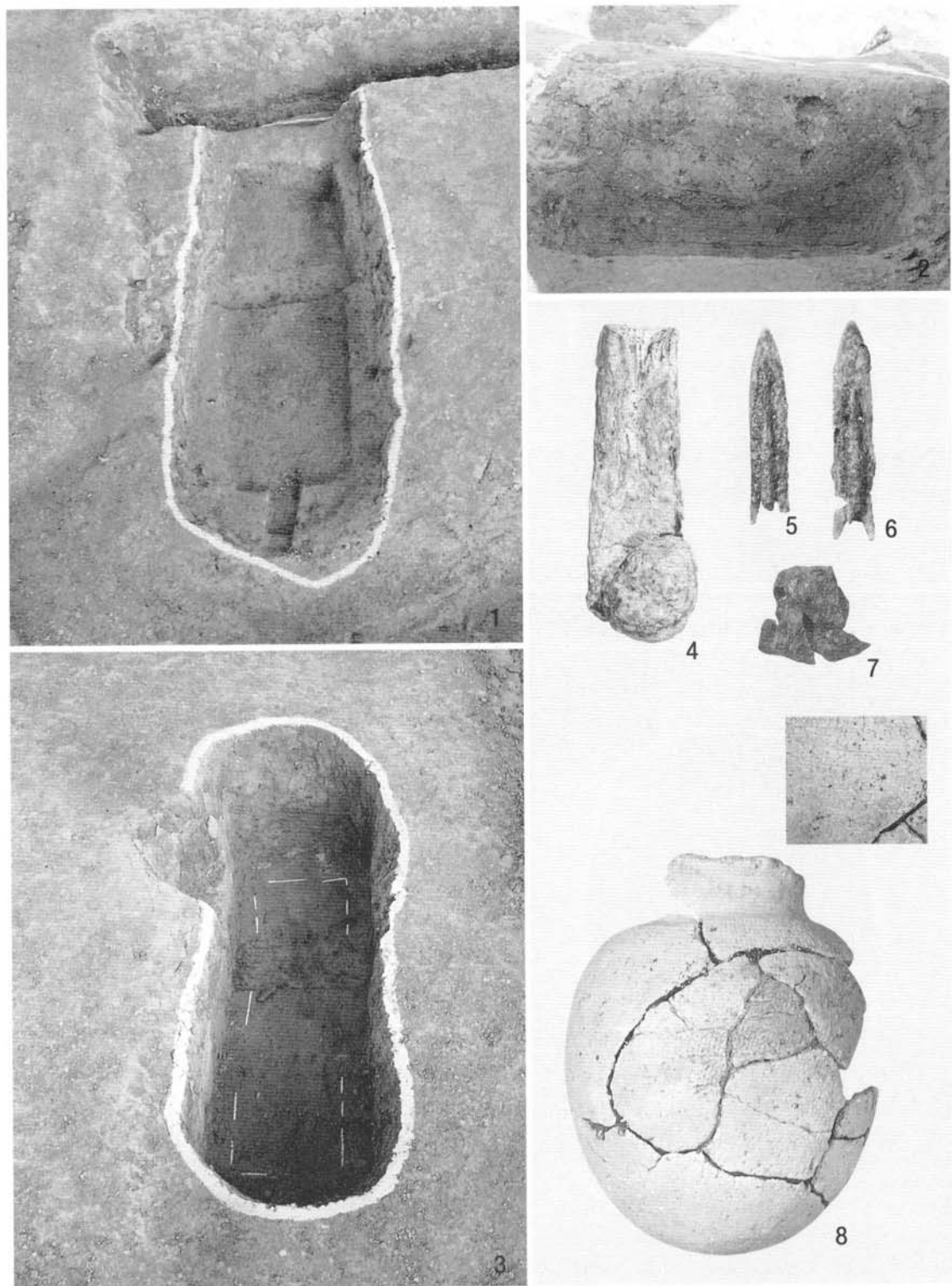


圖版 36. 53號 木棺墓 全景 及 出土遺物(1~3), 54號 木棺墓 全景 及 出土遺物(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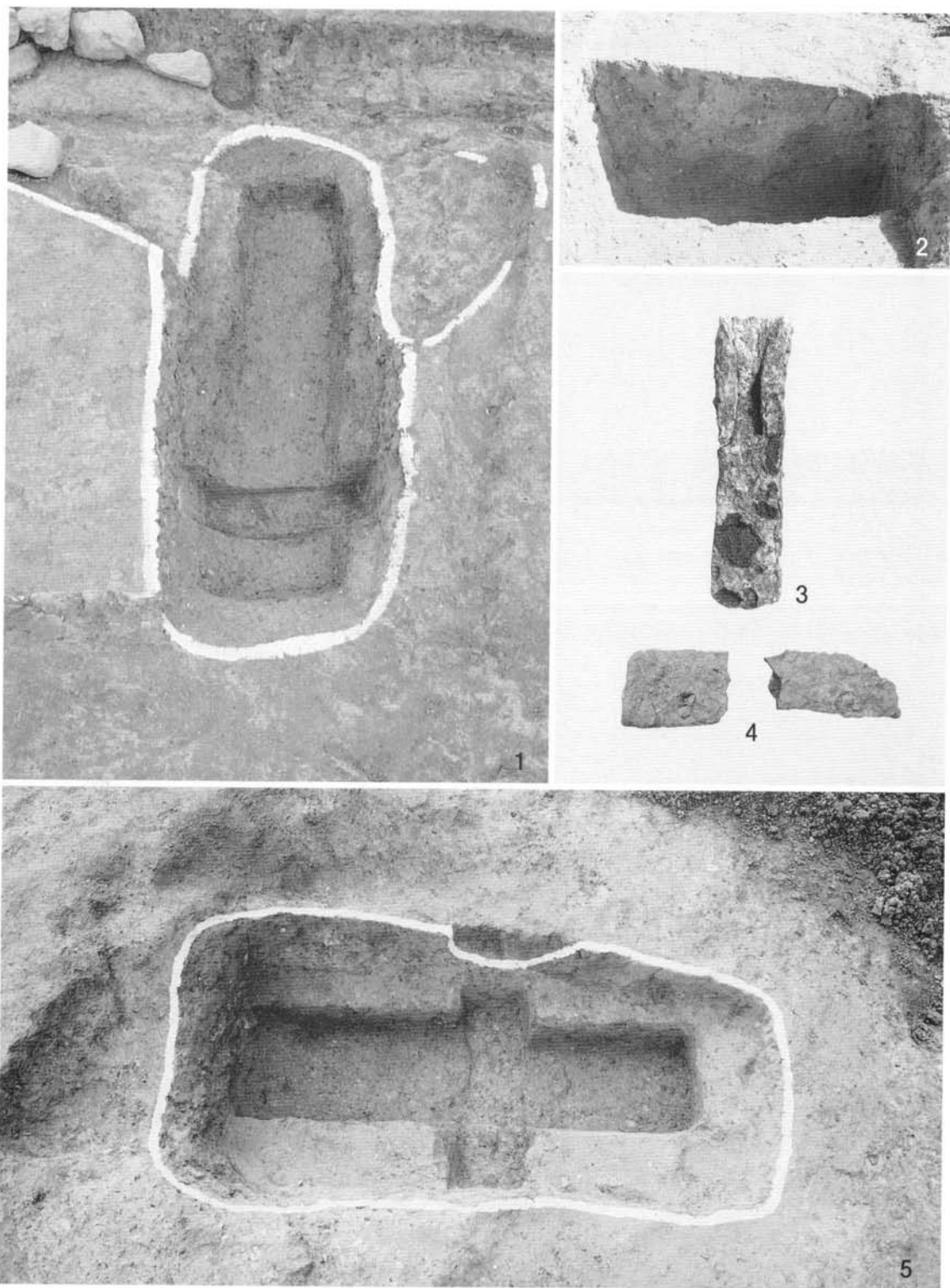


圖版 37. 55號(1), 56號(2) 木棺墓 全景 및 57號 木棺墓 全景과 出土遺物(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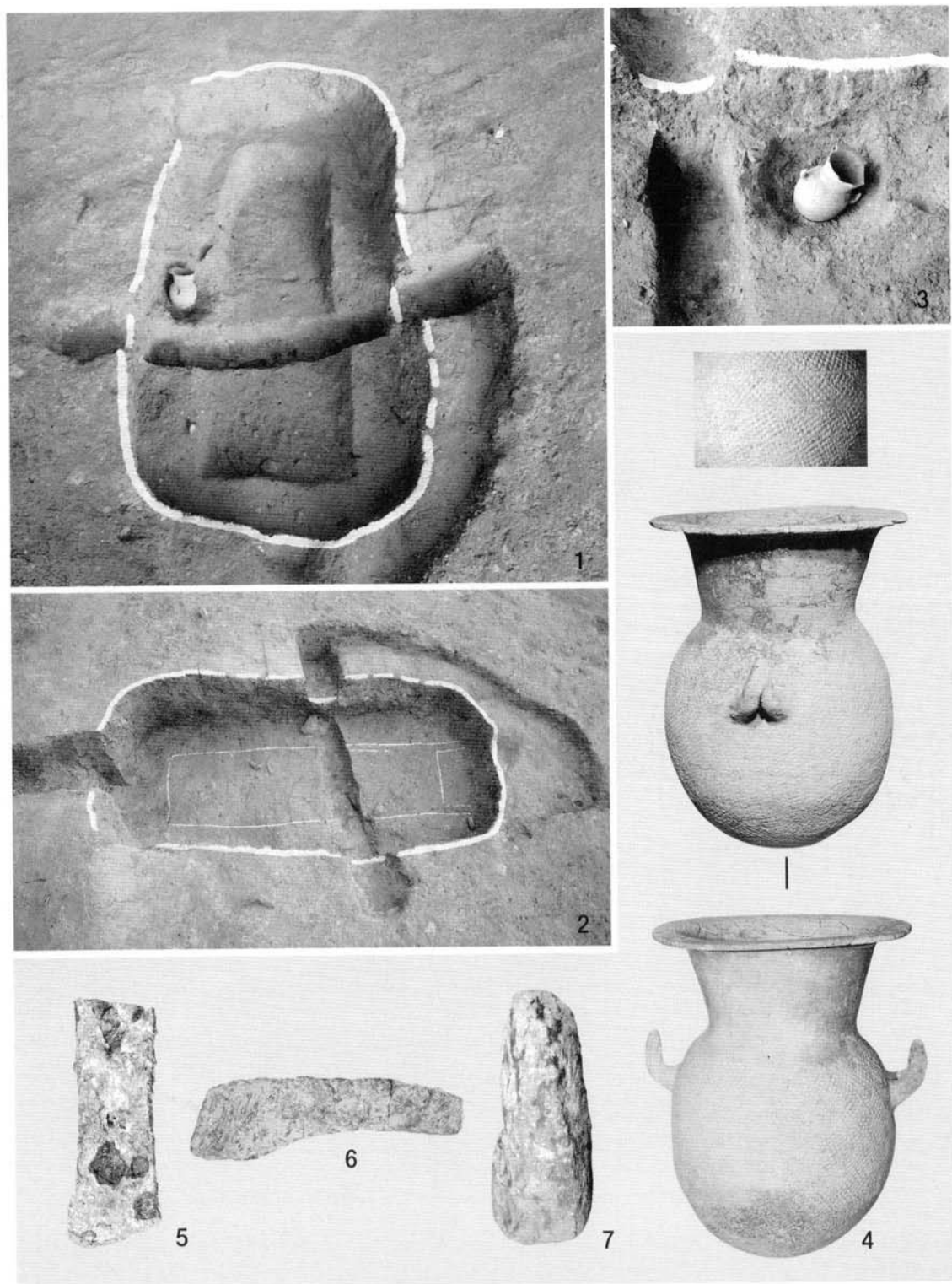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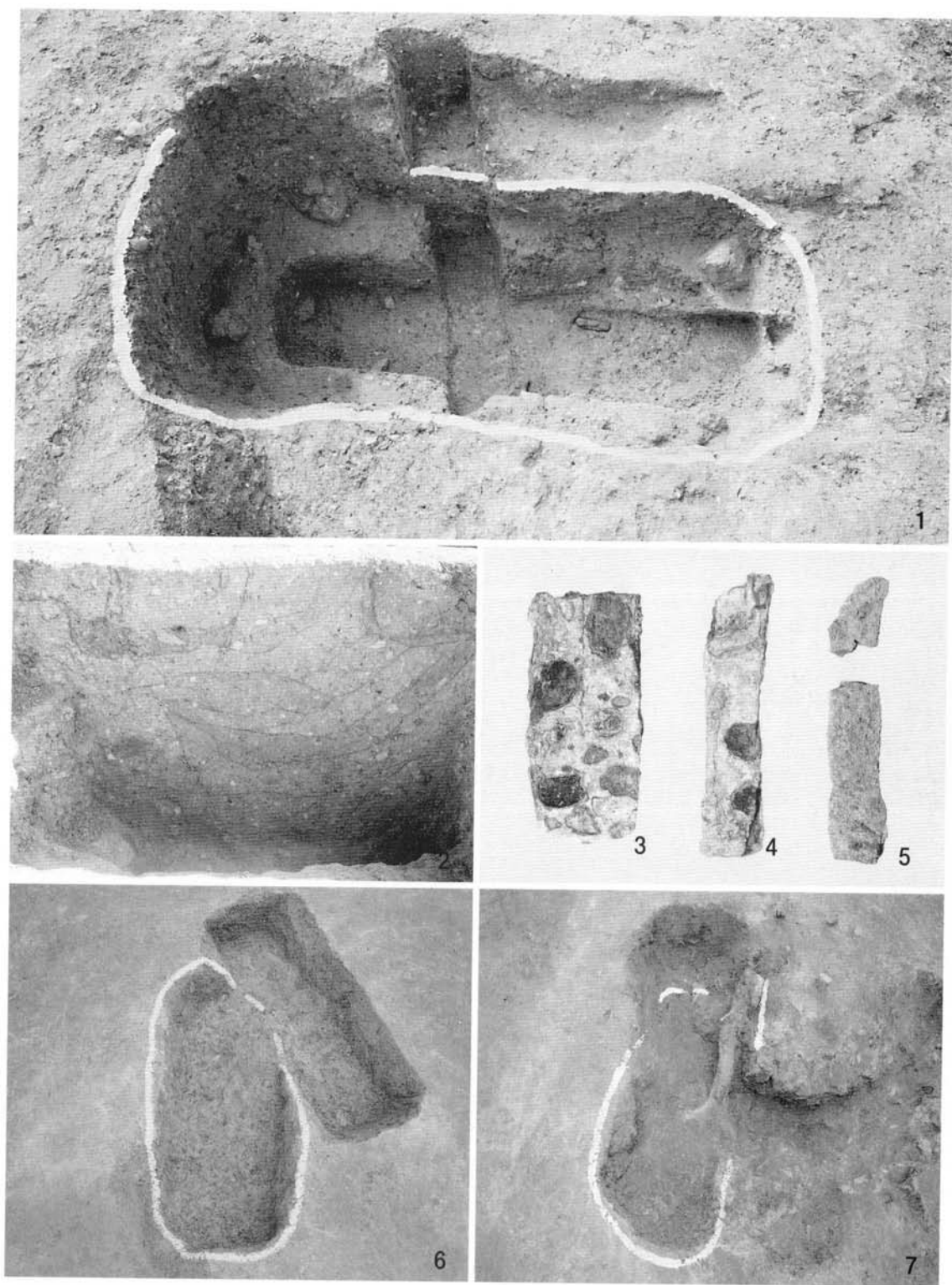
圖版 38. 58號 木棺墓 全景 및 土層(1, 2)과 59號 木棺墓 全景 및 出土遺物(3~8)



圖版 39. 60號 木棺墓 全景 및 土層(1, 2)과 61號 木棺墓 全景 및 出土遺物(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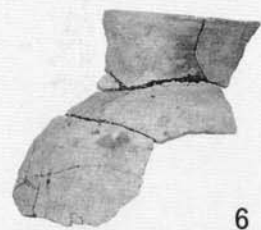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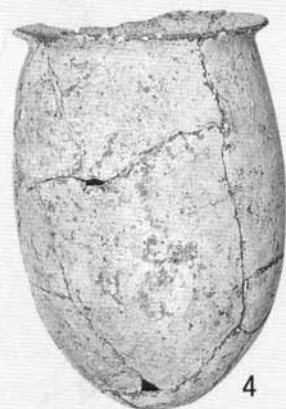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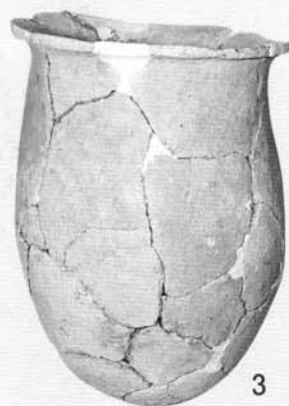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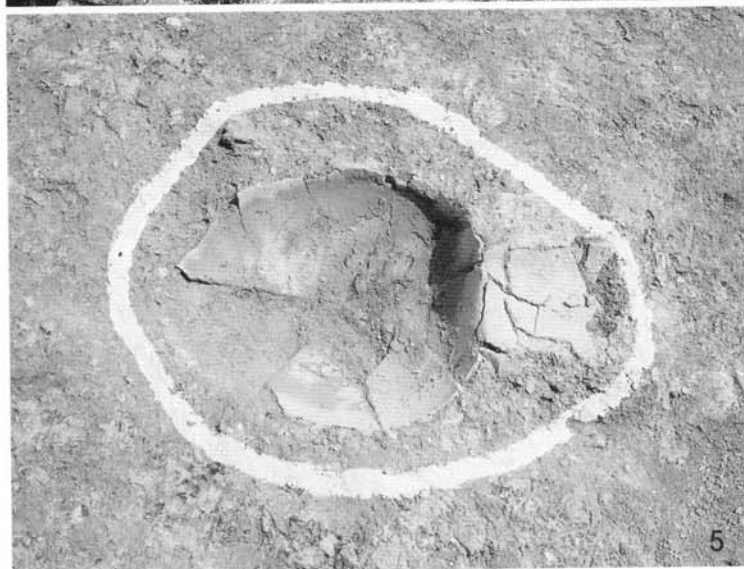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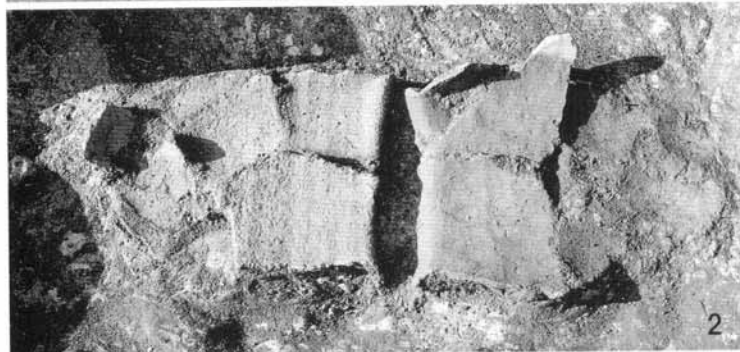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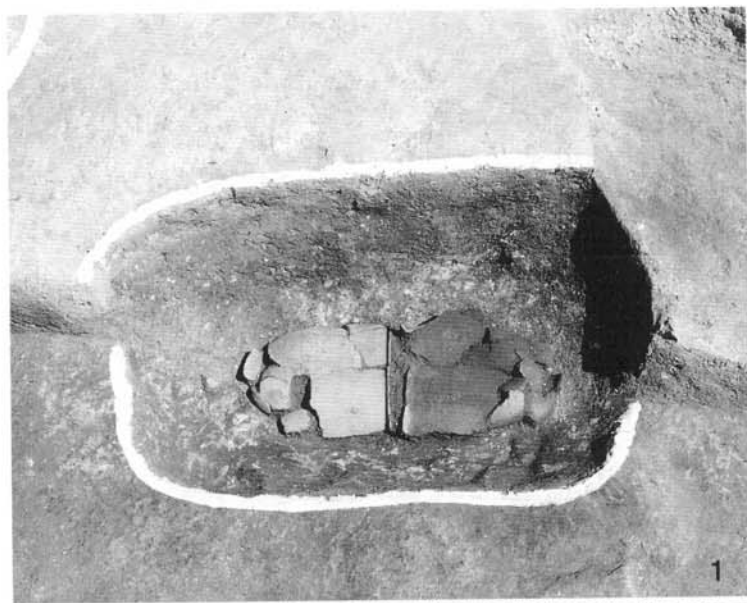


圖版 40. 62號 木棺墓 全景(1, 2), 遺物出土狀態(3), 出土遺物(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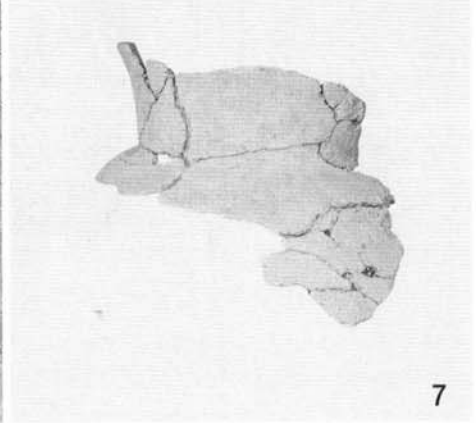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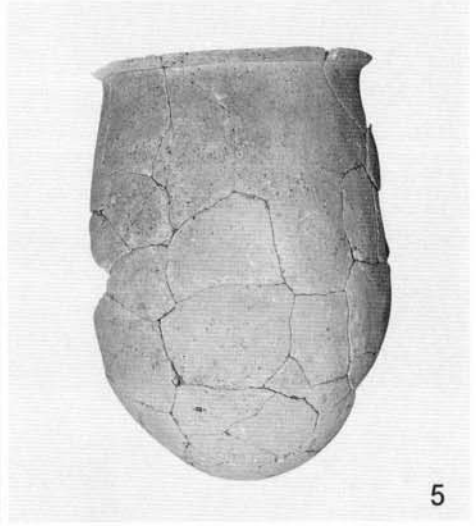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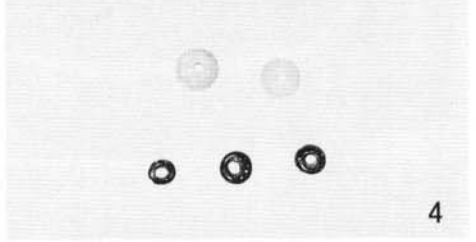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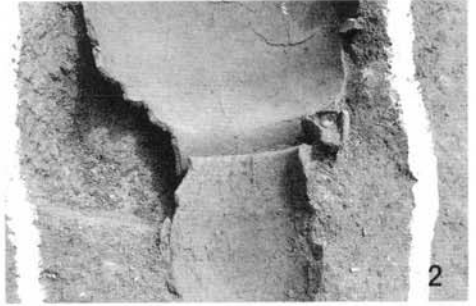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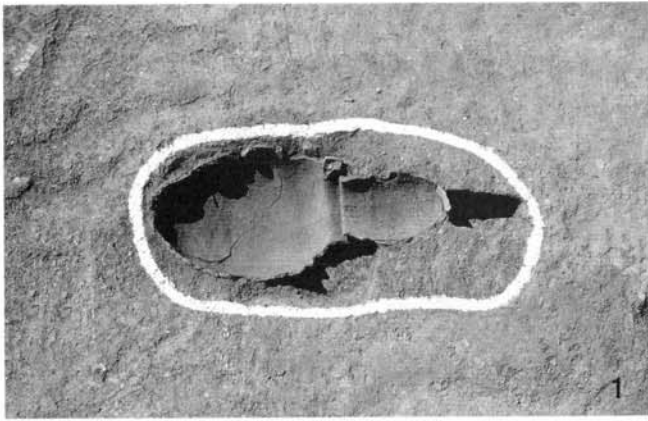


圖版 41. 63號 木棺墓 全景 及 土層(1, 2), 出土遺物(3~5), 64號(6), 65號(7) 土墳墓 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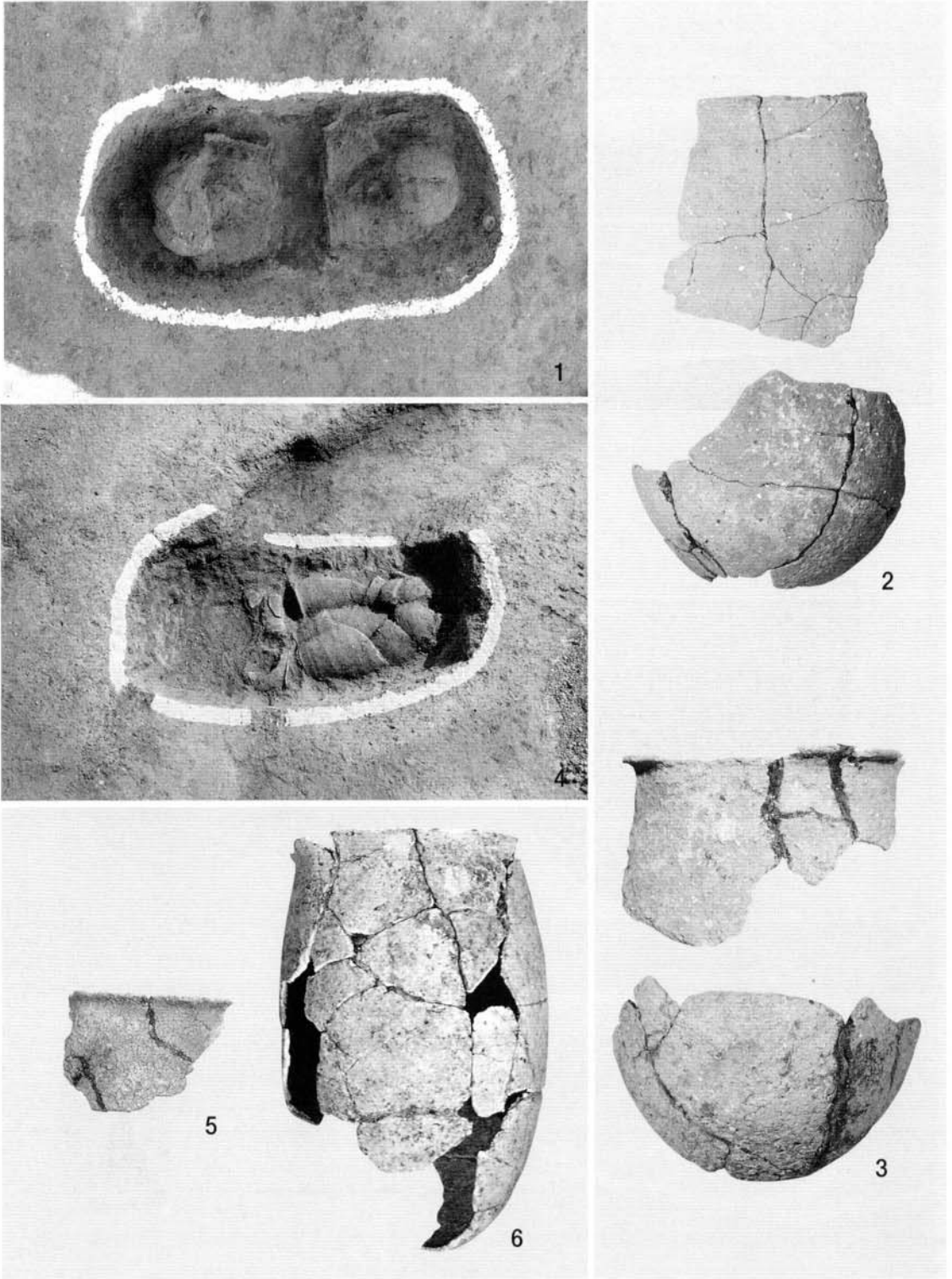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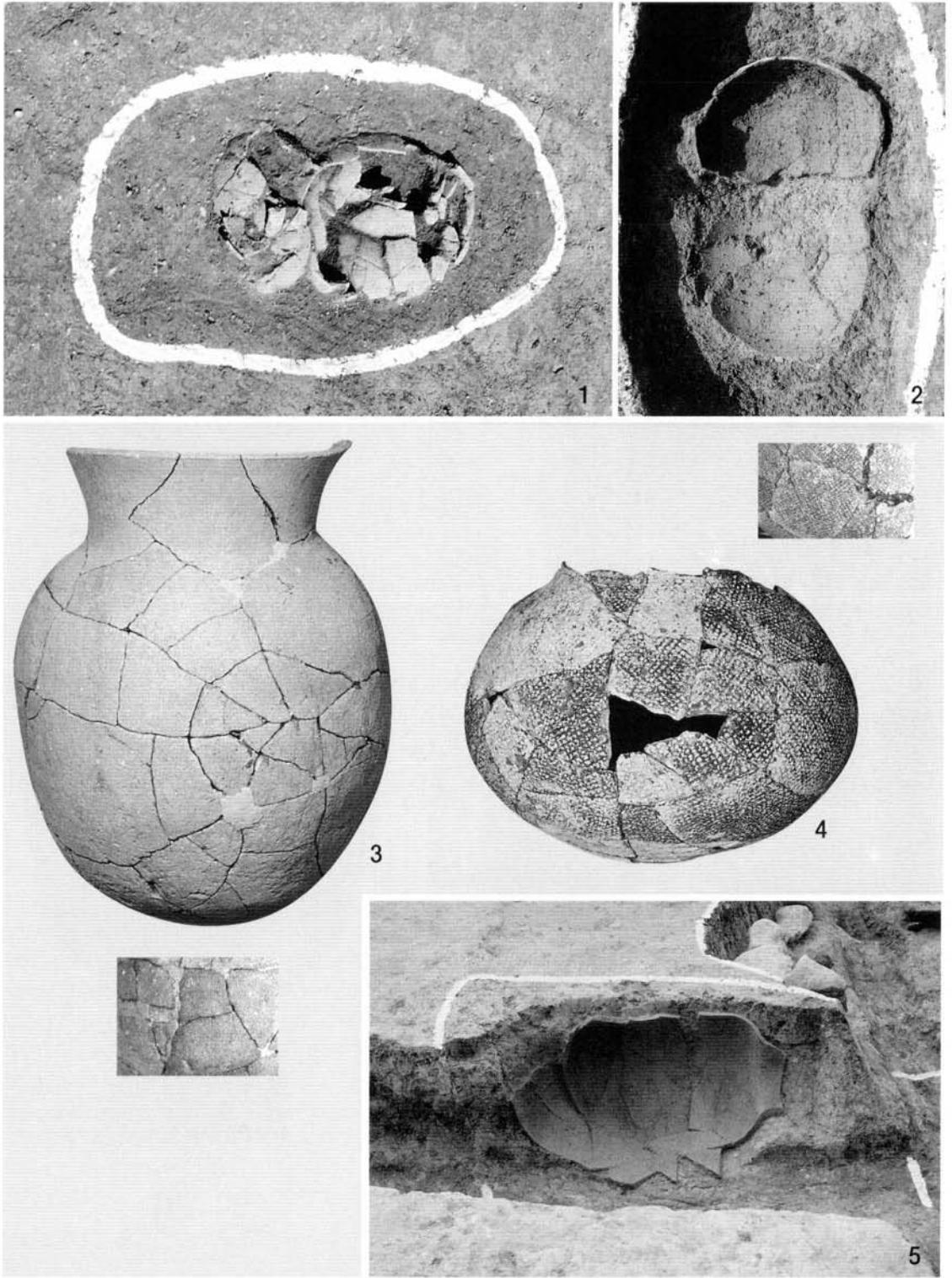
圖版 42. 1號 甕棺墓(1~4)와 2號 甕棺墓 全景 및 出土遺物(5, 6)



圖版 43. 3號 甕棺墓(1~5)와 4號 甕棺墓(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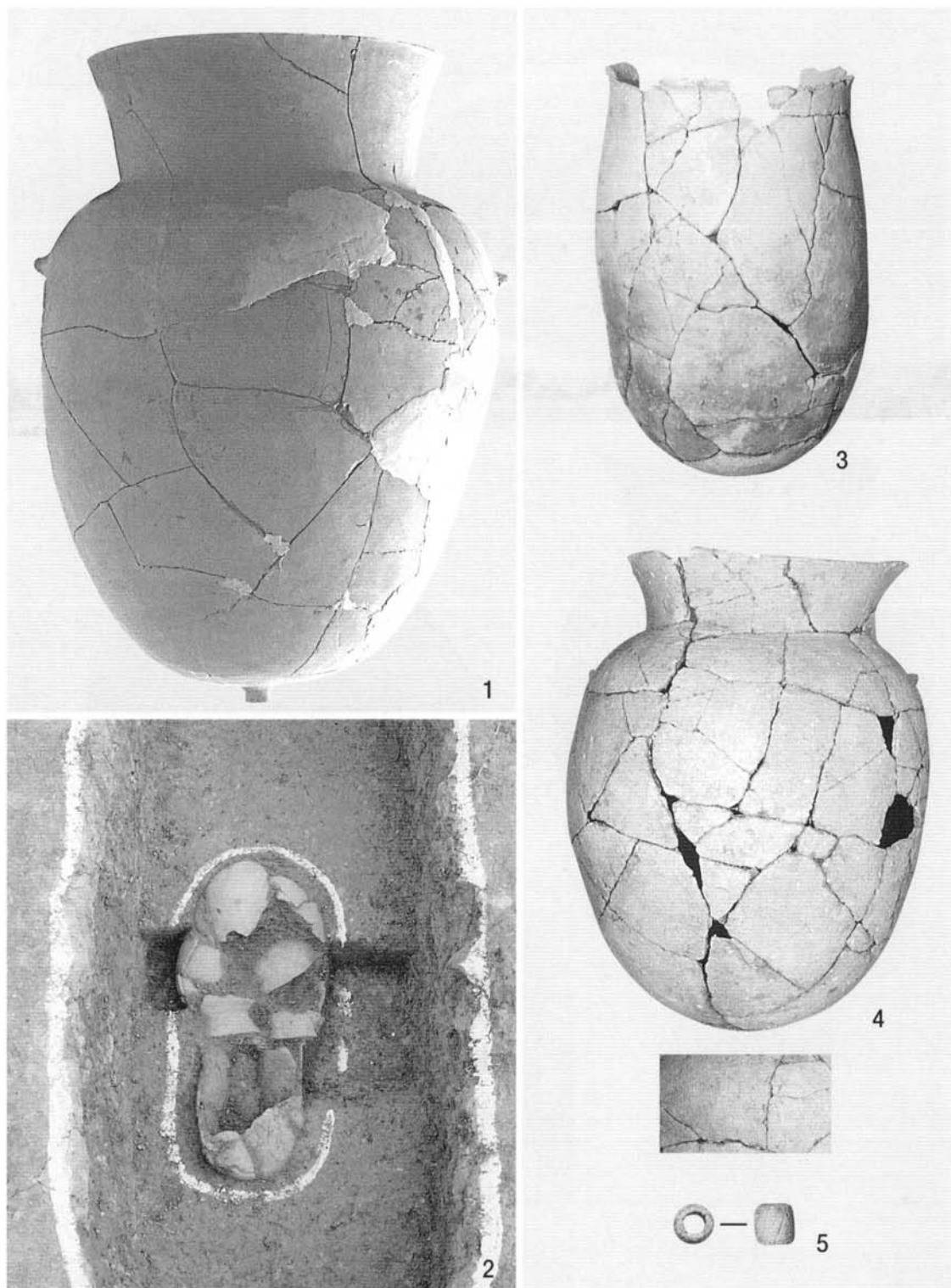


圖版 44. 5號 甕棺墓(1~3)와 6號 甕棺墓(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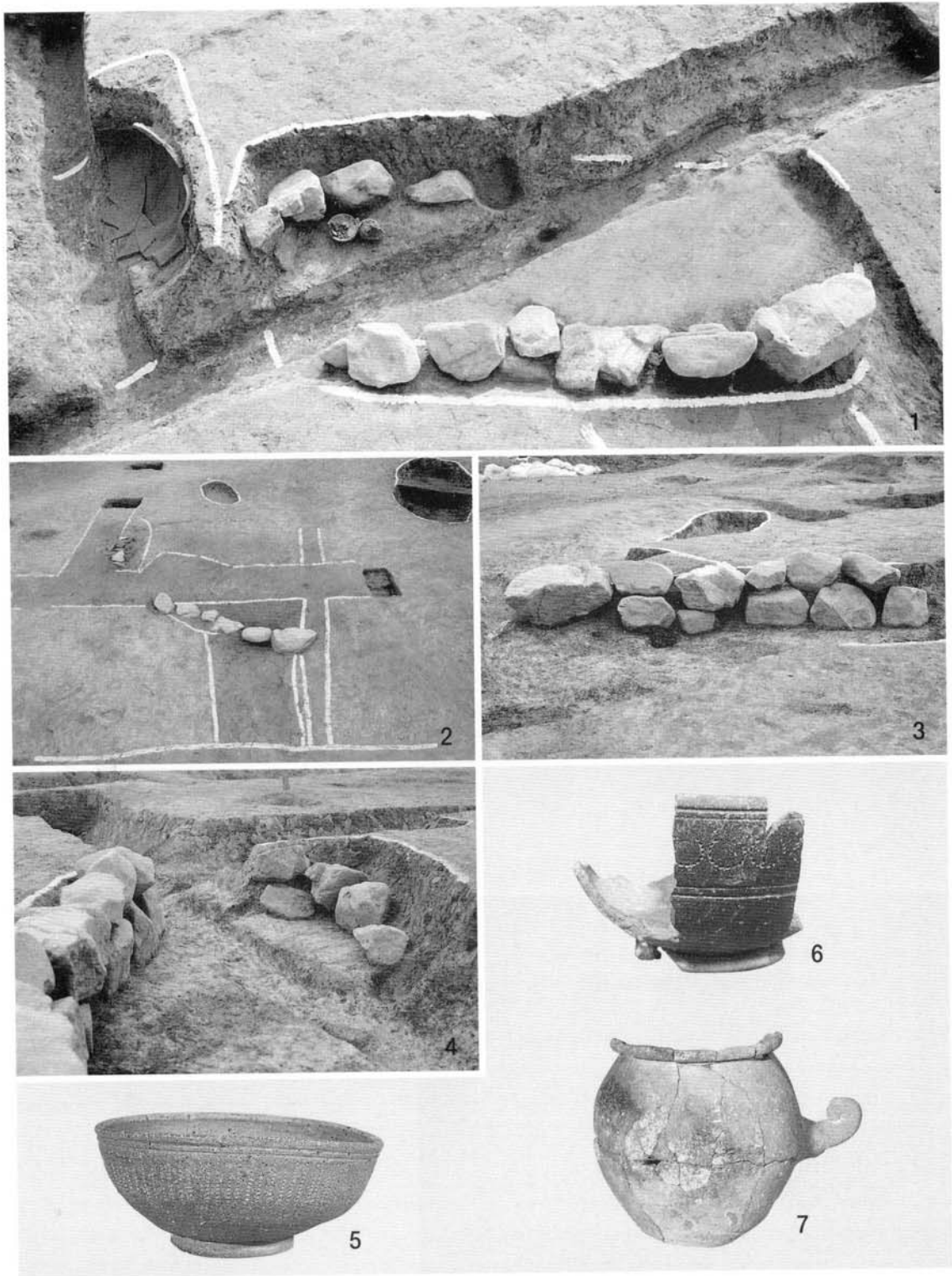


圖版 45. 7號 甕棺墓(1~4)와 8號 甕棺墓 全景(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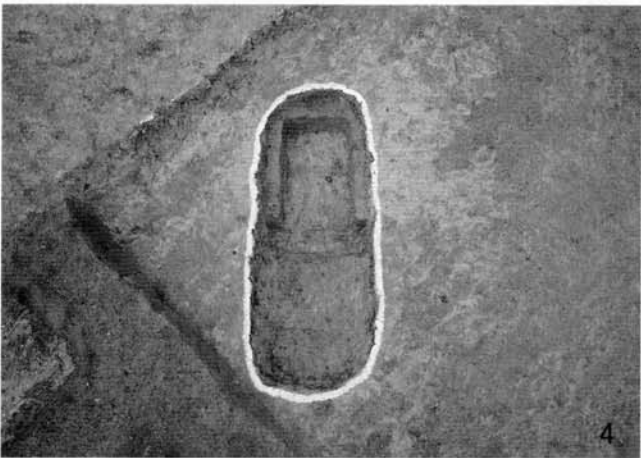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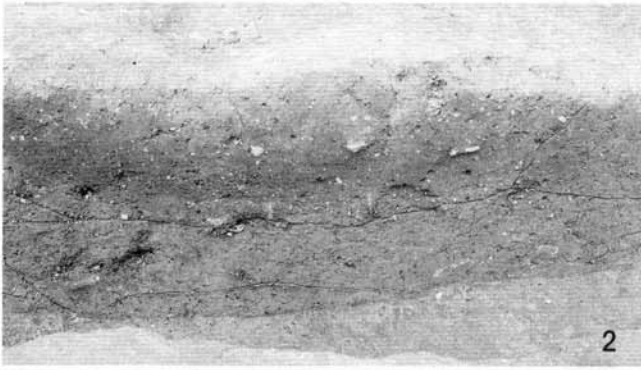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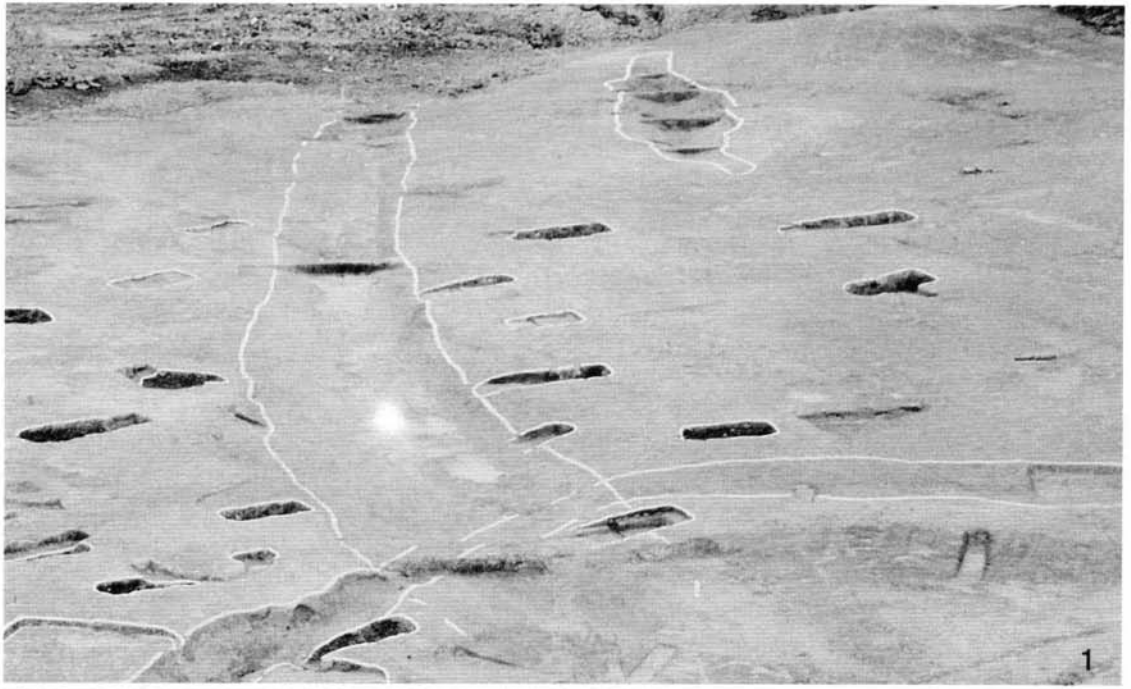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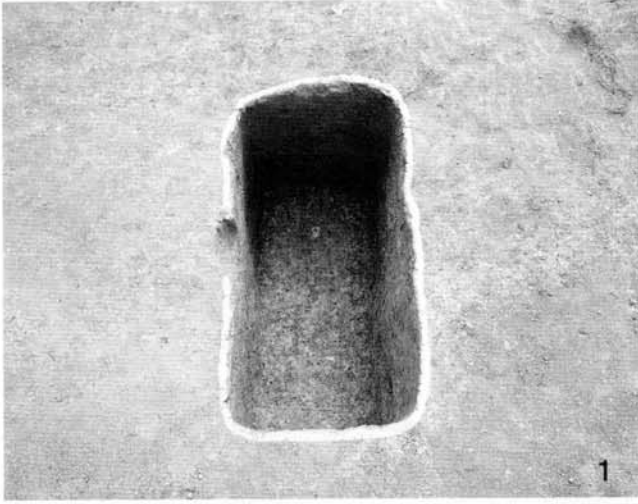
圖版 46. 8號 甕棺墓 出土遺物(1)과 9號 甕棺墓 全景(2) 및 出土遺物(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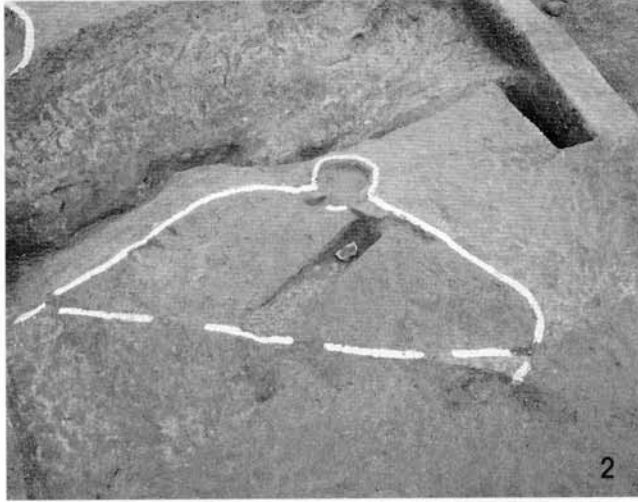
版 47. 1號 石槨墓 全景(1, 2) 長・短壁築造狀態(3, 4), 出土遺物(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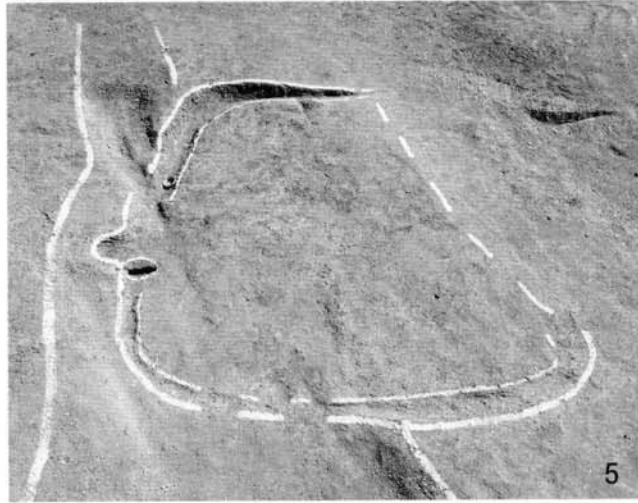
圖版 48. 3號 溝 全景(1) 및 土層(2), 出土遺物(3)과 1號 民墓 全景(4) 및 出土遺物(5~7)



1



2



5



3



4



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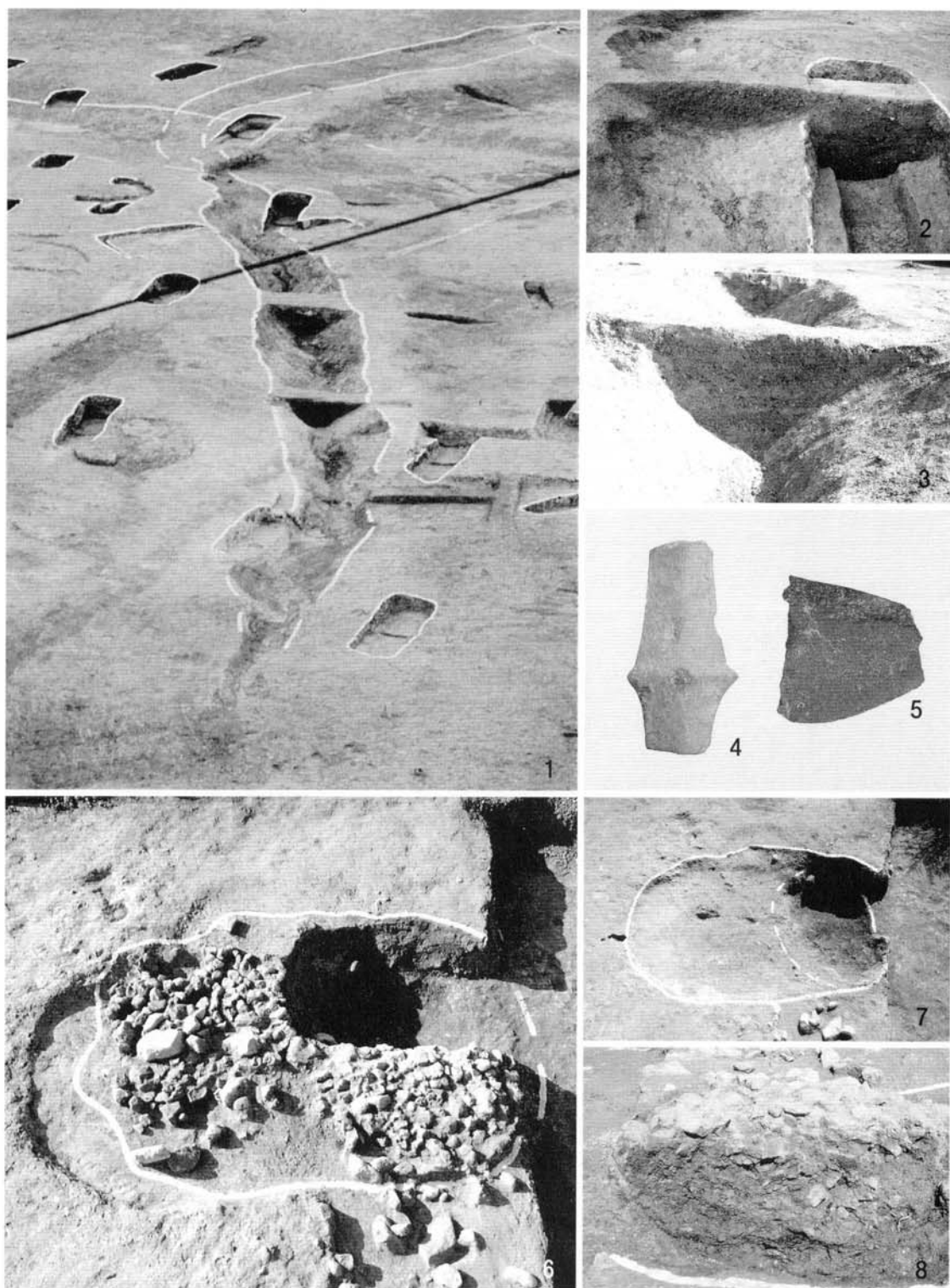
7



7

圖版 49. 2號 民墓 全景(1)과 1號 豎穴遺構(2~4) 및 2號 豎穴遺構(5~7)





圖版 50. 4號 溝 全景(1) 및 土層(2, 3), 出土遺物(4, 5)과 삼가마 全景(6, 7) 및 土層(8)

## 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울산 대안리유적		發行日	2002. 10. 30.
發行機關	명칭	蔚山大學校 博物館		
	주소	(680-749) 蔚山廣域市 南區 無去洞 山29		
	전화	(052)259~2634	팩스	(052) 259~2632
執筆, 編輯者	양상현, 김영민, 김현철, 남연의, 신준섭, 김영록			
調査緣由	초등학교부지 조성에 따른 구제발굴			
發掘 調査者	김영민, 김현철, 남연의, 성민호, 권지영, 최승희			
發掘 期間	2000. 7. 12 ~ 2000. 10. 30			
遺蹟 所在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250-1번지 일대			
調査 面積	19,173㎡(5,800여 평)			
遺構	時代 및 時期	類型 및 基數	重要 遺物	
住居址	靑銅器時代	6基	무문토기, 석촉, 어망추	
木官墓	三韓時代	65基	주머니호, 철검, 철부	
甕棺墓	三韓時代	9基	옹관	
石槨墓	三國時代	1基	대부완	
豎穴遺構	朝鮮時代	2基	분청사기	
民墓	朝鮮時代	2基	관정	
삼가마	近代	1基		
溝		4基		
합 계		90基		

# 慶州月山里Ⅱ遺蹟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삼국시대 생활유적

2002

蔚山大學校博物館

# 目 次

I. 머리말 .....	201
II. 遺蹟의 位置와 環境 .....	203
III. 調査內容 .....	207
1. 青銅器時代 遺構 .....	207
1) 1號 住居址 .....	207
2) 2號 住居址 .....	212
3) 3號 住居址 .....	215
4) 1號 竪穴遺構 .....	216
2. 三國時代 遺構 .....	216
1) 掘立柱 建物 .....	216
2) P1~P4 .....	217
3) P5, P6 .....	218
4) P7, P8 .....	218
5) 1號 溝狀 遺構 .....	219
6) 2號 竪穴遺構 .....	220
7) 3號 竪穴遺構 .....	227
3. 채집유물 .....	228
IV. 맺음말 .....	230

# 圖面目次

圖面 1. 遺蹟 位置及 周邊遺蹟 分布圖(1/50,000) .....	202
圖面 2. 遺蹟 地形圖(1/5,000) .....	204
圖面 3. 試掘調査 現況圖(1/1,200) .....	205
圖面 4. 遺構 配置圖(1/300) .....	206
圖面 5. 1號 住居址 平・斷面圖<1/60> .....	208
圖面 6. 1號 住居址 出土遺物<1~5, 7 : 1/2, 6, 8 : 1/3> .....	210
圖面 7. 1號 住居址 出土遺物<1/3> .....	211
圖面 8. 2號 住居址 平・斷面圖<1/60> 及 出土遺物 <1 : 1/1, 2~7 : 1/3> .....	213
圖面 9. 2號 住居址 出土遺物<1, 2 : 1/2, 3~4 : 1/3> .....	214
圖面 10. 3號 住居址 平・斷面圖<1/60> .....	215
圖面 11. 1號 竪穴遺構 平・斷面圖<1/60> .....	216
圖面 12. 1號 掘立柱 建物 平・斷面圖<1/60> .....	217
圖面 13. P1~P4 平・斷面圖<1/60> .....	218
圖面 14. P5~P6 平・斷面圖<1/60> .....	218
圖面 15. P7~P8 平・斷面圖<1/60> .....	219
圖面 16. 1號 溝 斷面圖<1/40> .....	219
圖面 17. 2號, 3號 竪穴遺構 平・斷面圖<1/80> .....	221
圖面 18. 2號 竪穴遺構 出土遺物<1/3> .....	222
圖面 19. 2號 竪穴遺構 出土遺物<1/3> .....	224
圖面 20. 2號 竪穴遺構 出土遺物<1 : 1/4, 2~4 : 1/3> .....	225
圖面 21. 3號 竪穴遺構 出土遺物<1/3> .....	227
圖面 22. 採集遺物<1~5 : 1/3, 7, 8 : 1/2, 6 : 1/5> .....	229

# 圖版目次

圖版 1. 遺蹟 遠景(1)과 遺蹟 全景(2) .....	233
圖版 2. 1號 住居址 全景(1) 및 壁溝와 土層(2, 4, 5) .....	234
圖版 3. 1號 住居址의 爐址(1), 外部溝內 土層(2), 遺物出土狀態(3, 4) 및 出土遺物(5~12) .....	235
圖版 4. 1號 住居址 出土遺物(1~6), 2號 住居址(7~9), 出土遺物(10~12) .....	236
圖版 5. 2號 住居址 出土遺物(1~8), 3號 住居址 全景(9), 1號 豎穴遺構(10, 11) .....	237
圖版 6. 1號 掘立柱 建物 全景(1) 및 柱穴 斷面(2~5) .....	238
圖版 7. P1~P4 全景(1), P5~P6(3, 4), P7~P8(2) 및 1號 溝 全景 및 土層(2, 4~6) .....	239
圖版 8. 2號, 3號 豎穴遺構 調查前 狀態(1, 2), 全景(3) 및 南-北 土層(4, 5) .....	240
圖版 9. 2號 豎穴遺構 遺物出土狀態(1, 2) 2號 豎穴遺構 2차 조사 후 상태(3~5) .....	241
圖版 10. 2號 豎穴遺構 出土遺物(1~14) .....	242
圖版 11. 2號 豎穴遺構 出土遺物(1~6) .....	243
圖版 12. 2號(1) 3號(2~5) 豎穴遺構 出土遺物 및 地表採集 遺物(6~13) .....	244
圖版 13. C地區 全景(1) 및 土層(2), B地區 土層(3), A地區 周邊의 推定 支石墓(4) .....	245

## I. 머리말

慶州市 內南面 月山里는 慶州를 관통하여 흐르는 熊川의 상류지역으로 蔚山광역시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최근 이 일대에 발굴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다양한 형태의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우리 박물관에서 실시한 이번의 조사에서도 청동기시대 소규모 취락유적과 삼국시대 후기의 유적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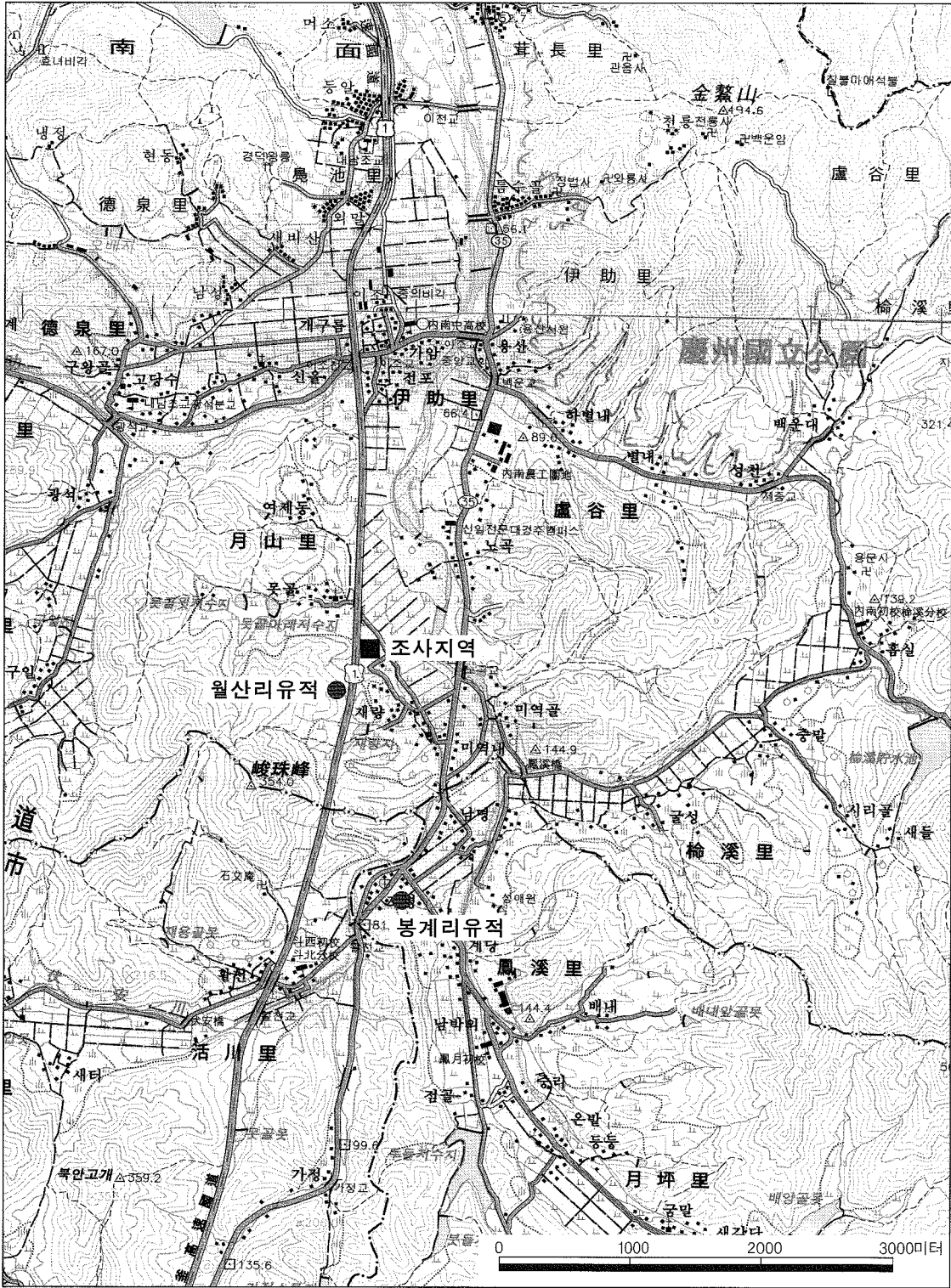
조사대상지는 경주시 내남면 월산리 866-1번지일대 11,095평인데, 이 지역은 이미 1997년에 國立慶州博物館에서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靑銅器時代 支石墓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 곳에 공장 신축계획을 수립한 (주)덕성에서는 매장문화재 시굴조사를 우리 박물관에 의뢰하여 왔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현지를 답사해 본 후 조사단을 구성하여 1999년 11월 1일부터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굴조사과정에서 우리박물관에서는 전체 조사대상지역에 비해 遺構의 확인례가 적어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확인된 유구를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전체적인 조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시굴조사는 구릉지역을 A지구로, 구릉의 서쪽과 남쪽에 형성된 저지대를 각각 B, C지구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A지구는 구릉을 남-북으로 길게 이등분하여 조사하였는데 구릉의 동쪽사면 일부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비롯한 10여 기의 遺構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사현황을 감안하여 A지구의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시굴트렌치의 간격을 3m 내외로 좁게 설치하여 조사하였으나 더 이상의 遺構는 확인되지 않았다. 구릉의 남쪽부분은 일반주택과 창고 등으로 개발되어 이미 원지형이 훼손된 상태였다. B, C지구에서는 주변 구릉의 침식에 의해 퇴적된 토층양상이 확인되었으며 소규모의 溝도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구릉지역에서 유입된 무문토기편을 비롯한 유물은 다수 채집되었으나 유구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의 조사단 구성은 아래와 같다.

- 단 장 : 전 호 태 (울산대학교 박물관장)
- 연 구 원 : 김 영 민 (울산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원)
- 연구 보조원 : 김 현 철 (울산대학교 박물관 조교)
- 김 지 수 (울산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 보 조 원 : 김 광 수 외 다수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학생)

이외에도 짧은 조사기간이었지만 관련연구자들과 특히 이채경(경주시청 학예연구사)의 행정적인 도움을 받았으며, 특히 (주)덕성에서는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



圖面 1. 遺蹟 位置와 周邊遺蹟 分布圖(1/50,000)



었다. 본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현장에서의 사진촬영은 해당 유구의 조사자가 직접 담당했으며, 유적의 측량은 남연의, 김지수(현 울산문화재연구원)가 수고하였다. 遺構의 실측은 해당 조사원이 맡아 하였으며, 출토유물의 정리는 김지수의 책임하에 강정미, 이보경이 주로 하였다. 유물의 촬영은 김영록과 김나영이, 유물의 실측 및 제도는 김현철, 김영록, 신준섭과 이보경 등이 수고해 주었다. 遺構의 제도는 김현철, 김영록이, 본문의 기술은 김영민, 김현철이 분담하여 기술하고, 체제의 통일을 위해 최종적으로 김영민과 양상현이 수정·보완하였다.

## II. 遺蹟의 位置와 環境

월산리Ⅱ유적이 위치한 곳은 경주로 흘러가는 형산강의 상류지역으로 西로는 峻珠山(354)이 위치하며 동으로는 형산강이 흐른다. 유적은 최근 조사된 月山里遺蹟<sup>1)</sup>과 京釜高速道路를 사이에 두고 입지한다. 彦陽에서 慶州로 들어가는 국도 35선의 좌측의 완만한 구릉상에 분포하는데 동으로는 형산강에 의해 형성된 협곡평야가 폭넓게 펼쳐져 있어 선사, 고대인들의 생활여건을 충족시키기엔 충분한 곳으로 생각된다.

월산리Ⅱ유적의 주변에는 많은 수의 선사, 고대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먼저 본 유적의 서쪽으로 지금의 화물주차장부지에서 청동기시대의 취락유적과 삼국시대의 고분군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두동면 봉계리에서도 봉계리유적이 조사되었다<sup>2)</sup>. 알려져 있다. 또 지표조사결과를 참고 해본다면<sup>3)</sup>, 본 유적의 남과 북으로 청동기시대의 취락유적과 지석묘군, 그리고 三國時代의 고분군들이 산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지역은 일찍이 慶州에서 남으로 가는 교통로로서 형산강의 양안을 따라 인간활동이 빈발했던 곳임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지역은 월산리유적과 약 2km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데 얇은 구릉에 정상부가 폭이 넓은 대지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지역의 북으로 접하여 월산리지석묘군이 있다. 월산리지석묘는 현재 묘역으로 4, 5기의 봉분이 남아 있고 상석은 구릉사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마도 무덤축조시에 상석이 이동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조사과정에서 인접한 지석묘의 하부에 트렌치를 설치해 본 결과 생토면이 확인되었고 하부구조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지석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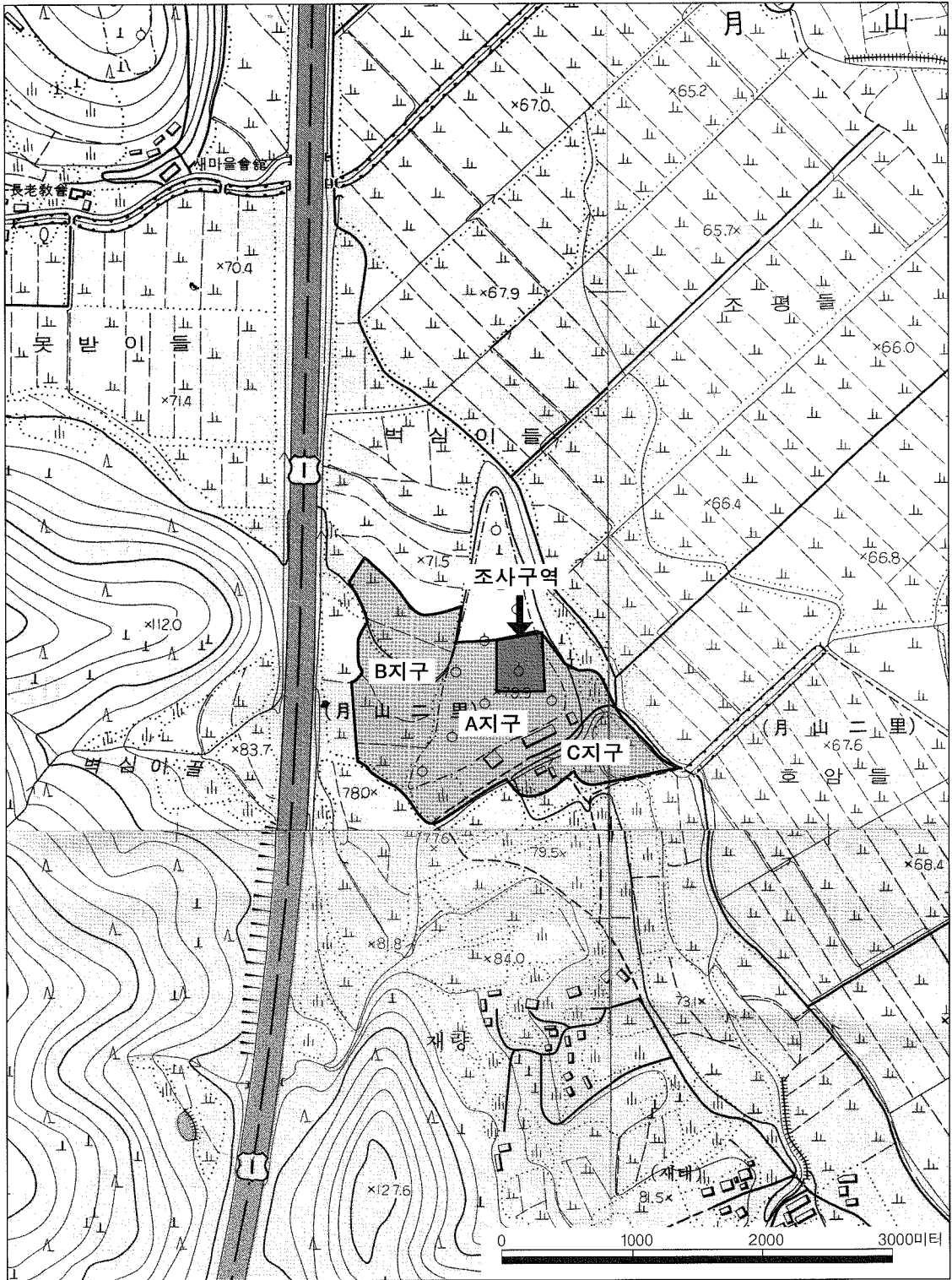
1)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1999, 『경주 월산리 화물주차장부지내 유적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집>

2) 嶺南大學校 博物館, 2000, 『蔚山鳳溪里遺蹟』, 學術調查報告 第36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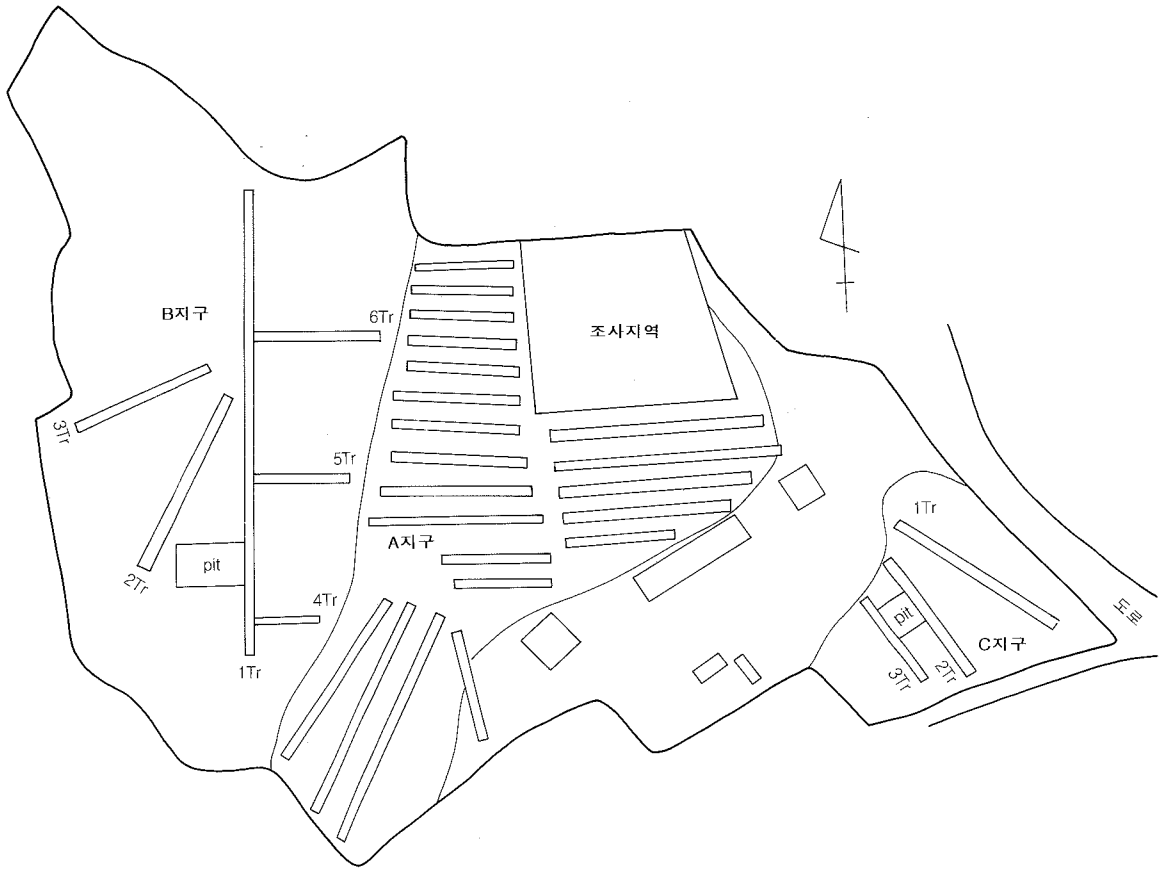
3) 蔚山市·昌原大學校 博物館, 1995, 『蔚山郡 文化遺蹟原簿』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1999, 『慶州-彦陽間 京釜高速道路擴張區間文化遺蹟地表調查報告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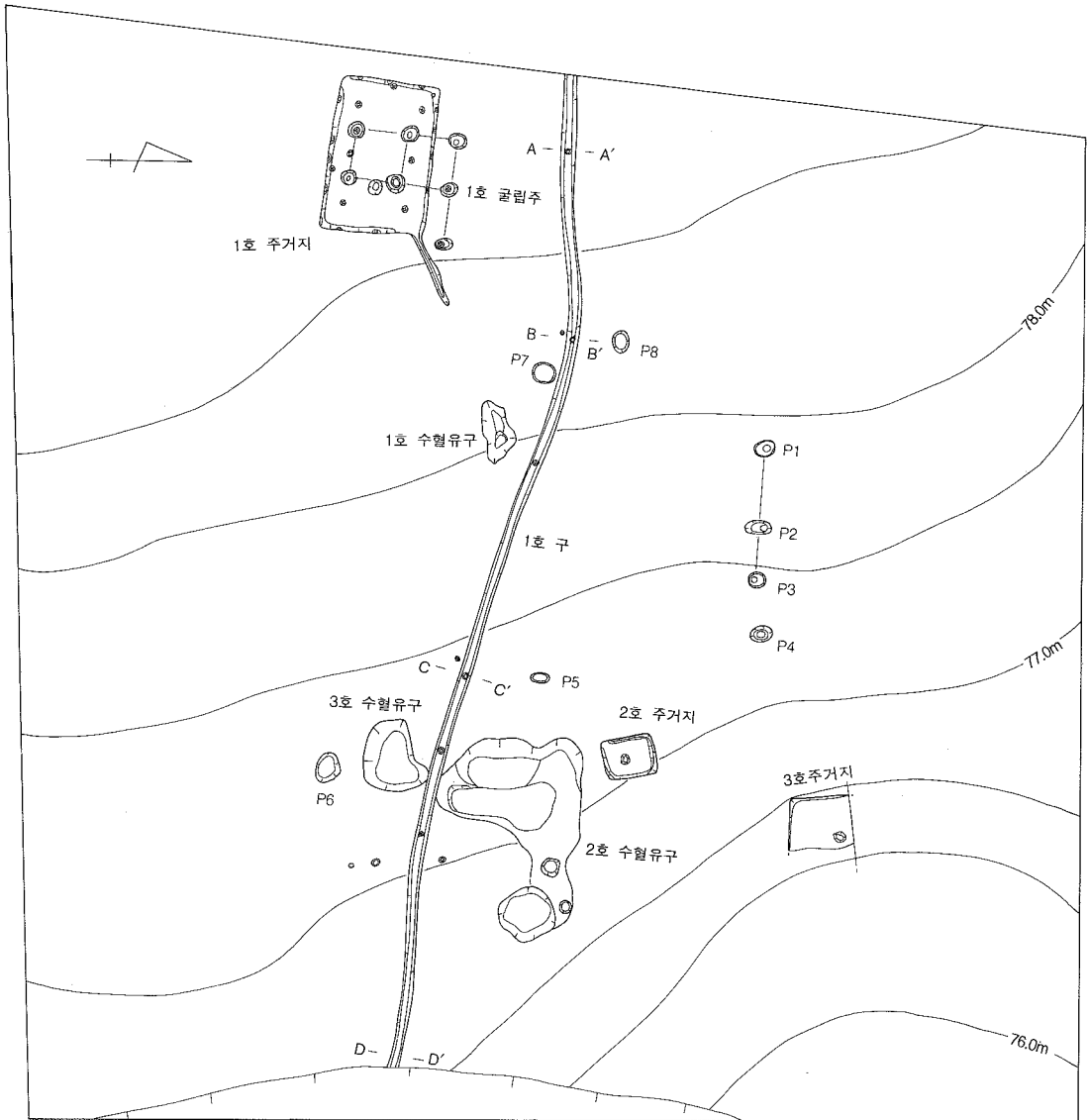
國立慶州博物館·慶州市, 1997, 『慶州遺蹟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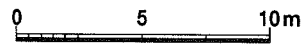
圖面 2. 遺蹟 地形圖(1/5,000)



圖面 3. 試掘調査 現況圖(1/1,200)



圖面 4. 遺構 配置圖(1/300)



상석이 옮겨지면서 하부구조와 분리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적이 조사된 지역은 형산강과 그 주변의 충적평야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으로 유적입지로서는 최적지임이 분명하지만 조사내용을 놓고 본다면 대규모의 취락이 입지하기보다는 청동기시대의 대형주거지와 주거지로 보기에 다소 빈약한 수혈유구들이 있었다. 아마도 본 유적이 일반적인 거주공간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삼국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몇몇 유구들 역시 일반주거지역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아마도 당시의 특수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렵다. 향후 주변지역의 조사를 토대로 해서 본유적의 양상을 규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Ⅲ. 調査內容

#### 1. 靑銅器時代 遺構

##### 1) 1號 住居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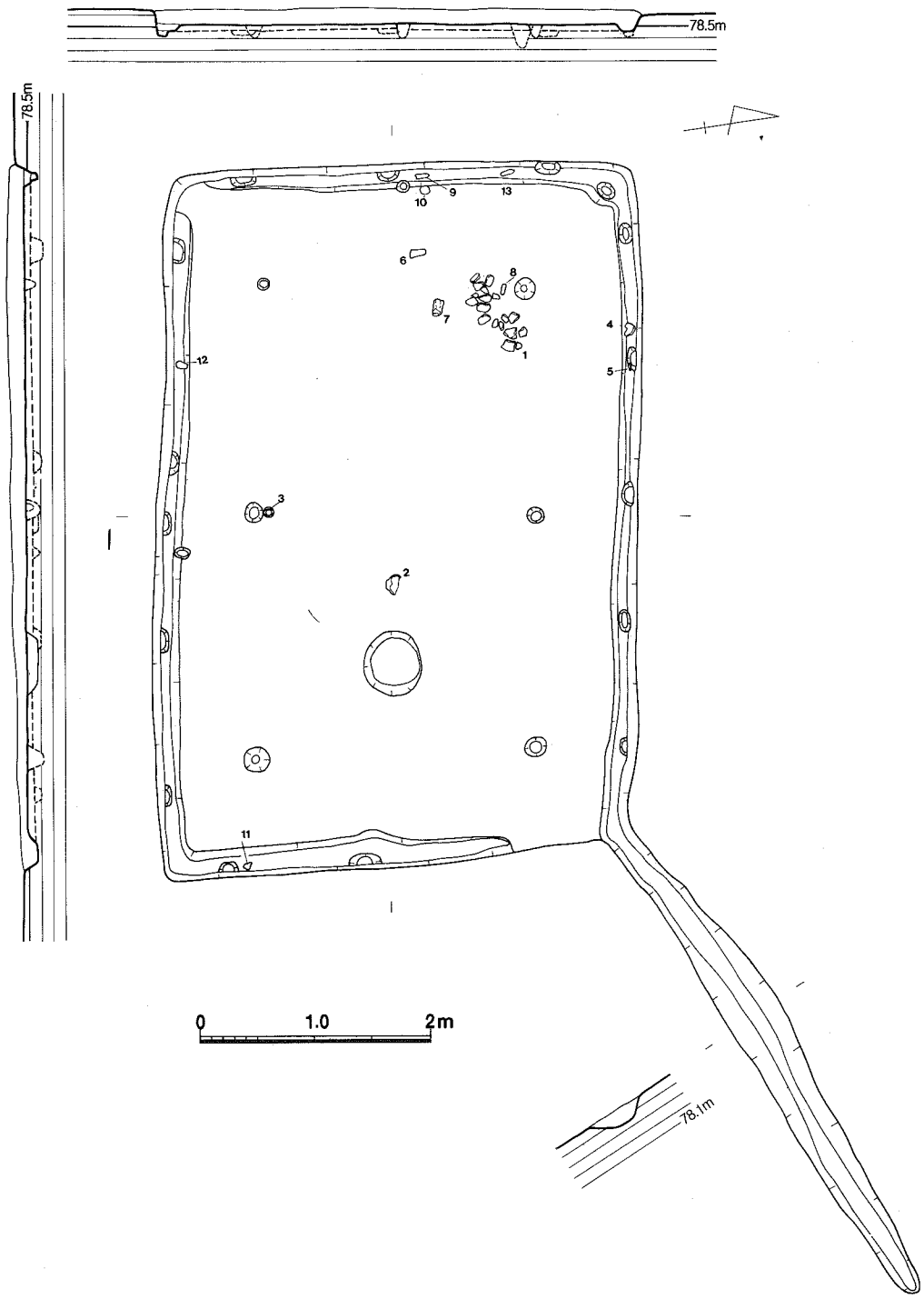
###### 가. 遺構(圖面 5, 圖版 2, 3-1~4)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6柱式의 長方形住居址이다. 장축방향은 N85°W이며, 遺構의 규모는 길이 600cm, 폭 400cm, 깊이15cm이다. 내부에는 암갈색토로 채워져 있었으며, 후대의 굴립주건물지에 의해 유구의 상면이 일부 파괴되었다.

柱穴은 6개가 배치되어 있는데 주혈간의 간격이 200~220cm로 거의 일정하게 배치되었으며, 크기와 깊이도 거의 동일하다. 爐址는 유구의 동쪽벽으로 치우쳐 설치되었는데 평면형태가 원형인 수혈로 바닥에는 소토가 채워져 있었다. 직경 55cm, 깊이 10cm이다. 壁溝는 'ㄱ'자상으로 내벽면에 모두 나타나는데 서남쪽의 모서리와 동북쪽의 모서리 일부는 단절된 상태이다. 벽구 내에는 80~100cm간격으로 주혈이 배치되어 있으며 주혈의 평면형태는 편타원형이다. 벽면쪽이 직선이고 주거지 내부쪽은 타원형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원형의 주혈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형태로 아마 각재에 가까운 목재를 쫓은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의 바닥은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고 생토면을 정지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지의 북동쪽 모서리에서 외부로 뻗어 나가는 溝는 폭 30~50cm, 깊이 15cm 규모이며, 외부로 460cm 가량 뻗어 있다. 溝來附에 柱穴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대부분 유구의 상면에서 확인되었으며, 有莖式 石鏃, 石材 등의 석기유물과 無文土器 底部, 口緣部 등의 토기유물이 출토되었다.



圖面 5. 1號 住居址 平・斷面圖<1/60>

## 나. 遺物

圖面 6-1(圖版 3-5)은 有莖式 石鏃이다. 莖部 일부가 결실된 柳葉形의 有莖式 石鏃인데 재질은 泥岩혼펠스製이며, 身部の 단면은 菱形, 莖部の 斷面은 長方形이다. 잔존길이 4.5cm, 莖部너비 1.1cm, 莖部두께 0.5cm이며, 출토위치는 5이다.

圖面 6-2(圖版 3-6)는 石劍의 莖部이며, 재질은 泥岩이다. 身部の 대부분이 결실되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잔존길이 5.2cm, 너비 3.5cm이며, 출토위치는 11이다.

圖面 6-3, 4, 5(圖版 3-7~9)는 미완성 석기이다. 아마도 石器를 제작하기 위해 일정한 크기로 裁斷한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3(圖版 3-7)은 재질이 泥岩製 세일계통의 퇴적암이다. 양측면에 날을 제작하기 위해 잔떼기한 흔적이 보인다. 길이 10.1cm, 너비 3.3cm, 두께 1.2cm이며, 출토위치는 8이다. 4(圖版 3-8)는 재질이 泥岩혼펠스이며, 장타원형이다. 양측면에 마연한 흔적이 있으며 외면으로는 타격흔이 잔존하고 있다. 길이 9.1cm, 너비 2.7cm, 두께 1.3cm이며, 출토위치는 13이다. 5(圖版 3-9)는 재질이 泥岩혼펠스이며, 전체적으로 잔떼기를 하여 정형하였다. 마연흔은 보이지 않는다. 길이 8.8cm, 너비 3.6cm, 두께 0.8cm이며, 출토위치는 9이다.

圖面 6-6(圖版 3-10)은 용도를 알 수 없는 석기 박편으로 세일계통의 퇴적암이다. 양측면에 날을 세우기 위한 타격흔이 관찰된다. 길이 17.1cm, 너비 7.9cm, 두께 2.7~2.5cm 내외이며, 출토위치는 7이다.

圖面 6-7(圖版 3-11)은 砂岩製의 숫돌이다. 3면을 활용하여 마연을 하였다. 길이 6.4cm, 두께 2.9cm이며, 출토위치는 1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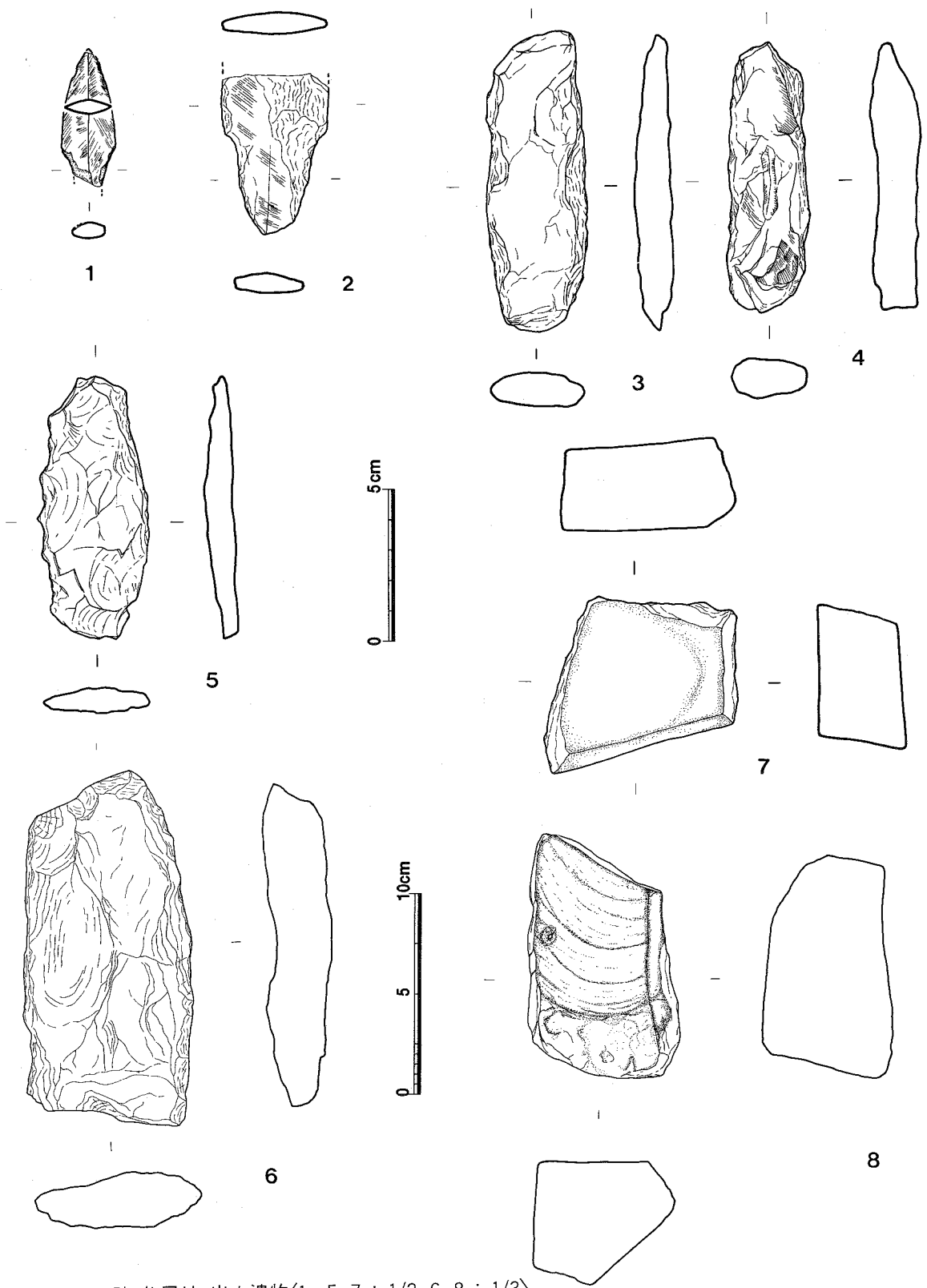
圖面 6-8(圖版 3-12)도 사암제의 숫돌이다. 전면에 마연한 흔적이 남아 있다. 길이 12.0cm, 두께 6.6cm이며, 출토위치는 6이다.

圖面 7-1(圖版 4-1)은 無文土器 口緣部片이다. 二重口緣의 無文土器로서 燒成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석영, 장석 등의 세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내외면 황갈색이며, 외면에 부분적으로 회갈색이 보인다. 외면에 물손질흔이 관찰되며, 내면은 박리가 심하다. 잔존높이 12.6cm이며, 출토위치는 1이다.

圖面 7-2(圖版 4-2)는 無文土器 頸部片으로 도면복원하였다. 내면 회황색, 외면 회황갈색이며, 燒成은 양호하다. 태토에는 정선된 점토에 세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잔존높이 7.9cm, 복원구경 17.5cm이다. 유구 내부토 조사과정에서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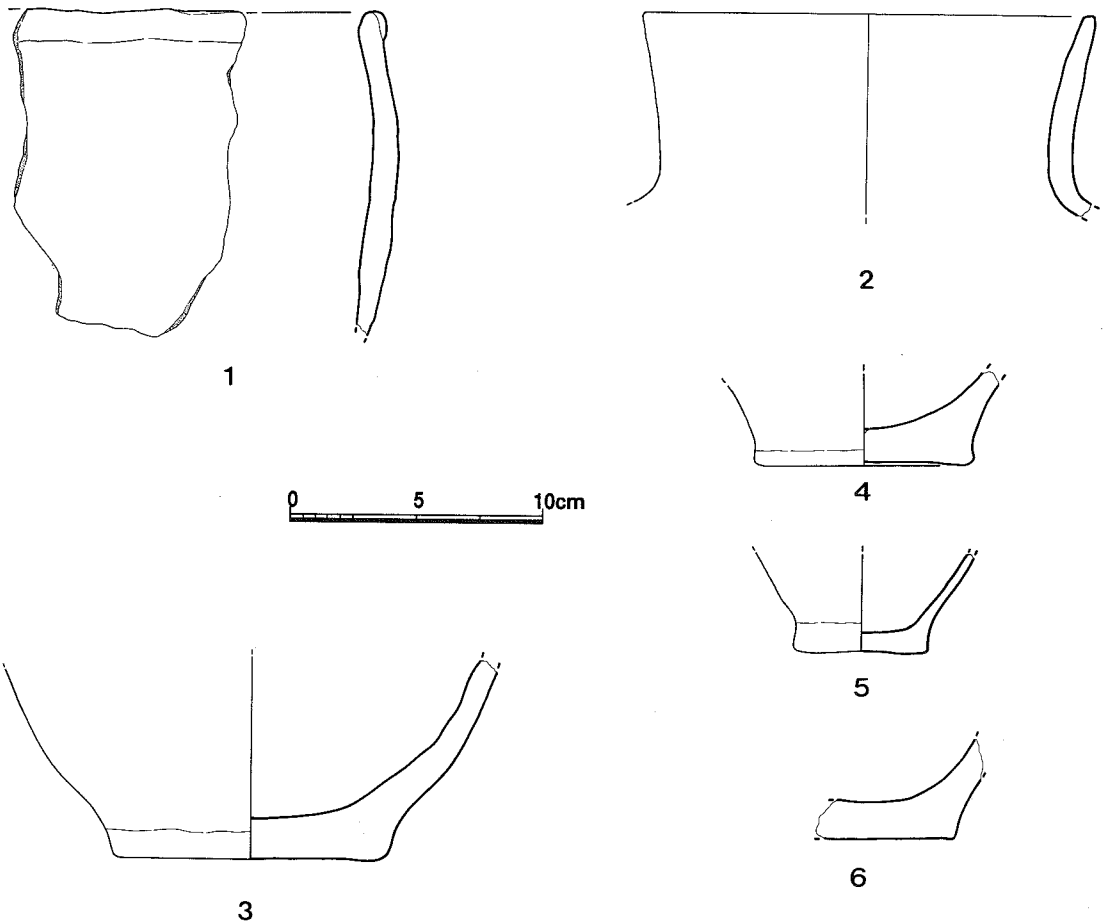
圖面 7-3(圖版 4-3)은 無文土器 底部로 燒成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는 석영 및 장석이 포함된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색상은 내외면 황갈색이며, 속심은 회황색이다. 정면기법은 박리가 심하여 나타나지 않는다. 잔존높이 7.0cm, 底徑 10.8cm이며, 출토위치는 2이다.

圖面 7-4(圖版 4-4)는 無文土器 底部이다. 1/3가량이 결실된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燒成은 보



圖面 6. 1號 住居址 出土遺物<1~5, 7 : 1/2, 6, 8 : 1/3>





圖面 7. 1號 住居址 出土遺物<1/3>

통이다.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색상은 외면 흑회색이며 내면은 황백색이고 속심은 연회색이다. 정면기법은 표면박리로 인해 관찰하기 힘들다. 잔존높이 3.6cm, 복원저경 8.2cm이며, 출토위치는 4이다.

圖面 7-5(圖版 4-5)는 丹塗磨研土器의 底部이다. 단도마연토기의 저부와 동체부인데 燒成은 양호하며, 표면박리가 심해 정면기법은 관찰되지 않는다. 내외면 황갈색이며, 외면에 부분적으로 적색의 丹이 일부 남아 있다. 잔존높이 3.8cm, 底徑 5.0cm이며, 출토위치는 3이다.

圖面 7-6(圖版 4-6)은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燒成은 양호하다. 태토에는 석립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표면이 박리되었으며, 외면에 희미하게 지두흔이 남아 있다. 잔존높이 3.7cm이며, 출토위치는 10이다.

## 2) 2號 住居址

### 가. 遺構(圖面 8, 圖版 4-7~9)

구릉의 동쪽 사면 해발 77m선상에 위치하는 소형의 方形 住居址이다. 장축방향은 N77° E이고 규모는 길이 210cm, 폭 170cm이다. 床面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周溝는 네벽을 따라 설치되어 있는데 남서쪽 모서리 부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爐址는 주거지의 중앙에 위치하는데 특별한 시설은 하지 않았으며, 약간의 흙이 패인 형태로 내부에는 燒土가 채워져 있었다. 柱穴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주거지의 규모로 볼 때 처음부터 주혈을 만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유물은 無文土器 底部와 孔列土器 口緣部片, 砥石, 玉 등이 있는데 대부분 주거지 상면에서 5cm가량 뜬 상태에서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규모로 볼 때 주거공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유물의 출토양상만으로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어렵지만 도구 제작을 위한 작업공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나. 遺物

圖面 8-1(圖版 5-1)은 청록색의 玉이다. 평면 원형, 단면 장방형이다. 구멍은 양쪽에서 뚫었으며, 지름 1.1cm, 두께 0.5cm, 구멍지름 0.3~0.1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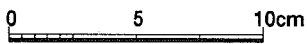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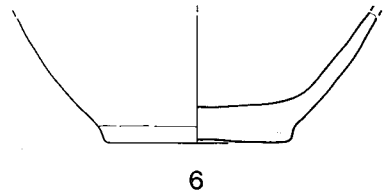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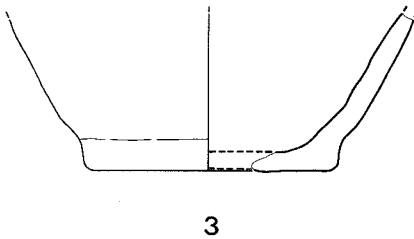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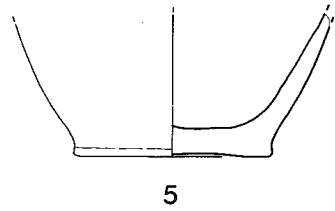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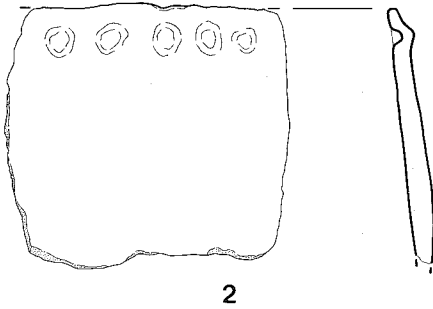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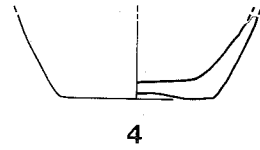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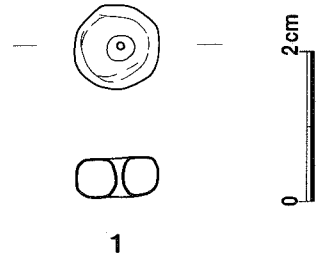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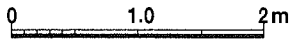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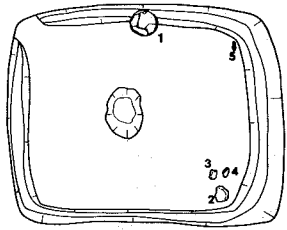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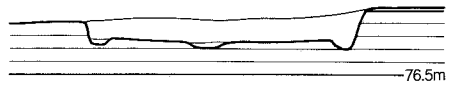
圖面 8-2(圖版 4-10)는 孔列土器의 口緣部片이다. 燒成은 양호하며, 태토는 정선된 점토로 장식, 운모가 혼입되어 있다. 내외면 황갈색이다. 지름 0.5cm내외의 공열문이 구연단에서 0.8cm 아래 시문되어 있다. 공열문간 간격은 1.0cm이며, 내외면 물손질정면하였다. 잔존길이 10.1cm이다.

圖面 8-3(圖版 4-11)은 無文土器 底部와 胴體部 일부이다. 부분적으로 결실되었으며 燒成은 양호하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적갈색이며, 속심은 암갈색이다.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저부와 동체부의 연결부위에 희미하게 지두흔이 남아 있다. 잔존높이 6.2cm, 추정저경 9.5cm이며, 출토위치는 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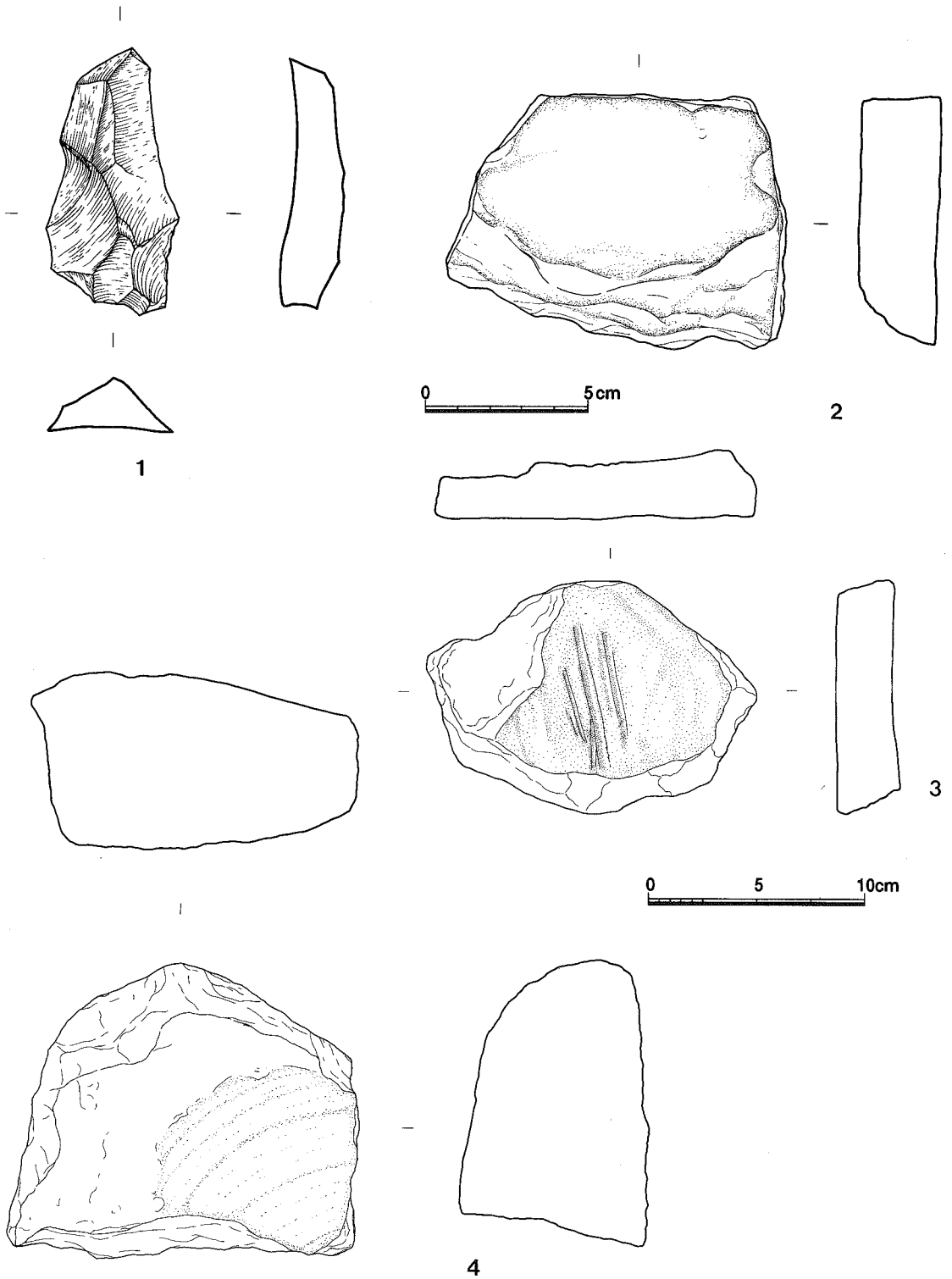
圖面 8-4(圖版 5-2)는 無文土器 底部이다. 燒成은 보통이며, 외면은 적갈색, 내면은 암갈색, 속심은 흑갈색이다. 태토에는 석영, 장식 등의 석립이 다량으로 혼입되어 있다. 정면기법은 표면 박리로 인해 남아 있지 않다. 잔존높이 5.0cm, 底徑 6.9cm이다.

圖面 8-5(圖版 4-12)는 無文土器 底部로 燒成은 양호하다. 정선된 태토에 장식, 운모가 혼입되어 있으며, 내외면 적갈색, 외면 일부에 옅은 적갈색을 띤다. 외면에 丹의 흔적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底部외면에 지두흔이 남아 있으나 박리가 심하다. 잔존높이 5.1cm, 底徑 7.5cm이다.

圖面 8-6(圖版 5-3)은 無文土器 底部片으로 燒成은 보통이다. 태토에 석영, 장식 등의 굵은 석



圖面 8. 2號 住居址 平・斷面圖(1/60) 와 出土遺物 <1 : 1/1, 2~7 : 1/3>



圖面 9. 2號 住居址 出土遺物〈1, 2 : 1/2, 3~4 : 1/3〉

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내면은 회황색이며, 외면과 속심은 회흑색이다. 표면 박리가 심해 정면기법은 알 수 없다. 잔존높이 3.7cm, 추정저경 8.1cm이다.

圖面 8-7(圖版 5-4)은 無文土器 底部片이다. 燒成상태는 양호하며 정선된 태토에 장식, 운모가 혼입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황갈색이며 부분적으로 적갈색이다. 표면은 박리되었으며, 底部에 일부 지두흔이 희미하게 잔존하고 있다. 잔존높이 4.4cm, 추정저경 11.9cm이다.

圖面 9-1(圖版 5-5)은 剝片으로 석재로 사용되기 위한 격지이다. 泥岩製이며 전면에 타격흔이 관찰된다. 길이 8.5cm, 너비 4.0cm이며, 출토위치는 5이다.

圖面 9-2(圖版 5-6)는 세립사암제의 숫돌로 한쪽면을 선택하여 석기를 마연했던 것으로 보인다. 길이 10.6cm, 너비 7.9cm, 두께 2.5cm이며, 출토위치는 3이다.

圖面 9-3(圖版 5-7)도 역시 세립사암제의 숫돌이다. 전면을 숫돌로 사용하였으며, 사용흔적이 잘 남아 있다. 길이 14.8cm, 너비 10.3cm, 두께 2.3cm이며, 출토위치는 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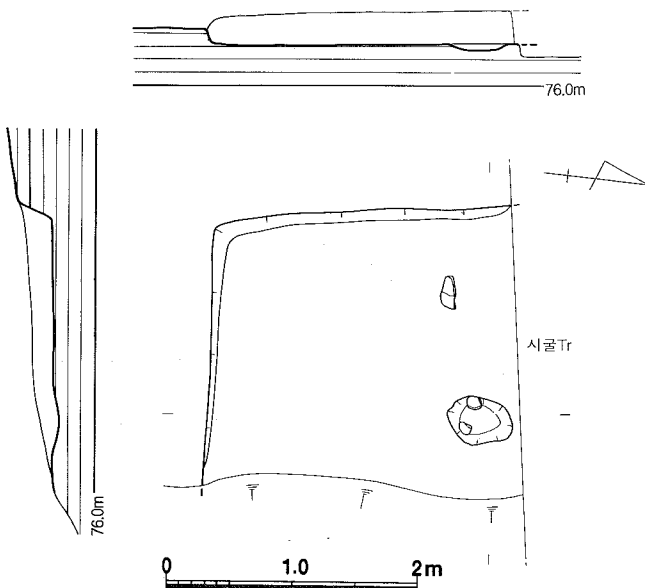
圖面 9-4(圖版 5-8)도 세립사암제의 숫돌로 전면을 磨研面으로 사용하였다. 길이 16.1cm, 너비 13.2cm, 두께 8.2cm이며, 출토위치는 2이다.

### 3) 3號 住居址

#### 가. 遺構(圖面 10, 圖版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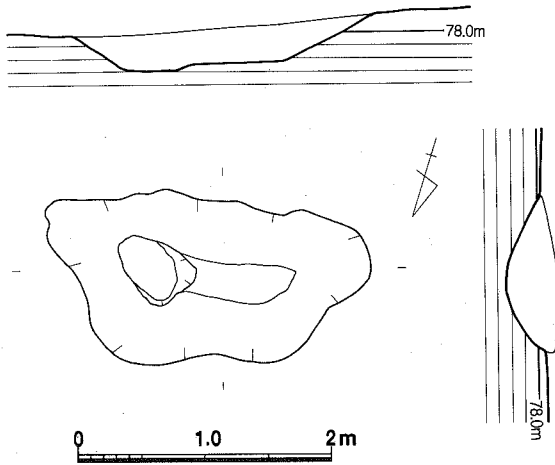
2號 住居址의 북동쪽 해발 76.5m선상에 위치하고, 북쪽과 동쪽의 대부분이 유실되어 정확한 평면형태는 알 수 없지만 잔존상태로 볼 때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만들어진 장방형 주거지로 추정된다. 장축방향은 N83°E이고, 遺構의 규모는 잔존길이 240cm, 잔존폭 230cm이다.

床面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柱穴과 벽口는 확인되지 않았다. 爐址의 위치는 주거지의



圖面 10. 3號 住居址 平·斷面圖<1/60>

의 중앙이며 특별한 시설없이 상면을 약간 파서 만들었다. 내부에는 소토가 채워져 있었다. 유물은 기형을 알 수 없는 무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圖面 11. 1號 豎穴遺構 平·斷面圖(1/60)

#### 4) 1號 豎穴遺構

##### 가. 遺構(圖面, 圖版 5-10, 11)

일정한 형태가 없는 不定形의 豎穴遺構로 해발 78m선상에 위치하며, 1호 주거지의 동쪽으로 뻗어 나온 溝와 인접해 있다. 遺構의 바닥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이며 아래 쪽으로 갈수록 깊어진다. 유물은 기형을 알 수 없는 무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유구의 배치상태로 볼 때 1號 住居址의 외부로 빠져 나온 溝와 연결

될 가능성이 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유구의 내부토가 1호 주거지에서 보이는 점성이 강한 암갈색토로 구성되어 있는 점과 遺構의 위치, 그리고 내부에서 무문토기편이 출토되는 점 등으로 보아 1호 주거지와 동시기에 존재했던 유구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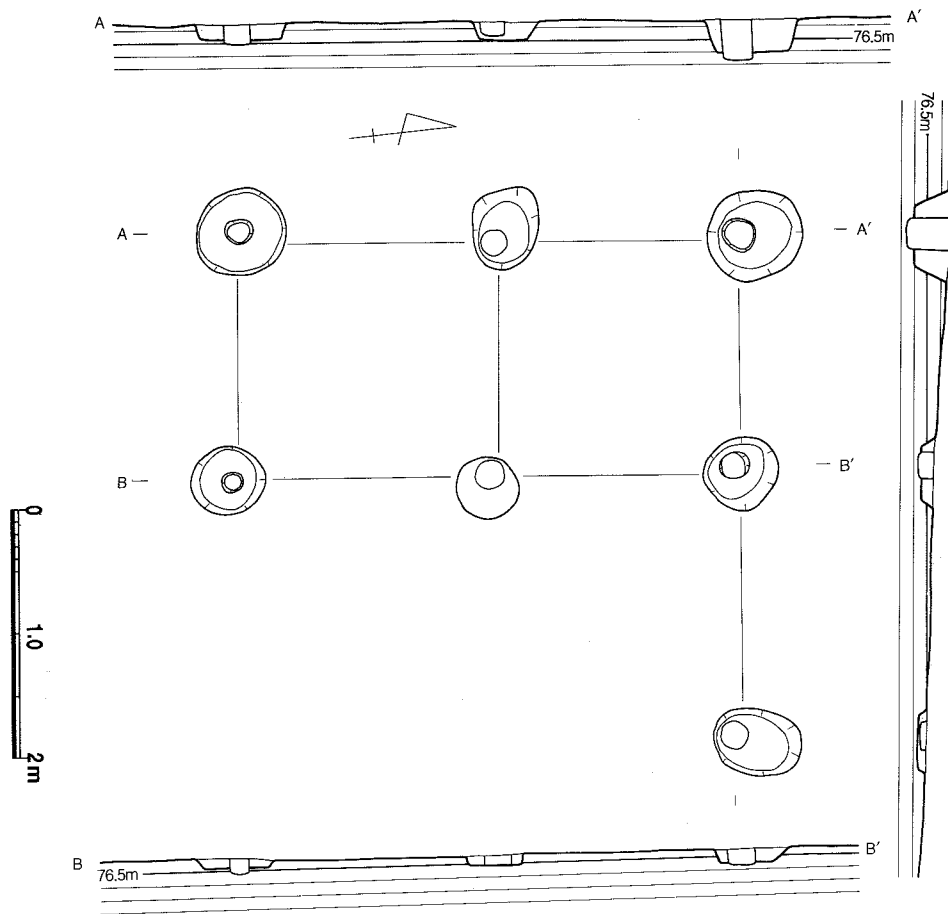
## 2. 三國時代 遺構

### 1) 掘立柱 建物

#### 가. 遺構(圖面 12, 圖版 6)

1號 住居址 위에 중복되게 설치되었다. 遺構의 방향은 N77° E이다. 구조는 정면 2칸 측면 1칸의 구조에 동쪽으로 하나의 주혈이 더 있다. 주혈은 모두 7개이다. 주혈간의 거리는 140~150cm, 정면 450cm, 측면 250cm정도이다. 주혈의 규모는 지름 50~70cm, 깊이 10~25cm이다. 내부의 木柱는 직경 20cm, 깊이 10~30cm이다. 단면상으로 보아 목주의 하단부는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그리고 목주는 대부분 주혈의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는 목주를 쉽게 세우고, 또 지탱하는 힘이 중앙에 설치하는 것 보다는 유리했기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혈 내부에서 무문토기편이 확인되기도 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주혈의 형태면에서 볼 때 주변에서 확인되고 있는 1호 溝와 P1~P8과 관련된 遺構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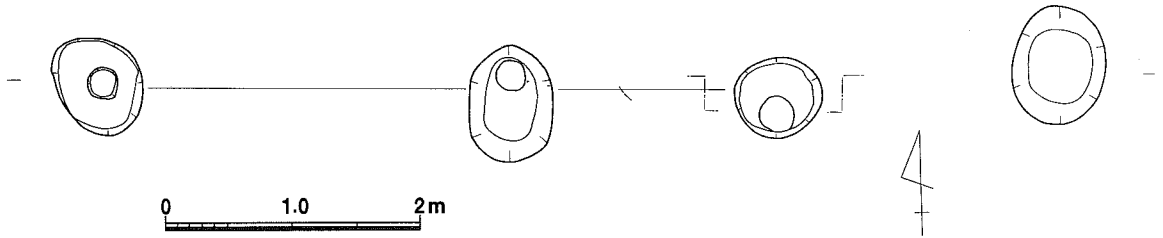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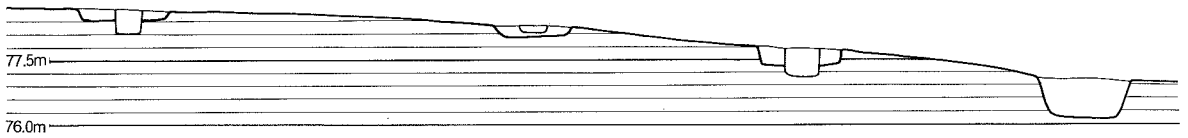


圖面 12. 1號 掘立柱 建物 平・斷面圖(1/60)

## 2) P1~P4 (圖面 13, 圖版 7-1)

해발 78m~77m선상에 구릉의 사면을 따라 직선상으로 확인되는 4개의 주혈이다. P1~P3의 3개는 직경 60~80cm이며 내부에 木柱가 있는 구조이다. P4는 직경이 90cm 가량으로 규모가 크며 내부에 木柱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구 배치로 볼 때는 관련성이 있어 보이지만 구조상으로는 약간 다른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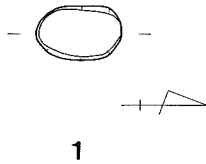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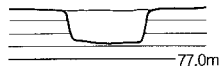
P1와 P2 사이의 거리는 250cm, P2와 P3 사이의 거리는 140cm로 일정하지 않다. 단면상 목주의 끝부분이 편평하게 나타나고 있어 밑등을 가공한 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혈이 확인된 면에서 주변으로 특별하게 삭평내지는 교란된 흔적도 없으므로 3개의 주혈만으로 어떤 시설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기능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내부에서 도질토기편이 확인되었다. P4는 원형의 수혈로 바닥면이 편평하게 조성되었다. 직경 90cm이며, 깊이는 30cm이다.



圖面 13. P1~P4 平·斷面圖<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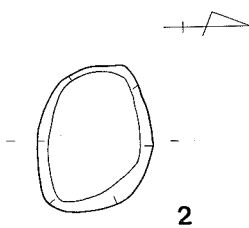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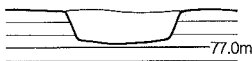
### 3) P5, P6 (圖面 14, 圖版 7-3, 4)

P5는 2호 수혈유구의 서쪽에 인접해 있으며 바닥면은 편평하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내부에는 회흑갈색 부식토가 채워져 있었으며, 출토된 유물은 없다. 규모는 직경 65cm, 깊이 25cm이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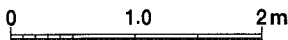
P6는 3호 수혈유구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닥면은 편평하게 정지되어 있다. 내부에는 회흑갈색 부식토로 채워져 있으며 기형을 알 수 없는 도질토기편이 소량 혼입되어 있었다. 역시 정확한 기능은 알 수가 없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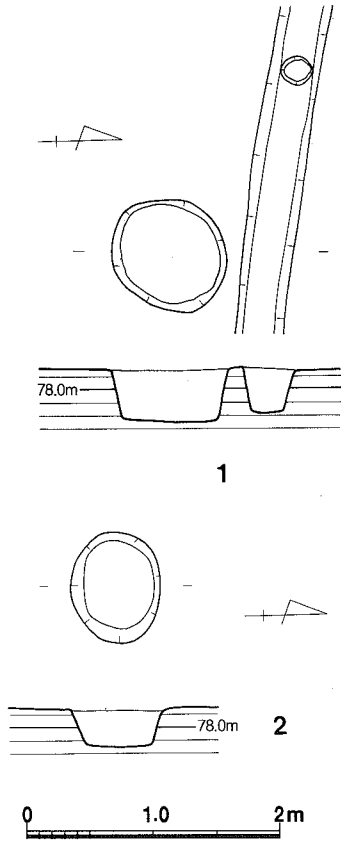
### 4) P7, P8(圖面 15, 圖版 7-2)

해발 78.5m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1호 溝의 남쪽에 P7이, 북쪽에 P8이 위치하고 있다. 1호 溝와 인접해 있다는 것만으로 관련시설로 보기는 힘들다. 평면은 원형이며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목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출토된 유물도 없다. P7의 규모는 직경 80cm, 깊이 40cm, P8의 규모는 직경 80cm, 깊이 2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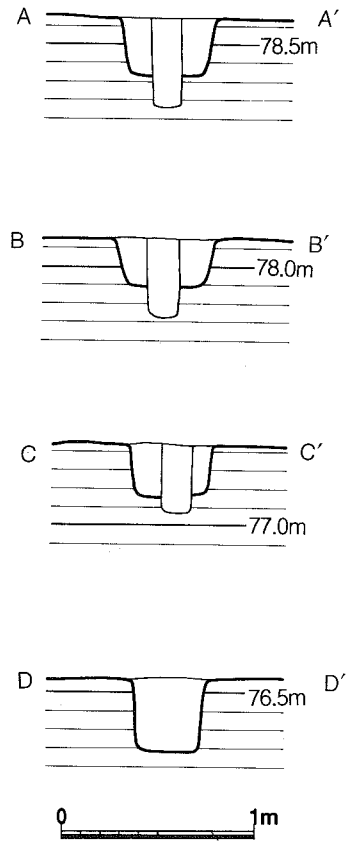


圖面 14. P5~P6 平·斷面圖<1/60>





圖面 15. P7~P8 平·斷面圖<1/60>



圖面 16. 1號 溝 斷面圖<1/40>

### 5) 1號 溝狀 遺構

가. 遺構(圖面 16 및 유구배치도 참조, 圖版 7-2, 4)

구릉의 정상부에서 西-東으로 뻗어 있는데 서쪽의 시작부분은 농로에 의해 일부 파괴되었으나 더 이상 서쪽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구릉의 정상부인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쪽의 끝부분은 후대의 경작으로 인해 유실되었다. 규모는 길이 35m, 폭 40cm, 깊이 40cm이다.

溝의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하였으며, 내부에 지름 15cm의 주혈이 6개가 확인되었다. 주혈간 거리는 가깝게는 3m에서, 먼 것은 8m까지 일정하지 않다. 내부토는 암황갈색 부식토로 채워져 있었다.

이 유구의 기능은 내부의 주혈과 단면형태를 볼 때, 울타리나 목책 등을 시설하기 위한 기초 시설로 판단된다. 유물은 無文土器片과 陶質土器片 등이 출토되었으나 기형을 알 수 있는 것은 없다. 豎穴遺構 2호, 3호에 의해 유구의 일부가 훼손된 점으로 보아 遺構의 조성 시기는 삼국시대 정도로 볼 수 있다.

## 6) 2號 豎穴遺構

### 가. 遺構(圖面 17, 圖版 8-3;9-5)

遺構는 길이 680cm, 너비 550cm의 부정형이며, 유구 바닥면의 상태로 볼 때 적어도 2~3개 정도의 작은 구덩이가 모여서 만들어진 遺構로 판단된다. 수혈은 일차적으로 전체적으로 파고 다시 부분적으로 작은 구덩이를 판 형태이며, 동쪽 끝부분은 둥근형태로 조금 더 깊게 파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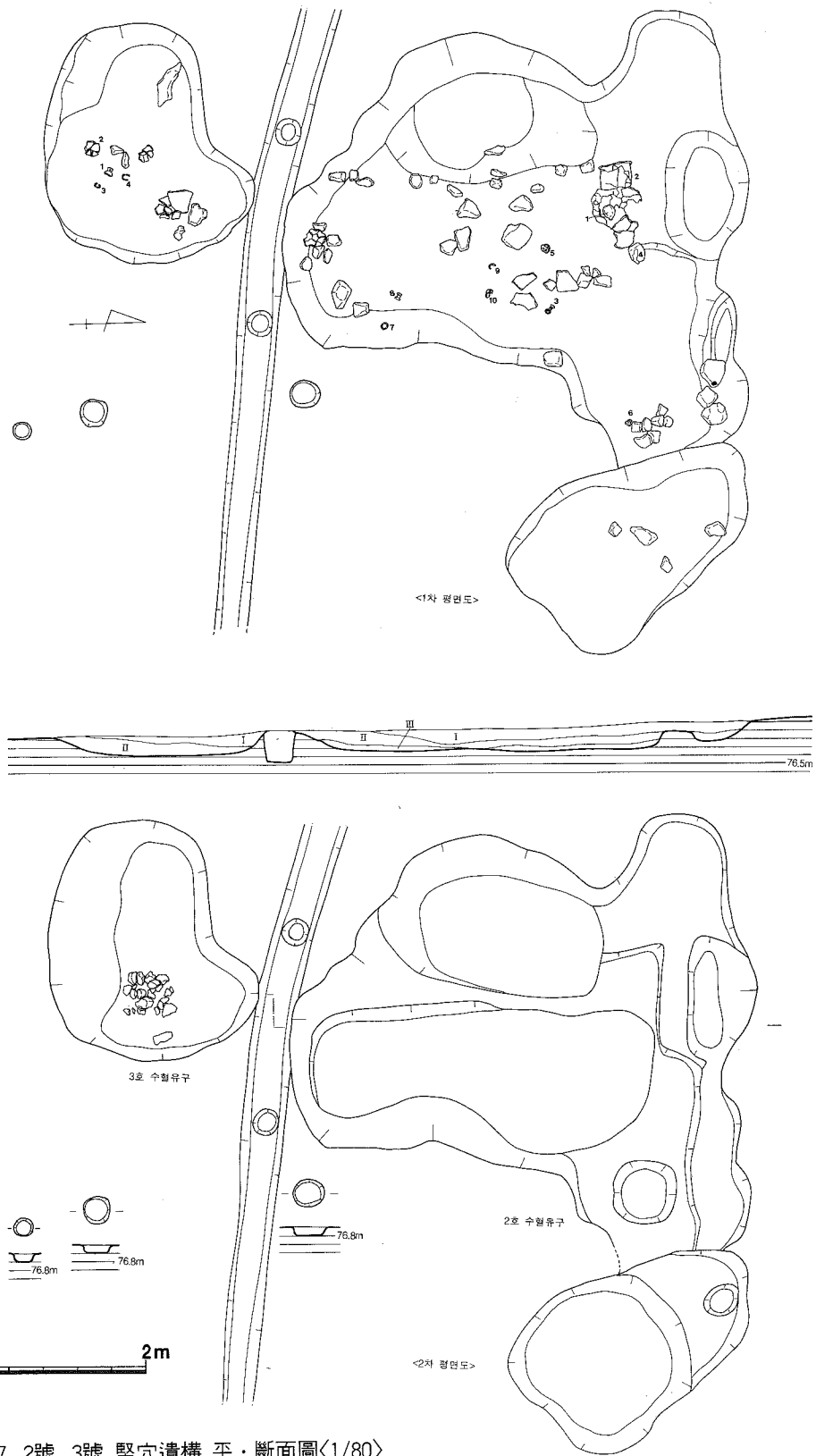
내부 부식토는 風化巖盤과 木炭, 燒土 등이 혼입된 암황갈색토로서 3개층으로 세분되는데 III층은 바닥을 정리하기 위해 채워진 흙으로 판단되며, 유물이 II층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I, II층은 유구의 폐기 이후에 들어온 매몰토로 보인다. II층까지 제거한 상태에서 1차 평면조사를 하고 그 다음 III층을 제거하여 바닥면의 형태를 조사하였다.

I, II층을 제거한 후의 양상은 비교적 편평한 면이 넓게 나타났으며, 高杯, 시루, 甌 등의 토기유물과 함께 지름 20~30cm의 할석들이 군데군데 흩어져 있었다. 동쪽끝의 수혈에서는 중앙에 소토가 두껍게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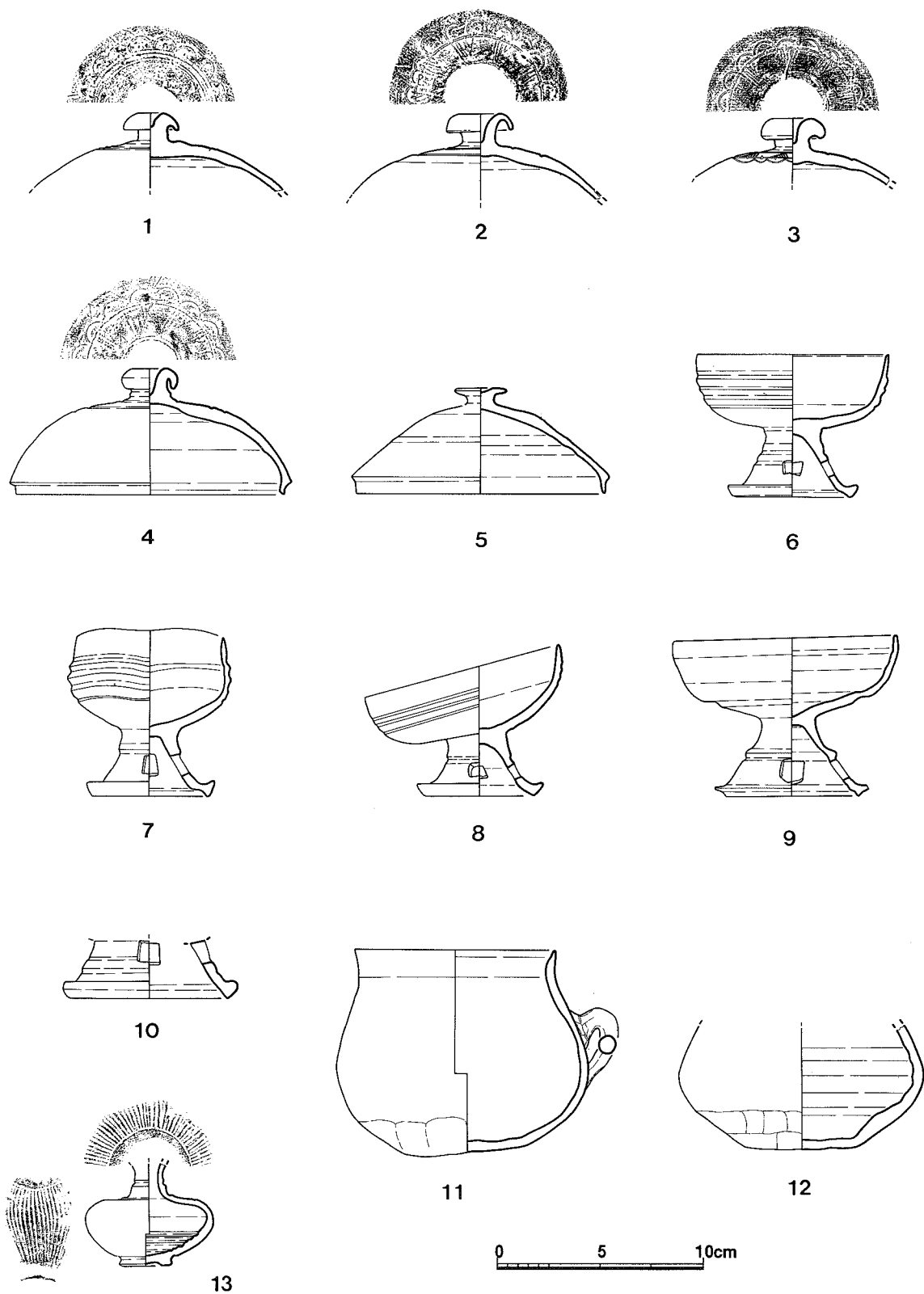
豎穴의 내부토를 모두 제거한 후의 평면상태는 바닥면이 고르지 않았고, 크게 3개의 작은구덩이로 이루어져 있었다. 동쪽으로 치우친 부분에서 지름 70cm, 40cm의 주혈이 확인되었는데 이 수혈유구의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형태로 보면 주변에서 확인되고 있는 P유구와 유사하다.

### 나. 遺物

圖面 18-1~5(圖版 10-1~5)는 高杯의 뚜껑이다. 1(圖版 10-1)은 1/2정도 결실되었는데 도질제이며,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석영, 장석 등의 세석립이 혼입되었다. 색조는 외면은 회청색이며 내면은 암흑색이며 일부 암회색, 회자색도 보인다. 배신부 상단에 2조 침선이 돌아가며, 상단에 콤포스문의 인화문이 시문되어 있다. 잔존높이 3.6cm, 꼭지경 1.3cm이다. 2(圖版 10-2)는 드림턱이 완전히 결실되었다. 도질제로 燒成은 양호하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장석, 석영 등이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회백색이다. 蓋身上部에 2조의 침선이 돌아가며, 상단에 三角集線文을, 하단에 圓點文이 시문되었다. 잔존높이 4.1cm, 꼭지경 1.8cm이다. 3(圖版 10-3)은 드림턱이 결실되었으며 陶質製로 燒成은 양호한 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석영, 장석이 혼입되어 있다. 2와 同形이다. 잔존높이 3.1cm, 꼭지경 1.8cm이다. 4(圖版 10-4)는 전체의 1/3만 잔존한다. 도질제이며,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석영, 장석, 운모가 소량으로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 회청색이다. 문양구성은 2와 같다. 높이 6cm, 口徑 12.5cm, 꼭지경 1.4cm이다. 5(圖版 10-5)는 배신부분의 1/3정도 결실되었다. 燒成은 불량한 편이며,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장석, 운모가 혼입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회백색이며, 박리가 심해 정면기법의 관찰이 어렵다. 희미하게 회전물손질흔이 잔존하고 있다. 높이 5.5cm, 입지름 11.6cm, 꼭지경 2.4cm이다.



圖面 17. 2號, 3號 豎穴遺構 平·斷面圖<1/80>



圖面 18. 2號 豎穴遺構 出土遺物<1/3>

圖面 18-6(圖版 10-6)은 구연 및 배신부 일부가 결실된 臺附盃이다. 燒成은 양호하며 태토에는 비교적 정선된 점토에 석영, 장석, 운모가 소량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전체 회백색이며 일부 흑회색도 보인다. 배신부에는 4조의 돌대를 돌렸으며, 대각에는 방형의 투창 2개를 대칭되게 뚫었다.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자연유가 산화, 박리되어 있다. 대각단 부분에 짙은 흔이 남아 있다. 높이 7.0cm, 口徑 8.3cm, 底徑 4.8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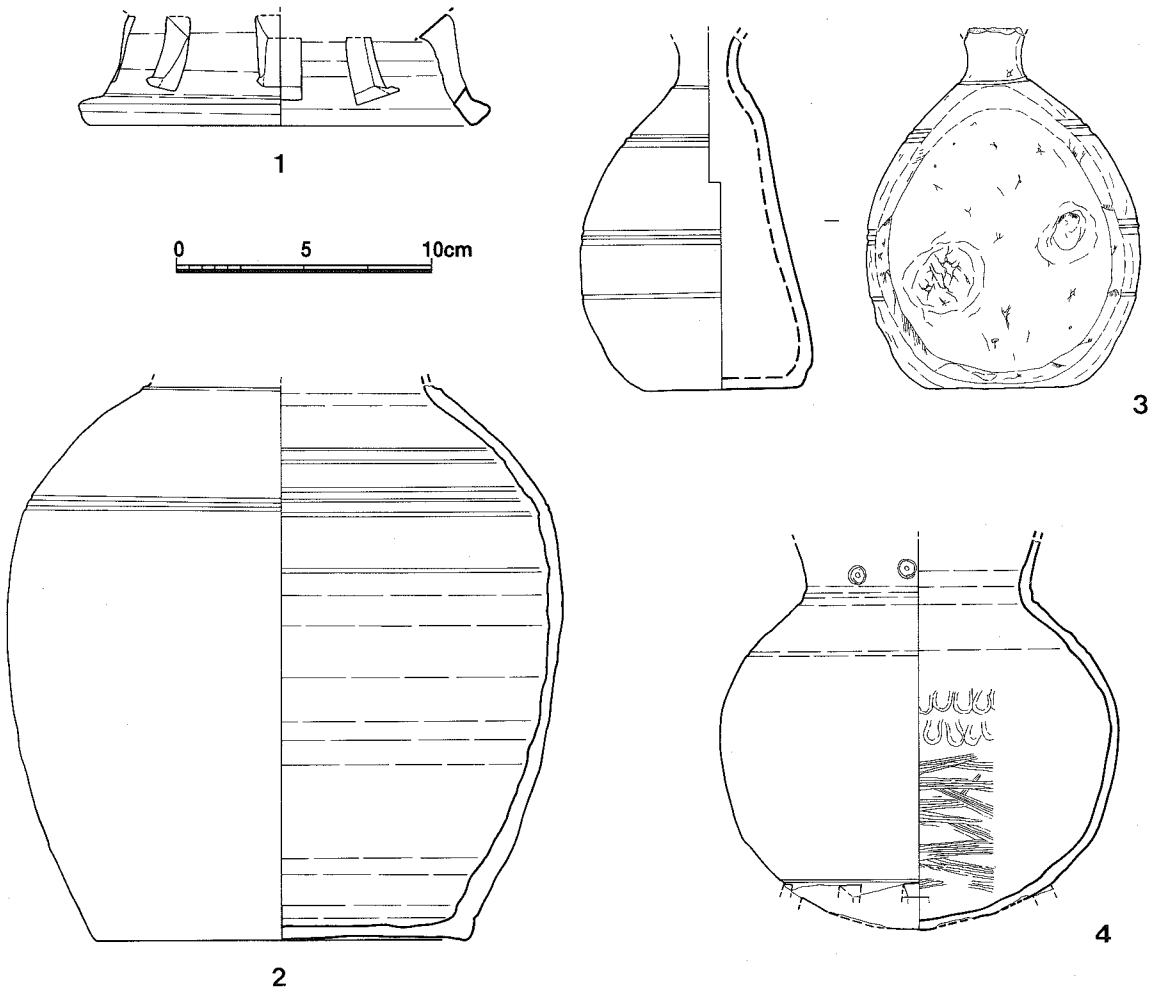
圖面 18-7~9(圖版 10-7~9)는 高杯形의 臺附盃이다. 7(圖版 10-7)은 대각, 구연단, 배신 일부가 결실되었고 배신부가 찌그러졌다. 燒成은 보통이며, 태토에는 석영, 장석, 운모가 소량 혼입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내외면 회청색이며 대각에는 산화로 인해서 황회색을 띤다. 대각에는 사다리꼴 투창 2개가 있다. 높이 7.8cm, 추정구경 8.5cm, 底徑 5.0cm이며, 출토위치는 8이다. 8(圖版 10-8)은 구연과 배신부분이 1/4정도 결실되었다. 杯身 부분이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었다. 내외면 회백색이며 일부 황갈색도 포함되어 있다. 태토는 비교적 정선된 점토에 석영, 장석이 혼입되어 있다. 대각에는 1조의 침선이 들어가며 하단에 방형의 투창이 2개 있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흔이 남아 있으며 배신내부에는 자연유가 산화·박리되어 있다. 높이 6.2cm, 口徑 9.4cm, 底徑 5.1cm이며, 출토위치는 6이다. 9(圖版 10-9)는 배신부와 대각 일부가 결실되었다. 燒成은 양호하며, 정선된 태토에 운모, 장석이 혼입되어 있다. 내외면 회청색이며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투창은 방형으로 2개이다. 높이 7.5cm, 口徑 10.4cm, 底徑 6.2cm이며, 출토위치는 4이다.

圖面 18-10(圖版 10-10)은 高杯形 臺附盃의 臺脚으로 생각된다. 燒成은 보통이며, 내외면 회청색,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장석, 석영 등의 세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대각에 방형의 투창 2개가 있다. 내외면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기면에 일부 기포가 보이며 산화박리가 심하다. 잔존높이 2.9cm, 底徑 7.4cm이며, 출토위치는 7이다.

圖面 18-11(圖版 10-11)은 把手附盃이다. 동체부 일부가 부분적으로 결실된 것을 제외하면 거의 완형이다. 燒成이 양호하며, 태토에는 석영, 장석이 등의 세석립이 혼입되었다. 외면은 회백색이며 부분적으로 암회색이 나타난다. 내면은 회백색이고 속심은 연회색이다. 내면의 동체하부에 부분적으로 녹황색의 자연유가 부착되었다. 동체하부에 깎기흔이 남아 있다. 내면은 전체적으로 회전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높이 9.1cm, 口徑 9.2cm, 底徑 5.7cm이며, 출토위치는 5이다.

圖面 18-12(圖版 10-12)는 평저壺이다. 구연부와 동체부 1/2정도가 결실되었다. 도질제이며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장석, 석영 등의 석립이 소량 혼입되었다. 전체 회청색이며 일부 적갈색도 보인다.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높이 5.8cm, 底徑 5.2cm, 胴最大徑 11.3cm이며, 출토위치는 10이다.

圖面 18-13(圖版 10-13)은 小形의 瓶이다. 구연단이 결실되었다. 燒成은 양호하며, 태토는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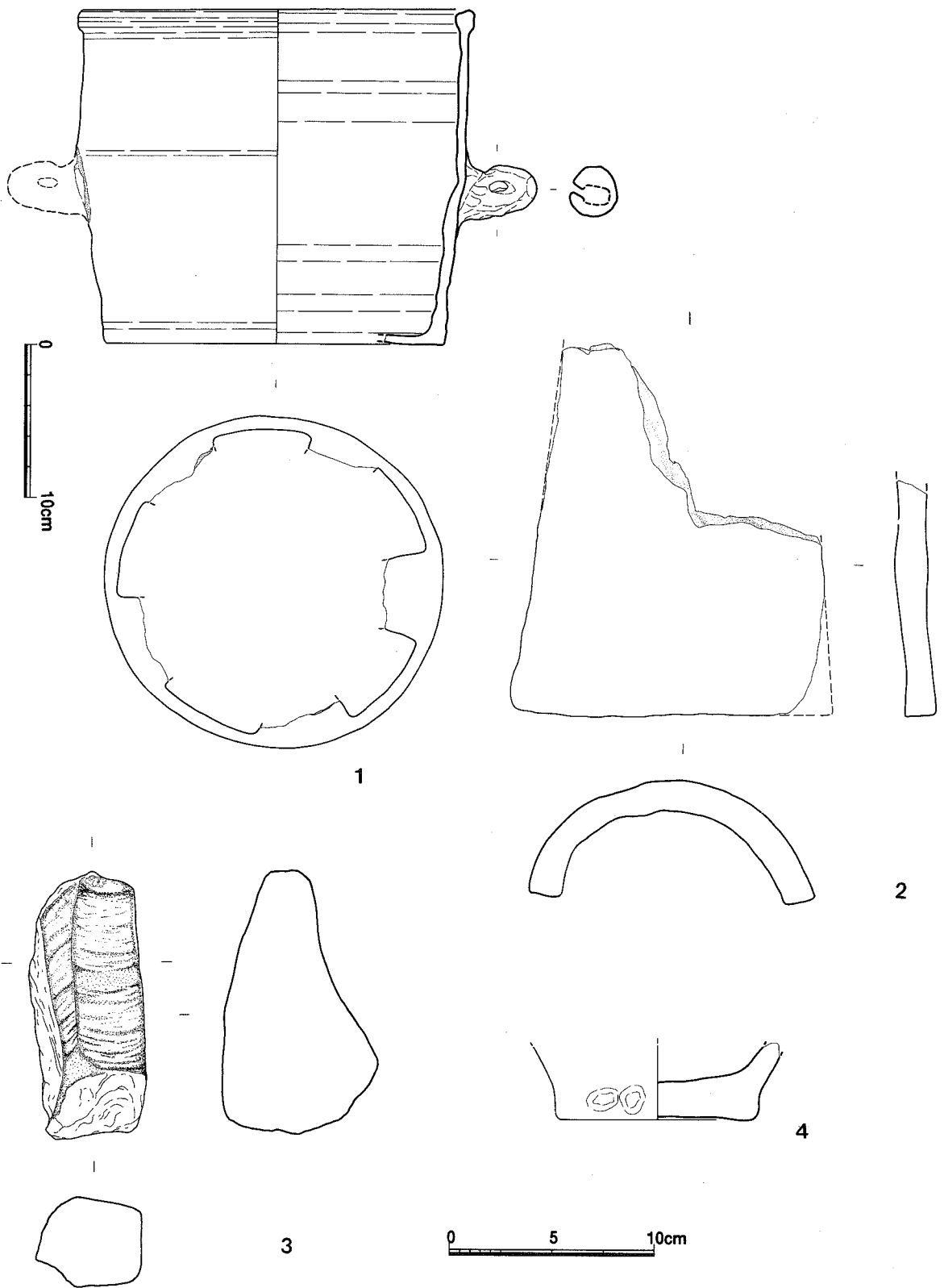


圖面 19. 2號 豎穴遺構 出土遺物<1/3>

석, 운모가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전체적으로 암회색이며 일부 흑회색도 보인다. 동체부 전면에 세로로 돌대를 만들고 돌대와 돌대의 사이에 点列文을 종방향으로 시문하였다. 구연부와 견부일부에 목리흔이 보인다. 잔존높이 4.8cm, 胴最大徑 6.0cm, 底徑 2.6cm이다.

圖面 19-1(圖版 11-4)은 臺附壺의 臺脚片이다. 燒成은 양호한 편이며, 태토는 비교적 정선된 점토에 장식, 석영 등의 세석립이 소량 혼입되었다. 색조는 외면은 회백색, 회청색이며, 내면은 연회색, 회청색이다. 대각의 장방형투창은 잔존상태로 보아 9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잔존높이 4.3cm, 底徑 14.5cm이며, 출토위치는 9이다.

圖面 19-2(圖版 11-6)는 동체부 1/4, 및 底部 일부가 결실된 壺이다. 燒成은 보통이며, 태토에 장식, 운모가 다량 혼입되어 있다. 색상은 전체적으로 암청회색이며 부분적으로 명황색이다. 속



圖面 20. 2號 豎穴遺構 出土遺物<1 : 1/4, 2~4 : 1/3>

심은 회백색이다. 동체부의 상단에 1조의 돌대가 횡방향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아래에 2조의 침선이 횡방향으로 돌아간다. 전체적으로 박자로 두드린 후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내면에는 뚜렷하게 회전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잔존높이 22cm, 底徑 14.5cm, 胴最大徑 21.6cm이며, 출토위치는 3이다.

圖面 19-3(圖版 11-5)은 口緣 일부가 결실된 扁瓶이다. 정선된 태토에 장식, 석영 등의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구연부를 중심으로 한쪽 기벽은 편평하게 만들었으며, 한쪽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둥근면에는 頸部 아래에 1조의 침선이 있고 그 아래에 2조의 침선이 2개 횡방향으로 돌아가며 동체 하단에 1조의 침선이 돌아가고 있다. 편평한 면에는 기포가 다수 확인된다. 성형과정에서 한쪽면을 편평하게 하기 위해 누른 후 각이 진 부분에 종방향으로 각기정면하였으며, 편평한 면에는 물손질 마무리하였다. 잔존높이 13.7cm, 底徑 5.7cm이며, 출토위치는 1이다.

圖面 19-4(圖版 12-1)는 대각이 파손된 臺部長頸壺이다. 陶質製로 燒成은 양호하며, 태토에는 석영, 장식, 운모가 혼입되어 있다. 색상은 내외면 회청색이며 속심은 자색이다. 頸部和 胴體部の 경계에는 1조의 침선이 돌아가며 동체부 상위에도 1조의 침선이 돌아가고 있다. 경부에는 콤파스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臺脚은 동체부와 접합된 부분만 일부 남아있어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으나 대각에는 10개의 투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내면은 목판문지르기와 박자흔이 남아 있으며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잔존높이 20.4cm, 胴最大徑 20.6cm이다.

圖面 20-1(圖版 11-2)은 圓筒形의 시루이다. 바닥면은 대부분 결실되었고 동체와 구연부도 1/5정도 결실되었다. 저화도의 燒成은 불량한 편이며,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석영, 장식, 운모 등의 세석립이 혼입되었다. 색조는 전체적 황갈색이며 부분적으로 암갈색도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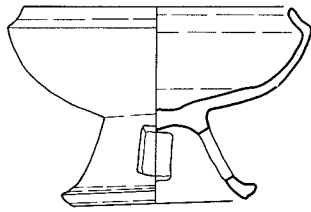
원통형인데 동체부 中位에 파수를 2개를 양쪽으로 부착하였다. 바닥면은 편평하며, 파손된 상태에서 증유공은 5개가 남겨져 있지만 중앙부에 하나가 더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파수단면은 원형이며 형태는 棒狀이다. 把手의 중앙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다. 바닥면은 각기정면하였으며, 내외면은 회전물손질정면하였다. 높이 27.4cm, 口徑 31.2cm, 底徑 27.3cm이며, 출토위치는 2이다.

圖面 20-2(圖版 11-3)는 수키와편으로 일부 결실되었다. 잔존상태로 볼 때 無短式 수키와로 판단된다. 태토에는 정선된 점토에 석영, 장식 등의 사립이 약간 혼입되어 있다. 기와의 측면에 瓦刀分割痕이 나타나며, 내면의 布木痕은 박리가 심하다. 잔존길이 17.7cm, 잔존너비 13.6cm, 두께 1.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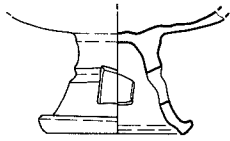
圖面 20-3(圖版 11-1)은 사암질의 솥돌이다. 3면을 마연에 활용하였다. 길이 12.7cm, 너비 5.0cm, 두께 7.3cm이다.

圖面 20-4(圖版 10-14)는 無文土器 底部이다. 내외면 황갈색이며, 燒成狀態는 양호하다. 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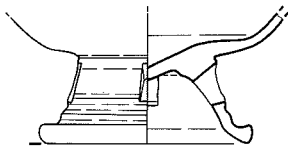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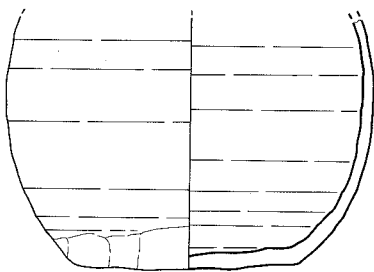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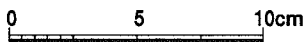
2



3



4



圖面 21. 3號 豎穴遺構 出土遺物<1/3>

에 석영, 장식 등의 세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내외면 모두 표면바리가 심하며, 低部와 胴體部 접합부분에 지두 혼이 남아 있다. 잔존높이 3.5cm, 底徑 9.2cm이다.

## 7) 3號 豎穴遺構

### 가. 遺構(圖面 17, 圖版 8-3,9-5)

2호 豎穴遺構와 접해 있으며, 1호 구를 일부 파괴하면서 설치되었다. 수혈은 바다쪽으로 완만하게 굴착하였는데 벽면과 바닥의 接邊部分도 꺾임이 없이 이어졌다.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한 편이다. 내부퇴적토는 암황갈색토로 I, II층으로 세분된다. 遺構의 상부에서 평면 원형의 노지가 확인되었고, 그 아래 작은 할석들이 모여 원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노지의 기능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성시기는 2호 수혈유구와 거의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유물은 臺附盥, 壺片 등이 출토되었다.

### 나. 遺物

圖面 21-1(圖版 12-3)은 臺附盥이다. 배신의 1/3정도가 결실되었다. 燒成은 양호하며, 태토는 정선된 점토로 석영, 장석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회청색이며 대각부분은 옅은 회청색이다. 대각에는 장방형의 투창이 2개 있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정면하였다. 높이 7.6cm, 口徑 10.1cm, 底徑 6.5cm이며, 출토위치는 1이다.

圖面 21-2, 3(圖版 12-4, 5)은 臺脚片이다. 2(圖版 12-4)는 대각 일부와 杯身部 대부분이 결실되어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으나 잔존형태로 보아 臺附盥의 臺脚으로 추정된다. 燒成은 양호하며, 태토에는 정선된 점토에 장식, 석영, 운모가 소량 혼입되어 있다. 전체 회흑색이며

일부 회색도 보인다. 대각에 방형의 투창이 2개 있다. 잔존높이 5.0cm, 底徑 5.1cm이며, 출토위치는 4이다. 3(圖版 12-5)은 燒成 양호한 편이며,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되어 있는 점토이다. 전체

적으로 회청색을 띠고 있다. 臺脚에는 장방형의 1단 투창 4개가 있다. 잔존높이 5.0cm, 추정底徑 7.7cm이며, 출토위치는 3이다.

圖面 21-4(圖版 12-2)는 동체부 일부와 구연부가 결실된 壺이다. 燒成은 불량한 편으로 태토에는 석영, 장석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색상은 전체 회청색이다. 동체부의 하단에는 종방향으로 각기정면 하였으며, 底部바닥에는 지두흔이 남아 있다. 잔존높이 9.6cm, 底徑 8.4cm이며, 출토위치는 2이다.

#### 4. 채집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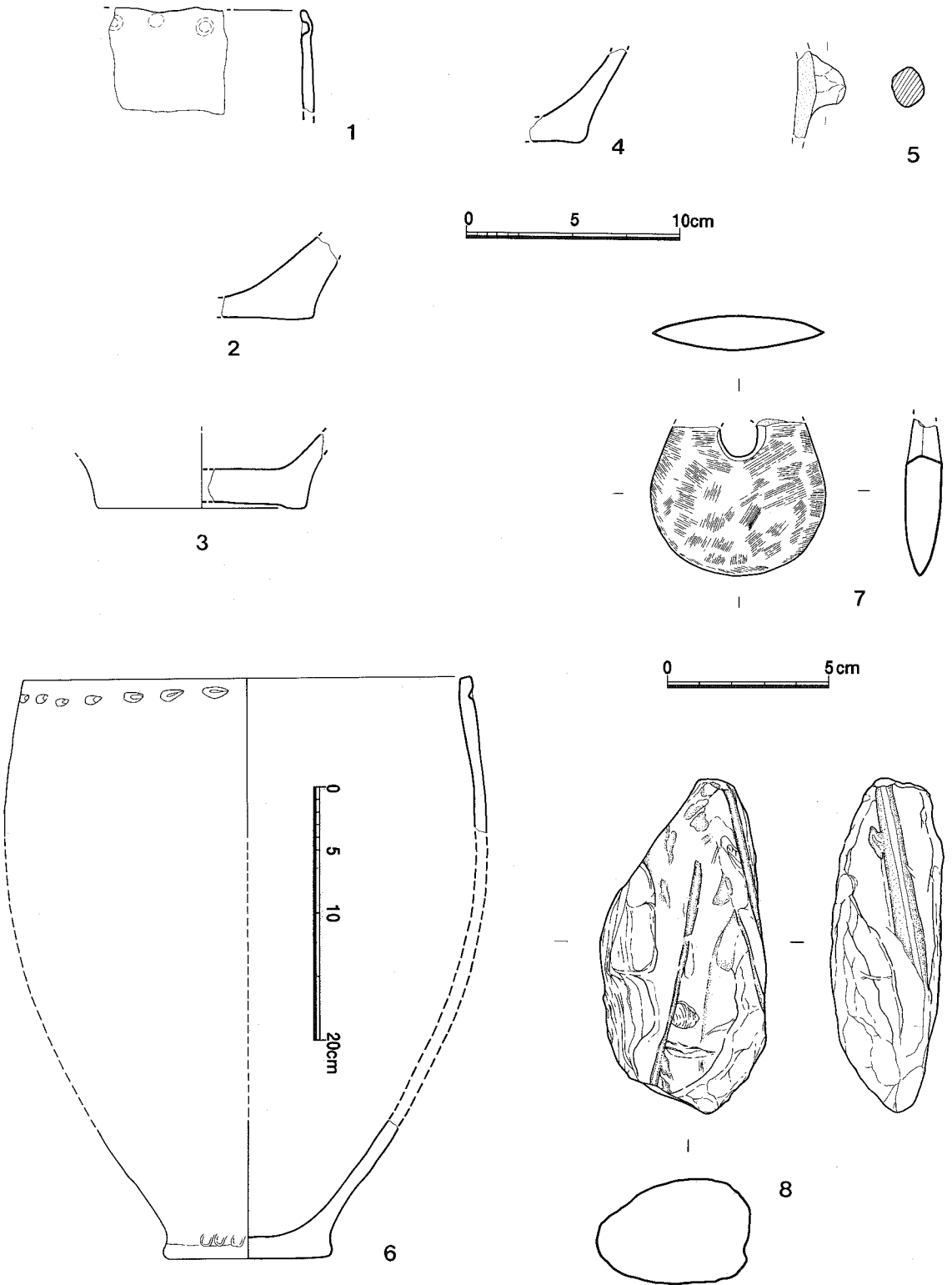
圖面 22-1(圖版 12-6)은 孔列土器의 口緣部片이다. 燒成상태는 보통이며, 태토에 석영과 세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박리로 인해 정면기법은 관찰되지 않으며 내외면 황갈색이다. 구연부 아래쪽에 안→밖으로 반관통된 공열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구멍간 간격은 1.5cm내외이다. 잔존높이 4.7cm이며, 채집지역은 C지구이다.

圖面 22-2~4(圖版 12-8~10)는 無文土器 底部이다. 2(圖版 12-8)는 燒成이 양호하며, 태토에 장식, 석영 등의 세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내면에 종방향의 목리흔과 외면은 목리후, 횡방향으로 물손질을 정면했다. 잔존높이 3.8cm이며, 채집지역은 D지구이다. 3(圖版 12-9)은 1/3정도 잔존하고 있는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燒成상태는 양호하며 내외면 적갈색이다. 태토는 석영, 장식 등이 혼입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높이 3.4cm이며, 채집지역은 C지구이다. 4(圖版 12-10)는 대부분이 결실되고 일부만 남아 있다. 燒成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내외면 암적갈색이며 표면박리가 심하다. 외면에 물손질정면흔이 일부 잔존하고 있다. 잔존높이 4.4cm이며, 채집지역은 C지구이다.

圖面 22-5(圖版 12-7)는 無文土器의 꼭지형 把手片이다. 燒成은 보통이며, 태토에 석영, 장식 등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표면은 박리되었으며 내외면 암적갈색이다. 파수의 단면은 타원형이다. 잔존길이 3.8cm이며, 채집지역은 C지구이다.

圖面 22-6(圖版 12-11)은 심발형토기이다. 底部 및 口緣部로 이용하여 도면복원하였다. 내외면 명적갈색을 띠고 있으며 태토에는 석영, 장식 등의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표면의 박리가 심해 정면기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구연단의 0.5~1.0cm 아래에 조형횡선열문 1줄이 돌려져 있으며 문양은 날카로운 목리로 시문한 듯하며 등간격으로 시문되어 있다. 구연부 일부에 흑반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명적갈색을 띠고 있다. 복원높이 46.0cm, 底徑 13.2cm이며, 채집지역은 D지구이다.

圖面 22-7(圖版 12-12)은 磨製石劍의 劍把部分인 것으로 추정된다. 泥岩혼펠스製의 혀모양 석기로 전면을 마연하였으며, 바깥쪽으로 날이 선 상태이다. 구멍은 양쪽에서 뚫었다. 잔존길이



圖面 22. 採集遺物<1~5 : 1/3, 7, 8 : 1/2, 6 : 1/5>

5.1cm, 두께 1.1cm, 구멍지름 1.1cm이며, 채집지역은 D지구이다.

圖面 22-8(圖版 12-13)은 세립 사암질의 숫돌이다. 숫돌의 한쪽면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는데 폭 0.8cm내외의 홈이 생겨있다. 길이 10.2cm, 너비 5.2cm, 두께 3.5cm이며, 채집지역은 C지구이다.

#### IV. 맺음말

이상으로 月山里II遺蹟에서 조사된 현상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본유적에서 조사된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하기로 한다.

월산리유적에서는 靑銅器時代의 生活遺構와 三國時代 後期의 생활유구가 조사되었다. 과수원으로 경작되면서 구릉의 상부가 일부 삭평되고 최근의 건축물로 인해 상당부분이 이미 훼손된 상태여서 조사된 내용은 유적의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먼저 靑銅器時代의 遺構는 구릉의 정상부에 대형 주거지 1동과 사면부에 소형 유구들이 간헐적으로 분포하였다. 대형주거지는 구릉의 정상부에 만들어졌는데 6柱式으로 경사면의 낮은 쪽 모서리에서 시작하는 외곽구가 갖추어진 형태이다. 그 외 2동의 소형 주거지가 사면에 입지하였다. 출토유물과 채집유물중에 孔列土器와 二重口緣의 기미의 토기편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동기시대 전기로 보아도 좋다고 생각된다.

그 외 수혈유구와 구상유구, 그리고 掘立柱 建物, 용도불명의 柱穴들이 조사되었다. 유구내에서 출토되는 토기류로 보아 대개 6세기대의 것으로 보인다. 수혈유구는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용도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다만 유구내에서 확인되는 토기유물들이 대개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루를 포함하고 있어 일상생활과 관련된 유구일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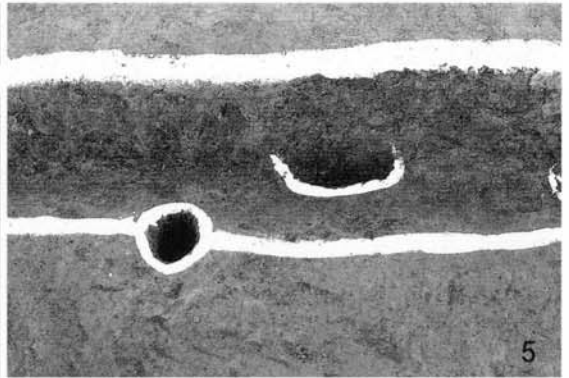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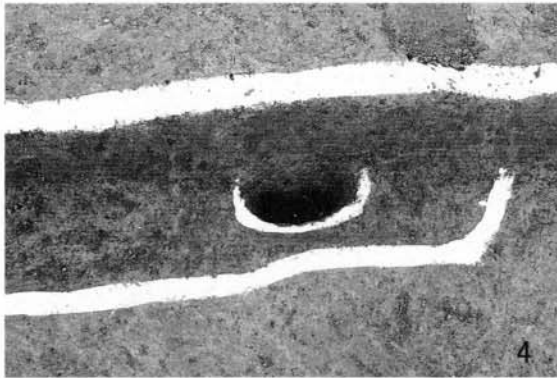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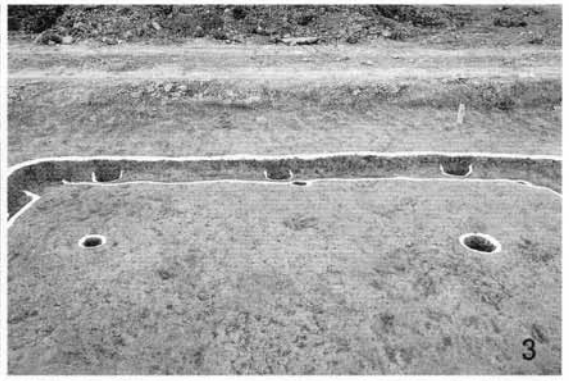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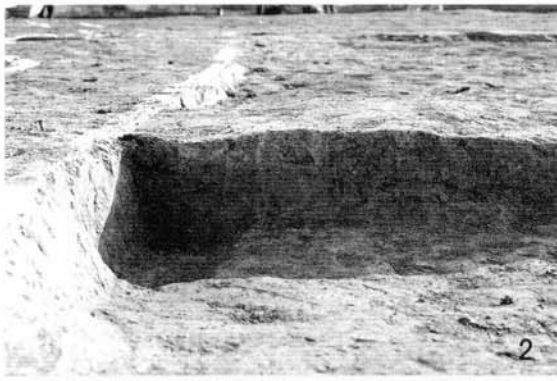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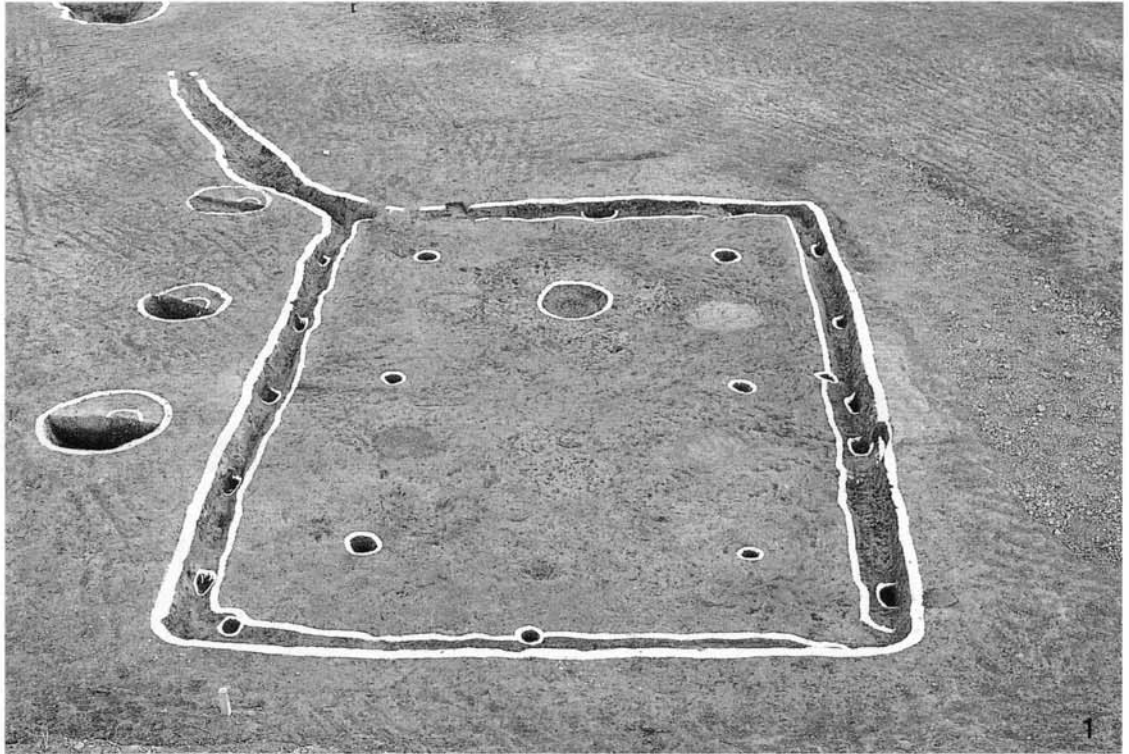
그리고 溝狀遺構는 담장의 기초구조물의 가능성이 높는데 확실하지는 않다. 구의 바닥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소규모의 주혈이 배치되어 있었다. 아울러 주변에서 확인되는 주혈들도 동시기의 구조물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1호주거지와 중복된 채로 조사된 굴립주 건물은 주혈 내부에서 陶質土器가 출토되어 그 시기는 수혈유구 및 구상유구와 거의 동시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굴립주 건물과 溝狀遺構, 그리고 竪穴遺構들을 본다면 이 지역은 慶州로 들어가는 입구부에 위치한 특수시설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추후 주변지역의 조사를 통해 보완해 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 圖 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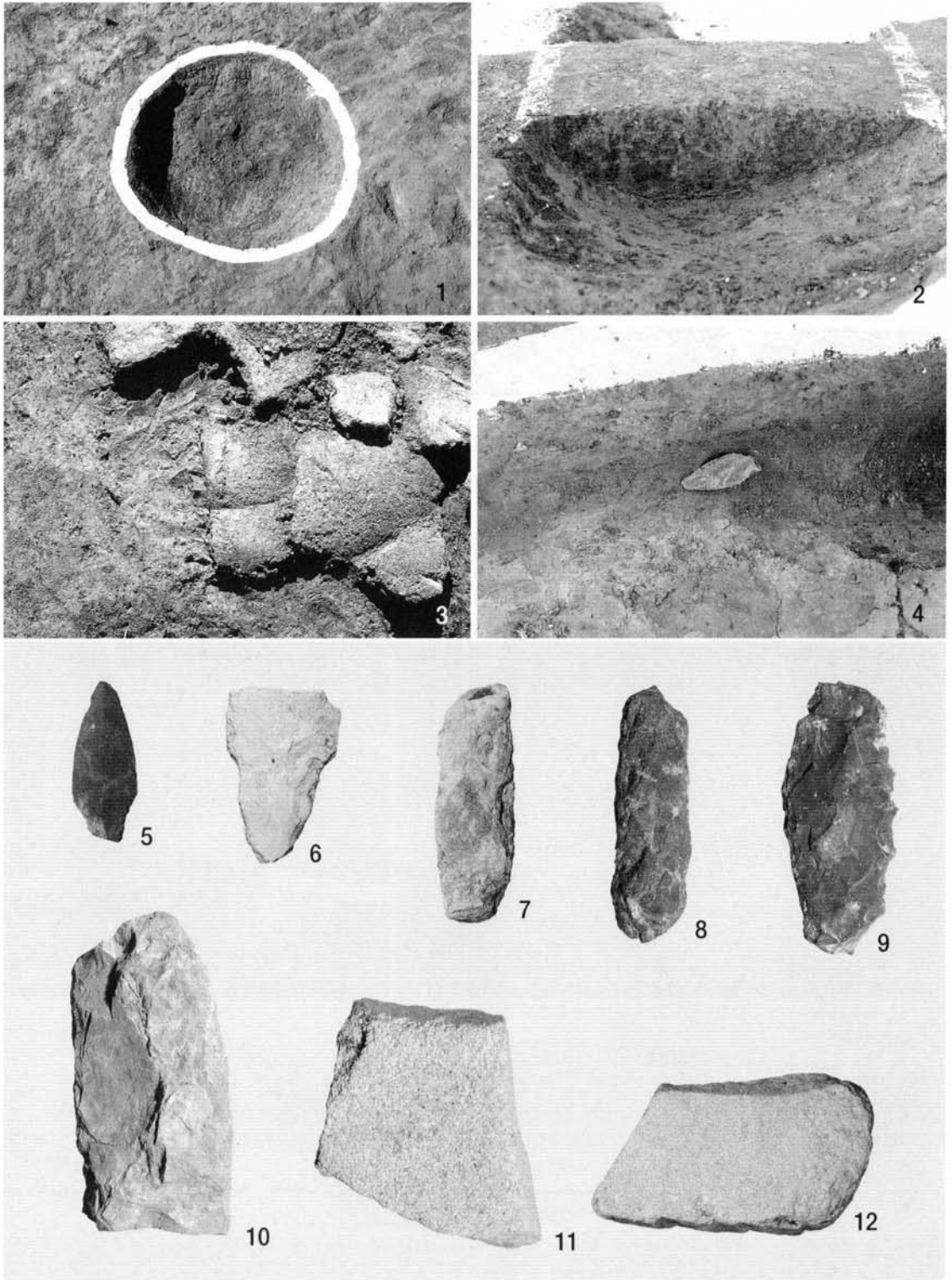


圖版 1. 遺蹟 遠景(1)과 遺蹟 全景(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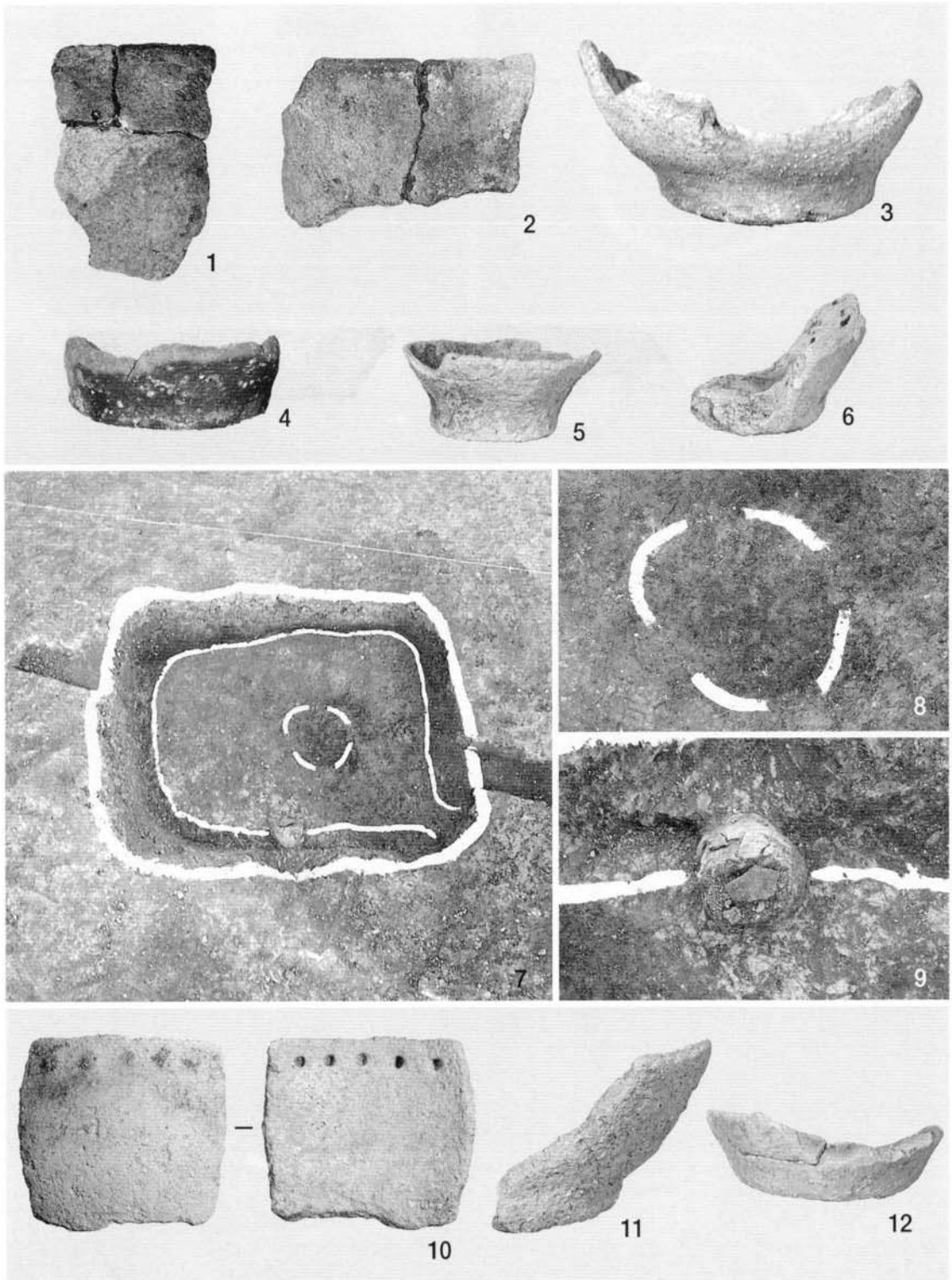
圖版 2. 1號 住居址 全景(1) 및 壁溝와 土層(2,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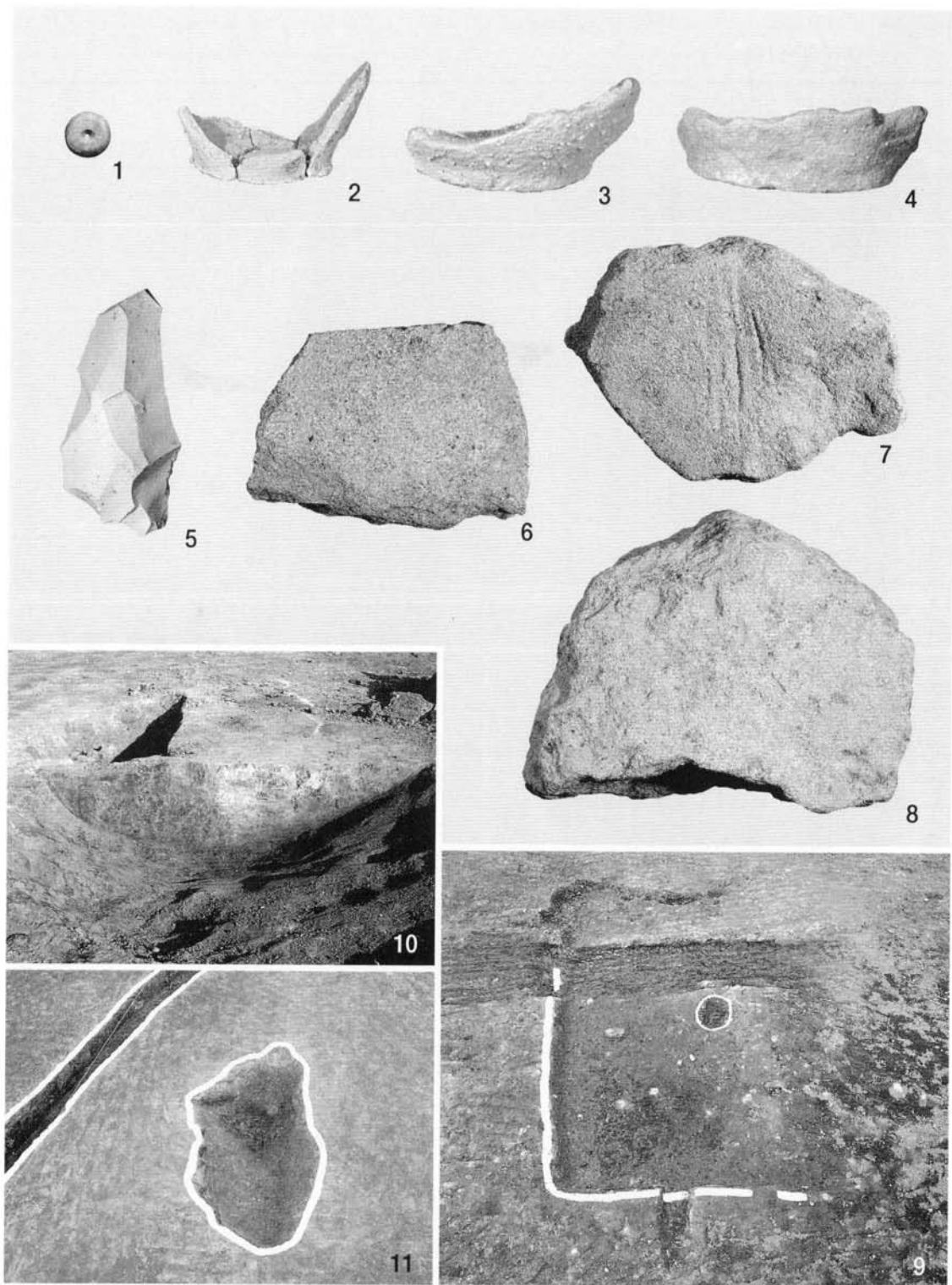


圖版 3. 1號 住居址의 爐址(1), 外部溝內 土層(2), 遺物出土狀態(3, 4) 및 出土遺物(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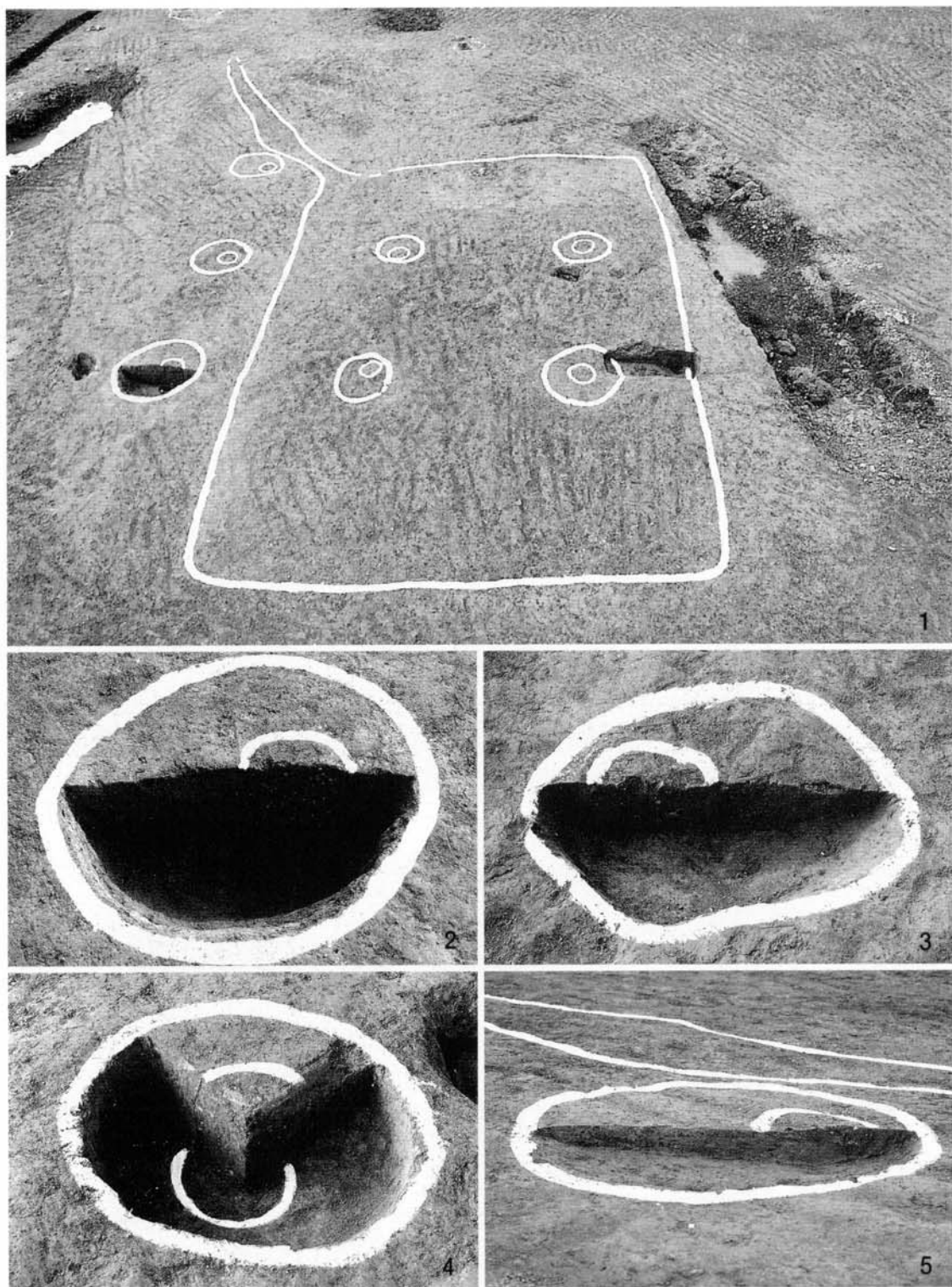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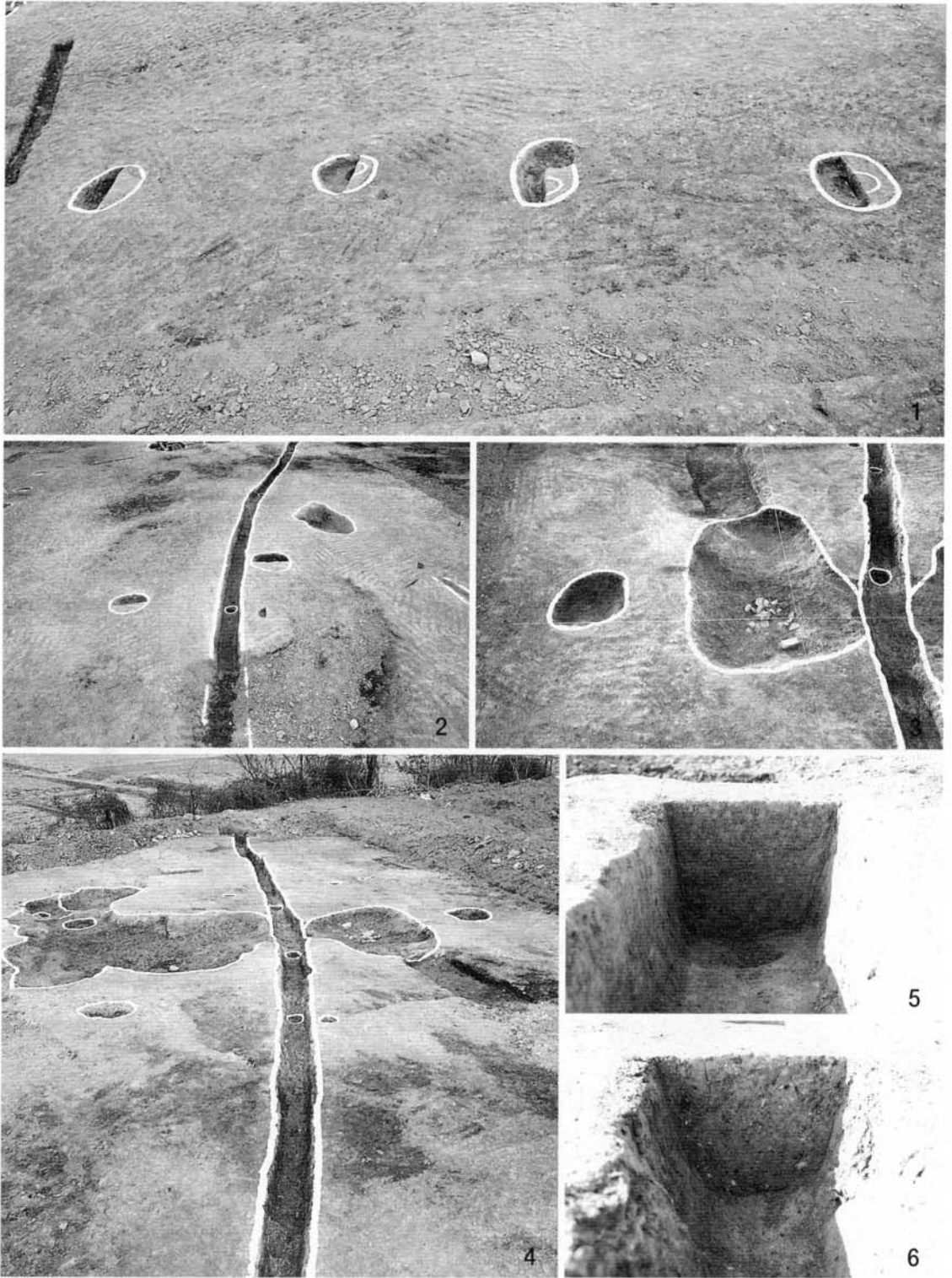
圖版 4. 1號 住居址 出土遺物(1~6), 2號 住居址(7~9)와 出土遺物(10~12)



圖版 5. 2號 住居址 出土遺物(1~8), 3號 住居址 全景(9), 1號 豎穴遺構(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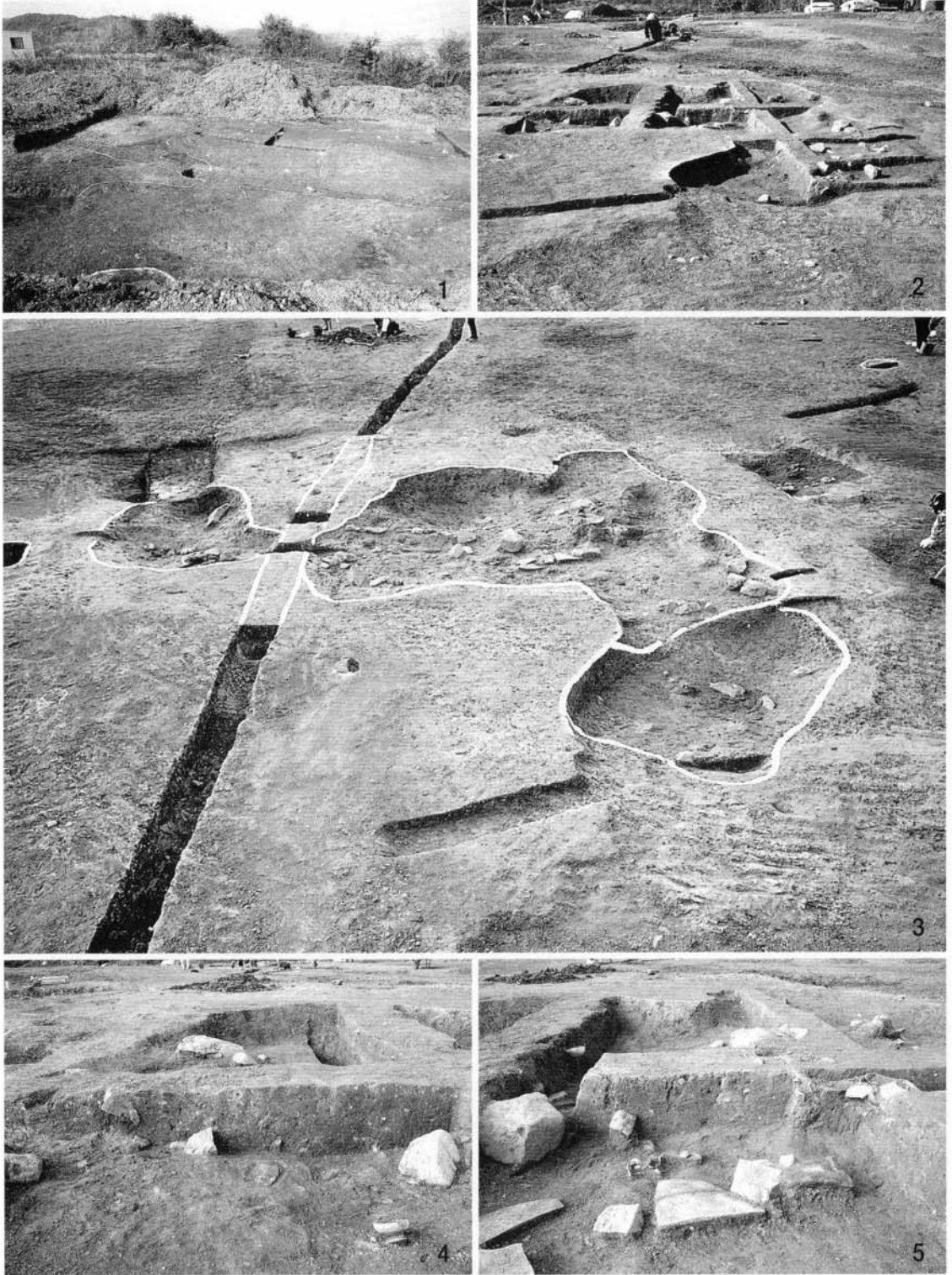


圖版 6. 1號 掘立柱 建物 全景(1) 吳 柱穴 斷面(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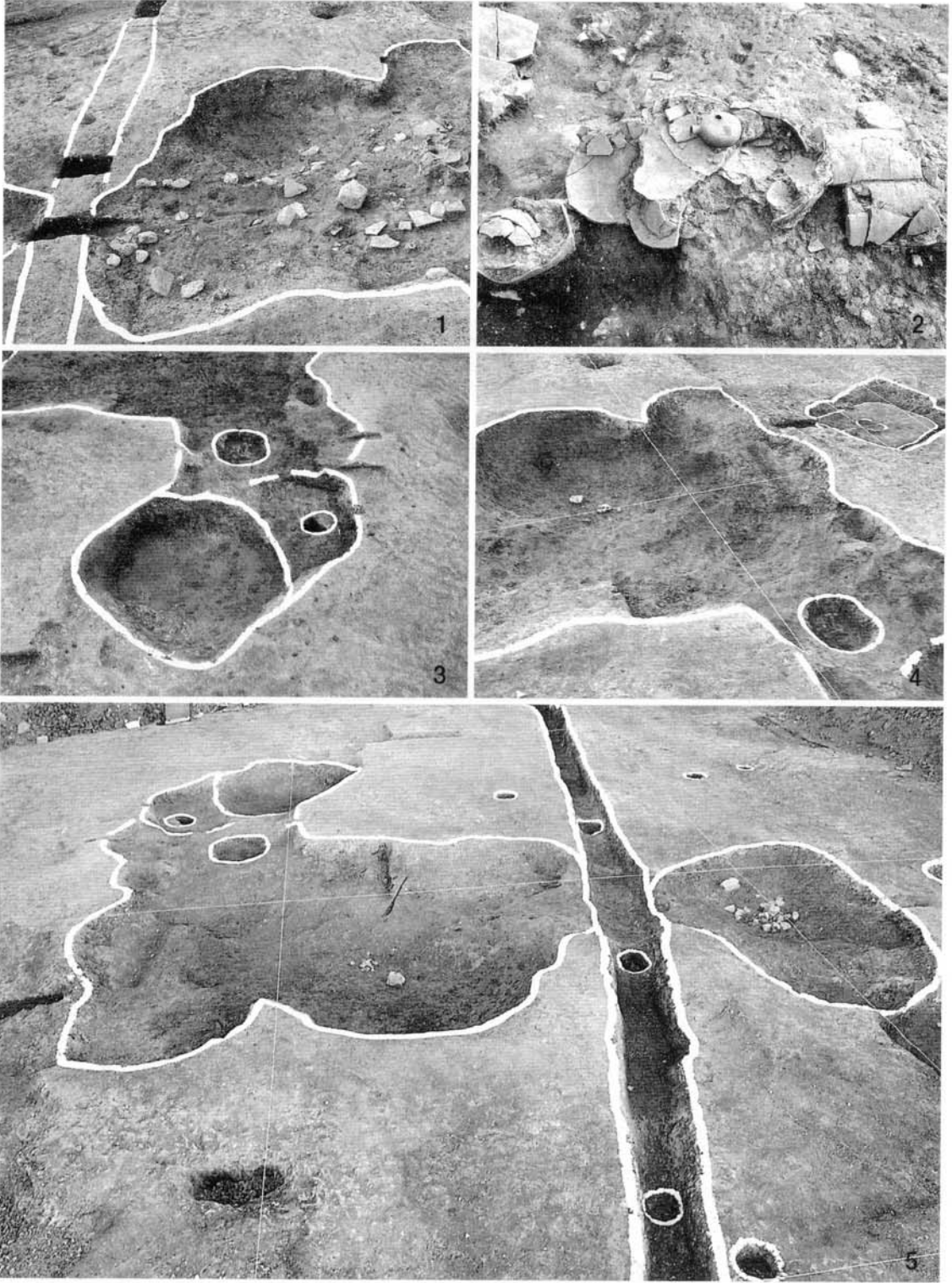


圖版 7. P1~P4 全景(1), P5~P6(3, 4), P7~P8(2) 및 1號溝 全景 및 土層(2,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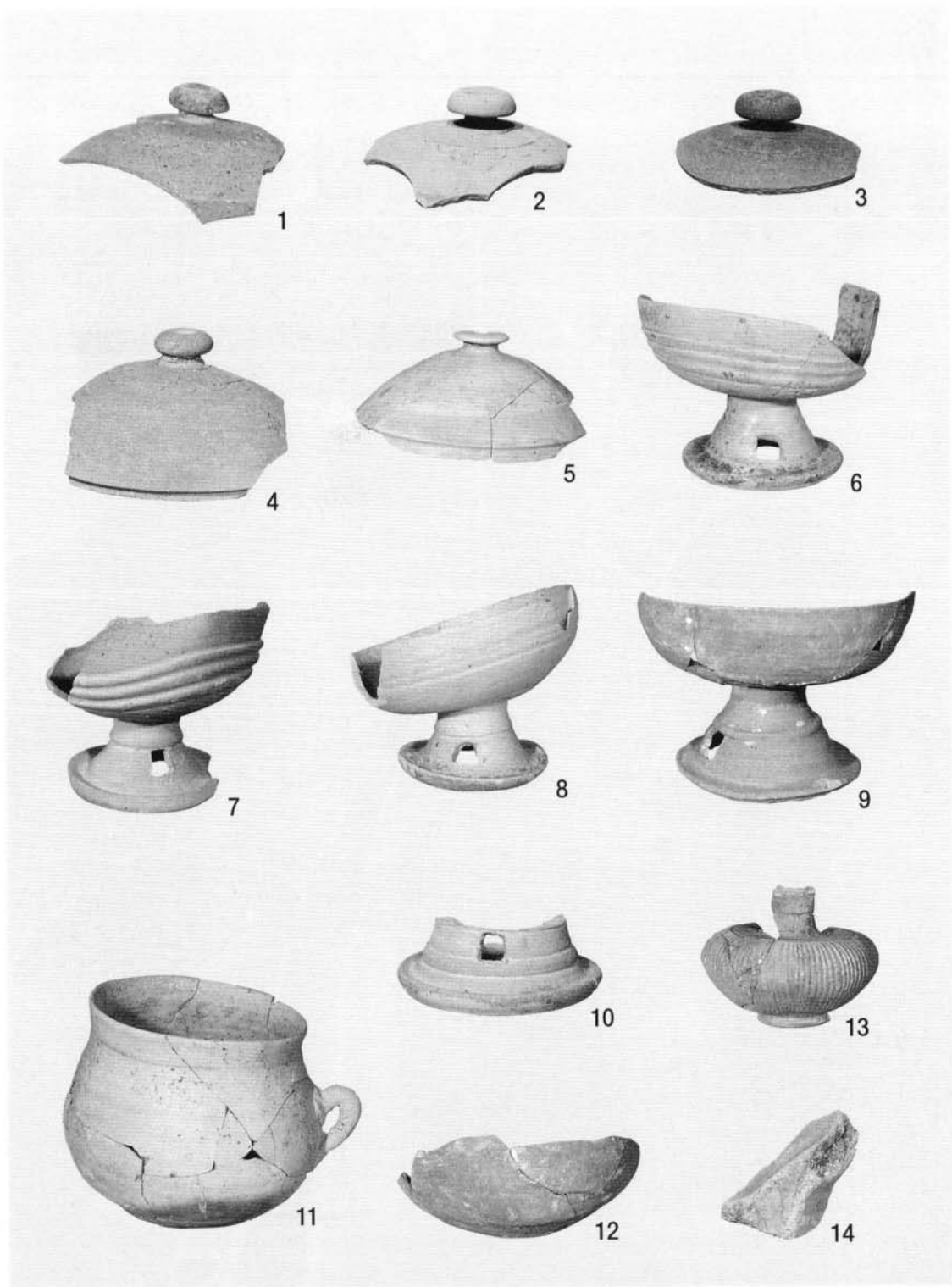




圖版 8. 2號, 3號 豎穴遺構 調查前 狀態(1, 2), 全景(3) 及 南-北 土層(4, 5)



圖版 9. 2號 豎穴遺構 遺物出土狀態(1, 2) 2號 豎穴遺構 2차 조사 후 상태(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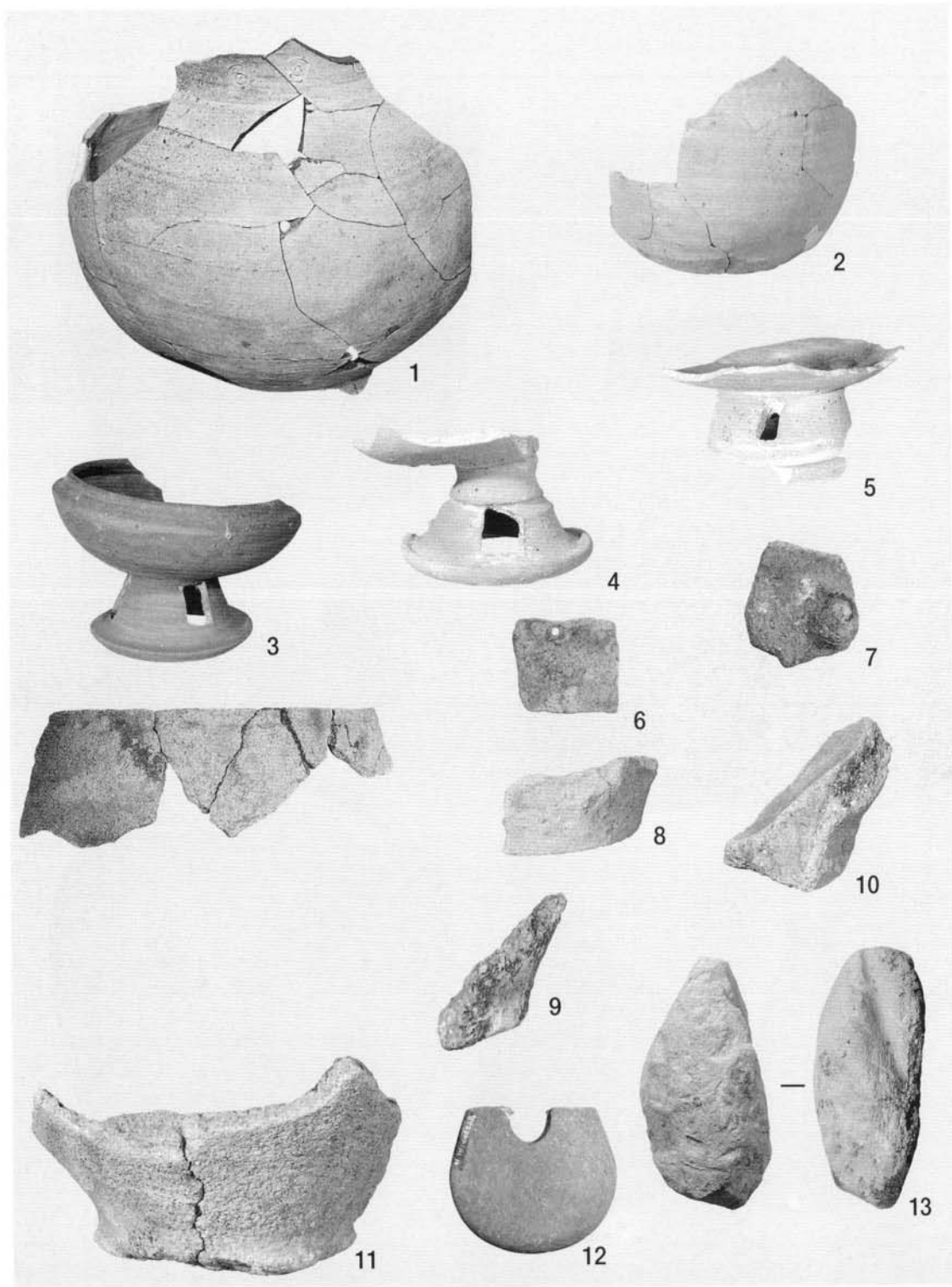


圖版 10. 2號 豎穴遺構 出土遺物(1~14)



圖版 11. 2號 豎穴遺構 出土遺物(1~6)





圖版 12. 2號(1) 3號(2~5) 豎穴遺構 出土遺物 及 地表採集 遺物(6~13)



圖版 13. C地區 全景(1) 및 土層(2), B地區 土層(3), A地區 周邊의 推定 支石墓(4)

## 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경주 월산리Ⅱ유적		發行日	2002. 10. 30.
發行機關	명칭	蔚山大學校 博物館		
	주소	(680-749) 蔚山廣域市 南區 無去洞 山29		
	전화	(052)259~2634	팩스	(052) 259~2632
執筆, 編輯者	양상현, 김영민, 김현철,			
調査緣由	공장부지 조성에 따른 구제발굴			
發掘 調査者	김영민, 김현철, 김지수			
發掘 期間	1999. 11. 1 ~ 1999. 11. 23			
遺蹟 所在地	경북 경주시 내남면 월산리 866-1번지 일대			
調査 面積	11,065평			
遺構	時代 및 時期	類型 및 基數	重要 遺物	
住居址	靑銅器時代	3동	무문토기, 석축, 석기류	
掘立柱建物	三國時代	1基		
豎穴遺構	三國時代	2基	토기류	
溝	三國時代	1基		
합 계		7基		

蔚山大學校博物館 學術研究叢書 第11輯

---

## 蔚山大安里遺蹟

2002년 10월 20일 印刷

2002년 10월 30일 發行

編輯・發行：蔚山大學校 博物館  
蔚山市 南區 無去洞 山29番地  
電話 (052)259-2634, 5  
FAX (052)259-2632

印刷：마이 다스21 (051)803-2806

---